

MAY 2022 / No. 320

# Esquire

0.5 >  
9 771228 008000  
ISSN 1228-0089 ISSUE NO. 320  
PRICE : 7,000 KRW



COVER STORY  
SUHO

**SPECIAL REPORT** 워치스앤원더스 제네바 2022 베스트 브랜드 13

**FEATURE SPECIAL** 남다른 여가 생활을 즐기는 12인의 취미 자랑 **TRAVEL** 사유와 명상을 위해 지어진 사유원 **SPORTS** 5개 도시 11명 러너의 추천 러닝 코스  
**REPORT**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목격한 것들 **CLASSIC NEW WAVE** 피아니스트 박재홍,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첼리스트 한재민. 청년 연주자 3인의 삶과 음악



RALPH LAUREN'S  
POLO SHIRT



RIZZOLI  
NEW YORK

It was never about a shirt,  
but a way of living

*Ralph Lauren*





POLO  
RALPH LAUREN

POLO

Polo  
by Ralph Lauren

PECT WILDLIFE  
JB

Polo  
by Ralph Lauren

RALPH LAUREN



RALPH LAUREN'S  
**POLO SHIRT**



*RIZZOLI*  
NEW YORK

## The Story of an Icon

THE DEFINITIVE VOLUME ON  
RALPH LAUREN'S TIMELESS POLO SHIRT





**POLO**

RALPH LAUREN

GENTLEMEN RESPECT WOMEN

POLO  
RALPH LAUREN

R  
L

STATIONS









**JUSTE UN CLOU**

*Cartier*







the saddler's spirit











**LOUIS VUITTON**

FINE JEWELRY



# CONTENTS

## THE CODE

### ON THE COVER

fashion editor KO DONGHUI features editor PARK SEHOI  
photographer YOON JIYONG



사진 속 가방 모두 몽블랑.

296

### 021

**BE WHITE**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의 시간.

### 022

**STRIKE ME PINK** 핑크를 대하는 새로운 자세.

### 024

**EXTRAVAGANZA** 이 계절을 누구보다 화려하게 즐기는 방법.  
**ON YOUR HEAD** 런웨이에서 만난, 지금 당장 쓰고 싶은 모자 5.

### 026

**DEEP TRAVEL** 로르 프루보와 떠나는 심층 여행.  
**GET IN LINE** 구찌의 미식을 즐기고 싶다면, 줄을 서야죠.

### 028

**ROUND TWO** 다시 시작된 리만머핀의 이태원 시대.

### 030

**MORE COPIES, PLEASE!** 중쇄를 거듭해 더욱더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에스콰이어> 에디터들이 골랐다.  
**BLANC DE BLANC** 블랑의 명가가 내놓은 럭셔리 끝.

### 032

**ARRIVAL** 짹 짹 채워 건넌 음악의 함선.  
**LONG LIVE THE PLANT** 알아서 키워주는 화분.

### 034

**BAG AGAIN** 다시 돌아온 캔버스 백의 계절.  
**SLIDE RIDE** 각양각색 슬라이드 5.

### 035

**SIX SCENTS** 봄과 여름 사이에서 고른 6개의 향수.



photographer SERGE LEBLON





# FREDERIQUE CONSTANT GENEVE



LIVE YOUR PASSION  
CLASSICS  
MOONPHASE DATE  
[frederiqueconstant.com](http://frederiqueconstant.com)

**프레드릭 콘스탄트 5년 무상 공식서비스는 공인된 매장에서 구입한 홀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1899-7848**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02)3213-2256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22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146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287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1970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 031)8072-1870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8023-2176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755

롯데면세점 소공점 02)759-6771 월드타워점 02)3213-6862 코엑스점 02)3484-9641 부산점 051)810-3861 신라면세점 서울점 02)2230-1480 신라아이파크면세점 02)490-3681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02-6370-4075 부산점 051)775-3264 현대백화점면세점 02)2142-6170

 **한국심장재단 후원**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판매금의 일부를 한국심장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 CONTENTS

## FEATURE

036

### FEATURE SPECIAL

**이런 취미** 취미 이야기를 하면 꼭 되물음을 받는다는 사람들. 그들의 여가 생활을 정연한 언어로 들어왔다.

048

### MAN OF INSPIRATION

**박상영의 두 번째 시즌** 소설가 박상영을 설명할 때 꺼내 쓰던 여러 단어들이 이제는 필요 없어질지도 모른다.

052

### MAN OF INSPIRATION

**“나의 애정이 가닿기를”** 이태원에 새롭게 자리 잡은 번역가 박상미의 갤러리에서 서들에 대해 얘기했다.

054

### MAN OF INSPIRATION

**CLASSIC NEW WAVE** 지금 당도한 어리지만 강렬한 클래식의 새 물결.

060

### TRAVEL

**사유기** 경상북도 군위에는 ‘사유와 명상’을 위해 지어진 수목원이 있다고 했다.

078

### CAR OF THE MONTH

**ANOTHER LEVEL** 스페인 세비야에서 발견한 페라리 296 GTB의 매력 3가지.

082

### SPORTS

**내 도시의 러닝법** 5개 도시 11명의 러너가 보내온 내 도시의 러닝 추천 코스.

086

### SPORTS

**걷기의 과학** 운동생리학자의 눈으로 본 걷기의 과학에 대하여.

088

### EXPERIENCE

**본격 요트 탐구생활** 당신이 요트에 입문하기 전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

092

**MAN OF INSPIRATION**  
**INTO THE DEEP** 프리다이버 김정아는 숨 한 번에 수심 88m를 찍고 돌아왔다.

096

### REPORT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에스콰이어> 체코판 편집장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목격한 것들. 세계적 테니스 선수가 우크라이나 군대 안에서 느낀 것들.

108

**JOURNAL** ‘일제강점기라는 한국의 시대극’ ‘35세 박모 씨가 어촌에 정착하려 할 때 생기는 일’ ‘메타라는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ETC.

120

### COVER STORY

**I BELIEVE IN ME** 수호는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을 믿는다고 말했다.

134

**WOMEN WE LOVE**  
**나, 김지은, 욕심쟁이** 배우 김지은은 이제 두려운 게 없다고 했다. 그저 앞에 놓인 가능성들이 궁금할 뿐.

142

### MAN AT HIS BEST

**지금은 치 떨리는 惡漢**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했을 때 이준영은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150

### SPECIAL INTERVIEW

**아마도 우린** 류수정과 디랙이 함께 노래한 봄은 슬프고 아름답다.

060



photographer PARK HYUNSUNG



# GUCCI

timepieces



Introducing the new ultra-slim

GUCCI 25H

for information  
02.6007.8177

swiss made  
gucci.com



# CONTENTS

## STYLE

070

ITEM

**KIND OF GREEN** 봄기운을 가진 초록색 물건.

161

SPECIAL REPORT

**WATCHES & WONDERS 2022**

세계 최대의 시계 이벤트 워치스엔원더스가 다시 제네바에서 열렸다. <에스콰이어>가 직접 취재한 13개 시계 브랜드의 신제품을 여기에 모았다.

196

INTERVIEW

**VISION & INSIGHT**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아르노 카레즈에게 까르띠에 신제품에 대해 물었다.

206

LOOK

**UNBUTTONED** 셔츠를 활짝 풀어헤친 오후.

216

SHOES

**ODD** 생경할 만큼 개성적인, 비범할 정도로 특별한 뉴 스니커즈 6.

222

BRAND SPECIAL

**WE ARE WHO WE ARE** 플로셔츠를 입는 5월의 화창한 날.

232

STYLE TIPS

**LITTLE BUT BIG** 런웨이에서 찾은 비범하고도 색다르게 입는 12가지 방법.

236

CAP

**PUT IT ON** 기분과 취향에 따라 다르게 쓰는 캡 10.

240

HANDBOOK

**ALL ABOUT DENIM** 데님을 둘러싼 사소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모두 담았다.

256

FOCUS

**HIGHLIGHT** 펜디 2022 S/S의 아이코닉한 백 컬렉션.

263

BAG

**CROSS MY BODY** 가뿐하게 둘러메고 나간다.

266

WARDROBE

**THE SCENT OF DEW** 물기를 머금은 더운 공기가 옷깃을 적신다.

278

SCENE

**DOCTOR STRANGE** 텅 빈 병원, 서늘한 화이트 룩.

288

SUNGLASSES

**SHADE** 선글라스의 색과 면.

296

MOMENT

**ALONG THE BEACH** 온종일 해변을 거닐었다.

310

HAIR

**MIX & MATCH** 바버들만 알고 있는 완벽한 스타일링의 비밀. 매트 포마드로 베이스를 만들고, 오리지널 포마드로 마무리한다.

312

GROOMING

**NO MORE LOSS** 있을 때 잘하자.

314

TOOL

**RUB ME** 소재부터 형태, 효과까지 특색 넘치는 페이스 마사저.

**MR. SHARP** 깔끔한 눈썹 정리를 위한 필수 도구 5.

315

CARE

**SMART BRUSH** 꼼꼼하고 야무진 칫솔 9.

278



photographer YOON JIYONG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  
TIME WELL SPENT



Ballantine's®

• DRINK RESPONSIBLY.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19세 이상의 법적음주허용 소비자를 위한 콘텐츠입니다. 제품명: 발렌타인 싱글몰트 글렌버기 12년 | 제조국: 스코틀랜드 | 수입업소: ㈜ 페르노리카코리아



## FASHION

DIRECTOR

고동휘

ko.donghui@joins.com

EDITOR

윤웅희

yun.woonghee@joins.com

EDITOR

김유진

kim.yujin@joins.com

EDITOR

임일웅

lim.ilwoong@joins.com

ASSISTANT EDITOR

이하민

lee.hamin@joins.com

ASSISTANT

강슬기

turugixx@gmail.com

## DIGITAL ORIGINAL

DIRECTOR

임건

lim.keon@joins.com

EDITOR

이충섭

lee.chungsup@joins.com

EDITOR

오정훈

oh.junghoon@joins.com

EDITOR

장성실

jang.seongsil@joins.com

VIDEOGRAPHER

황채린

hwang.chaerin@joins.com

ASSISTANT

권혜진

haejin123431@gmail.com

## PHOTOGRAPHY

GODOT STUDIO

www.chungwooyoung.com

PHOTO DIRECTOR

정우영

godotst@naver.com

PHOTOGRAPHER

김현동

kahlo.kimm@gmail.com

## FEATURES

DIRECTOR

박세희

park.sehoi@joins.com

EDITOR

오성윤

oh.sungyoon@joins.com

EDITOR

김현유

kim.hyunyu@joins.com

EDITOR

박호준

park.hojun@joins.com

ASSISTANT

송채연

corkdus1@naver.com

## ART

CREATIVE DIRECTOR

이영란

lee.younglan@joins.com

PARAGRAPH

ART DIRECTOR

김대섭

2dn@paragraph.co.kr

DESIGNER

주정화

joo@paragraph.co.kr

DESIGNER

김동희

dong2682@naver.com

DESIGNER

최지훈

183mnm@gmail.com

## ETC.

PROOFREADER

박소영 심영미 김혜란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

TIME WELL SPENT



Ballantine's®

• DRINK RESPONSIBLY.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19세 이상의 법적음주허용 소비자를 위한 콘텐츠입니다. 제품명: 발렌타인 17년, 발렌타인 21년, 발렌타인 싱글몰트 글렌버기 15년 | 제조국: 스코틀랜드 | 수입업소: (주) 페르노리카코리아



## BUSINESS TEAM (AD)

LEADER  
김재원 Jaewon Kim  
(kim.jw@joins.com)

문광호 이남석 이재성

## MARKETING & DIGITAL TEAM

LEADER  
박광수 Kwangsu Park  
(park.kwangsu@joins.com)  
전윤정 이형근 박가영 정아민 호수아  
김유정 이지현

## DEVELOPMENT PART

이관희

## CREATIVE™

### CREATIVE GENERAL MANAGER & VISUAL TEAM

LEADER  
이영란 Younglan Lee  
(lee.younglan@joins.com)

### CREATIVE TEAM

LEADER  
정세영 Seyoung Jeong  
(jeong.seyoung@joins.com)  
정혜미 유정수 안혜미 송유정 조윤서  
김영서 김소연 전소희 최서윤

## studi

### STUDIODOOT HQ

CHIEF DIRECTOR  
곽도훈 Dohoon Kwak  
(kwak.dohoon@joins.com)

### MAGNET BUSINESS DEPT

배경민 Kyoungmin Bae  
(bae.mina@joins.com)

### COMMERCE TEAM

박해미 김진솔 김솔이

### DISTRIBUTION PLANNING TEAM

우광채 Kwangchae Woo  
(woo.kwangchae@joins.com)  
손경희 김창훈 천영권 김정인 박주희

### STUDIODOOT TEAM1 민영

PART 1. 고현경

PART 2. 이경현

### STUDIODOOT TEAM2 장수영

### STUDIODOOT DESIGN TEAM 오주희

## SUPPORT DEPT.

### MANAGEMENT PLANNING TEAM

LEADER  
김승환  
안세원 김태호 김종태 김승주 조은혜

### PERSONNEL TEAM

LEADER  
박원영  
이세은 윤형식 이한나 김민수

### OPERATIONS SUPPORT TEAM

LEADER  
김태근  
송치훈 최종석 최정우 윤원식 이한비

### FINANCE TEAM

LEADER  
최종필  
김영중 최미리 김은비 황현순 위나경

## JTBC PLUS LUXURY & LIFESTYLE & HEARST JOONGANG CEO

강주연 Julia Juyeon Kang

## HEARST MAGAZINES INTERNATIONAL

Jonathan Wright, **President/Hearst Magazines International** Kim St. Clair Bodden, **SVP/Global Editorial & Brand Director** Chloe O'Brien, **Global Editorial & Brand Director, Young Women's Group, Wellness Group, Enthusiast Group, Lifestyle Group**

2022년 5월호 통권 320호 2022년 4월 20일 발행 1995년 4월 3일 등록 등록번호: 라-10078 발행처: 허스트중앙(유) HEARST\_JOONGANG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6 JTBC Plus 빌딩 9층 에스콰이어 편집부 전화: (02)3782-2789 팩시밀리: (02)517-2155 정기구독 전화: 1588-7761 특판 및 현매 전화: (02)3017-2524 광고 문의: (02)3783-2950 인쇄: 삼화인쇄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3 전화: (02)850-0847 인쇄인: 유성근 맥 출력 시스템: 트리콤 <에스콰이어> 한국판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가 없이 옮겨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  
TIME WELL SPENT



*Ballantine's*®

• DRINK RESPONSIBLY.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19세 이상의 법적음주허용 소비자를 위한 컨텐트입니다. 제품명: 발렌타인 17년 | 제조국: 스코틀랜드 | 수입업소: ㈜ 페르노리카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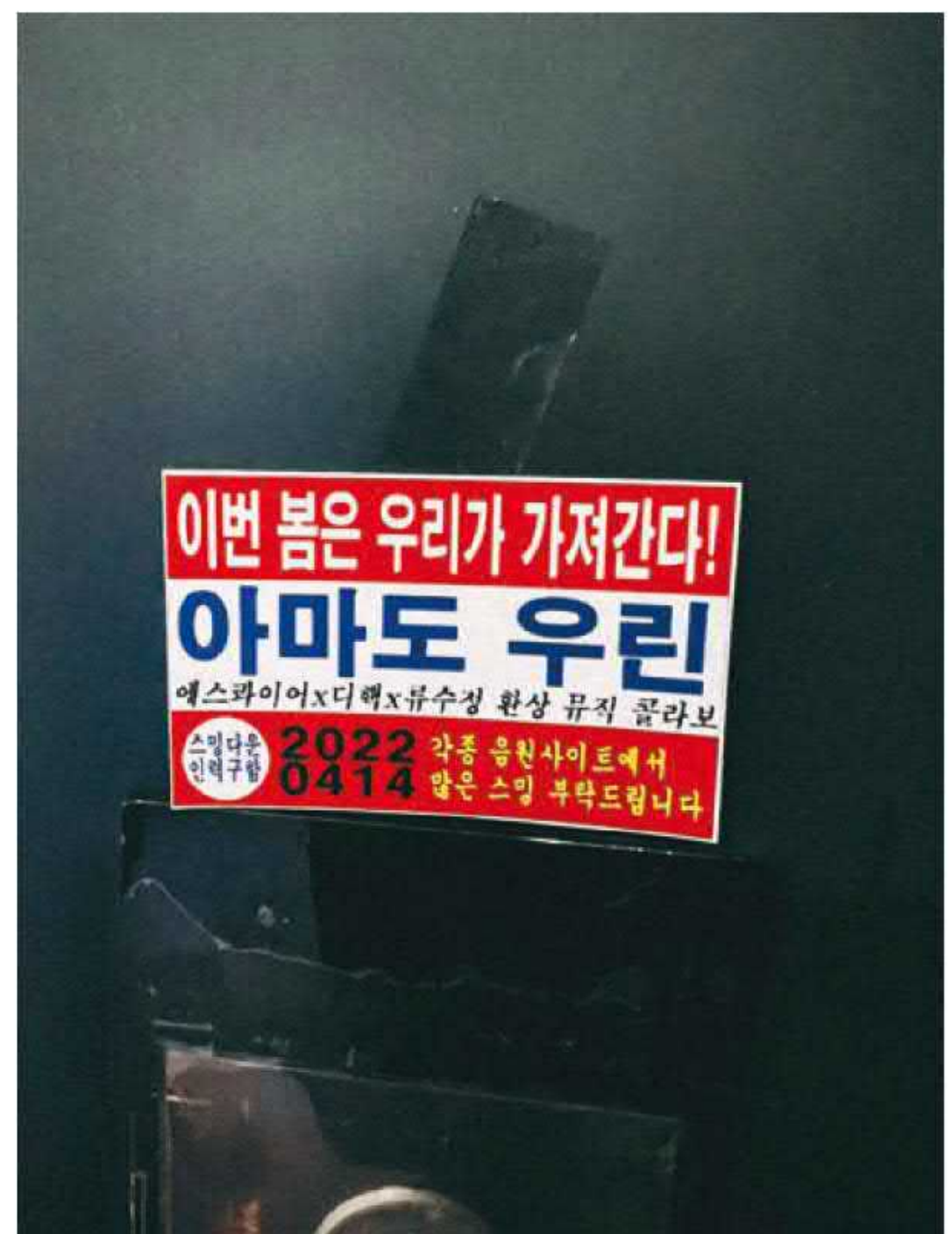


### 아마도 우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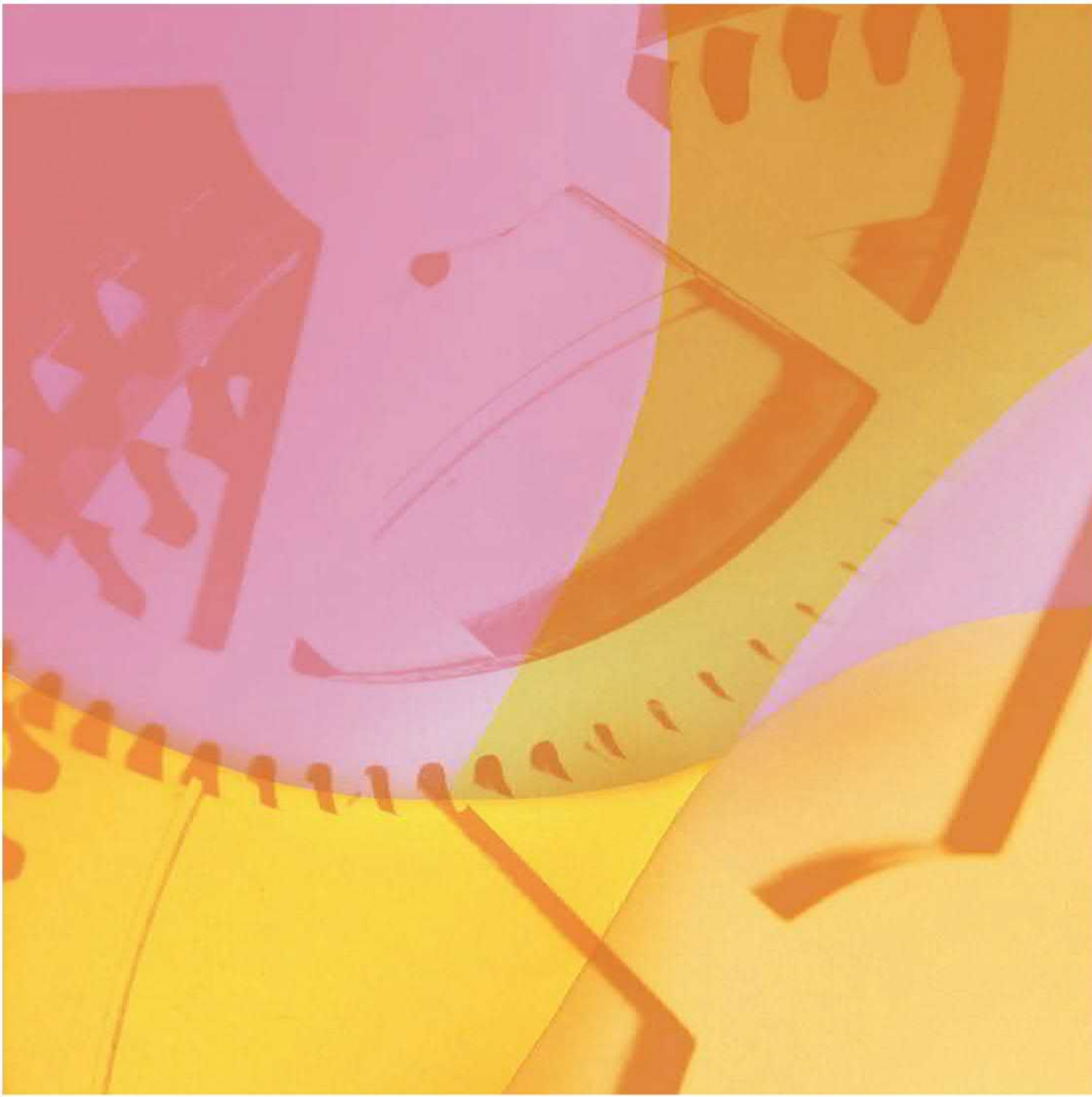
가능성에 대해 늘 생각합니다. 솔직히 생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고민에 가깝습니다. '이게 될까?' '안 해본 거라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되겠어?' 등등. 신중한 것이라고 변명도 해보고 나이가 들면서 시행착오를 피해가는 지혜가 생겨서 그렇다고 합리화했습니다. 몇 달 전 팀원들이 음원을 내고 앨범을 제작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고민이 앞섰습니다.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에 음원을 발매하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노래를 띄우는 일, 잡지를 만들고 콘텐츠를 발행하는 <에스콰이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호기였는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들고 온 팀원의 간절한 눈망을 때문인지 '그래 일단 해보자' 했습니다.

지난 4월 14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식 발매된 디랙(D-Hack)과 류수정의 신곡 '아마도 우린'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앨범 소개 마지막에 적힌 '기획사 Esquire Korea'를 확인하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안 해본 일인데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많은 스밍 부탁드립니다.

민병준  
EDITOR-IN-CHIEF







Anti-magnetic.  
5-day power reserve.  
10-year warranty.

The new ProPilot X  
is powered by  
Oris Calibre 400.

**#GoYourOwnWay**



**오리스 부틱**

그랜드하얏트 서울 02.790.6672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57

롯데백화점 소공동점 / 잠실점 / 영등포점 / 동  
탄점 / 수원점 / 평촌점 / 인천터미널점 / 대전  
점 / 부산본점 / 센텀시티점 / 울산점 / 창원점  
현대백화점 목동점 / 판교점 / 킨텍스점 / 충청  
점 / 대구점 / 울산동구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  
티점 **AK플라자** 수원점 **아울렛**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 김포점

공식수입원 미림시계(주)  
서비스센터 080.757.9866 [www.milimwatch.co.kr](http://www.milimwatch.co.kr)

**ORIS**  
HÖLSTEIN 1904





photographer YOON JI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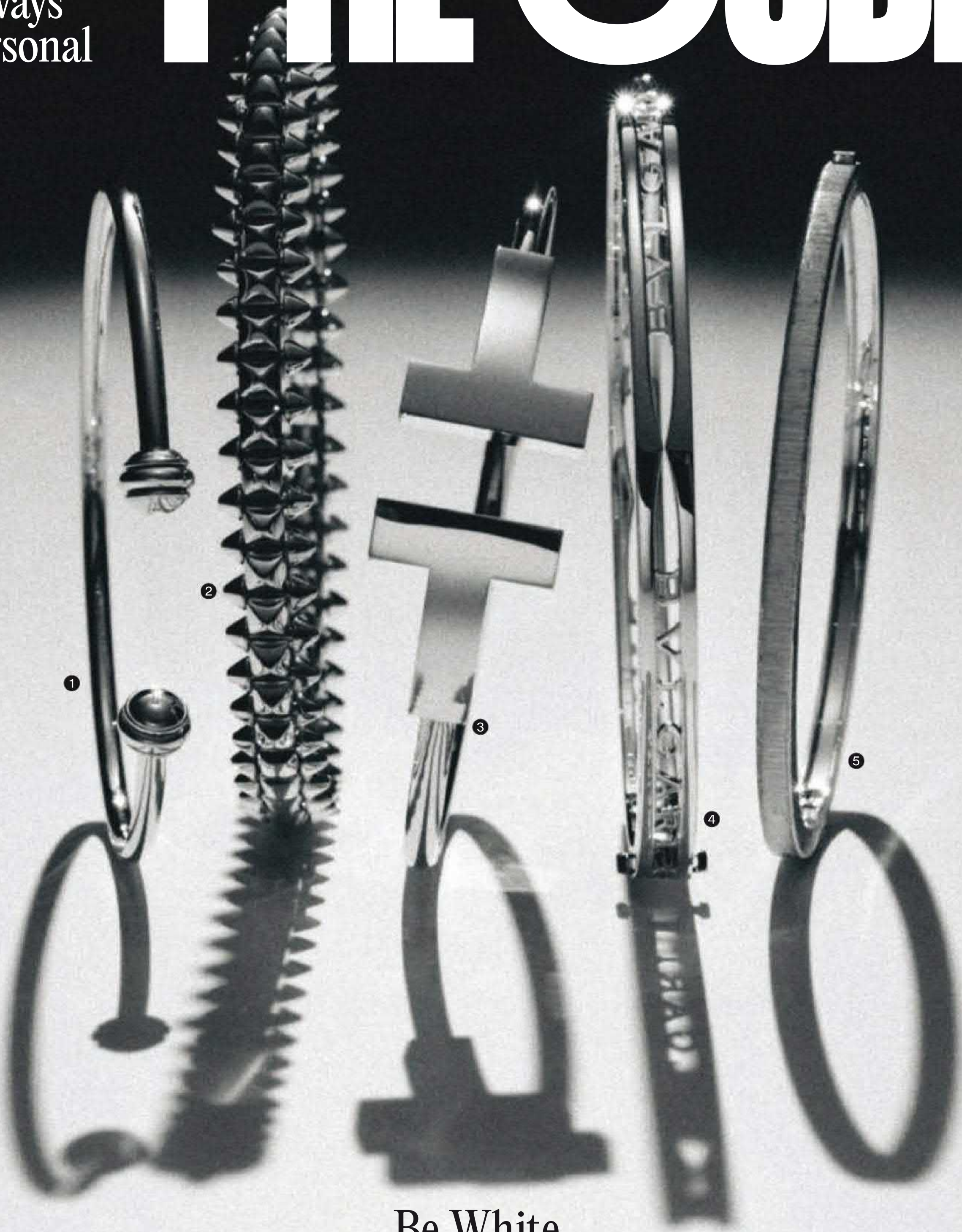


[WWW.ESQUIREKOREA.CO.KR](http://WWW.ESQUIREKOREA.CO.KR)



Because  
Style  
is  
Always  
Personal

# THE CODE



## Be White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의 시간.

editor KO DONGHUI photographer CHUNG WOORYOUNG

- (1) 회전하는 링 장식의 화이트 골드 포제션 오픈 밴글 브레이슬릿 300만원대 피아제. (2) 대담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화이트 골드 클래식 드 카르띠에 브레이슬릿 1240만원 카르띠에.  
(3) 아이코닉한 T 모티브의 화이트 골드 티파니 T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티파니. (4) 불가리 로고가 오픈워크 세공된 화이트 골드 비제로윈 브레이슬릿 600만원대 불가리.  
(5) 리가토 기법으로 미니멀함을 강조한 화이트 골드 마크리 클래식 브레이슬릿 500만원대 부첼라티.



## Strike Me Pink

핑크를 대하는 새로운 자세.  
editor KIM YUJIN



Vetements

Our Legacy



Dries Van Noten

Jil Sander



Comme des Garçons

Hermès



Dior Men



GmbH



Prada

핑크에 대한 진부한 사회적 관념은 흐릿해진 지 오래다. '남자는 핑크지'라는 허세 섞인 말도 촌스러운 농담이 됐고, 올해는 세련된 태도로 얼마든지 핑크를 입어도 좋다. 하우스 브랜드부터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모두 나서서 핑크색을 탐닉했으니까. 질 샌더와 디올 맨의 파스텔 핑크 슈트는 온화하면서도 청순하고 폼데가르송의 넉넉한 셔츠와 무릎길이의 핑크색 쇼츠 셋업은 어디 하나 느끼한 구석 없이 귀엽다. 푸시아 핑크를 입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드리스 반 노트처럼 같은 채도의 선명한 컬러와 맞춰도 잘 어울리고 GmbH, 베트멍과 같이 블랙, 그레이, 브라운 등 짙은 컬러와 함께 입는 것도 핑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 핑크 앞에서 주춤거리던 마음은 내려놓고 박력 있게 핑크를 입을 때다.



티쏘 쥘리엥 오토매틱  
스위스 메이드 파워매틱 80 무브먼트



T  TISSOT

#ThisIsYourTime

TISSOTWATCHES.COM



## Extravaganza

이 계절을 누구보다 화려하게 즐기는 방법.

editor  
YUN WOONGHEE  
photographer  
CHUNG WOORYOUNG

완연한 봄, 머지않아 마주할 여름. 화사한 컬러와 과감한 패턴에 용기를 내는 건 이 계절의 소소한 즐거움이다. 펜디와 베르사체가 손잡고 만든 셔츠에 눈길이 가는 건 필연적인 일이고. 핑크 펜디 모노그램에 얹은 베르사체 바로크 패턴. 두 브랜드의 클래식을 자유분방하게 섞은 이 셔츠는 쏟아지는 햇빛 아래서 더 강렬하게 반짝인다. 부드러운 실크의 감촉, 풍부한 광택, 적당한 두께의 원단과 경쾌한 소매 길이까지. 이렇게 잘 만든 실크 셔츠는 생각보다 흔치 않다. 펜디는 여기에 블랙 슈트를 매치했지만 물 빠진 청바지에도, 울 풀린 데님 쇼츠에도 잘 어울릴 터. 지금부터 여름이 다 갈 때까지 질리도록 입고 싶다.



펜다체 실크 셔츠 100만원대 펜디.

## On Your Head

런웨이에서 만난, 지금 당장 쓰고 싶은 모자 5. editor YUN WOONGHEE



↑  
스트로 해트 준야 와타나베.



↑  
니트 베레 아크네 스튜디오.



↑  
버킷 해트 프라다.



↑  
로고 볼 캡 구찌.



↑  
카우보이 해트 테베 마구구.



# Brioni



THE NEW EAU DE PARFUM ÉCLAT

#TailorYourLegend

수입판매원 : (주)씨이오인터내셔널 | [www.ceo.kr](http://www.ceo.kr) | 문의 : 080.363.5454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전시 중인 로르 프루보 개인전에는 총 4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그중 가장 큰 규모로 전시된 '아저씨의 여행사 가맹점, 심층 여행사'의 한 장면. 로르 프루보의 개인전 <심층 여행사>는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6월 5일까지 열린다.



지난 2013년 터너상을 수상한 프루보의 영상 작품 <윈티>는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제 할아버지는 쿠르트 슈비터스의 친구였죠. 저기 제 할아버지의 초상화가 보이네요.” 이 시점에서 관객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거나 어리둥절해하기 마련이다. 영상 속에서 그녀가 가리킨 초상화는 3세 아이가 크레파스로 20분 만에 그린 듯한 그림이었기 때문이다. 이어 프루보가 말한다. “우리 할아버지는 개념미술가이셨죠. 그의 아트는 터널을 파는 거였어요. 여기 이 집 밑에서 터널을 파서 아프리카까지 가려는 계획이었죠.” 20년 동안 개념미술을 위해 땅굴을 판 할아버지는 어느 날 사라졌다. 그러나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전시 중인 로르 프루보의 <심층 여행사> 전시 역시 곧이곧대로 믿어선 안 될 것이다. 그녀는 매혹의 거짓말쟁이니까. 그중 중심이 되는 작품 '아

## Deep Travel

로르 프루보와 떠나는 심층 여행.  
editor PARK SEHOI



저씨의 여행사 가맹점, 심층 여행사'를 보자. 일단 여행사로 들어가는 문부터 매혹적이다. 허리를 깊게 숙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토끼굴을 연상케 하는 높이 120cm, 폭 80cm의 작은 문을 통과해야 들어선다. 이국적인 포스터와 어딘지 눈에 익숙한 세계 여러 곳의 지도들, 마치 실재하는 여행사인 양 남겨둔 메모들, 시골 여행사에 있음직한 오래된 모니터와 감자로 만든 콘센트 그리고 로르 프루보가 아저씨를 위해 만들어줬다는 <여행 정보 광고>까지 모든 것이 사실적이다. 그런데 응? 감자로 만든 콘센트? 로르 프루보의 세계란 바로 그런 작은 귀여움에서 완성되는 것일지 모른다. 마치 꿈인 줄 알면서도 열심히 꿈을 즐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로르 프루보의 거짓 장단에 열심히 춤을 추겠다는 마음으로 전시장을 찾아보자.

## Get in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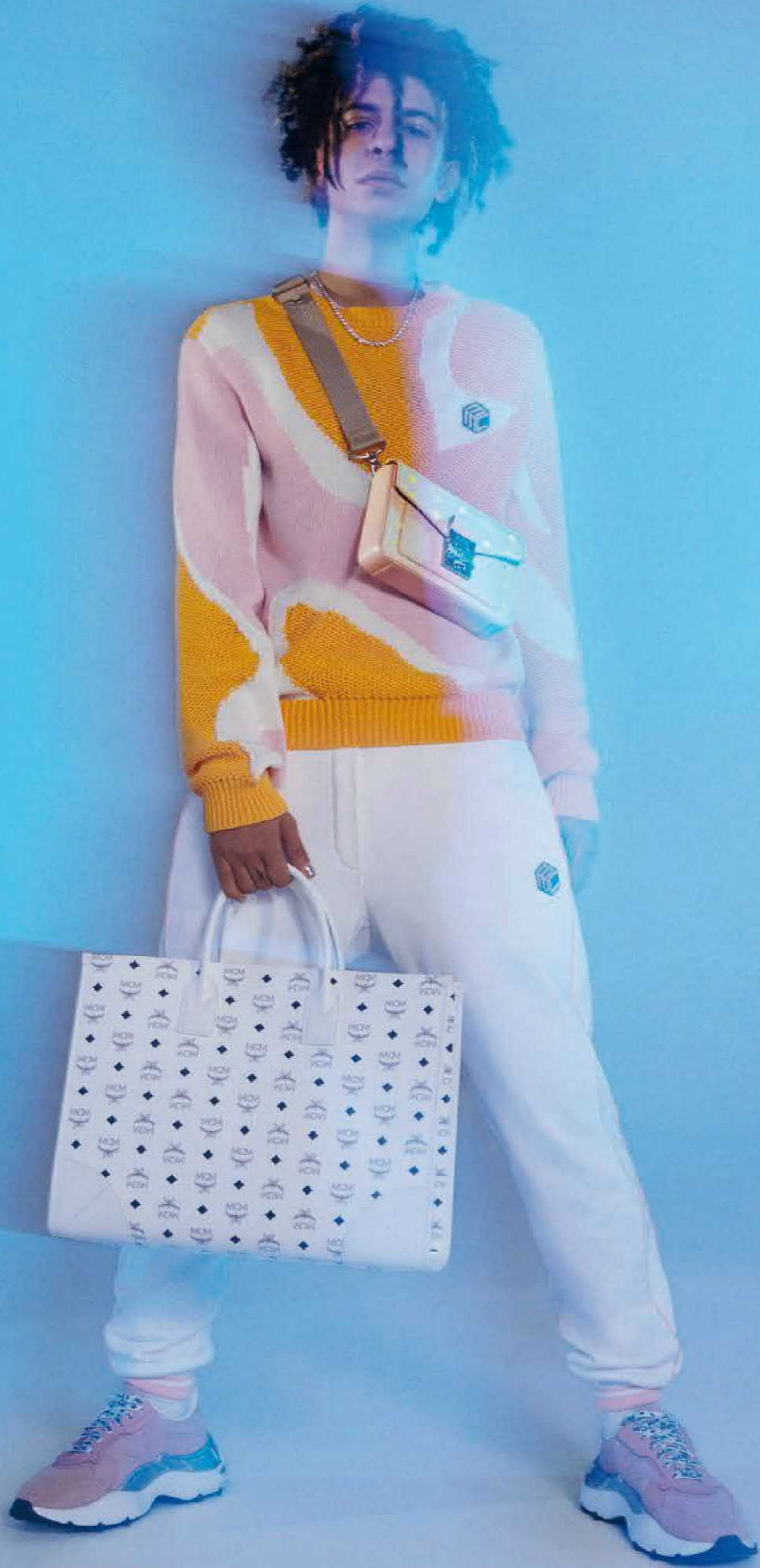
마시모 보투라의 구찌를 즐기고 싶다면, 줄을 서시오. editor PARK SEHOI

지금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건물은 어딜까? 단연 제일기획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구찌의 플래그십 스토어 '구찌 가옥' 건물이 아닐까? 야심 찬 신생 갤러리 파운드리 서울에 이어 지난 달 구찌 오스테리아까지 이 건물에 자리를 잡아서다. 구찌 가옥 6층에 오스테리아가 들어온다는 소문은 이미 오래 전부터 퍼져 있었고, 새로 연 업장에 가보지 않으면 좀처럼 밤잠에 들지 못하는 썩독 새들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다. 3월 16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 4월 한 달치 예약이 불과 수분 만에 마감됐다는 사실이 그 열기를 증명한다. '핫플'은 실망하기 마련이라고? 그런 걱정은 침대 밑에 단단히 묶어두시길. 일단 구찌 오스테리아에 들어서 테라스에서 내려다보이는 한남동의 뷰를 보기만 해도 실망 따위 단어는 입에 담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오스테리아의 퀄리티는 뷰에서 나오지 않는다. 구찌 오스테리아는 맛에서는 정면으로 승부한다. '요리의 산'이라는 타이틀로 지난 십수년을 굳림해온 마시모 보투라가 전 세계에 있는 구찌 오스테리아 4개 지점의 모든 메뉴를 관리한다. 요리 하나하나의 면면은 화려하지만 보투라의 고향인 에밀리아 로마냐의 소박한 매력이 우아하게 숨어 있다.



구찌 오스테리아의 내부 전경.





[www.mcmworldwide.com](http://www.mcmworldwide.com)



왼쪽부터 라셀 리만, 데이비드 머핀, 래리 피트먼.



## Round Two

리만 머핀의 두 번째 라운드는 이태원로다.

editor PARK SEHOI  
photographer LEE YEJI

이태원동과 한남동을 가로지르는 이태원로는 여러모로 서울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곳이다.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들이 마음의 4분의 1쯤을 두는 고향이며, 외국인과 내국인의 구분이 없어지는 곳이자, 아트와 커머셜이 정신없이 뒤섞이는 곳이다. 이 이태원로의 한복판, '좌태원'과 '우태원'의 중간쯤에 세계적인 갤러리 리만 머핀의 전시장 및 서울사무소가 새로운 터를 잡은 것만큼 반갑고 잘 어울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데이비드 살레, 맥아서 비니언, 길버트 앤 조지가 소속된 리만 머핀 갤러리 측은 <에스콰이어>에 "나이, 국적, 성별을 막론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넘나들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작가들과 함께한다는 것, 이들을 새로운 지역에 소개한다는 사실이 갤러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말한다. 리만 머핀이 안국동 정독도서관 인근에 있는 20평 공간에 자리를 잡은 것은 지난 2017년. 리만 머핀 측은 "20세기 한국사의 다층적 층위와 젊은 에너지, 다양한 문화 요소가 어우러진 역동적 장소"라고 표현한 이태원에 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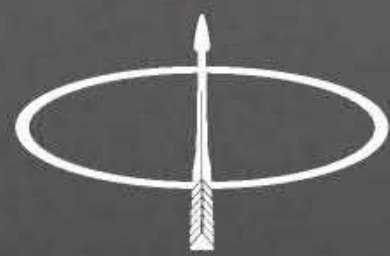
배가 넘는 넓이의 공간으로 5년 만에 이전했으니, 첫 번째 라운드는 성공적이라 봐도 좋을 것이다. 지난 5년의 세월 중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작가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리만 머핀 측은 "상탈 조페(Chantal Joffe, 2020-2021), 세실리아 비쿠냐(Cecilia Vicuna, 2021), 맨디 엘사예(Mandy El-Sayegh, 2021) 세 여성 작가의 전시가 큰 반응을 얻었다"라고 밝혔다. 리만 머핀 한남동 시대의 서막은 미국 동부와 비견되는 서부의 색과 퀴어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작가 래리 피트먼의 전시로 시작됐다. 지난 7일, 리만 머핀에서는 이 전시를 위해 내한한 래리 피트먼과 미술평론가 임근준의 대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위 사진은 이날 운 좋게 한자리에 모인 두 창립자 라셀 리만과 데이비드 머핀, 래리 피트먼을 한 프레임에 담은 것이다. 리만 머핀은 "래리 피트먼에 이어 톰 프리드먼, 캐서린 오피, 하이디 뷔쉐 등 아직 국내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작가들의 개인전을 위주로 2022년의 전시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 PARKER 51

A CLASSIC REIMAGINED.

파카51 - 클래식의 귀환



PARKER

EST. 1888



BY APPOINTMENT TO  
H.M. THE QUEEN  
MANUFACTURERS OF  
PENS, PENCILS AND INKS  
PARKER PEN COMPANY  
LICHFIELD



BY APPOINTMENT TO  
H.R.H. THE PRINCE OF WALES  
MANUFACTURERS OF WRITING  
INSTRUMENTS AND INKS  
PARKER PEN COMPANY  
LICHFIELD



## More Copies, Please!

중쇄를 거듭해 더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하는 책들을 <에스콰이어> 에디터들이 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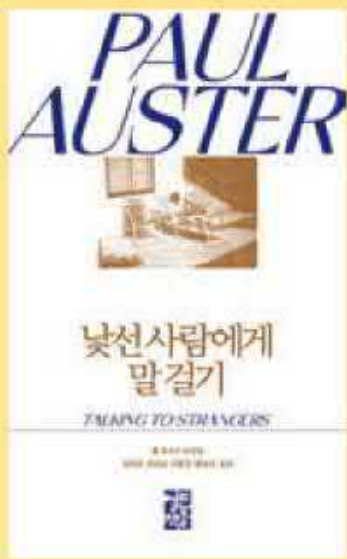
editor PARK HOJUN



### 나보코프 단편집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 문학동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생전 각 13편이 수록된 4권의 단편집을 손수 골라 발표했다. 그 첫 선집의 제목은 <나보코프의 다스>인데, 참고로 영어에서 베이커의 다스(dozen)는 13을 뜻한다. 아들 드미트리와 인생의 여인이자 아내인 베라는 나보코프 사후에 그가 '통의 밑바닥'이라 메모해둔 8편의 단편과 아카이브에서 찾은 5편의 소설을 엮어 마지막 한 다스를 채웠다. 1995년 총 65편으로 출간된 <나보코프 단편집>에는 지금까지 총 3편의 이야기가 추가됐다. 1925년 <러시아의 메아리> 4월호에 실렸던 '부활절의 비'가 2002년, 스페를라나 폴스키라는 학자의 손에 의해 발견되어 다시 생명을 찾아 실렸다. 1922년에 쓰인 단편 '단어'는 진위에 대한 의심을 견어내고 당당하게 2006년부터 전집에 이름을 올렸다. 나보코프가 워싱턴 DC 의회도서관에 위탁해 1924년경부터 미발표 상태로 잠들어 있던 '나타샤'가 2008년부터 단편집에 수록됐다. 이제 당신은 다섯 나보코프 다스에 3편의 덩까지 엮어진 한국어판 <나보코프 단편집>을 사야 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당장. 박세희**



### 낮선 사람에게 말 걸기

폴 오스터 / 열린책들

폴 오스터는 전업 작가다. 익히 알려졌다듯 세계적 명성을 쌓은 소설가이자 동시에 에세이스트, 시인, 번역가, 시나리오 작가이며, 일흔다섯이 된 지금도 매일 작업실에 틀어박혀 오래된 타자기로 글을 쓰는 사람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밥 먹는 시간을 뺀 11시간 동안. 책 제목이 의미하는 것 역시 '글쓰기'라는 행위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평생 쓴 산문 중 45편을 골라 소개하는데, 어찌 그 원고들 역시 대다수가 작가들, 글쓰기, 문학과 글과 책에 관련한다. 비평, 회고, 인터뷰, 책 서문, 기도문, 소개말, 소감문 등 온갖 형식을 망라해서. 후일의 작문을 위해 써둔 메모들까지 한 챍터로 공개했으니, 글을 쓴다는 행위와 작가라는 직업을 자꾸만 경건한 심상으로 떠올리게 되는 건 어느 정도 작가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다.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작가 집단'의 창립 멤버답게 정치적 견해를 밝힌 글이나 일상을 포착한 에세이도 찾아볼 수 있다. 국내 번역본은 우크라이나의 비극적 역사를 다룬 2020년작 '스타니슬라프의 늑대들'도 포함한다. 그들이 안기는 감명도 무언가의 걸다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성윤**



### 법정의 얼굴들

박주영 / 모로

저자는 약 10년간 판사로 일하며 목격한 수많은 사연을 담담히 풀어놓는다. 자폐증을 가진 아들을 10년 넘게 돌보다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살해 후 자살(동반 자살)'을 택한 어느 어머니와 감옥에 가고 싶어 방화를 저질렀으나 생각보다 불이 너무 커지는 걸 보고 "불이야!"를 외치며 열심히 불을 끈 어느 중년 남자의 이야기가 그렇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사례를 통해 살인, 강간, 절도, 마약 같은 건조한 말 뒤에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와 연민, 모순이 숨어 있는지 낱알이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 소설가 장강명이 서평에 '안전하고 공평한 세상에 대한 간편한 믿음을 잃게 될 것 같아 두렵다'고 적은 것과 이어진다. 판사로서 누군가의 인생을 강제하는 막중한 일을 매일 반복하지만 양형(量刑)은 언제나 '뒷북'일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글의 또 다른 축이다. 사회의 차갑고 어두운 모습들 사이사이 절묘하게 인용된 시, 소설, 영화 한 토막이 책의 백미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글을 렘형미의 '아이를 키우며'라는 시로 마무리하는 대목에선 깊은 심호흡이 필요할 것이다. **박호준**



### 도파민네이션

애나 렘키 / 흐름출판

쾌락과 고통은 오래 상상하듯 양극단에 놓여 서로 반목하는 관계가 아니다. 스탠퍼드대 의과대학 교수 애나 렘키는 둘의 복잡한 관계를 '저울'에 비유한다. 적당한 쾌락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지만 과도한 쾌락은 오히려 내성을 키우고, 저울은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한 항상성의 결과로 같은 양의 고통을 생산한다. 인간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다시 쾌락을 추구하게 되며, 이런 악순환의 양상이 중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애나 렘키는 현대인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독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있다고 지적한다. 대마, 코카인과 같은 중독성 약물뿐만 아니라 SNS, 쇼핑, 게임, 채팅, 도박 등과 같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파민 상품이 모두 덧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으면 당신의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가타부타 꾸지람을 늘어놓는 느낌의 책을 상상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 애나 렘키는 학자이면서도 공감하는 말하기를 택한다. 자신도 한때 우울증 환자이자 에로티시즘 소설 중독자였다는 것이다. 이 책의 존재가 강렬한 '경고'를 넘어 '격려'로까지 작동하는 건 그 덕분이다. **송채연**

## Blanc de Blanc

블랑의 명가가 내놓은 블랑의 완성. editor PARK SEHOI

페리에 주에가 만드는 논빈티지 퀴베의 '블랑 드 블랑'은 뭐가 다를까? 설명이 필요하다. 샹파뉴 지방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에 '샴페인'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 그러자면 일단 샹파뉴산 포도여야 하는데, 샹파뉴 지역에서 법적으로 재배가 허가된 포도는 피노 블랑, 피노 그리를 포함한 7종이다. 그중 피노 누아, 샤르도네, 피노 뫼니에 3개 품종이 주로 샴페인 양조에 쓰이며, 결국 블렌딩 하우스가 어떤 포도를 기르기에 적합한 발을 얼마나 가졌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페리에 주에로 말하자면 '블랑'의 명가 중 하나다. 1920년부터 샤르도네 퀴베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참고로 피노 누아와 피노 뫼니에, 이 두 적포도 품종만을 블렌딩한 와인을 '블랑 드 누아', 샤르도네 품종만으로 만든 와인을 '블랑 드 블랑'이라 한다. '페리에 주에 벨에포크 블랑 드 블랑 논빈티지 퀴베'를 마신다는 건 한 세기 동안 샤르도네 퀴베를 다뤘던 명가의 숨결을 느껴보는 일일 것이다.

페리에주에 블랑 드 블랑 15만원대  
페르노리카 코리아.





N  
O  
V  
A  
B  
L  
A  
S  
T™  
2  
L  
E

*Blast on.  
Blast off.*



**asics**  
sound mind, sound body



소너스파베르는 이탈리아어로 '소리의 공방'이라는 뜻. 바이올린 같은 섬세한 악기의 구조와 제작 공정을 오디오에 도입해 이탈리아의 대표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로 자리 잡은 이들이 이번에는 합선 모양 스피커를 내놨다. 옴니아는 너비 65cm에 무게 7.6kg의 올인원 스피커다. 강점은 디자인이나 크기, 모델명(라틴어로 '모든 것에 준비된')에서 으레 유추할 수 있듯 '가득 실었다'는 것으로, 온갖 재생 환경에 대응하며 어떤 공간에서든 빼어난 소리를 들려준다. 일단 길쭉한 전면을 따라 적재적소에 7개의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다. 19mm 실크 돔 트위터 2개, 76mm 페이퍼 펄프 콘 미드레인지 드라이버 유닛 2개, 바닥을 향한 165mm 베이스 우퍼, 양 측면에 달린 44mm

## Arrival

온갖 무기를 다 챙겼고, 어떤 상황에도 다 대응한다.

editor  
OHSUNGYOON  
photographer  
CHUNG WOORYOUNG

풀레인지 드라이버가 총 490W 출력의 4웨이 스테레오 사운드를 구현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눈을 감고 들으면 올인원 시스템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화롭고 풍부한 소리는 측면의 풀레인지 드라이버를 활용한 고급 신호처리 시스템 '크레센도' 덕분이다. 상단

의 나무 패널도 단순한 디자인 요소가 아니다. 독자 기술 '센소'로 나무 패널의 표면을 쓸어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의 은은한 라인 조명은 모드, 볼륨, 연결 옵션 등의 재생 정보를 표시해준다.

옴니아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은 어떤 환경에나 척척 대응한다는 것이다. 에어플레이2, 크롬캐스트, 스포티파이 커넥트, 타이달 커넥트, 블루투스 aptX HD, 룬 레디 등 다채로운 무선 연결 시스템을 지원하며, 유선 이더넷, HDMI ARC 포트도 PC나 TV 연결도 최적화했다. 심지어 MM 포노 스테이지까지 탑재했다. 별도의 포노 앰프 없이 턴테이블을 RCA 단자에 연결하기만 하면 레코드판에 새겨진 음악을 들려준다는 뜻이다.

옴니아 279만원 소너스파베르.



## Long Live the Plant

다 알아서 크는 거죠 뭘.

editor OHSUNGYOON

신개념 식물재배기 틱운을 선보였던 LG전자가 후속작을 내놓았다. '테이블 위 작은 정원'을 표방한 '틱운 미니'가 그 주인공. 크기만 작아진 게 아니라, 화분 같은 생김새와 개방형 구조 덕분에 감상하기도 수월해졌다는 뜻이다. 씨앗, 배지 등이 담긴 키트를 장착하고 물과 영양제를 넣은 뒤 LED 조명을 켜기만 하면 식물이 알아서 잘 자라니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실내 어디에나 둘 수 있다. 19만9000원.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성능  
**PERFORMANCE  
MADE TO LAST.**

**WITH THE MICHELIN 'PILOT' RANGE OF TYRES.**

MICHELIN®  
PILOT®SPORT 4 S

MICHELIN®  
PILOT®SPORT CUP 2

MICHELIN®  
PILOT®SPORT CUP 2 R

MICHELIN®  
PILOT®SPORT 5

MICHELIN®  
PILOT®SPORT 4 SUV

MICHELIN®  
PILOT®SPORT ALL SEASON 4

MICHELIN®  
PILOT®ALPIN® 5™



미쉐린  
멤버십



1899-9120  
미쉐린 고객센터  
평일 09:00~18:00

구글 플레이와 App Store에서 다운받으세요.





## Bag Again

다시 돌아온 캔버스 백의 계절.

editor LIM ILWOONG photographer CHUNG WOORYOUNG



- (1) 카프 레더 트리밍 캔버스 더블백 250만원대 랄프 로렌 퍼플 라벨.
- (2) 탈부착이 가능한 스트랩을 더한 캔버스 쇼퍼백 가격 미정 에트로.
- (3) 스트라이프 프린트 캔버스 숄더백 13만5000원 메종키즈네.
- (4) 실크 스크린 프린트 캔버스 숄더백 15만8000원 조지 우들앤선스 by 바버샵.
- (5) 로고 프린트 헤링본 패턴 캔버스 토트백 가격 미정 에르메스.
- (6) 리브 고시 맥시 발수 캔버스 쇼퍼백 258만5000원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 (7) 6개 포켓을 더한 워시드 캔버스 토트백 19만7000원 아마아칼바 by 샌프란시스코마켓.



↑  
엠보싱 모노그램 슬라이드 84만원  
루이 비통.



↑  
맥시 GG 캔버스 슬라이드 62만원  
구찌.

## Slide Ride

각양각색 슬라이드 5.

editor LIM ILWOONG  
photographer KIM HYUNDONG



↑  
PVC 코팅드 메두사 헤드 슬라이드  
54만원 베르사체.



↑  
테리 클로스 슬라이드 112만원  
프라다.



↑  
스터드 & 비즈 디테일 슬라이드  
86만원 돌체앤가바나.



## Six Scents

봄과 여름의 사이에서 고른 6개의 향수.

editor  
KO DONGHUI  
photographer  
CHUNG WOORYOUNG



- (1) 세이지와 미라벨에 암브록산을 더하고 머스크와 프루티 노트를 조화시켰다. 건조하면서 따뜻하고 자연적인 향의 데 로스 산토스 100mL/34만원 바이레도.  
 (2) 사르데냐섬의 바다 수선화에서 영감을 얻었다. 일랑일랑, 바닐라, 샌들우드의 조화가 특징적인 씨 다포딜코롱 100mL/20만4000원 조 말론 런던.  
 (3) 베르가모트와 레몬으로 시작해 페퍼와 시소, 로즈메리를 거쳐 편안한 시더우드와 머스크로 마무리된다. 콜로니아 클럽 오 드 코롱 100mL/21만원 아쿠아 디 파르마.  
 (4) 뜨거운 사막, 야생 타임, 자작나무와 앰버의 향이 매력적으로 어우러진 투손 30mL/14만8000원 아스티에 드 빌라트.  
 (5) 고전적 남성의 본질을 연상시키는 섬세함과 강인함이 공존한다. 라벤더와 바닐라의 조화가 우아한 르 파상 100mL/30만8000원 오르메.  
 (6) 복싱에서 영감을 얻은 향으로 시트러스, 재스민과 레더, 오크모스와 파출리로 이어지는 향이 우아하고 남성적이다. 디 오키드 맨 오 드 퍼퓸 100mL/23만9000원 프라광 by 리퀴드퍼퓸바.





# 이런 취미

“취미가 뭐라고요?” 여가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늘 되물음을 받는다는 사람들. 그들에게 당신의 취미가 무엇인지, 그 어디에 묘미가 있는지, 정연한 언어로 써달라고 했다.

editor  
OH SUNGYOON,  
PARK HOJUN  
photographer  
HAN JUNGHOON  
(still life),  
JO HYEJIN  
(portrait)



## 물 위의 산책, 카누잉

(1)

정규하  
정원사

카누를 타고 아침 일찍 산책을 나선다. 호수를 덮은 새벽 물안개를 가르고, 아름답리 버드나무들 사이로 난 수로를 따라 물 위로. 이미 익숙한 길이지만 넘쳐나는 자연의 생명력에 매번 감탄한다. 물에 부딪는 가볍고 규칙적인 패들 음을 깨며 뛰어오르는 물고기, 그리고 수면을 디딤돌 삼아 하늘로 날아오르는 다양한 야생 조류들. 안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걷힌다. 그리고 드러나는 연녹색 나뭇잎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질 때면 잔잔한 설렘이 가슴 가득 밀려든다. 혼자 나서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다. 카누잉에는 자연과 나, 그리고 동행 사이의 공감 영역을 최고 수준까지 경험하게 해주는 마력이 있다. 아마도 빈틈이 있으면 스며들어 그 공간을 채우는 물의 속성을 잘 반영하는 레저 활동이기 때문일 터. 품을 떠난 뒤로는 시골의 부모를 찾는 일이 별로 없던 아이가 요즘 자주 와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것도 아빠의 취미 생활을 엿본 후의 일인 듯하다.

(2)

## 위스키 덕질의 최종장, 증류

유성운  
락희앤컴퍼니  
총괄이사

흔히들 덕질의 시작은 수집이고, 끝은 제조라고 한다. 위스키를 좋아해 자주 마시는 나도 어느 순간부터 단순히 풍미를 즐기는 차원을 넘어 위스키의 어떤 성분이 특정한 맛을 내고, 그런 성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직접 위스키를 만들기에 이른 것이다. 덕분에 요즘 유행하는 싱글몰트 위스키뿐 아니라 쌀과 몰트로도 위스키를 만들어봤으며, 누룩으로 만든 소주를 오크통에서 숙성시킨 위스키도 만들어봤다(우리나라 주세법상으로는 위스키로 분류되지 않지만 해외 기준으로는 위스키다). 위스키 증류라고 하면 으레 떠올리는 이미지와 달리, 호기심과 창작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주는 취미라는 뜻이다. 특히 이제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시도를 해보는 재미가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는 몰트 증류주로 자두 리큐어를 만들어 오크통에 숙성시킨 뒤 다시 그 오크통에 위스키를 숙성시키는 시도까지 해보았다. 자두 향을 극대화한 위스키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이견회 전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에 그랬던가. '취미 생활을 깊이 연구해 특기로 만들라'고. 위스키 제조를 취미가 아닌 특기로 만드는 것이 내 최종 목표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홍순일  
포토그래퍼

오프로드에서 모터바이크를 타는 매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운전의 즐거움이다. 오프로드는 맑은 날, 비 오는 날, 비가 온 다음 날, 낙엽이 깔린 날, 추운 날 느껴지는 노면의 질감이 전부 다르다. 맑은 날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언덕을 비가 온 다음 날엔 땀을 뻘뻘 흘리며 기를 써도 통과하지 못할 만큼 변화무쌍하다. 말끔한 아스팔트에선 느낄 수 없는 다채로움이다. 라이더가 구사해야 하는 스킬도 더 다양하다. 스로틀을 당기는 것 외에도 승마를 하는 것처럼 체중을 이용해 모터바이크를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매력은 자연이다. 험한 길을 돌파할 때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도 크지만 깊은 산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즐거움이 더 크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차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휴대폰조차 잘 터지지 않는 오지에서 캠핑을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안개 자욱한 날 산등성이를 돌아 나갈 땐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 날씨가 추워지면 안전상의 문제로 주행이 어려운 온로드와 달리 오프로드는 눈이 와도 개의치 않는다는 점 역시 큰 장점이다.



김신영 ©





**최진영**  
국악 연주가

사람들은 보통 필요한 게 생기면 포털 창에 검색부터 해본다. 쇼핑몰에서 대략적인 가격과 대안을 살펴보고 구매를 고민하는 것이다. 하지만 목공이 취미인 사람은 조금 다르다. '내가 하나 만들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아, 그냥 사서 즐길'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지만 말이다. 어깨 높이 정도 되는 크기의 와인 셀러를 만드는 데 꼬박 2개월하고도 보름이 걸렸다. 사실 디자인 작업에만 한 달을 매달렸다. 이미 존재하는 가구나 설계도면을 참고할 수도 있었지만, 첫 작품인 만큼 온전히 내 힘으로 완성하고 싶었다. 머릿속에만 있던 디자인을 스케치로 옮기고 그 스케치가 면과 선을 가진 실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목공이 주는 가장 큰 묘미다. 정규 수업은 주 2회였지만 거의 매일 퇴근 후 목공소에 들러 작업에 몰두했다. 비싼 월넛 자재 탓에 결국 와인냉장고를 넣을 만한 크기로 만들지 못한 게 아쉽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와인 셀러가 탄생했다는 데에 의의를 두기로 했다. 최근에는 목공이 주는 또 한 가지 재미를 발견했다. 선물하는 즐거움이다. 얼마 전 친구에게 식탁을 만들어 선물했고, 지금은 또 다른 지인을 위해 협탁 제작을 준비 중이다. 여전히 어설픈 구석이 없지 않지만, 어쩌면 그게 핸드메이드의 멋 아닐까?



주방에서 균 키우기, 천연발효 제빵



**강윤희**  
프리랜스 에디터

나의 취미는 균을 기르는 일이다. 너무 놀라지 마시라. 내가 키우는 균은 천연발효빵을 만들 때 사용되는 천연발효종 '르뱅'이니까. 르뱅은 물과 밀가루의 혼합물이지만 공기 중의 미생물과 만나 발효가 되면 빵을 부풀리는 역할을 한다. 이론적으로는 매일 새로운 먹이(물과 밀가루)를 공급하면 영구적으로 키울 수도 있기에 '애완 효모'라 불리기도 한다. 물론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르뱅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없이는 키울 수 없다. 때때로 식물도 죽이는 내가 그보다 더 까다로운 르뱅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키우기만 했을 리 만무한 일. 한 번씩 장인이 만든 훌륭한 천연발효빵을 먹고 있노라면 집에서 빵을 만드는 비합리적인 일 따위 당장 그만두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천연발효빵을 만드는 취미를 이어가는 것은 이집트 피라미드 유적에서 얻은 균으로 5000여 년 전의 발효빵을 재현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공간마다 서식하는 균이 다르고 자연히 만들어지는 르뱅의 풍미도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만들어지는 르뱅은 오직 나만의 '강윤희 르뱅'이라는 뜻이니 포기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사람의 머리와 손으로는 도저히 그릴 수 없는 복잡하고 섬세한 풍미를 미생물들은 만들어낸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 자본이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것이 자본가'라는 게 요즘 사람들의 시대정신이라던가. 나의 삶이 그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내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나의 균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아주 맛있게.



© 강윤희









(6)

치열한 전략 공방전, 미식축구



최성훈  
삼성전자 연구원

흔한 오해가 하나 있다. 미식축구 같은 스포츠는 피지컬이 탁월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 비현실적일 정도로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진 NFL 선수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다. 하지만 사실 미식축구는 ‘거대한 체스’에 비유될 만큼 치열한 전략 싸움이 기본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도 경기 운영 센스와 전략이 없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 현재 ‘서울 바이킹즈’가 구사하는 작전 패턴만 200여 가지다. 프로 팀이 아닌 아마추어 사회인 팀인데도 그렇다. 그리고 상대방이 구사하는 전략을 재빨리 파악한 뒤 적절한 대응책을 지시하는 게 내가 맡은 포지션 쿼터백의 역할이다. 팀원 모두가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점수를 딸 수 있기 때문에 매주 전략 회의도 진행하고 있다. 찰나의 순간, 상대 팀의 전략을 간파하고 이에 대응하는 작전으로 공격에 성공하거나 막아냈을 때의 희열은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하기 어렵다. 황소처럼 밀고 들어오는 상대 선수의 거친 태클을 서로 막아주며 짝튼 끈끈한 팀워크. 그 역시 내가 벌써 14년째 미식축구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7)

한 세계를 구성하고 다듬는 일, 분재



이정빈  
크림 MD

‘축소 지향의 일본’이라는 고 이어령 평론가의 이해를 대변하듯, 일본에서 발달한 문화 분재는 일반적인 식물 키우기와 달리 하나의 작은 세계를 구성하는 일이다. 삶과 죽음이 뒤엉킨 세계를. 분재에서 말하는 명목(名木)의 조건은 다양하지만 결국 그 근본은 타고난 기질을 만개시키면서도 세상이 원하는 심미성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나무를 다듬는 동안 오히려 세상 속의 나 자신에 대해 고요히 생각하게 되는 건 그런 연유다. 구성미와 장식적인 요소에 중점을 둔 꽃꽂이나 이케바나와 달리, 분재 관리는 미적 감각에 더불어 꽤 높은 완력도 필요하다. 틈틈이 자라는 잎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못난 꺾질을 벗겨내거나 옷자란 가지를 끊어내고, 몸통을 굽어 길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분재라고 하면 고즈넉한 취미를 상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사실 꽤 육체적인 취미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자연 상태에서도 100년가량 살 수 있는 나무는 사람의 손길에 따라 수백 년의 수명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 17세기 에도막부 시절의 분재가 500년의 시간을 버티고 아직도 도쿄의 황거 안에 귀하게 모셔져 있기도 하니 까. 나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아갈 친구를 사귀게 된다는 것, 그런 인연 역시 분재의 큰 묘미일 것이다.





(8)

영감을 담은 그릇, 도예

“이게 뭐야?” 시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가장 자주 듣는 말이다. 도자기를 직접 만들었다고 하면 손때가 묻어나는 찻잔이나 접시를 기대하는 게 보통이니까. 시편은 본래 도예가가 불의 세기나 흙의 상태를 가늠하기 위한 견본을 말한다. 원하는 질감이나 색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실험 도구인 셈이다. 매주 토요일 2~3시간씩 공들여 시편만 만드는 사람은 아마 내가 유일할 것이다. 하지만 내 눈에 시편은 다양한 질감과 색, 기법을 적용해 작가의 감상을 투영할 수 있는 매개체로 보였다. 화가의 흰 캔버스처럼 말이다. 건축가라는 직업적 특성상 땅에 관심이 많았기에 흙이라는 재료와 친숙했다는 점도 시편을 아카이빙 도구로 사용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총 4개의 시편을 완성했는데, 색깔과 질감이 모두 다르다. 특정 지역을 여행한 다음 그곳에서 받은 영감을 시편에 담아냈다. 예를 들자면, 상감기법을 적용한 흰색 시편은 신안 염전에서 가로세로로 땅을 구분 지어 놓은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결과물이다.



신태섭  
건축 디자이너



(9)

도무지 질리지가 않는 산보, 탐조



이경렬  
문화기획자

얼마 전 친구들 단톡방에 새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펭귄처럼 등과 머리꼭대기는 까맣고 뺨과 배는 하얀 새였다. 친구는 이렇게 생긴 새는 처음 봤다며 내게 새의 이름을 물었다. 모난형 꼬리에 부리가 뾰족한 걸로 봐서 직박구릿과 쪽일 듯했다. 나는 가방에 있던 조류도감을 꺼냈다. 한국의 흔한 여름철새인 알락할미새였다. 흰색과 검은색이 섞였다는 뜻의 ‘알락’과 꼬리를 흔든다는 뜻인 ‘할미’가 합쳐진 이름이다. 나는 해당 페이지에 적힌 ‘치악-치익’ 운다는 문구를 형광펜으로 칠한 뒤 포스트잇을 붙였다. 여가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나는 으레 새소리를 들으러 뒷동산에 오른다고 말한다. 그러면 ‘낭만파’라는 놀림을 받기 일쑤지만, 사실인데 어떡하겠나. 탐조는 보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한 활동이다. 새는 대부분의 시간을 나뭇가지에 앉거나 흙바닥에서 무언가를 쪼아 먹으며 보낸다.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만 보려 하는 것은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새를 보려면 청각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지저귀거나 날개의 퍼덕임, 충충대며 낙엽을 밟는 소리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새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탐조는 둔해진 감각을 깨워준다. 한국에 출현하는 조류는 570여 종이라 한다. 평생 이 많은 새를 다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못 본 새가 수두룩한 탓에 탐조는 늘 기대감을 품게 한다. 또 새는 알면 알수록 놀라운 생명체다. 쌍안경과 조류도감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새를 볼 수 있다. 사랑이 그러하듯, 취미도 편하면서 질릴 틈이 없는 게 제일 아닐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쌍안경을 들고 언덕을 오른다.





(10)

### 내 몸과 파도 사이를 위한 DIY, 서프 보드 제작



김아영  
영상 콘텐츠 제작자

한 번이라도 서핑을 경험해본 사람은 안다. 보드 위에 올라 파도를 탄다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서퍼는 파도의 종류와 세기를 읽고, 몸의 무게중심과 보드의 부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미세한 컨트롤로 물살을 갈라야 한다. 그 일련의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빠듯하면 금세 물속으로 곤두박질친다. 크기가 작아 부력이 약한 쇼트 보드는 더욱 예민하다. 서퍼와 보드의 호흡이 중요한 이유다. '보드가 거기서 거기'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평평해 보이는 보드지만, 손으로 쓰다듬으며 면밀히 살펴보면 윗면과 아랫면의 모양과 두께가 저마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물과 맞닿는 밑면은 유체역학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서핑을 선호하면 '컨케이브(Concave)'를, 빠른 가속을 원하면 '채널(Channel)'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게 바로 내가 직접 보드를 만드는 이유다. 내 몸처럼 마음먹은 대로 부릴 수 있는, 꼭 맞는 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보드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드가 물에 뜨는 이유는 뭐지?'라는 질문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건 덤이다. 모양을 고민하는 동안 자연히 파도와 보드와 몸의 작동 방식을 헤아리게 되고, 그 질문과 생각들은 곧 서핑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김아영 ©

10 - 12

Feature Special

(11)

### 설계와 표현과 육성과 감상의 복합체, 아쿠아스케이핑



이승철  
중고차 평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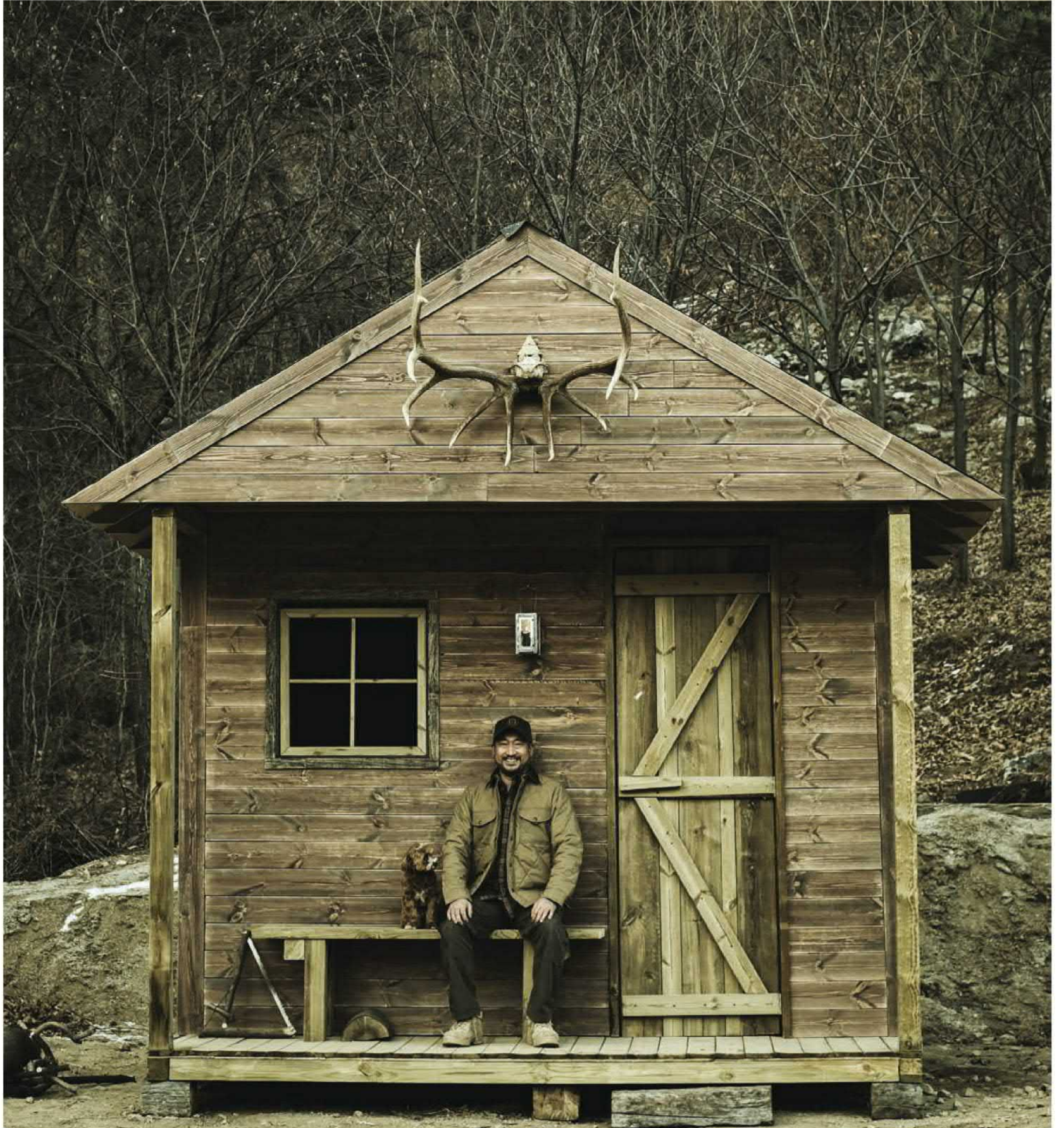
처음 아쿠아스케이핑을 시작하게 된 건 어항 때문이었다. 인터넷에서 아쿠아스케이프 작품을 보고 '이런 분야도 있네' '우리 물고기들도 이렇게 예쁜 곳에서 살면 좋겠다' 막연히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작 발을 들이고 보니 이전 내 정신 건강에 더 크게 작용하는 취미였다. 수조 안을 세심히 매만지는 동안엔 일상의 스트레스를 모두 잊고 차분히 내면을 가다듬을 수 있었으니까. 이쯤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지점은 이게 '어항 꾸미기'랑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일 것이다. 보편적인 평가 기준을 살펴보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일단 수초를 비롯한 모든 소재가 인공물이 아닌 '진짜'여야 한다. 국제 대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작품의 창의성, 관리 용이성, 심미성 등을 기준으로 작품을 평가하는데, 즉 미술 행위처럼 표현하는 취미이면서, 뭔가를 키우고 관리하는 취미이고, 또 자연을 감상하는 취미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물론 누군가에게 선물을 안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아쿠아스케이프 작품은 고양이에게는 '아날로그 TV'가 됐고, 어머니는 외부 여과기 소리가 내는 시냇물 소리에서 평화를 느낀다고 하셨다. 특히 조카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니,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꼭 한번 고려해보시라 권하는 바다.





김경국  
H&I 이사

부시크래프트는 불 붙이는 방식에서 따온 '부시(bush)'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기술을 뜻하는 '크래프트(craft)'의 합성어다. 간단히 설명해서, 기성품 이용을 최소화해 문명 발달 이전 상태로 돌아가 자연을 즐기는 취미를 말한다. 캠핑 내내 나무를 깎아서 가구를 만들고 한 몸 누일 쉼터를 짓기도 하면서 끊임없는 노동을 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한다. 왜 굳이 이렇게 캠핑을 힘들게 하느냐고. 다 힐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힐링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법이다. 부시크래프트의 가장 큰 매력은 성취감과 와일드한 감성을 통한 자기만족이다. 장비가 곧 실력이 되어버린 현대 캠핑 문화를 거슬러역시 최고의 장비는 사람과 자연이라는 의미를 남기기도 하고 말이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또 '서바이벌'이나 '백패킹' 같은 취미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다. 하지만 서바이벌은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목적성을 띠는 반면, 부시크래프트는 야생에서 생활하는 과정을 즐기는 문화다. 또 짐을 최소화해 캠핑을 즐긴다는 점에서는 백패킹과 비슷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가 다르다. 최대한 가볍고 작은 것으로 준비해야 하는 백패킹과 달리, 부시크래프트를 위해서는 톱, 나이프, 도끼 같은 장비와 불에 잘 버틸 수 있는 캔버스 천, 스테인리스 식기를 주로 챙겨야 하니까. 그래도 차이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이 사진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얼마 전에 혼자 힘으로 완성한 오두막이다. 완공 이후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돌아오곤 하는데, 분명 '그래도 되나?'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된다. 캠핑이 나 서바이벌이나 백패킹의 범주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시크래프트라는 취미에서는 이런 게 바로 정점이다. ●



© 김경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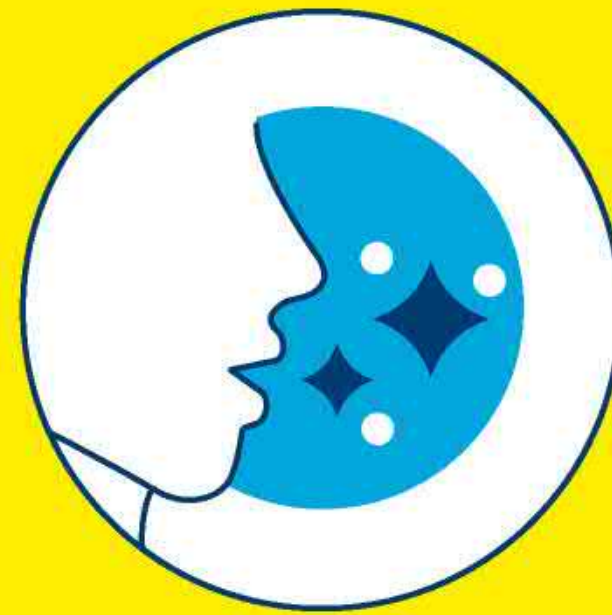
# 두 개의 기술로 냄새 저감\* MAX



담배 냄새 저감\*

**L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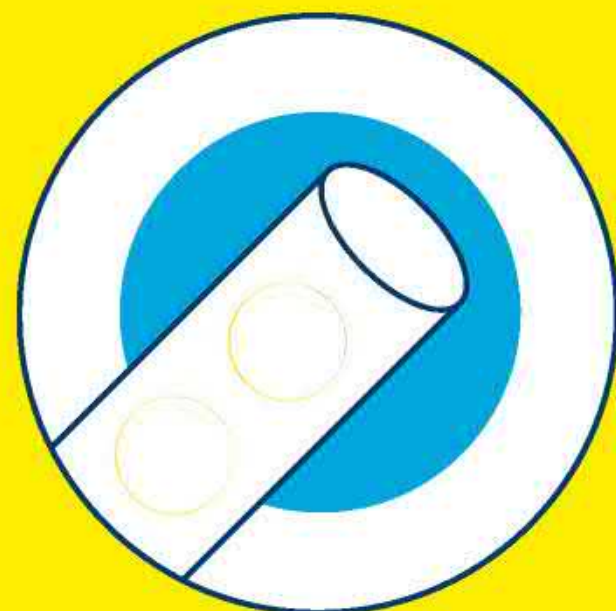
+



입 냄새 저감\*

**LBS**

# 더블 옐로우로 상큼함 MAX



**LBS 최초  
더블 캡슐**

LBS 맥스 옐로우 타르 1.0mg / 니코틴 0.10mg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



MEVIUS   
LBS 2.0

NEW

냄새 저감\*  
상큼함  
자신감  
MAX

LBS MAX 옐로우



\*LBS 테크놀로지로 모든 캡슐을 터뜨리면 입에서 나는 담배 냄새가 효과적으로 줄어듭니다. (출처: 2021 외부 연구소 검사 결과) \*공기 중의 담배 냄새를 줄여주는 LSS(Less Smoke Smell) 특수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박상영의

소설가 박상영을 얘기할 때 우리는 퀴어, 자전적, 당사자성 등의 단어를 꺼내 설명하려 애를 쓴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시즌은 이런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editor PARK SEHOI photographer JO HYEJIN

## 두 번째 시즌



처음 인터내셔널 부커 프라이즈 후보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뭘 하고 있었나요?  
헬스장에 있었어요.(웃음) 영국과 우리나라의 시차가 만나질 정도 나려나요? 헬스장에서 스텝퍼를 밟고 있는데, 제 책의 영국 출판사 킬티드 액세스에서 “콩그레추레이션!”이라는 메일이 왔어요. 들어가서 천천히 읽어봤죠. 제가 인터내셔널 부커 프라이즈 롱리스트에 올랐다는 거예요.

놀랐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믿기지 않았고요. 제 작품을 출판했다는 소식까지는 들었거든요. 정말 많은 출판사가 여러 문학상에 수많은 작품을 출판하니까요. 제 작품 역시 여러 다른 문학상에 이미 출판된 상태였고요. 출판사에서 ‘이번엔 전미도서상에 당선 작품을 출판했다. 다수의 작품이 이런 식으로 출판되는 것이니 너무 기대는 말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말하곤 하죠.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죠. 인터내셔널 부커 프라이즈 롱리스트라니요.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알렸어요?

연락을 받고 난 후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아직 공식 발표 날짜까지 2~3일 남았더라고요. 그걸 확인한 직후에 ‘이거 비밀이야. 유출되면 리스팅이 취소될 수도 있어’라는 메일이 다시 날아왔어요. 조용히 전화를 내려놨지요. 그 며칠을 혼자 즐기고 후보 발표 당일이 되어야 한국 출판사에 얘기했어요.

비록 쇼트리스트엔 오르지 못했지만, 롱리스트에 오른 것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일이지요. 전 말보로와 블루베리가 그려진 <Love in the City>의 영국판이 갖고 싶었는데, 이 미국판 밖에 안 팔더라고요.

맞아요. 그 판은 수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영국 출판사인 킬티드 액세스와 그로브 애틀랜틱이 동시 출간했어요. 영미권은 그런 식으로 출판사끼리 협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영국 출판사인 킬티드 액세스는 데보라 스미스가 대표로 있는 회사죠?

맞아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해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한 그 번역가가 대표로 있는 회사죠. 출간까지의 과정이 좀 길어요. 제 책의 번역가인 안톤 허 씨가 제 소설집 제목이기도 한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라는 단편을 읽고 제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재밌다고, 미국 사람들도 좋아할 거라고, 자신이 번역하고 싶다고요. ‘내가 소설가 박상영을 미국에 데 뷁시키겠다’는 제안이었죠. 실제로 안톤 허 씨가 번역한 그 작품이 영어로 비영어권 문학을 소개하는 WWB(Words Without Borders)라는 웹진에 소개됐어요. 얘기로는 그 웹진 사상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했대요. 그 소설들을 보고 데보라 스미스가 안톤 허를 통해 제게 연락해왔어요. 장편 나온 게 없냐고요.

생각해보니 영문판은 단편집(short stories)이 아닌 소설(novel) 타이틀을 달고 나왔죠.

제가 마침 창작과비평사와 계약한 연작 소설집을 묶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작품이 한 장의 <채식주의자>처럼 움니버스식으로 구성되는

이야기다”라고 말해줬지요. 그 얘기를 듣더니 영미권에선 그걸 장편으로 소개하자며 미리 계약하자고 하더군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출간하자마자 번역작업에 들어가 작년에 영문판을 출간할 수 있었어요.

롱리스트가 발표되고 어떤 변화를 느꼈나요?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고, 첫 주에는 제 책의 판매 접수가 많이 올랐죠. 에세이집인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의 판매도 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도 늘었어요.(웃음)

솔직히 <대도시의 사랑법>이 정말 재밌잖아요. 전 이 책을 읽으면서 ‘현웃 폭발’을 참을 수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아아, 웃기죠. 근데 저는 <1차원이 되고 싶어>가 더 많이 팔릴 줄 알았어요. 엄청난 기대에 부풀어서 ‘아 이거 너무 많이 팔리면 어쩌나’ 행복회로를 돌리며 걱정했지요.(웃음) 쓸 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연재작이었잖아요.

전반부 2장까지 연재했었고 3장부터는 혼자 썼어요. 어떤 식으로든 희망회로가 돌아가지 않으면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별별 생각, 이를 테면 50만 부나 팔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다 했지요.(웃음)

장편을 연재한다는 건... 그것만으로 대단한 겁니다.

주간 연재는 진짜 ‘원수한테 권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웃음)

게다가 주간 연재라니요...(웃음)  
편집자님이 주당 원고지 100매씩 달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150매씩 드렸으나 나중에는 그 양이 점점 줄어들었죠.

주당 100매를 쓰는 게 가능한가요?  
연재에 익숙하신 숙련된 작가들은 초고를 대략 완성해놓고 연재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그걸 혼자 초고도 없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한 제가 참으로 무지했습니다.

남들은 다 넷플릭스 시스템이었는데, 혼자 옛날 MBC 드라마 초치기 대본 시스템으로 쓰셨군요.

진짜 그랬어요. 수요일이 연재일이었거든요. 수요일 오후 1시에 업로드인데, 수요일 12시에 겨우 마감한 적도 있어요. 퇴고도 힘들었죠. 초고를 완성했는데, 1650매더라고요. 지금 최종본의 분량이 대략 1300매인데, 그 300매를 줄이며 다시 쓰느라 편집자와 제가 머리를 쥐어뜯었죠.

줄여서 그 길이였군요. 요즘 소설들은 장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좀 긴 중편인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장편소설도 길게 잘 안 내거든요.

전 처음에 <대도시의 사랑법>을 읽을 때는 너무 모던하게 생각을 하는 바람에 맘껏 못 웃으며 읽었어요. 4개의 이야기에 나오는 ‘영’이 다 같은 영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믿지 못할 서술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고급 독자들이 또 그런 독서를 즐기죠. ‘난 화자에게 속지 않겠어’라면서요.(웃음)

‘이름만 영이고 아예 인종이 다를 수도 있어’라

면서 말이죠.  
그렇죠.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요. 저도 책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이 책은 연결하면서 같은 인물이라는 단서를 많이 달아줬죠.

그래서 다시 읽었을 때 더 좋았나 봐요.

가끔 ‘두 번 읽으니 더 좋더라’고 말해주는 독자들을 만날 때 기뻐요. 제가 상장을 많이 쓰는 편인데, 또 서사의 속도감도 엄청 중시하거든요. 아무래도 빠르게 진행되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다시 읽을 때는 처음에 놓쳤던 것들을 발견하며 읽을 수 있는 거죠. 가끔 연작소설 중 ‘세 번째 소설은 건너뛰고 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속상해요. 한 번에 ‘후루룩’하고 네 개의 작품을 연달아 읽었을 때만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애써 고쳐 썼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 혼자만의 어떤 아쉬움이죠, 뭐.(웃음)

전 문학에서 웃음이 눈물에 비해 너무 과소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박상영의 노미네이션 소식이 반갑기도 했고요. 웃음의 가치가 인정받은 것만 같았거든요.

안 그래도 심사위원 중에 유명한 영국의 코미디언 겸 작가인 ‘멜 지드로익(Mel Giedroyc)’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 소설을 두고 재밌다고 평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죠. 심사위원 중엔 옥스퍼드대학교의 문학 교수님도 계셨고, 변호사님도 계셨지만 영국의 코미디언에게 인정을 받아서 좋았어요. 기자님이 말한 ‘웃음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1차원이 되고 싶어> 얘기를 좀 하자면, 글 자체는 워트가 넘치지만, 소설을 굴러가게 하는 주제는 무거웠죠.

그 소설은 좀 더 가볍게 쓰고 싶었는데 쓰다 보니까 진지해진 경우였어요. 폭력과 어떤 고립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요.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제가 쓸 수 있는 멜랑콜리하면서도 매트한 감정의 영역에 대해 많이 썼다고 생각해요. 그런 감정이 <1차원이 되고 싶어>까지 이어지면서 시즌 1을 완벽히 정리한 느낌이 들었어요. 에세이인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까지 가 앞선 소설들과 함께 20대 청춘부터 30대 직장인 까지를 아우른다면, 10대를 그린 <1차원이 되고 싶어>로 세월을 거슬러 종지부를 찍은 셈이죠. 이번에 쓸 책이 시즌 2의 시작일 거예요. 더 사회적인 맥락에서 읽히는 소설일 거고요.

<1차원이 되고 싶어>보다 더요?

사실 이미 다 썼고, 원고도 넘겼어요. 울여름쯤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설에서는 개인보다는 세상을 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를테면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직업과 제가 다녔던 직장, 잡지사 등의 공간을 다뤘어요. 직업인, 생활인으로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해요. 또 지금까지 쿼어가 중심인 소설이 많았던 반면 그렇지 않은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감정으로 보자면, 사랑이 아닌 사회적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서사가 많아요. 제가 기능할 수 있는 바에 대한 소설이기도 하고요.

사회적 효용이 있는 얘기들이군요?  
맞아요. 더 많은 분들이 ‘내 바로 옆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소설들은 취재가 필요할 텐데요.

많이 했어요. 동거 커플을 취재했고, 집을 산 사람들을 취재했고, 아파트 영끌 막차를 탄 사람들을 취재했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취재했죠. 코로나19 탓에 폐업하는 분들을 취재하기도 했고요. 식사를 대접하거나, 혹은 바의 사장님이라면 그 바에서 글렌피딕을 한 병 사서 나눠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취재를 하는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번에 내는 책이 다섯 권째거든요. 이제는 신인 작가라는 마음은 열거었어요. 아무래도 책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소재를 다루는 마음가짐이 예전과는 정말 달라요. 앞서 네 권의 책에서 써놓은 것들이 있으니 그것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네 권이 단편집,

연작소설, 장편소설, 에세이예요. 사실상 모든 장르로 그간의 인생을 다 털었다고 봐야죠. 전 지금까지 제가 녹아 있는 이야기들이 일종의 살풀이였다고 봐요. 살풀이는 시즌 1에서 끝났고, 작가로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건 인간 박상영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살벌하게 했죠. 그 살풀이.

이제는 시즌 2로 넘어가야죠. 좋은 소재와 재밌는 캐릭터를 만들고 잘 굴러서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장편소설을 쓰면서 그런 욕구가 더 커졌어요.

작가로서 국면의 전환기에 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작가들, 대가의 반열에 오른 작가분들이 전부 그런 시기를 한 번씩 거치더라고요. 성공한 작가들

은 대부분 초반에 한 번 '반짝'하고 빛나는 순간들이 있고, 5년에서 7년 후에 세계가 한 번 정리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누군가는 전환의 국면에서 다시 한번 뛰어 오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런 일 없이 잔잔하게 가기도 하고요. 아예 그 국면을 넘기지 못하고 절필을 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까지 써오던 글쓰기의 방법론이 바뀌는 대변화니까요.

원래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 억울한 게 많고, 이 세상이 슬픈 내 마음을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글 쓰는 게 어려웠죠. 잘 쓰고 싶어서 어려웠던 게 아니라 마음의 문턱이 높았던 거죠. 욕심이 앞서서. 이렇게 방법론을 바꾸고 난 뒤로는 그게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직업적인 스킬이 조금 더 쌓였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





로는 더 좋은 소설을 쓰기 위한 노력이 이제 정말로 시작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방식의 글쓰기는 인풋이 필요하지요.

요즘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뭔지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현실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현실 감각을 키우려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봐요. 넷플릭스도 보고, SNS도 하고, 잡지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정말 자주 봐요. 지난 책 내고 나서부터 인풋을 계속 제 안에 쌓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 과정이 힘들기도 한데, 재밌더군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인풋을 넣으면 어떻게든 아웃풋이 나오는' 단계가 온다고 하더군요. 합수처럼요.

그럼 너무 좋겠네요. 전 지금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고 느껴요. 지금은 인풋을 넣으면 제 예전의 경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인풋과 제 안에서 합쳐지면서 반죽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영어로 번역된 <대도시의 사랑법>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일단 번역의 퀄리티가 정말 높다고 느껴요. 안톤 허는 영어권에 번역된 제 소설을 다 옮긴 번역가예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옮겨지기 힘든 한국어 표현도 영어의 방식으로 정말 매끄럽게 바뀌어 있어요.

저도 앞에만 살짝 읽어봤는데,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더라고요. 문장도 정말 쉬워서 이 텍스트로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쓴 소설이니까 내용을 다 알잖아요. 뜻을 다 아는 상태에서 거꾸로 유추해가며 읽다 보니 영어 공부가 되는 셈이죠.

한국어 자막 보면서 미드 디테이션하는 거랑 똑같은 학습 효과죠.

맞아요. 딱 그런 식이에요.

단순히 문장이 심플하다는 것을 떠나서 안톤 허가 말한 '박상영의 산문은 앵글로 색슨적 바이브라 있다'라는 말의 의미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제 문체에 '앵글로 색슨적인 바이브가 있다'라는 건 안톤 허가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에요. 안톤 허는 제 작품을 번역하기 전에 기라성 같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한 경험이 있어요. 제 선배 작가 분들 중엔 시적인 문장을 구사하는 거장들이 많으세요. 시적인 문장이란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의도한 문장들인데 보통 번역가는 그런 시적 문장을 바꾸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 의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요. 저는 조금 달라요. 전 시적인 표현보다는 논리적인 걸 좀 더 중요시하는 스타일이에요. 산문 분야를 쓰는 작가들은 시적인 문장과 논리적인 문장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작가의 정체성이 달라지기도 하죠. 저는 앞에 있는 문장이 뒤에 오는 문장을 끌고 들어오게 하는 '똑똑 떨어지는' 논리적 배합을 좋아해요. 안톤 허의 '앵글로 색슨적인 바이브'라는 건 바로 그런 얘기일 겁니다. (이 인터뷰 이후 박상영과 나는 갤러리 리만머핀에서 열린 회화 작가 래리 피트먼의 대담회에서 우연히 만났다. 당시 래리 피트먼은 "스페인어는 매우 시적이죠.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 못해요. 전 이중언어 사용자로 영어를 주로 쓰지만 제가 그리는 회화는 스페인어의 시적인 느낌이 그 바탕을 이룹니다"라고 밝혔다. 래리 피트먼이 말한 영어의 '시적이지 못한 느낌'이란 바로 지시와 논리의 기능이 강조된 영어의 언어적 특징을 말한다.)

어째서 그런 바이브가 생겼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처음 좋아한 소설들이 다 번역문학이었어요. 애거사 크리스티의 작품, 셜록 홈스와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으면서 독서를 시작했고, 영미 문학, 프랑스 문학, 유럽 문학을 읽고 나서야 한국 문학으로 저변을 넓혔죠.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안톤 허가 번역에 들어가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게요"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번역 끝날 때까지 단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난해한 게 없었을 테니까요.

맞아요. 저는 한 칼에 한 명씩만 노리거든요.(웃음) 전 안톤 허가 한 얘기 중에 이 표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박상영은 자기 비하의 아이러니적 안도감을 결들인 미친 듯이 투명한 정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투명하게 솔직하지?'라는 생각이요. 밑바닥은 누구나 더러운데 말이죠.

그럼요. 우리 본성의 밑바닥은 결코 우아하거나 아름답지만은 않죠. 그러나 그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는 게 문학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투명하게 보여주되 마음의 적정선을 잘 맞추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논픽션 크라임 다큐멘터리는 잘 못 보거든요. 특히 끔찍한 사건을 다룬 것들은요. 그런데 같은 끔찍한 사건을 다뤘더라도 픽션이라면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나가는 장면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맥락이죠. '픽션이 주는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생생한 감각을 살리고 싶었다. 진짜 일어난 일처럼 썩진성을 살리면서도 거짓말인 걸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고 싶었다.' 이 두 가지를 다 성취하는 건 소설이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자기 비하의 아이러니적 안도감에 대해서는요?

결국 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무리 막 나가는 것 같고 불안해 보여도 자기들이 파괴하는 건 결국 자신들의 내면일 뿐이거든요. 제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남을 찌르러 다닐 사람이라면 독자들도 불안해했겠죠. 저 역시 그런 서사를 쓰고 싶지 않았고요.

<대도시의 사랑법>의 영은 자신을 '꽃다발 하나 콩고물 떨어지기를 바라는 기생충' 정도로 비하하지만, 사실 작가는 영을 엄청 사랑하지요.

그럼요. 사랑하지요. 그런데 오해는 풀어야겠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영을 제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쓴 건 절대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독자평에 "이 소설의 화자는 굉장히 똥똥한 사람"이라고 써줬더라고요. 제가 그 소설 속에 176cm에 78kg이라고, 정확한 표준 체형의 남성으로 제시해줬거든요. 그런데 똥똥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 독자님이 작가인 저를 보고 제 화자인 영이를 떠올린 거잖아요.

으하하하하. 근데 그건 아마도 '똥고'라는 표현 때문이 아닐까요?

그건 제가 실수했어요. 진짜 똥똥한 고양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영은 키 176cm에 78kg의 대한민국 표준 남성이고, 귀엽고 물론 어느 정도 애정할 만한 구석도 있는 그런 아이예요. 소설을 보면 아시겠지만, 영이는 정말 열심히 사는 아이예요. 열정이 많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외면할 수 있는 것들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친구와 애인과 또 엄마와의 관계에서도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용기가 많은 건 아니지만, 열정이 많아서 그 열정으로 부족한 용기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대도시의 사랑법>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

스튜디오 플로어에서 의자를 타며 마음껏 포즈를 취해달라 부탁했다.



# “나의 애정이 가닿기를”

번역가 박상미가 이태원에 새로운 자리를 잡았다. 그의 미의식을 함축한 ‘클럼지’, 그 클럼지의 전시 공간 ‘토마스 파크’에서 서툰 취향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그의 애정이 우리에게 가닿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ditor PARK SEHOI photographer JO HYEJIN

토마스 파크 서울이 있기 전에 토마스 파크 뉴욕이 있었나요?

토마스 파크는 원래 2013년 서울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2018년 뉴욕에 열렸죠. 2020년, 첼시로 공간을 옮기려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팬데믹이 터졌어요. 불과 전시를 딱 한 달 앞두고 모든 게 록다운이 되었죠. 갤러리 이전은 고사하고, 저 역시 혼자 고립된 채 집 안에 5개월을 갇혀 있었어요. 서울은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뉴욕은 굉장히 심했거든요. 5개월 갇혀 있다가 한국에 한 달만 있으려고 왔는데 다시 못 가겠더라고요. 가기 싫었어요.

많이 달랐죠.

한국에 들어와 후암동에서 격리를 끝내고 남산 산책을 나갔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남산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뉴욕에서 갇혀 지낼 때 동네 공원에 혼자 나가 ‘나 이렇게 자연도 못 보고 죽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남산의 소나무 숲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서울로 완전히 온 건가요?

아뇨, 이젠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과 뉴욕, 두 도시에 살아볼 작정이에요. 뉴욕에 집도 있고. 앞으로 뉴욕에도 공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두 도시에 모두 피다테르(pied-a-terre)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 공간이 참 특이해요. 사진으로 보면 모든 걸 새로 만든 공간 같은데, 막상 근데근데 개보수 전 낡은 공간의 흔적을 남겨뒀어요.

사실 제가 오기 전의 상태가 조금만 좋았다면 더 많이 남겨두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낡았 그대로의 콘크리트들은 남겨두고 싶었는데, 이 공간 자체에 데미지가 너무 많았어요. 결국 약간 손질을 해야 했죠.

오랜만에 <나의 사적인 도시>를 보니 2006년에 이미 ‘서툰’(subtle)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딱 맞아요. 이 공간의 취향이 정말 서툰해요.

‘미묘한’으로 번역되는 서툰은 ‘난해함’과 대조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툰함이란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든 취향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애정을 가지고 주의 깊게 봐야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요즘엔 세상이 점점 ‘서툰티’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너무 명확하니까요. 어떤 곳이든 요란하고, 분명하고, 확실해요. 마치 모두 ‘내 취향은 이런 겁니다’라고 싸우팅을 하는 것 같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취향을 외치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한참 들여다 봐야 하는 그런 서툰티가 어딘가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서툰티는 항상 잘 팔리는 퀄리티는 아니에요.

그렇겠죠.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서툰티를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보

이는 캐릭터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모든 아트는 서툰티를 품고 있어요. 그런 작품들을 제대로 느끼려면 좀 주의 깊게 봐야 하죠. 제가 예전에 어딘가에 쓴 표현인데요. ‘조명을 살짝 내리고 오래 두고 보는 상태’ 그런 게 미학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요샌 아무도 미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클럼지’가 박상미가 이야기하는 미학인 거죠?

일본의 어떤 미의식을 표현하는 단어인 ‘와비사비’처럼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미의식을 포괄하는 말을 찾고 싶었어요. 여기저기 물었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고, 없는 말을 찾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가 가진 미의식과 한국이 가진 미학의 공통적인 점을 포괄하는 단어로 뽑아낸 게 바로 대교약졸(大巧若拙)의 ‘졸’(拙)이에요. ‘졸한 미학’. 그러나 이 졸함은 서투른 초보자의 졸이 아니에요. 이 졸은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이 뭔가를 내려놓았을 때 나오는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졸을 번역한 영어 단어가 ‘클럼지’고요. 뉴욕에서 갤러리를 하면서 이 졸함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미학에 대해, 또 한국의 미학에 대해 책을 쓰고 싶었어요. 아시아 소사이어티에 가봐도, 서점에 가봐도,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은 몇 권 안 돼요. 이제야 한국 소설들이 번역되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지금 제 목표는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서점 스폰빌앤슈거타운에 제가 쓴 ‘클럼지’에 관한 책이 놓여있는 거예요.

방금 들어보니 ‘클럼지’는 어떤 삶의 태도이기도 하군요. 그리고 이 ‘토마스 파크’는 그 ‘클럼지’의 미의식으로 선별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아트 스페이스이고요.

토마스 파크는 클럼지의 모태이자 부캐라고 보시면 돼요. 책 기획에서 시작된 클럼지는 이제 클럼지 플랜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되었고, 온라인 플랫폼을 clumsy.site, 오프라인 스페이스는 클럼지 플레이스라고 불러요.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한 작품들이 클럼지 플레이스에 전시되어 있어요.

최근 한국 미술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젊은 나이에 호당 100만원이 넘는 구상화가들도 등장하고 있고요. 특히 돈을 벌 목적으로 투기하는 시장이 커진 것 같아요.

돈을 목적으로 작품을 사는 것과 작품을 음미하고 감상하고 즐길 목적으로 사는 건 시작부터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가장 좋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작가도 그래요. 자기 작품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비슷한 그림을 기계적으로 그린다면 그건 작품이 아니라 상품을 만드는 거죠. 반대로 작품의 가격에만 관심이 있어



서 차익을 목적으로 작품을 사는 사람은 작품을 사는 게 아니라 상품을 산 것이고요. 전 모든 소유엔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면 소유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소유할 수 있어서 소유하는 것과 사랑해서 소유하는 행위는 전혀 다르죠.

토마스 파크 이태원 시대의 첫 전시는 폴 팩의 <빠 드 두(pas de deux)>이지요.

사실 폴 팩을 한국에 처음 소개하기 위해 여러 번 스튜디오를 방문했어요. 폴 팩의 작품 중에는 대작이 많아요. 그런데 미드 사이즈의 페인팅들을 보니까 두 개의 품이 한 작품에 포함되는 형상이 반복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마치 두 명이 춤을 추는 것처럼요. 그래서 폴한테 “이 사이즈의 그림에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그림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있었어?”라고 물었더니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폴이 예전에 발레를 했거든요. 두 명이 추는 발레의 양식인 <빠 드 두>가 그렇게 전시 제목이 됐어요.

많은 갤러리가 2차 시장에서의 작품 판매로 돈을 벌지요. 사실 중계상 역할만 하는 갤러리도 많고요. 하지만 1차 시장에서 작품을 사는 게





무척 중요해요. 예를 들어 토마스 파크에 전시했고 전시 중인 그레그 콜슨, 브루스 가니에, 폴 팩, 박성욱 등의 작품을 산다는 건 그 작가들을 직접 서포트하는 일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들은 제가 수표를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웃음) 다들 팬데믹 때문에 전시가 스톱됐거든요. 사실 전시를 열고 그 작품을 파는 수익만으로 운영되는 갤러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블루칩을 거래할 때 수익이 나지요.

번역가로서 박상미는 아무도 누군지 모르는 줌파 라히리를 2006년에 번역하고, 또 제임스 설

터를 2010년에 한국에 소개한 얼리어답터이기도 하죠. 뭔가 해외에 다녀온 사절단처럼 최신 문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웃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제 처음은 <빈방의 빛>이에요. 마크 스트랜드가 살아 계실 때 호퍼에 대해 쓴 글이죠. 기획도 제가 했고 지금까지 팔리고 있어서 아직도 자랑스러워하는 책이에요. 제임스 설터 전에 제가 제안한 작가가 있었어요. 바로 앨리스 먼로예요.

앨리스 먼로요? 설마 그 먼로요?  
맞아요. 그때는 거절당했어요. 그때는 먼로를 정말

아무도 몰랐고 재미없어 했어요. 노벨문학상을 타기 한참 전이었죠. 제가 처음 제안한 때가 2004년이니까요.

그 이후로는 <킨포크>와 <사토리얼리스트>를 번역했으니 '클림지'가 어쩐지 당연한 스텝으로 느껴지네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죠.

취향이란 뭘까요?

2008년에 낸 제 책 제목이 <취향>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취향'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안 썼어요. 지금은 자주 쓰지만요. 전 취향이 파란색을 좋아하는지 빨간색을 좋아하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파란색이 좋다면 왜 파란색이 좋은지, 파란색에 관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더 나아가 그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취향의 생산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이 공간을 예로 들면 이곳이 어떤 취향의 맥락을 갖고 그 맥락이 다른 사람에게 유의미하게 전달되기를 바라요. 내가 보고, 좋아하고, 애정하는 것들을 모아둔 이 공간의 맥락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로 가닿는다면, 그래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성공이겠지요? ●



# CLASSIC NEW WAVE

freelance editor LEE YEJI  
photographer KIM SUNGRYONG

어리지만 강력한 클래식 새 물결이 당도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3인의 연주자를 만나 젊은 예술가의 삶과 음악에 대해 나른하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눴다.

01

## PARK JAEHONG

The Pianist

창공을 가르듯 울려 퍼지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함머클라비어'의 도입부. 그 순간 피아니스트 박재홍이 가진 힘은 이미 가늠된다. 장장 45분에 달하는 고난도의 대곡에 격정적인 타건과 극적인 해석, 황홀한 몰입이 이어진다. 국내 연주자에게서 보기 드문 187센티미터의 체구와 12도를 짚는 커다란 손, 연주에 쏟아 붓는 에너지의 파고가 넘실대는 피아니스트, 박재홍은 2021년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과 동시에 4관왕을 거머쥐며 차세대 연주자로서 자신을 각인시켰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그는 15세 때 아르헨티나에서의 독주회를 시작으로 국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는 중이다. "스케일 큰 연주는 에밀 길렐스를, 대범함과 여유는 게리크 울슨을 연상케 하며, 압도적인 파워와 견고한 테크닉을 바탕으로 대곡도 여유롭게 장악한다. 세계적인 대형 피아니스트로서 성장할 것"이라는 황장원 평론가의 말로 그를 소개한다. 여기, 셋별이 아닌 태양처럼 빛나는 대형 피아니스트가 등장했다.



최근 예술의 전당에서 한 리사이틀 잘 봤어요. 연주에 쏟아 붓는 에너지의 파고가 대단하더라고요. 앙코르도 무려 3번까지 했고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신체에서 오는 어드밴티지도 있겠지만 체력보단 정신력이에요.(웃음) 무대에선 음악과 나만 존재하는 완전히 제3의 세계에 돌입하는 거라, 그 위에 올라가는 순간은 음악에만 집중해요.

실제로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깊게 몰입한 게 느껴지더군요.

그게 저의 가장 큰 재능이에요. 지금 연주하고 있는 이 음악을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대곡인 베토벤 'hammerklavier'로 유명해요. 부소니 콩쿠르에서도, 최근 리사이틀에서도 선보인 곡이죠. 고난도로 손꼽히는 곡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피아니스트라면 죽기 전에 한번쯤 쳐보고 싶은 곡이죠. 전체 피아노 문헌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망설임 없이 hammerklavier를 고를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위, 화성, 구조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을 보는 기분이죠. 체계는 에베레스트 같은 산이고, 조금 어릴 적부터 치기 시작했지만, 열심히 오르는 중이이에요. 아직 정상에 오르지 못했지만 감히 한번 올라보고 싶은 산입니다.

짐머만이 내한했을 때, 당신의 hammerklavier를 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데요.

아직도 꿈만 같네요.(웃음) 마스터클래스를 받게 됐을 때, 짐머만 선생님이 hammerklavier를 쳐보라고 하셨어요. 긴 곡이니 1악장 정도에서 끊으시겠거니 했는데, 다 치고 나서도 한동안 말이 없으신 거예요. 워낙 높은 기준을 지닌 분이시니까 비평의 말을 고르고 계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쫓고 하시게 거예요. 2년이라 하니 사람들은 몇 십년간 이 곡에 매진해서 너처럼 치길 바란다고, 경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얼떨떨했죠.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는 누구인가요?

저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베토벤의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읽어요. 유서라고 하면, 죽기 전 닳두리나 이루지 못한 데에 대한 한 같은 게 담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유서는 힘을 지니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전까지 절대 죽지 않을 거고,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무시무시하죠. 베토벤의 초판 악보는 지웠다가 썼다가 한 흔적투성이예요. 많은 고심 끝에 한 음 한 음을 창조해냈고 귀가 들리지 않음에도 위대한 곡들을 써내려갔죠. 베토벤의 음악은 음악 같지 않아요. 어떤 예술이든 어떠한 경지에 오르면 그것이 장르를 뛰어넘어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연주자가 있나요?

에밀 길렐스를 정말 좋아하지만 그의 연주 습관을 닮을까봐 경계해요. 소콜로프, 단명한 유리 에고로프도 좋아해요.

동시대보다 옛날 연주자들을 좋아하네요?

맞아요. 감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레퍼런스가 너무 많고 너무 근처에 있는 시대예요. 유튜브에만 검색해도 유명 연주자의 연주가 있고, 구글에만 쳐도 논

문부터 브람스가 쓴 편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유럽에서 음반을 만드는 선생님이 요즘 모든 연주자들의 해석이 비슷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스탠더드가 되는 연주자의 연주로 연습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정답이 생겨나버린 거죠. 옛날엔 악보를 구하는 것부터 어려웠잖아요. 바흐도 오르간 연주자 북스테후데의 연주를 들으려고 400km나 걸어갈 정도였죠. 그러니 누군가의 연주는 자기만의 엄청난 고민과 방황 끝에 나오는, 그 사람만의 음악인 거예요. 저는 오리지널리티를 흠모하는 사람으로서 예전 연주자들을 더 좋아합니다.

피아노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저는 완전 돌연변이예요. 친가나 외가에 음악가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피아노에 앉는 과정 자체는 자연스러웠어요. 11세에 시작했으니 연주자치고 엄청 늦은 편이었지만요. 대신 매일 열 시간씩 쳤어요. 뒤편 하나에 꽂히면 제대로 파야 하거든요.

피아니스트로서 23세, 어떤 나이인가요?

알에서 부화도 안 한 상태죠.(웃음) 저는 JYP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씨가 멋있다고 생각해요. 몸과 목소리를 쓰는 직업인데, 예순 살 때 춤을 제일 잘 추고 싶고 노래도 제일 잘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동기 부여가 되는 말이에요. 저는 죽기 전까지 연주를 하고 싶고, 언젠가의 정점을 대비해 계속 공부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폴리니 내한 프로그램 보셨어요? 어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80대의 연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먼 훗날 노년의 박재홍의 리사이틀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길 바라요.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웃음)

이탈리아 투어를 마치고 귀국한 지 몇 시간 안 됐어요. 그리고 곧 다른 리허설에 가야 하죠. 이렇게 해외에 들락거리며 사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전세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번 투어에서는 8일간 7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기차 타고, 짐 끌고, 공연하는 연속이었는데, 지치다가도 무대 위에 올라가면 다음날 짐 끌 힘이 나더라고요.

피아노는 자기 악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지요. 결국 공연 때마다 처음 만나는 악기를 연주하는 셈인데, 그건 어떤 일인가요?

말 타는 것과 비슷해요. 말은 이 사람이 자기가 태울 자격이 있는지를 안대요. 어떨 때는 당나귀 같은 친구를 만날 때도 있고, 야생마, 잘 조련된 말, 어린 말을 만날 때도 있지요. 이탈리아에 간 첫째 날 베르가모에서 공연을 했는데, 버르토크가 쓰던 피아노가 있더군요. 100년 된 피아노였는데, 성격 좋은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느낌이었어요. 젊을 때만큼 민첩하진 않지만 따듯하고 연륜 있었죠. 그리고 페라라에서 세 번째 공연을 했는데, 극장에 파브리니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소콜로프가 치던 피아노인데요. 그걸 쳐봤는데, 와, 처음 보는 동물 같았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내면 그냥 버려요. 한 음 한 음 정성을 신지 않으면 소리를 안 내더라고요. 소콜로프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엄격히 통제하며 섬세한

소리를 뽑아내길 원하니까 더욱 예민한 피아노를 원하셨죠.

미술 작품에도 관심이 깊던데, 마주했을 때 음악적 영감으로 이어지는 작품이 있었나요?

시대와 사조를 가리지 않고 좋아해요. 로스코의 그림은 한국, 이스라엘, 유럽 세 곳에서 직접 봤는데요. 보고 있으면 마음 깊은 곳이 응어리지듯 아파오고, 무언가가 따듯하게 번져온달까요. 영혼을 보듬는 것 같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로스코의 색들이 제안의 감정들, 음악적 팔레트를 넓혀준 것 같았어요. 쇼팽을 치는 데 도움을 줬죠. 그리고 저는 폴록의 현대 미술 앞에서 현대음악을 이해하게 됐는데요. 원래 현대음악은 그 음악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해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폴록으로 이해해보니, 페인트 드리핑으로 그려진 작품에서 저기 흩뿌려진 페인트는 저 자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 점 하나는 저기 있어야 할 운명이고 그래야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현대음악도 비슷해요. 저 음이 저기 있어야만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콜드플레이와 <그리스인 조르바>를 좋아한다면서요?

제가 듣는 음악은 80이 클래식, 20이 다른 장르인데 그중 10이 콜드플레이예요. 화성학적으로 잘 짜여진 음악이고 팝에서 드물게 4/5박자, 겹박자를 쓰죠. <그리스인 조르바>는 여행을 가거나 큰 일을 앞두고서 다시 읽곤 하는 책입니다. 조르바의 자유의지는 누구나 흠모할 만하지 않나요? 조르바는 니체의 '초인'을 떠올리게 하는데, 저는 니체 철학이 예술가가 지녀야 할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데아를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믿음. 음악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손에 짚 수 없는 무언가를 표현해야 하잖아요. 그 허무맹랑하고 모호한 것을 확실하게 붙들어줄 수 있는 개념이 니체의 철학이죠. 많은 이들이 그의 철학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역시 그랬고요.

지향하는 태도와 닮은 클래식 용어가 있나요?

'안단테'. 이탈리아어로 안다르, 걷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뛰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으면서 한결같이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클래식 음악을 대중화하기 위한 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클래식이 과연 대중화될 수 있을까요? 클래식은 불친절하고 진입장벽이 높지요. 하지만 그만큼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향유해왔기 때문에 빛날 수 있었어요. 저는 클래식이 쉽게 다가서기 위해 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퀄리티가 유지된 채로 많은 대중이 접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요.

유학 갈 생각도 있나요?

유학보다는 유럽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어요. 빈, 하노버, 뮌헨, 베를린, 독일어권 나라에서. 거기엔 사방에 석판에 뭔가가 쓰여 있는데, 이를테면 '슈만이 떨어져 자살하려고 한 창문'을 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쇼팽이 1년 동안 살았던 집'을 보며 그의 흔적을 느끼고, '슈베르트가 좋아했던 호프집'의 의자에 앉아 한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웃음)



김동현의 바이올린은 맑고 정교하다. 스물두 살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에 찬탄하는 평론가들은 여러 형용사를 동원한다. “깨끗하고 깔끔하게 제어되는 바이올린. 가볍고 날렵하다.”(류태형) “웅골찬 음색과 탄탄하게 다져진 테크닉을 바탕으로 냉철한 지적 해석에 절제된 표현을 가미할 줄 아는 연주자.”(황장원) “음을 균일하게 유지하며 고운 음색으로 연주하는 뛰어난 능력.”(황진규)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3위,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 2위, 한국인 최초 영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우승 등 콩쿠르 수집가이기도 한 모범생은 예원학교 수석 졸업 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 뮌헨 국립음대에서 크리스토프 포펜을 사사 중이다. 성실한 연주자이기도 한 그는 올해 직접 기획한 4번의 독주회를 진행한다. 무반주 바이올린만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브람스만으로 공연을 채우기도 하며, 바로크부터 근현대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선보일 예정이다. 엄격한 연주자이자 왕성한 연구자인 청년의 실험은 무궁무진하게 펼쳐진다.



수상 경력이 화려해요. 세계 3대 콩쿠르인 차이콥스키 콩쿠르 3위, 서울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 제오르제 에네스쿠 2위, 영 차이콥스키 국제 음악 콩쿠르 바이올린 우승 등등.

더 도전할 수 있는 나이로 가능하면 더 출전하려 해요. 콩쿠르에 나가면 역량도 발전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시야도 넓어지거든요. 물론 음악을 어떻게 접수로 표현하느냐는 콩쿠르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점도 인지해요. 연주를 많이 해온 연주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고요. 하지만 전 스스로를 알려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입장에서 콩쿠르의 순기능을 더 보려고 해요. 그간 주로 러시아, 동유럽권에서

수상해서 서유럽에 있는 콩쿠르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19세에 차이콥스키 콩쿠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했을 때, 관객석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고함을 쳤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연주를 이어갔다는 건 지금도 이어져오는 이야기거리죠.

그때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갔는데, 열 받아서 그런 거예요.(웃음) 하지만 페이스를 최대한 빨리 되찾았죠. 무대에서의 집중력이 좋아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몰입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평소에도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편이라 그런 성향도 한몫하는 거 같아요.

외골수인가요?

아니고 싶어요. 현대의 흐름과 상이한 일을 직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쉽고, 또 이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엔 그런 분들이 많죠. 저는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할 일도 해나가고 싶어요. 연주할 때 말고는 외골수가 아니려고 합니다.

올해 직접 기획한 네 번의 독주회를 금호아트홀에서 열어요. 22℃ 산뜻함, 100℃ 뜨거움, 0℃ 차가움, 36.5℃ 포근함, 온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했어요. 음악에게서 온도를 본다는 발



상이 흥미로운데 어떻게 이런 기획을 구상했나요?

지금껏 하지 않았던 과감한 기획을 하고, 해보지 않았던 곡들을 연주하며 레퍼토리를 넓히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곡 캐릭터들이 맞춰졌고, 이걸 온도로 분류하면 흥미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음악을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배웠던 게 소리의 색깔이거든요. “이 대목에서 색깔을 바꿔보라”라는 말은 레슨에서 자주 듣는 말이죠. 초등학교 때는 악보를 색연필로 칠해보기도 했어요.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혹은 밝은 노란색으로 그러데이션을 넣어가면서요. 그리고 소리의 색깔을 원초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건 온도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마인드맵처럼 나온 기획입니다.

0°C 차가움 공연은 무반주 바이올린 곡으로만 꾸렸어요. 전체 무반주 공연은 정말 드문 기획이죠.

일단 무대에서 혼자 연주한다는 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에요.(웃음) 외롭고 무섭고 떨리죠. 그래서 차가운 온도로 정했죠. 바이올린의 높은 소리가 차가운 걸 만졌을 때의 샤프한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깔끔하고 푹 부러지는 느낌이 좋지요. 제가 닮고 싶은 소리이기도 하고요.

음악평론가들은 당신을 정공법을 구사하는 모범생 연주자라고 하더군요. 동의하나요?

연배가 있으신 교수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생긴 대로 한다.” 사람의 성격, 가치관, 평소의 생각과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음악에 묻어나 오거든요. 저 스스로는 모범생이 아니고 싶었지만, 돌아보면 항상 그랬어요. 해야 하는 건 제대로 하는 성격이거든요. FM이에요.(웃음)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는 누구예요?

브람스를 가장 좋아합니다. 브람스로만 프로그램을 구성할 만큼이요. 중학생 때 브람스 소나타에 빠져서 콩쿠르 곡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당시 김남기 교수님께서 “그건 나이 먹고 하라”고 하셔서 ‘왜 브람스는 나이 먹고 해야 하는 걸까’ 신경 쓰다가 애착을 갖게 됐죠.(웃음) 브람스는 균형 잡혀 있고 따듯하고 인간적이에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작곡가들은 인간적인 느낌은 아니잖아요. 전자는 인간을 뛰어넘는 노력을 보여준 음악가고 후자는 그냥 천재죠. 하지만 사람은 공감할 수 있는, 자신과 비슷한 것에 애정을 갖게 마련인 것 같아요.

사실 브람스에겐 열등감도 많았죠.

맞아요. 그래서 더 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앞으로 수백 수천 년 동안 들려질 곡을 쓴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자신은 열등감도 많고 사랑에도 실패했죠. 브람스 특유의 쓸쓸한 감성은 위로로 바라기보다는 듣는 이를 위로하는 느낌이에요. 쓸쓸한 멜로디 끝에 감싸 안아주는 듯한 화성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충분히 따듯하고 충분히 사랑할 줄 아는 작곡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공부해도 계속 공부할 것이 있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음색과 스타일 면에서 거장 볼프강 슈나이더한, 헨릭 셰링을 연상시킨다”는 황장원 평론가의 평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연주자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영광입니다. 헨릭 셰링은 제가 연주를 많이 보면서 연습한 연주자이기도 해요. 하지만 최근 많이 듣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연주자들은 다른 분들입니다. 오귀스탱 뒤메이, 니콜라이 즈나이더, 어거스틴 하델리히를 좋아해요. 뒤메이는 비브라토를 극한으로 활용하며 색깔을 바꿀 줄 아는 탁월한 연주자고, 즈나이더는 굉장히 남성적인 소리를 내면서 사투리처럼 독특한 악센트를 구사하는 연주자죠. 개성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이 배우고 싶은 점이에요. 하델리히는 ‘파인’한 소리를 내면서 정성스럽게 한 음 한 음 버리지 않고 연주하려는 연주자라는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예원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예종 영재과정으로 입학, 지금은 뮌헨 국립음대에서 크리스토프 포펜 교수에게 사사 중이죠. 남들보다 앞선 엘리트 코스만 걸어왔어요.

일반적인 경로보다는 빨리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영재 제도에 부정적인 평도 있지만 긍정적인 기능도 존재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시간을 벌어드는 게 있으니 지쳐도 조금 쉬어갈 수도 있고요. 물론 지치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만.(웃음) 단점은 한예종에 들어갔을 때 저는 열여덟살이라 술자리에 못 간 거 정도네요. 이젠 학업 과정을 끝마쳐 가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외인 대목인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다이하 등급이라면서요?

예원학교 다닐 때 LOL이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연습 시간을 줄일 수는 없어서 잠을 줄여가며 했습니다. 참고로 다이하 등급은 일반인이 취미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웃음) 다이하 등급이 된 후로 목표로 할 게 없어서 요샌 재미 삼아 합니다. 지금 좋아하는 건 축구고 첼시 팬인데요, 요즘 쉽지 않아요. 구단주가 푸틴 최측근이라 구단주가 없어졌거든요. 여하튼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좋은 건 유럽 리그 경기를 새벽에 안 봐도 된다는 것이죠.(웃음)

주식에도 관심이 있다고요?

원래도 뉴스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 돈이 들어가 있으면 더 관심 있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주식 자체보단 세상 일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순수예술이라는 게 세상과 괴리되기 쉬운 일인데 말이죠.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어요. 모든 영혼을 갈아 넣어도 부족한 게 음악인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쓰며 사냐고 하실 수 있지요. 물론 음악은 저의 모든 것이지만, 동시에 아직 살날이 더 많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에 갖출 것은 갖춰야죠. 멋지게 늙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이게 저의 가장 큰 목표예요.

당신에게 멋지다는 건 뭐예요?

열려 있는 자세를 지닌 것. 나이 들수록 자기가 해왔던 거, 경험했던 거, 알던 것만 고집하게 되기 싫잖아요. 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속 알고 싶

은 게 생기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겐 그런 게 멋집니다.

스스로의 연주를 사랑하나요?

만족한 적은 없지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들으시는 분들도 좋게 들으실 수 있거든요.

지향하는 태도와 닮은 클래식 용어가 있나요?

‘셈프레’. ‘지속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지속해라. 다른 표기가 나올 때까지 하던 걸 계속해서 하라는 거죠. 영어로 치면 keep. 꾸준함은 저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르마 시절 과다니니가 만든 1763년산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어요.

점점해주는 마이스터분 말씀인데, 누가 쓰는데 따라 소리가 조금씩 바뀌어 온다고 하더라고요. 신비하죠. 악기는 생물이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생동감이 느껴져요. 7년째 사용하면서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김동현에게 바이올린이란?

저의 명함이자 친구이자 가족이자 원수입니다.(웃음)

최근 선배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연주 영상이 유튜브 100만 뷰를 넘겼어요. 젊은 연주자로서, 클래식이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도 산업이고 수요가 따라줘야 하는 분야죠.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든, 연주자를 통해서든, 지금보다 친밀하게 다가가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클래식은 실연을 통해 들어야 그 매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메타버스의 시대에서 클래식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시점이에요. 우선은 대중에게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마음가짐에서 오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플랫폼으로 클래식을 알리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물론 클래식 음악이 가진 엄숙함, 고귀함, 역사, 이런 것들 역시 존중받아야 하죠. 다만 저는 음악은 존중하되, 사람은 친밀하게 다가가는 게 어떨까 해요. 일부 클래식 팬들에겐 썩 달갑지 않은 일이란 걸 알지만, 지금은 다 같이 힘을 합쳐 헤쳐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젊은 연주자로서 기성 세대의 연주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감히 이야기하기에 조심스럽지만, 다른 태도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앞으로 더 바뀔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시대는 여러 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기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10년도 너무 길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연주자로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건 저희가 더 절실히 느껴야 할 점이에요.

앞으로의 당신의 야심은?

제가 음악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제한은 두지 않으려 해요. 솔리스트가 됐든 실내악 연주자가 됐든 오케스트라가 됐든 간에 악기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멋지게 늙고 싶습니다.





03

## HANJAEMIN

The Cellist

첼리스트 한재민을 수식하는 모든 말엔 '최연소'가 들어간다. 만 8세 최연소로 원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 만15세 역대 최연소로 제오르제 에네스쿠 콩쿠르 우승, 최연소 예술 영재로 발탁되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 화려한 경력을 가진 한재민은 고작 열여섯 살이다. 그의 활 끝에서 나오는 풍성한 음색, 리드미컬한 박자감, 시원시원한 표현력,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현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 저 작은 소년 안에 도대체 어떤 거장이 자리한 건지 물음표와 느낌표가 정신없이 교차한다. “과감한 접근, 거침없는 연주. 현란한 기교와 지칠 줄 모르는 체력. 물고 늘어지는 승부근성!”(류태형), “장차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황장원), “한재민은 이미 자신의 강점과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알고 있다”(황진규)는 단언에 가까운 찬사에 열여섯 살 한재민은 무어라 화답할까. 어리다는 말이전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아티스트를 만났다.



제오르제 에네스쿠 콩쿠르 첼로 부문 역대 최연소 수상, 한예종 최연소 학생을 비롯해, 당신의 이름 앞에는 최연소가 항상 붙어요. 5세 때 첼로를 잡았고 아직 16세죠. 사람들이 이렇게 경탄할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나요?

전 최연소라는 말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요. 음악은 음악만으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제 음악에서 소년미가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전 음악 그 자체로 평가 받고 싶어요.

또래보다 성숙한가요?

어릴 때부터 선배님들과 지내는 게 익숙해서 그런 편이죠. 애늬은이라는 말도 많이 듣는데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웃음) 제 연주엔 이 나이대만의 감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악가로서 16세, 지금 당신의 나이는 어떤 나이인가요?

황금 같은 나이죠! 어딜 가도 제일 어린 건 장점이예요. 어리니까 좀 봐주거든요.(웃음) 농담이고,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음악가로서는 조금씩 아이 티를 벗는 나이기도 해요. 테크닉 면에서나 깊이 면에서나 성장이 보이는 시기랄까요. 좋은 연주자들과 작업하고, 많이 영감 받으며 이 시기를 보내야죠.

사춘기 아니에요?

어쩌면 사춘기일 수도... 많이 겪는 만큼 부딪히는 시기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좀 부딪혀봐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눈으로 못 보면 못 믿고, 남들이 아프다 그래도 이렇게 대박이야 아픈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배우고 있는 지금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키가 더 클 나이죠.

월기왕성한 열여섯 살이니까요! 무대에 올라가면 감각으로만 하려는 면이 있거든요. 연습할 때는 정교하게 만들어내야 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순간순간 느껴지는 것들로 연주를 채워요. 그게 라이브 콘서트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재즈나 탱고도 감각적으로 소화하던데요. 마크 서머(Mark Summer)의 'Julie-O'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현을 기타처럼 뜯고 첼로 몸통을 타악기처럼 두드리던데, 클래식 연주자에게서 보지 못한 모습이라 흥미로웠어요.

재즈를 좋아해요. 클래식은 정교한 틀이 있다면, 재즈는 틀을 허물며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매력이죠. 'Julie-O'는 미국 첼리스트가 만든 곡인데, 이렇게 대중에게 편안하고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첼로 레퍼토리가 흔치 않아요.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재즈죠.

곧 콩쿠르 우승 후 첫 리사이틀을 개최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직접 기획한 첫 리사이틀이예요. 제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직 어린 연주자지만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했어요?

프렌치 특유의 멜랑콜리한 무드를 좋아해서 프랑크, 드뷔시 위주로 짜봤어요. 나이 역순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했는데요. 프랑크가 60대에 만든 소나타, 드뷔시가 50대에 만든 소나타, 쇼팽은 30대에 만든

소나타와 10대 때 만든 폴로네이즈 순이죠. 점점 젊어지는 셈이예요. 사실 프랑크를 첫 곡으로 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엄청 화려한 곡이라 대개 마지막에 연주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프랑크의 도입부로 리사이틀을 성대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맨 앞에 배치했죠. 보통 애피타이저처럼 짧은 곡을 먼저 하고 긴 곡으로 마무리하곤 하는데 이 리사이틀에선 그것도 반대예요. 일단 잘 차려낸 메인부터 먹고, 그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 거죠!

연주하면서 가장 신났던 적이 있나요?

좋은 연주자와 함께 좋은 음악을 연주하며 마음이 딱 맞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음악이 빛난다고 느껴지고, 연주가 이대로 영영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분이 들어요. 또래 친구이자 훌륭한 피아니스트인 임윤찬과 듀오 공연에서 라흐마니노프 소나타를 연주했을 때 정말 그랬거든요. 지금도 유일하게 다시 듣는 제 연주곡이예요.

스스로의 연주를 사랑하나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는데 평생 그런 순간이 올까요? 연주자는 평생 자기 음악에 만족 못하고 죽는다고 하던데 말이예요.

존경하는 연주자가 있나요?

그때그때 바뀌는데, 요즘 가장 좋아나는 첼리스트는 다닐 샤프란이예요. 자기 색채가 강한 연주자라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저는 그분만의 색깔이 있는 게 좋아요. 요즘엔 첼로 말고도 다른 곡을 많이 듣는데요. 루빈스타인의 쇼팽 앨범과 장-에프랑 바브제의 드뷔시 앨범, 바순 연주곡들, 빌 에반스와 쉿 베이커, 배리 해리스 음악을 들어요. 어, 말하고 보니 재즈를 많이 듣네요.

혹시 케이팝도 들어요?

이문세, 김광석, 유재하 노래가 좋아요. 그분들 노래는 예술이죠. 그분들보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겠지만 와 닿는 노래를 하는 가수는 드물다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 가요는 거의 안 들어요. 기계적인 소리에 거부감이 있거든요.

요즘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건 안 좋아해요?

네. SNS도 잘 안 하고, 게임도 못해요. 제가 유일하게 졸업식을 한 게 초등학교 때인데요, 그때 친구들과 이랑 오랜만에 연락이 되어서 만났는데 다들 게임을 하고 노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보다가 집에 갔어요.(웃음)

어른들의 세계에서 활동하니 당연한 건지도요. 김선욱, 손열음처럼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듀오를 한 건 어떤 경험이었나요?

어린 연주자로서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죠. 저는 함께 연주하며 배우는 게 되게 많은 사람인데 행운이었어요. 손열음 감독님은 정말 잘 예뻐해주세요. 김선욱 선생님은 "이제 네가 한국의 첼로를 이끌 거다, 같이 연주하자"고 번호를 받아가셨는데 지나가는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전화가 와서 2주 뒤에 듀오 연주를 하자시더라고요.(웃음) 그래서 했죠! 함께 브람스 소나타 1,2번을 연주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브람스를 깊게 이해하는 피아니스트와 연주를 하니 황홀했지요.

연습을 매일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한다던데? 자라면서 연습을 하루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크다

는 걸 알게 됐어요. 제 기준도 높아졌고요. 낮에 학교를 가니까 연습하다 보면 새벽 두세 시에 자는 게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콩쿠르나 중요한 공연을 앞두면 밥 먹는 시간 빼고 연습해요.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지만, 공연을 하면 정말 해소가 돼요.

또래들이 한창 놀 시기에 아쉬움은 없어요?

전혀요. 각자가 자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래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면 새벽까지 공부하고 입시 준비하느라 바빠요. 물론 놀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축구를 하거나 봐요.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의 팬이예요. 스포츠랑 음악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저희가 무대 위에서 공연하듯 그들은 경기장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죠. 닳았으면서도 달라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플루트 전공자라고 들었어요. 플루트가 아닌 첼로를 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부모님은 음악을 권하지 않았는데 제가 첼로를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어린 마음에 크면 다 멋있어 보였거든요. 콘트라베이스 안 한 게 다행이예요.(웃음) 자연스럽게 꿈이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의 꿈'에 첼리스트라고 적어낸 순간부터요.

이제 첼로를 한 지 10년 됐죠?

딱 10년이네요. 하지만 10년도 오래 한 건 절대 아니죠. 아직도 초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열 배는 더 음악을 해야 하는 걸요. 그런데 클래식엔 앞날을 모르거든요. 무명 연주자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도 하고,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지기도 하고. 음악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렇기에 더 긴장하면서 열심히 해야 해요.

언제까지 첼로를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첼로가 싫어지지 않는 한 오래요.

당신에게 첼로란 어떤 의미인가요?

제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한 동반자죠. 하지만 제 몸의 일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애도 다른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어떤 땐 달래주기도 해야 하는 존재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첼로는 5개월째 함께하고 있는데 마치 어려운 여자 같아요.(웃음) 제가 제발 나와주라, 나와주라 부탁해야 어렵사리 좋은 소리를 내주죠.

지향하는 태도와 닮은 음악 용어가 있나요?

애드리브. 예술을 하면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걸까요?(웃음)

클래식 음악을 대중화하기 위한 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말처럼 '클래식의 대중화가 아니라 대중의 클래식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자칫 클래식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순수예술의 희소성도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당신의 야심은?

지금 당장 도전해보고 싶은 건 베토벤 소나타 전곡이예요. 그리고 피아노 반주 없이 첼로 솔로 독주회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한동안 콩쿠르에만 전념했는데 이제는 인간으로서 깊어지고 싶어요. 그게 좋은 연주자의 전제니까요. ●





사유원 내부 풍경. 경상북도 군위 부계면에 위치한 33만mm<sup>2</sup>(10만 평) 규모의 수목원으로, 수백 년 수령의 귀한 나무들이 부지 곳곳에 심어져 있다.



경상북도 군위에 사유와 명상을 위해 지어진  
수목원이 있다고 했다.  
다녀온 누구나 말하기를,  
직접 걸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라고 했다.

editor OH SUNGYOON

photographer PARK HYUNSUNG

나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 함께 걷다 문득 멈춰 서 “이런 곳에 팽나무가 있네” 한다든가 “이팝나무가 벌써 흐드러졌네” 하는 사람들. 어릴 때는 그게 여느 눈썰미 좋은 어른이나 마찬가지로 그저 신기할 뿐이었다. 수산시장에서 생선 종류를 척척 구분하는 어른이나 자동차 앞코만 보고 모델명을 말하는 어른과 크게 달리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나이를 먹으며 새삼 그 능력을 곱씹게 되는 건 그게 다른 종류의 마음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입에 들어가는 것을 따지거나 호사를 꿈꾸는 동안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배경처럼 놓인 것들을 하나하나 구분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 능력이라서. ‘이 나무와 저 나무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작년의 나무와 올해의 나무가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할 때 두터워지는 계절과 삶의 측면이 있지 않을까?’ 경상북도 군위의 어느 숲을 거닐 때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분명 잘생긴 나무가 참 많기도 한 곳이라 들뜬 탓이었을 텐데, 그 수목원의 이례적인 명칭이 마주치는 모든 아름다움과 조용하는 부분도 있었다. 사유원(思惟園). 이름하여 ‘생각하며 거니는 정원’이었다. 과묵한 디자인의 입구 벽면에서부터 반가사유상의 이미지가 커다랗게 새겨 있어서, 그리고 문득 돌아보면 우뚝 솟은 표지석 뒤편에도 범상치 않은 필치로 ‘思惟園’하고 쓰여 있어서, 완전한 숲속으로 발을 들인 후로도 오래도록 그 이미지와 의미를 더듬게 되었다.

#### 네 그루의 모과나무라는 근간

사유원의 설립자 역시 나무와 연을 쌓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살아온 사람이다. 적지 않은 비용도. 태창철강 유재성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자연에 큰 애정을 쏟아왔는데, 덕분에 업체에서 풍기는 인상과 달리 태창철강 대구 본사 부지는 너른 한국식 정원을 품고 있기도 하다. 그가 국산 모과나무의 일본 밀반출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회사 정원의 관리 직원 덕분이었다. 정원사는 이번에도 300년 수령의 모과나무 네 그루가 일본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고, 설립자는 곧장 부산항으로 달려가 후한 값을 치르고 그 나무들을 도로 사왔다. 1989년 당시 돈으로 2000만원을 주고, 액수를 마음의 크기인 양 내세우는 문장이 자칫 속돼 보일 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숫자로 간단히 증명되는 마음도 있는 법이다. 유재성 설립자 같은 행보를 가진 사람이라면 특히 그렇다. 그는 네 그루의 모과나무 이후로도 지난 30여 년간 끊임없이 귀한 나무를 수집했고, 그 나무들이 살 곳으로 마련하기 시작한 부지만 해도 이제 66만m<sup>2</sup>(20만 평)에 달한다.

그곳이 곧 사유와 명상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처음 말한 건 건축가 승효상이었다. 그리고 ‘골프장 짓기 참 좋은 땅이다’ 같은 조언에 진력이나 있던 설립자는 그 발상이 꽤 흡족했던 것 같다. 그때의 제안이 거의 고스란히 시설의 근간이 되었으니까. ‘사유원’이라는 이름까지도. “이름이 정해지자 이 수목원의 성격과 같 길이 명확해졌다. 여기에 짓는 모든 시설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며 영성을 맑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목적이 되기로 한 것이니 단순한 수목원이 아니어야 했다.” 승효상 건축가의 작업 노트에 쓰인 설명이다. 이 대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수목원을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 조성된 시설이 아니라, 나무 하나하나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오랜 세월 더께를 쌓듯 만든 장소라는 사실을. 그러니 수목원의 어떤 전형을 머릿속에 품고 사유원을 찾은 사람은 돌아보는 내내 어리둥절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목원의

로 분류되기는 하나 실상 자신만의 존재 의의와 취향을 굳게 따른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사유원을 방문한 날, 시계 방향으로 크게 한 바퀴 돌고자 서쪽 끝으로 향했을 때 계곡의 낙차를 이용해 조성된 다섯 개 연못 ‘오당’을 마주했다. 다섯 오(五)가 아닌 깨달을 오(悟)를 써서 ‘깨달음을 얻는 연못’이라 했는데, 당도해보니 정작 물은 맑지가 않고 꽤나 탁한 녹색 빛이었다. “그러게요.” 사유원 운영팀의 김준 매니저는 그저 이렇게 답했다. “녹조가 좀 올랐네요. 요새 비가 통 안 왔잖아요.” 연못을 위한 인위적 배수 시설이 따로 없다는 뜻이었다. 그 필요성도 알지 못한다는 듯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내 그 자리에 있던 자연은 결국 스스로 구할 것이라는 것. 그 과정에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가 아닌가는 별로 중요치 않다는 것. 그런 것 역시 수목원이 되기 전부터 오랜 세월 이 길을 거닌 설립자가 아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사유원의 다른 어느 모퉁이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기도 했다. “자연이 자연스럽지 않고 자유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自然이 아니다.” 설립자가 직접 쓴 글씨라고 했다. 오당을 바라보던 김준 매니저는 마침 생각났다는 듯 말을 이었다. “비가 오면 오당에 물안개가 껴요. 몽환적인 풍경이죠. 사유원의 건축과 자연을 보려면 맑은 날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비 내리는 날 찾는 것도 추천하고 싶어요. 굉장히 운치 있거든요.” 그의 말을 듣고 있으려니 수목원이라는 형식과 사유를 연결 짓는 건 어찌면 자연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일 듯했다. 도시 사람의 눈에는 얼마나 위태로워 보이든 그냥 그런 시기로 존재하는 초록빛 호수라거나, 구태여 맑은 날 쏟아지는 햇볕 속에서 깨끗한 물을 상상하게 하는 숲이라거나, 사유의 영감은 자연 그대로도 차고 넘치는 듯했으니까.



## 숨은 건축, 감출 수 없는 존재감

그리고 사유원의 이런 별난 성격을 이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괜한 것에도 기분이 좋아진다. 실제로 걷다가 문득 팜플릿을 펼쳐 지도만 봐도 흐뭇했다. 도무지 ‘어떻게 생겼다’고 말하기가 힘든 시설이라서. 그 영역을 구분 짓는 경계는 곧다 싶으면 둥글어지며 둥글다 싶으면 툭툭 불거졌고, 내부에 조성된 길도 마찬가지로였다. 곧다가 확확 돌아나갔다가 꼬불꼬불하고 경사도 많았다. 그리고 그렇게 일말의 규칙성을 찾기가 힘들다. 니 자연스레 상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곳에 원래 있던 것들을 최대한 덜 괴롭히는 방향으로 조성했나 보다 하고, 이제 와 마냥 흐뭇하지 못하고 곤란한 이유는 원고에 그 시설이 어떻게 생겼는지 옮기기도 쉽지 않아서인데... 북동쪽으로 쪽 뺨은 사선 형태를 기반으로 곳곳에서 길이 갈라지고 다시 만나며 물에 떨어진 한 방울 잉크 형태를 그린다고 하면 그나마 근접한 묘사일 테다. 그리고 그 길의 줄기 사이사이에 열매처럼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다. 사유원이 미처 국내에 그 존재를 널리 알리기도 전에 해외 우수 매체의 이목까지 끌었던 건 건축의 힘이 컸다. “어떻게 알았는지 오픈하기도 전에 찾아온 외국인도 있었어요. 개중에는 입장이 어렵다고 하나까 몰래 담을 넘는 경우도 있어서 곤욕을 치르곤 했죠.” 사유원 영업팀 홍효림 과장의 설명이다. 출입구부터 화장실, 벤치까지 사유원의 인위적 요소 대부분을 디자인한 승효상 건축가는 그 내부에 ‘명정’ ‘사담’ ‘와사’ 같은 건축물도 지었고, 프리츠커상 수상 건축가인 알바로 시자는 ‘소요현’ ‘내심낙원’ ‘소대’ 같은 건물을 설계했다. 원오원아키텍츠의 최욱 건축가도 카페 ‘가가빈빈’을 비롯한 몇몇 전망대의 설계로 참여했다. 눈여겨볼 지점은 이 건축물들 대부분이 뚜렷한 목적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연못 오당을 끼고 지어진 ‘누운 수도원’ 와사는 이름처럼 그저 거닐며 생각에 잠기기 좋은 구조물이었고, 수목원 끝자락 언덕에 세워진 명정 역시 목상을 위한 공간이었다. 명정은 천장이 없이 상부가 흰색 열린 건축물이지만 좁은 계단을 따라 발을 들이는 순간 사유원 어디서나 볼 수 있던 자연은 높은 담에 막혀 일거에 사라졌다. 그리고 아래로 아래로 돌아 내려가니 곧 콘크리트 벽과 물, 달항아리 조형물로 이루어진 형이상학적 공간이 펼쳐졌다. 사면의 벽에 부딪혀 울리며 자꾸만 스스로의 존재를 자각시키던 발소리, 머리 위를 가로지르는 새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나는 듯했던 감각. 사실 명정이라는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 말해야 할 부분은 소재나 형태보다 오히려 그런 경험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소요현 역시 그 자체로 하나의 미술 작품이라 할 만한 공간이다. 입구에서 Y자 형태로 갈라진 구조물 양 끝에 각각 무모한 폭력을 주제로 한 공간과 생명을 주제로 한 공간을 조성한 건물. 한쪽에는 허공에 매달린 철강 구조물로 폭력과 전쟁을, 다른 한쪽에는 거대한 대리석 알 형태 구조물로 생명을 표현한 것이다. 이 건축물은 사실 알바로 시자가 일찍이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위해 만들었다가 축조까지 하지는 못한 파빌리온 설계안을 구현한 것인데, 이제 와 재미있는 건 그것이 사유원이라는 공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이를 테면 폭력과 생명의 오브제들 뒤로 건물 끝자락이 활짝 열린 구조 같은 것. 무겁고 서늘한 작품들을 감상하다 코너를 돌면 짙은 녹음이 내 존재 전체를 감싸듯 달려드는 것이다. 두 공간 사이에는 정향나무, 미선나무, 미스김라일락 등 향기가 좋은 나무들로 ‘몽향구’라는 중정이 조성되어 있기도 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요현에 시적 영감을 더해주고 있는 건 새 둥지였다. 양쪽 공간으로 길이 나뉘는 갈림길의 벽면에 작은 홈이 있어 들여다보니, 어느 새가 둥지를 짓고 알을 낳아둔 채였다. 무슨 새의 알인지 사유원 관리팀도 잘 모른다고 했다. “혹시나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새가 깨어나면.”

둥지 사진을 찍어 SNS 공식 계정 같은 데에 ‘아무개 새가 알을 낳았어요’ 호들갑을 떨지 않는 것. 어떤 관심이나 사건에도 짐짓 태연한 것. 괜히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도 사유원이라는 수목원의 별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이렇듯 빼어난 건축물을 여럿 갖추고 있는데,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서 봐도 그들 대부분이 잘 보이지 않았으니까. 승효상 건축가는 강력히 희망하기로 ‘마치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듯한 건물들’을 짓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모든 시설을 땅속으로 넣거나 묻히게 했다는 것이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했다. “사유원에서 건축은 중요하지 않으니, 나무를 흘깃 보지 말고 대화하도록 노력하세요.” 지나치게 건축에만 집중하는 태도는 이 수목원의 의도에서 한참 벗어나는 일이라는 뜻이다. 다만 건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무래도 좀 지나친 표현이지 싶기도 했다. 알바로 시자가 만든 작고 고요한 예배당 내심낙원, 승효상 건축가가 버드나무 숲에 조성한 수변 공연장 사담, 수목원 정상부에서 통창으로 팔공산 비로봉을 내다보는 최욱 건축가의 북카페 가가빈빈, 한국식 정원의 정수를 펼쳐놓은 유원... 모든 장소가 저마다의 신선한 경험과 영감을 안겼으니까. 이 걸출한 건축가들은 대지와 주변 자연을 이해한 후 그에 종사하는 건물을 지었고, 그렇기에 건축물을 하나하나 오롯이 즐긴 관람자는 나무와 좀 다른 종류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할 것이다.



(1)

(1) 사유원은 일반적인 수목원의 범주를 넘어 ‘사유하고 명상하는 정원’을 지향한다.

(2) 현암 위에서 내려다본 사유원 풍경. 인위적인 요소는 모두 숨기듯 조성해 가장 높은 전망대인 소대 외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현암 내부. 사유원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건물로, 삼면이 트인 전망 창을 통해 '땅과 하늘 사이에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1)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소요현 내부. 무모한 폭력과 전쟁을 주제로 한 공간으로, 다른 쪽 끝에는 생명을 주제로 한 공간이 있다. (2) 명정 내부. 사유원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한 건축물로,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한 명상의 공간이다. (3) 와사. 역시 승효상이 만든 구조물로, 연못 오당을 감상하며 명상할 수 있는 작은 수도원을 의도했다.



### 사유원의 주인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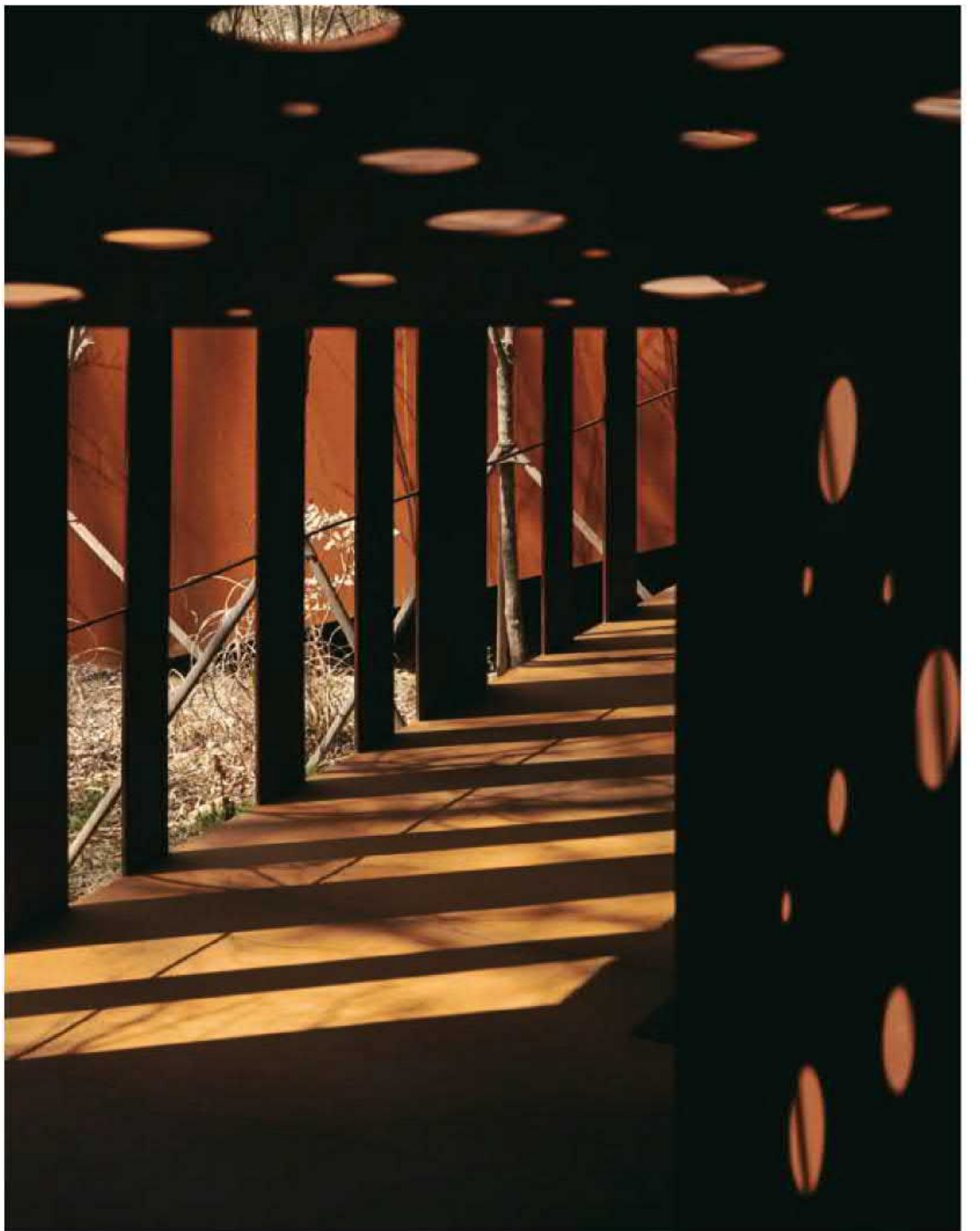
만약 승효상 건축가의 말처럼 건축물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사유원의 주인공은 무엇일까? 아마 많은 사람이 모과나무밭 ‘풍설기천년’을 꼽을 것이다. 정상부에서 다시 입구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목에는 모과나무 108그루가 식재된 들판이 펼쳐졌고, 그 속에는 사유원의 단초가 되었던 4그루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모과나무는 아무리 잘 찍은 사진도 직접 보는 것만 못한 것 같아요. 눈으로 볼 때의 오묘한 느낌이 담기지 않는 것 같다고 할까요?” 홍효립 과장이 지나가듯 한 말이 절로 떠오르는 광경이었다. 저마다의 전위적 모양을 가진 나무들이 언덕 여기저기 수행자처럼 들어앉아 장관을 펼쳤고, 다만 거닐며 깊이 들여다보면 300년 이상 수령의 고목 하나하나가 보여주는 건 더없이 소박하고 진솔한 역사였다. 정원 초입에서 사라졌던 포토그래퍼는 한참 뒤에야 문득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여기 하루 종일이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그 말을 얼른 노트에 옮겨 적었다. 이곳에 다다른 누구나 자연히 떠올릴 감상 일 거라는 문장과 함께, 잘 가꾸어진 정원이라는 것만으로 조경에 식견이 없는 사람이 경이를 느끼기는 쉽지 않은 일이겠으나, 그의 웃는 얼굴은 딱 그런 종류였다. 경이. 시종 담백한 작명을 추구하는 듯하던 사유원이 과연 ‘바람과 눈을 이겨 1000년을 이겨내는 정원’이라는 다소 거창한 이름을 붙여놓을 법했다.

물론 풍설기천년이 이 수목원의 주인공이라는 주장에 사유원 관계자 누구도 동의하지는 않을 테다. 사유원을 이루는 식물은 1000여 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모과나무 외에도 귀한 나무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유원에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고 할 만큼 직접 작업복을 입고 곳곳을 가꾼 설립자나 유준혁 대표는 분명 귀한 나무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할 것이며. 어쩌면 계절에 따라, 날에 따라 주인공이 바뀐다고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아직 상상한 느티나무 숲 ‘한유시경’을 지날 때는 한여름 흐드러진 잎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는 길을 상상하게 되었고, 배롱나무 뜰인 ‘별유동천’을 지날 때는 새하얀 가지마다 붉은 꽃이 잔뜩 돌아난 가을 풍경이 놀랍도록 아름답다는 전언을 곱씹게 되었던 까닭이다. 돌은 또 어땡고. 그 귀한 나무들을 두고, 나는 때로 포토그래퍼를 불러 세워 돌 구경을 시켰다. 이 바위 좀 보라고. 너무 잘생기지 않았느냐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유원이라는 세계를 빚어낸 건 유명 건축가들만이 아니다. 사유원의 풍경은 정영선, 가와기시 마츠노부 같은 장인 조경가들이 풀과 나무, 물과 돌의 바른 위치와 조화를 세심히 따져 조성한 것이다. 바위 하나까지도 강원도 해안 지역에서 엄선해 가져온 것을 일일이 골라 1cm 단위로 옮겨놓으며 제자리를 찾았다고 했다. 물론 1cm의 차이를 범인이 알까마는, 감동은 누구나 받을 것이었다.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것들을 구경하고 다니면서도 어찌 계속 융숭한 대접 받는 듯한 느낌은 그런 치밀함이 모여 만든 것이었을 테니까.

말인즉, 사유원은 이런 곳이다.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오랜 세월 쌓여 만들어진 곳. 부지를 차지하고 있던 산세와 자연을 최대한 그대로 두고자 하며, 인위를 들인다면 그 어떤 것도 허투루 택하지 않은 곳. 그리고 그 모든 정성에도 기이할 정도로 과묵한 곳. 아무렴 사유를 권하는 이가 미답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너무 수다스러워도 안 될 일이지 생각하고 보면 현명한 태도 같았다. “보통은 입구 옆 이쯤에 장황한 설명문을 걸어놓았을 텐데요.” 내일부터 일반 관람객에 공개 예정이라는 전망대 소대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농담 삼아 말했을 때 홍효립 과장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설명이 감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선입견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 선입견 없이 사유원을 직접 경험하는 게.” 듣고 보니 과연 ‘사유를 위한 수목원’에 맞는 방침 같았다. 그래서 소대 앞 현판에는 이렇게만 쓰여 있다. “소대 Miradouro 巢臺”. 장소에 따라 몇 줄의 설명이 덧붙여 있거나 반대로 한글 병기 없이 한자만 적힌 경우도 있지만, 사유원에서 볼 수 있는 현판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딱히 불친절하다고 여길 계제는 아니다.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입구에서 받은 팸플릿을 펼치면 되니까. 심지어 사유원에는 온갖 사소한 것에도 이름이 붙어 있다. 물탱크를 근사하게 설계해 전망대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 앞에 ‘침단’이라는 이름을 써놓은 마음을 보면, 시설 곳곳의 화장실에 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놓은 정성을 보고 나면 그 누가 무신경하다 여길 수 있을까? 모든 이름은 한학에 정통한 유재성 설립자가 직접 지은 것이며, 글씨는 중국의 서예가 웨이량이 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걷다가 곳곳에서 그 근사한 필치의 이름들을 필답처럼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쉬려고 앉았다가 벤치에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좌망심재(坐忘心齋)’라는 한자를 발견했을 때 새삼 깜짝 놀랐던 건 그래서였다. 자기도 모르게 함축적 한자들에서 뜻을 헤아리고 있자니 옛 선비들이 한시 짓기를 놀이로 삼은 이유를 조금은 알 것도 같아서. 물론 다른 식으로 감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벤치에까지 이름을 붙이는 성심에, ‘앉아서 모두 잊어버리고 마음을 비우라’는 그 메시지에, 혹은 존재하지 않으려는 듯 존재하는 벤치의 오묘한 디자인과 해당 메시지가 조용하는 방식에. 아무렴 이곳에서 아무런 사유에도 들지않기란 오히려 어려운 일일 것이고 말이다. ●



(2)



(3)







풍설기천년. 108그루의 모과나무로 조성한 정원으로, '바람과 눈을 이겨 1000년을 가는 정원'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 KIND OF GREEN

봄기운을 가진 초록색 물건.

editor  
KIM YUJIN  
photographer  
LEE WONJAE







(왼쪽) 그린 스웨이드 캡 가격 미정 폴로 랄프로렌.  
(오른쪽) LV 선라이즈 이어링 세트 60만원 루이비통.





그린 버킷 햇 가격 미정 프라다.  
리버서블 버킷 햇 77만5000원 지방시.









(왼쪽) 그린 제이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골드 소재  
불가리 불가리 네크리스 695만원 불가리.  
(오른쪽) 실크 스카프 23만원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 by 지 스트리트 494 움브 플러스.





GUCCI 스크립트 앤 스트로베리 네크리스 156만원 구찌.  
(Opposite Page)  
리프 펜던트 벨트 가격 미정 질 샌더.









# ANOTHER







## DOWNFORCE

“출발해도 돼?” 페라리의 PHEV 하이브리드 스포츠 카 296 GTB의 운전대를 양손으로 움켜쥔 채 물었다. 아마 내 양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을 것이다. 앞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어와 스페인어로 이리저리 무전을 주고받던 금발의 인스트럭터는 뭐 그런 걸 굳이 물어보냐는 표정을 잠시 짓더니 이내 입꼬리를 씨익 올리며 “물론이지”라고 말했다. 못 미더운 표정을 지으며 “아 유 슈어?”라고 다시 물었다. “돈 워리, 노 프라블럼. 고고!” 물러설 곳은 없었다. 오른손으로 패들시프트를 가볍게 튕겨 1단 기어를 넣은 후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에서 힘을 빼자 296 GTB가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페라리가 전 세계 자동차 기자들을 스페인 세비아로 부른 이유는 명확했다. 지난 1월 출시된 296 GTB를 좀 타보라고, 그 차가 어떻게 달리는지 느껴보라는 거였다. 이탈리아가 아닌 스페인에서 글로벌 미디어 시승 행사를 연 이유는 날씨 때문이었다. 세비아가 속한 안달루시아 지방은 스페인 내에서도 날씨가 화창하고 건조하기로 유명하다. 그러니 그 비는 더욱 야속했다. “이탈리아는 이맘때 비가 자주 오지만, 스페인은 그렇지 않죠. 지난 2주 동안 계속 맑았는데, 오늘은 의외네요.” 행사를 주관한 페라리 글로벌 홍보 담당자의 말이다.

와이퍼가 쫓아가지 못할 만큼 거세게 내리는 비를 뚫고 낮선 스페인의 굽이치는 산악 와인딩 코스를 830마력짜리 후륜구동 스포츠카로 달린다는 건 큰 모험이다. 다른 시승회였다면 아무리 오래 준비한 글로벌 행사라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어쩔 수 없지’라며 포기했을 것이다. 페라리는 달랐다. 시승 담당자가 내비친 유일한 걱정은 “비가 많이 와서 사진을 멋지게 찍긴 어려울 것 같아”였다. 그건 차를 믿기에 나오는 확신이었다. 와인딩 코스와 고속도로로 구성된 일반도로로 약 260km의 거리를 달리는 동안 마음은 점차 차분해졌다. 안정적인 296 GTB의 몸놀림이 나를 설득했기 때문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고속 안정성이다. 보통의 차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접지력이 희미해지고 그 감각은 핸들을 통해 전달되기 마련이다. 296 GTB는 달랐다. 시속 200km에 가까워지자 마치 차가 노면에 달라붙듯 가라앉았다.

**페라리 296 GTB와 함께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을 내달리며 발견한 키워드 3가지.**

editor PARK HOJUN

# LEVEL





당연히 '다운 포스(down force)'가 관건이다. 모든 스포츠카는 차체의 일부로 공기 흐름을 이용해 차를 아래로 누르는 힘을 발생시킨다. 간략히 설명하면, 비행기가 수평의 속도를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양력으로 만드는 원리를 반대로 이용한 셈이다. 엔진에서 뿜어져 나온 힘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빠른 속도에도 효율적으로 조향하기 위해선 타이어를 노면에 강하게 밀착하도록 하는 게 요점이다. 296 GTB는 시속 250km로 달릴 때 360kg의 다운 포스를 만들어낸다(아세토 피오라노 옵션 적용 시). 공차중량이 1470kg인 걸 떠올려볼 때 차체 무게의 약 25%가 추가로 얹어지는 셈이다.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 차의 앞부분엔 120kg, 뒷부분엔 240kg의 다운 포스가 작용한다. 차체 뒷부분에 더 무거운 힘이 실리도록 한 건 후륜구동이라서다. 다운 포스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앞과 뒤가 다르다. 앞부분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범퍼 하단의 '티 트레이(tea tray)'다. 차를 내어오는 쟁반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범퍼 하단에 구멍을 내어 공기 흐름을 차체 하부로 유도한 후, 그 구멍 안에 두 뺨 정도 되는 크기의 카본 플레이트를 달아놓았다. 티 트레이 덕에 296 GTB는 약 20kg의 다운 포스를 추가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달릴 때 발생하는 차체 하부의 열을 빠르게 식히는 효과까지 얻었다. 이는 F1에서 얻은 에어로다이내믹 데이터를 활용한 좋은 예다. 뒷부분의 다운 포스는 전적으로 리어 스포일러가 담당한다. 296 GTB의 리어 스포일러는 평소엔 차체 안에 숨어 있다가 다운 포스가 필요할 때만 고개를 내미는 가변형이다. 느리게 달릴 때, 연비에 악영향을 미

치는 고정형 리어 스포일러의 단점을 해결했다. 얼마나 빠르게 달릴 때 날개가 등장하는지 페라리 프로덕트 매니저에게 묻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시속 150km로 달리더라도 주행 환경과 차 상태에 따라 다운 포스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차가 코너를 돌아나가다가 균형을 잃었을 땐 강한 다운 포스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땐 날개를 펴지 않는 게 올바른 선택이죠"라는 답이 돌아왔다.

#### V6 HYBRID ENGINE

자그마치 830마력이다. 경쟁 브랜드인 람보르기니와 맥라렌은 물론 페라리 라인업을 통틀어 296 GTB보다 강력한 모델은 자사의 SF90 스트라달레(1000마력)밖에 없다. 내연기관에 비해 출력을 높이기 쉬운 전기차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모델 중 가장 출력이 높은 포르쉐 타이칸 터보S가 오버 부스트 기능을 작동했을 때 761마력이다. 물론 출력만 높다고 능사는 아니다. 배기량이 큰 엔진에 터보차저를 여러 개 장착하면 출력은 쉽게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차의 무게가 덩달아 무거워진다는 게 문제다. 출력이 높아도 차가 무거우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힘들다. 결국 '마력당 무게비'가 중요해지는 셈이다. 출력과 공차중량을 같이 고려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로 공차중량을 최고 출력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96 GTB는 1470kg에 830마력이므로 마력당 무게비가 '1:1.77kg'이다. 1마력당 1.77kg를 끈다는 뜻이다. 전설의 포켓몬처럼 분명 실존하지만 대면하기 어려운 코닉세그, 부가

티, 파가니 같은 차를 제외하면 296 GTB는 단연 양산차의 꼭대기를 차지한다.

가장 놀라운 건 사실 296 GTB의 엔진이 고작 6기통이라는 점이다. 페라리가 경주용차가 아닌 일반 모델에 V6 엔진을 도입한 건 브랜드 역사상 최초다. 296이라는 이름 역시 엔진 배기량인 2992cc에서 '29'를, 6기통에서 '6'을 가져와 만들었다. 실린더 개수를 줄이면서 파워는 높일 수 있었던 건 엔진 출력에 167마력을 보태는 전기모터의 공이 크다. 드라이브 모드를 'eDrive'로 설정하면 최대 25km를 전기로만 달리는 것도 가능하다. PHEV 시스템을 이용해 성능과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그러나 다음 날, 세비야 근교에 위치한 몬테블랑코(Monteblanco) 서킷을 달리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페라리가 잡으려 했던 토끼는 두 마리가 아니라 세 마리였다. 성능과 효율 그리고 재미라는 토끼. 소위 말하는 '제로백'보다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 296 GTB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200km까지 7.3초 만에 도달한다. 서킷에 있는 960m의 메인 직선 주로에서 시속 270km까지 속도를 높였다. 시속 270km의 세계는 그간 내가 보던 것과 조금 달랐다.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더니 너비 15m나 되는 도로가 좁은 골목길처럼 느껴졌다. 1초에 75m를 달리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는 것마저 의식해야 했다. 운전대를 조금만 급하게 돌리면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아도 순식간에 차의 몸놀림이 변한다. 그 속도에 다다르면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차를 아끼 다루듯 다루게 되는 이유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8500rpm까지 치솟은 296 GTB 엔진의 진동과 굉



음을 온몸으로 받아내자, 막을 수 없는 희열이 온몸을 휘감았다.

296 GTB를 서킷에서 몰며 가장 힘들었던 건, 고속으로 코너를 빠져나갈 때 느껴지는 원심력이나 급격하게 속도를 높일 때 몸을 짓누르는 중력 가속도가 아니다. 밟는 족족 지체 없이 속도를 높이는 가속페달에서 욕심을 덜어내고 밟을 때는 일이었다. 그만큼 운전이 즐겁다는 이야기다. 루이스 해밀턴 같은 세계적인 레이서는 종종 '차와 한 몸이 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면, 296 GTB를 끌고 서킷으로 나가보기를 권한다. 페라리가 296 GTB를 공개하며 '페라리 모델 중 가장 운전의 즐거움(fun to drive)에 초점을 둔 차'라고 소개한 건 과언이 아니었다.

830마력이라는 거대한 숫자 뒤에 숨은 비밀이 하나 있다. 바로 '120'이다. 296 GTB에 탑재된 V6 엔진의 양측 실린더가 이루는 뱅크 각은 120도다. 일반적으로 V8 엔진은 이 각이 90도, V6 엔진은 60도다. 이 각도가 180도까지 벌어지면 '수평대향 엔진'이라 부른다. 페라리는 296 GTB의 엔진 뱅크 각을 왜 120도까지 벌렸을까? 낮은 무게중심을 얻기 위해서였다. 296 GTB는 F8 트리뷰토보다 엔진 위치를 15mm 더 낮게 설치했으며 뱅크 각까지 넓혀 무게중심을 더욱 낮췄다. 60도에서 120로 벌어지며 생긴 공간에는 터보차저를 넣어 엔진의 전체 부피를 줄이고 열관리 효율을 높여 또 다른 토끼를 잡았다.

### MONOLITHIC

세비야와 296 GTB는 닮은 구석이 있다. 서로 다른 요소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700년간 이슬람 제국의 통치를 받은 세비야에는 이슬람 문화와 로마 가톨릭 문화가 공존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비야 대

성당이 대표적이다. 12세기에 만든 이슬람 모스크를 16세기 초 성당으로 바꾸면서 두 문화의 양식이 섞였다. 이슬람과 가톨릭이 세비야를 지탱하는 2개의 문화적 기둥이라면, 296 GTB는 클래식과 콤팩트가 핵심이다. 클래식한 분위기는 페라리의 헤리티지 모델 중 하나인 '250LM'에서 따왔다. 296 GTB의 곡선으로 등글게 처리한 프론트 범퍼 디자인과 직각으로 곧추선 뒷유리, 풍성한 리어 펜더 볼륨이 한 눈에 보아도 250LM과 똑 닮았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296 GTB가 250LM의 여러 디자인 요소를 차용한 것은 맞지만, 계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페라리 최고 디자인 책임자 '플라비오 만조니(Flavio Manzoni)'는 "296 GTB는 엔진을 비롯한 거의 모든 면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차입니다"라며 296 GTB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그는 "자동차 디자인은 반드시 프로젝트의 정수를 닮아야 한

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하는 프로젝트의 정수, 즉 콤팩트한 차가 선사하는 운전의 즐거움을 위한 디자인의 핵심이 바로 '모놀리식(Monolithic)'이다. 모놀리식 디자인은 패션에서 말하는 '심리스(seamless)'와 같이 차의 이음새를 최소화한 일체형 차체 형태를 말한다. 296 GTB를 앞 범퍼부터 뒤 범퍼까지 찬찬히 훑어보면, 운전자가 타고 내리기 위한 도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 하나의 판형으로 만들어졌다. A필러를 차체와 같은 색깔이 아닌 유리창과 같은 검은색으로 처리해 앞유리와 옆유리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도록 꾸민 이유도 결을 같이한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 드라이브 모드, 와이퍼, 방향지시등, 하이브리드 시스템, 시동 버튼까지 운전 중 조작이 필요한 장치를 전부 운전대 안에 모아놓았다. 운전자가 운전의 즐거움에만 오롯이 집중하도록 디자인적으로 배려한 지점이다. ●



↳ 7.45kWh 배터리를 장착했다. 전기모터만으로 시속 135km까지 가속할 수 있다. 이젠 슈퍼카도 하이브리드 시대다.

↗ '티 트레이(Tea tray)'는 페라리가 F1에서 갖고 닮은 기술력을 양산차에 적용한 좋은 예다. 약 20kg의 다운 포스를 만들어 낸다.



### FERRARI 296 GTB

파워트레인 2996cc V6 가솔린 트윈터보+전기모터, 듀얼클러치 8단 자동

최고 출력 830마력(시스템)

최대 토크 75.4kg·m

가속력(0→100km/h) 2.9초

가격(VAT 포함) 3억원대





여행을 떠나도 뛰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5개 도시 11명의 러너들이 보내온 내 도시의 러닝 추천 코스.

editor  
PARK SEHOI, SONG CHAEYEON  
photographer  
KIM SUNGRYONG

## SEOUL



**김정희**

마케터, 30,  
러닝 4년 3개월차,  
달린 거리 4200km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청계천과 DDP 맞은편에 위치해 시티런과 천변 러닝이 모두 가능해요. 특히 도심의 야경과, 청계천 그리고 창덕궁까지 다양한 뷰를 볼 수 있는 최고의 코스를 시작하기 좋아요. 여행지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최고지요. 무엇보다도 세운상가를 지날 때면 세상 예쁜 조명들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 야경 명소로 꼭 추천합니다. 창덕궁에서 DDP로 올 때는 건너편에 한양도성길도 보아서 서울의 옛 모습도 함께 구경할 수 있답니다.



김정희, 원동빈, 한성수 씨가 청계천을 뛰고 있는 모습. 세 사람은 다른 동네에 거주하지만, 종종 모여 달리기도 한다.

총 거리	시간	평균 페이스	상승고도
6.25km	36'22"	5'49"	0m

(각 레코드는 러너들이 직접 달려본 후 제공한 데이터다.)





## 윤지수

공인중개사, 31,  
러닝 1년 8개월,  
달린 거리 1226km

혹시 노을 지는 바다를 보며 러닝해보셨나요? 해가 지는 초저녁에 파라다이스호텔 앞에서 웨스틴 조선호텔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 동백섬 두 바퀴를 돌아보세요. 성에 차지 않는다면 해운대 해변 끝에 서 있는 해운대 LCT 앞 방파제까지 이어진 길을 뛰어보세요. 그렇게 달린 거리가 약 5km. 부산에 여행 온 러너들이 여유롭게 주변을 즐기면서 달리기에 딱이죠. 숙련자가 아니라면 가볍게 동백섬과 바다를 둘러보며 천천히 달려도 좋아요. 초보 러너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총 거리	시간	평균 페이스	상승고도
4.88km	30'50"	6'19"	40m



## 이호준

직장인, 29,  
러닝 10개월,  
달린 거리 990km

부산 센텀시티 영화의 전당 길 건너편에 수영강을 낀 APEC 나루공원이 있어요. 나루공원에서 출발해 원동교, 세월교 지하차도를 지나 수영강을 따라 다시 공원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예요. 광활한 벚꽃터널을 지나며 봄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신호등도 없어 탁 트인 수영강변 산책로를 거침없이 달릴 수 있답니다. 부산을 방문한 러너라면 한 번쯤 달려보기를 추천해요. 약 10km 거리지만 가볍게 조깅한다는 생각으로 경치를 감상하며 달리다 보면 금방 도착해 있을 거예요.



총 거리	시간	평균 페이스	상승고도
10.30 km	50'22"	4'54"	14m



## 원동빈

직장인, 32,  
러닝 5년차,  
달린 거리 1200km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은 러닝을 하기에 참 좋은 거점이라고 생각해요. 근처에 올림픽공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올림픽공원은 자유롭게 발길 닿는 대로 뛸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기록 때문에 달리기보다 일상 속에서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달리는 편이에요. 호텔에서 출발해 공원 외곽을 달리면 도시를, 공원 내부를 달리면 자연을 여행하는 느낌이 들죠. 둘 중 고르라면 공원 속 러닝을 더 추천해요. 공원 안에서 올림픽 에너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총 거리	시간	평균 페이스	상승고도
5.05km	29'23"	5'49"	37m



## 한성수

직장인, 36,  
러닝 7년차,  
달린 거리 3500km

녹사평역 3번 출구로 나와 용산 미군기지 담벼락을 따라 한강중학교까지 뛰어요. 한강중학교에서 잠수교 방향으로 올라간 뒤 내리막길과 지하도를 지나면 곧 한강이 보여요. 한강으로 진입해 잠수교 위를 달리며 한강을 보면 그간 쌓인 스트레스가 잠시나마 사라져요. 그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렇게 잠수교 끝까지 달린 후에는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용산구청 방향으로 올라오면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러닝 코스가 완성되죠.



총 거리	시간	평균 페이스	상승고도
6.00km	60'46"	10'00"	13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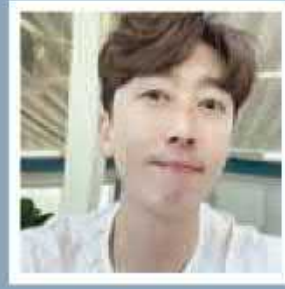
**서지현**

주부, 35,  
러닝 1년 3개월차,  
달린 거리 349.5km

영랑교를 시작으로 속초의료원과 대명타워를 지나 영랑호 리조트 방향으로 달리는 코스를 추천해요. 영랑호수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물 위를 떠다니는 새들을 볼 수 있어요. 중간에 힘들면 정자에 앉아 호수를 마주하고 잠시 쉬어 갈 수도 있고요. 멋진 풍경은 러닝의 필수 요소니까요. 겨울에는 뜨거운 물이 담긴 보온병과 믹스커피를 꼭 챙기세요. 정자에 앉아 숨을 돌리며 마시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죠. 영랑호를 다 돌면 7km가 조금 안 되는데, 전 아직 초보라 5km 구간부터는 걷는답니다.



총 거리	시간	평균 페이스	상승고도
5.08km	31'22"	6'11"	5m



**함주한**

직장인, 37,  
러닝 2년차,  
달린 거리 1500km

엑스포타워 바로 옆에 속초 8경 중 4경인 청초호가 있습니다. 청초호는 둘레가 5km에 이르는 큰 자연 석호로 속초시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청초호에 서면 시원한 동해 바다와 설악산을 양쪽으로 볼 수 있어요. 속초의 경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셈이죠. 금강대교와 설악대교 위를 달릴 때 보이는 아름다운 야경은 고단함을 이겨내고 야간 러닝에 나선 날에만 누릴 수 있는 호사랍니다. 다리 위에서 보는 속초 밤바다는 야경 덕에 더 반짝이죠. 몸만큼 눈이 즐거운 코스예요.



총 거리	시간	평균 페이스	상승고도
5.00km	24'31"	4'54"	31m

## YEOSU



**김주희**

직장인, 27,  
러닝 3년차,  
달린 거리 1300km

동동공원에서 시작하는 러닝 코스는 역사, 문화, 바다가 어우러져 있어요. 여수 밤바다 노래가 저절로 생각이 나죠. 선소를 지나 예울마루로 가는 길은 언덕이에요. 오르막이라 러닝 훈련도 할 수 있고 밤바다를 즐기기도 좋아요. 예울마루에서 장도 입구를 거쳐 웅천친수공원으로 향하면 조명이 예쁜 인공 해변이 러너들을 맞이합니다. 반짝이는 밤바다를 옆에 두고 뛰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사람은 많지만 공원이 넓고 정돈이 잘 되어 있어 러닝하기에 적합해요.



총 거리	시간	평균 페이스	상승고도
6.09km	37'59"	6'14"	59m



**서인호**

자영업자, 35,  
러닝 4년차,  
달린 거리 3000km

소노캠 여수에서 출발해 엑스포장 내부 도로를 지나면 여수 여객선 터미널이 보여요. 그곳을 지나 신북항 방파제 등대를 향해 뛰다 보면 마라톤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등대 끝에서 반환해 오동도를 따라 달리면 여수 바다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요. 다시 호텔로 돌아오면 15km 코스가 완성된답니다. 초보 러너라면 약 5km인 오동도만 왕복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새벽 러닝을 하면 고요한 일출을 맞이할 수 있으니 한번 경험해 보기를 추천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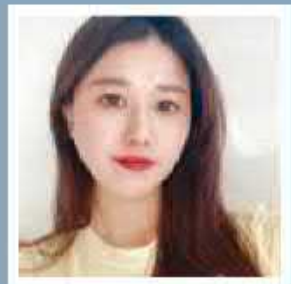
총 거리	시간	평균 페이스	상승고도
15.01km	73'18"	4'53"	106m





서인호 씨가 여수의 해변 길을 따라 달리고 있다. 그는 이 길에서 일출을 보는 일을 즐긴다.

## JEONJU



**최민재**

강사, 30,  
러닝 3년차,  
달린 거리 1305km

더 클래식 호텔 전주에서 10분 정도 나오면 만성의 뷰를 자랑하는 기지제 수변공원이 나와요. 산책 코스로도 러닝 코스로도 최고인 곳이지요. 한 바퀴에 5km 정도 되는데 근처 한국농수산대학까지 가면 10km도 충분해요. 탁 트인 뷰를 즐기다 보면 숨은 가쁘지만, 기분은 상쾌해져요. 러너들이라면 이해할 거예요. 이미 이 코스에 반해 뛰는 러너들도 종종 볼 수 있고 산책하는 사람도 꽤 있지만 넓어서 러닝하기 편해요. 주변에 이만한 러닝 코스가 있다면 매일 안 뛸 이유가 없겠죠?



총 거리	시간	평균 페이스	상승고도
2.73km	36'22"	5'49"	4m



**황규호**

직장인, 36,  
러닝 7년차,  
달린 거리 6820km

라한호텔 전주는 한옥마을에 위치해 어디서나 출발이 가능해요. 근처에 있는 경기전은 한옥마을을 종횡으로 누비는 코스의 시작으로 적격이지요. 서울 궁궐과 달리 기와 담장이 높지 않아 달리는 동안 한옥 기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달리면서 보이는 한옥은 은은한 가로등이 더해져 밤에 더 아름답습니다. 오목대에 도착했다면 꼭 한옥마을의 전경을 내려다보세요. 관광지라 낮 시간대에 러닝을 즐기기 힘들지만 아침, 저녁 러닝은 전주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될 거예요.



총 거리	시간	평균 페이스	상승고도
5.00km	28'54"	5'46"	8m



걷기란 무엇인가? 언뜻 별 다른 대답이 필요치 않아 보이는 이 질문에 과학은 좀 다르게 대답한다. 먼저, 걷기는 위대한 진화의 산물이다. 1859년 찰스 다윈이 집필한 <종의 기원>의 원제는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족의 보존에 대하여(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u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이다. 이 책의 핵심은 ‘자연선택’보다 ‘돌연변이’에 있다. ‘자연선택에 따른 진화’란 무엇인가? 프랑스 생물학자 자크 모노는 데모크리토스의 말을 빌려 “우연과 필연”이라고 간략히 말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류는 다섯 단계의 큰 변화를 겪었다. 1단계는 최초의 조상들이 유인원에서 갈라져 나와 똑바로 서서 걷는 두 발 동물로 진화했다. 2단계는 그 후손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주식인 과일 외의 다양한 음식을 찾기 위한 적응들이다. 3단계는 약 200만 년 전에 호모속의 초창기 종들에서 현대적인 몸과 약간 더 큰 뇌를 가진 최초의 수렵 채집인의 등장이다. 4단계는 고인류 수렵 채집인이 번성해서 구세계 대부분의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들의 뇌는 더 커졌고 몸도 크게 성장한다. 5단계는 언어·문화·협력을 위한 특별한 능력을 지닌 현생 인류가 나타났다. 전 지구로 빠르게 퍼졌고, 지구상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류 종이 되었다.

다윈은 자연선택이 어떻게 두 발 보행을 선호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왜 자유로운 손이 도구 제작, 인지능력, 언어에 대한 선택을 일으켰는지 몰랐다. 인간은 두 발로 서서 걷고 뛰면서 두 손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두 발로 서지는 않았다. 과학적 근거들은 식량을 효율적으로 채집할 수 있고, 걷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실제로 인간의 2족 보행이 침팬지의 4족 보행에 비해 4배 정도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인류는 두 발로 걷게 되면서 네 발 보행의 속도, 힘, 민첩함을 포기하는 대신 발목 염좌, 요통, 무릎 통증 같은 전형적인 질병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적응은 인간이 네 발 보행을 포기하고 도구 제작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며, 결과적으로 오래 달리기를 통한 ‘끈질긴 추적 사냥(Persistence hunting)’에 적합한 진화 등을 거쳐 새로운 우연과 도전에 직면케 했다.

걷기는 매우 정교한 메커니즘이다. 걷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0개가 넘는 근육과 200여 개의 뼈가 모두 동원되는 몸짓이자 조화로운 움직임의 결정체다. 뇌의 운동 피질은 전두엽 뒷부분에 위치하여 수의 운동과 불수의 운동을 일으키는 근육 활동을 조절한다. 척수와 말초신경을 통해 전달된 정보는 근육으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 수축하고 이완하도록 명령한다. 걷기 시에 운동 피질은 정밀하게 조정된 동작 순서를 운동신경이 전달하는 자극으로 빠르게 내려보낸다.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과 관련된 근육들은 동작 패턴의 연속적인 명령을 수행하며 신체를 이동시킨다.

근육과 뼈뿐만이 아니다. 걸을 때 우리 몸은 간, 근육, 지방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꺼내게 만드는 호르몬(글루카곤, 코르티솔 등)을 생산한다. 이 호르몬들은 운동하는 동안 인슐린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막고, 운동 이후 최대 16시간 동안 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을 높인다. 걷기를 통한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간과 근육을 포함한 온몸에서 지방이 저장되고 분비되고 연소되는 것을 조절한다. 또 걷기는 동맥의 염증 수치를 낮춘다. 동맥 염증은 죽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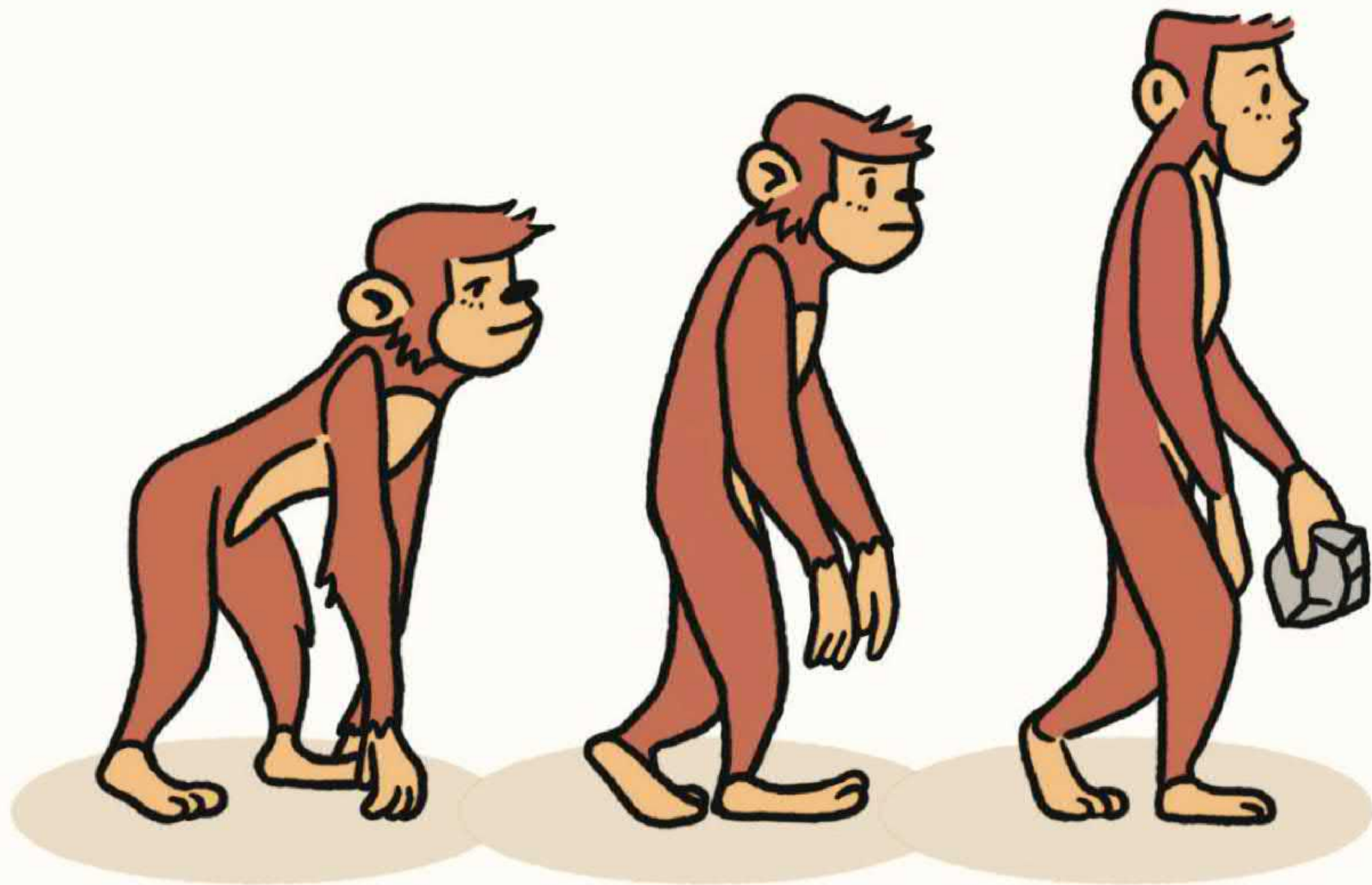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주범이다. 일반적으로는 걷기 운동의 지속성이 운동 강도보다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병이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을 절반으로 줄인다. 심장 기능을 좋게 하고 장기적으로 혈액순환을 향상시키며, 그 어떤 약물보다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뛰어나다. 수축기 혈압은 최소 10~15mmHg, 이완기 혈압은 5~8mmHg 정도 낮출 수 있다.

걷기는 또한 인간과 자연을 잇는 행위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며, 자연과 단절되면 고통을 느낀다. 햇볕을 쬐며 걸으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준다. 수면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며 뼈를 성장, 강화하는 비타민 D를 합성하게 돕는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도록 진화했다. 규칙적인 걷기는 엉덩이 근육을 중심으로 한 신체 중심부 근육(코어)을 키운다. 근력을 발휘하는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오랫동안 균형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것이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

걷기는 스포츠다. 스포츠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세다. 걷기가 진자운동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발과 팔을 들어 무게중심을 높여 위치에너지를 저장하고 저장된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걷기 운동의 핵심이다. 이상적인 걷기는 가능한 한 제동력이나 상하 진동을 최소로 해서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선은 약 10~15m 전방을 보며, 해부학적 중력중심선이 귀와 어

## 걷기의

과학은 걷기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깨, 허리, 발목의 복숭아뼈까지 일직선을 이루는 바른 자세로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주고 양팔을 몸통의 회전에 맞춰 리드미컬하게 흔들면서 걷는 것이 좋은 걷기 자세다.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2017년 3월 영국 워릭대학 연구팀은 하루 1만 보보다는 1만5000보 이상을 걸어야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하루에 1만5000보 이상을 걷기 위해서는 시간당 6.4km의 빠른 속도로 2시간 이상 걷는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 연구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시간의 운동을 주장했지만, 최근 연구들은 짧은 시간 간헐적 운동이어도 총 목표 시간을 채우면 비슷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걷기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걷기의 방식 중엔 ‘스트롤링 걷기’라는 게 있다. 저강도의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느린 속도로 걷는 걸음으로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낮은 강도의 걷기다. ‘완보’와 ‘산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파워 워킹’이다. 팔을 90도 정도 굽히고, 가볍게 달리는 자세로 활기차고 빠른 속도로 걷는 것으로 ‘속보’와 ‘급보’에 해당된다. ‘에슬레틱 워킹’은 경주와 걷기를 병행하므로 걸으면서 심박수를 높이는 방법이다. ‘급보’와 ‘강보’가 여기에 속한다. ‘경보’는 육상종목으로 강도가 매우 높고, 고관절과 슬관절, 발목 관절 등에 스포츠 상해를 입을 수 있어 일반인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폭 넓혀 걷기’는 자신의 적정 보폭(신장-100)에 10cm를 더 넓게 걷는 것으로 빠르게 걷기를 하면 보

폭은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인터벌 걷기’는 30분을 기준으로 3분은 빠르게 걷고, 2분은 보통 속도로 걷기를 6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30분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가 많은 장점이 있다.

걷기의 단계를 속도로 구분하면, 완보는 대략 50~60m/m, 3~3.5km/h, 산책이나 명상을 목적으로 천천히 걷는 산보는 60~70m/m, 3.5~4km/h 정도의 속도다. 속보는 활기찬 동작으로 걷는 80~90m/m, 5~5.5km/h, 이보다 빨리 걷는 급보(100~110m/m, 6~7km/h)부터는 기술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걷는 가장 빠른 속도인 강보는 120~130m/m, 7~8km/h지만, 육상종목인 경보는 15km/h에 달한다. 재활 치료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는 완보와 산보를 추천하고, 체중 조절이나 운동 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는 속보와 급보가 좋다. 모든 운동은 연령 및 건강상태, 체력 수준, 걷기의 목적에 맞게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폭은 성인 남성 기준 약 74cm, 성인 여성 약 64cm로 남성의 보폭이 약 10cm 정도 더 크며 신장과 비례한다. 보폭 계산 방법은 ‘신장-100cm’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일반 속도의 걷기에서는 ‘신장×0.37’, 빨리 걷기는 ‘신장×0.45’라는 계산식을 이용하며, 일반적인 걷기 속도는 정상 성인의 경우 초당 1.2~1.4m이다.

신발은 걷기 위해 기능적으로 발전했다. 대부분의 등산화나 러닝화의 밑바닥은 족궁(아치)의 모양에 따라 활처럼 휘어져 있어 인대와 근육에 가해지는 힘을 덜어준다. 신발 밑창은 발가락 쪽이 위로 휘어져 있는데, ‘발가락 스프링’이라고 부르는 이 굴곡은 발가락들이 땅을 밟을 때 근육이 힘을 내도록 도와준다. 대부분의 러닝화 뒤꿈치에는 탄성이 있는 물질로 만든 두툼한 쿠션이 갖춰져 있다. 이러한 신발은 최대 충격력이 전달되는 속도를 늦춰 뒤꿈치 착지를 더 편하게, 덜 아프게 돕는다. 신발 구입은 저녁 이후가 바람직하며, 끈을 맨 상태에서 걸어보아야 한다. 발가락 끝은 5~10mm의 여유가 있는 것이 좋고, 발등 부분에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신발이 좋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발바닥의 족궁이 자신의 발과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다.

적당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걷자. 머릿속이 복잡할 때면 걸어야 한다.

기원 전 400만 년 전, 두 발로 걷는 유인원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출현했다. 즉 보행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보다 길다. 20세기 초, 보행을 자기철학의 중심 주제로 삼은 현상학자 ‘후설(Edmund Husserl)’은 걷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와 관계하는 우리의 육체를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루소는 <고백록>에서 “나는 걸을 때만 사색할 수 있다. 내 걸음이 멈추면 내 생각도 멈춘다. 내 두 발이 움직여야 내 머리가 움직인다”고 말했다. 형상(形象)은 본질을 반영한다. 두 철학자의 말이 걷기의 본질은 아닐지 모르지만, 걷는다는 것은 보편적 행동에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의 확장이자, 한곳에 머물기보다 혼자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라. ‘인간’의 의미가 더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는가? 승리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운동화 끈을 질끈 묶고 걷자. 때론 단순한 걷기가 답이다. 건강뿐 아니라 모든 것의 답일 수도 있다. ●

WHO'S THE WRITER?  
김석환은 “진실한 장소는 결코 지도 위에 있지 않다”는 신념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운동생리학자다. 현재 광주스포츠과학연구소장으로 엘리트 선수들의 스포츠과학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 과학

운동생리학자의 눈으로 본 걷기의 과학에 대하여.

editor SONG CHAEYEON writer KIM SEOKHWAN illustrator MYCADAYS





# 본격 요트 탐구생활

타본 놈, 따본 놈, 사본 놈  
그리고 좀 멀리까지 가본 놈이 들려주는 요트 라이프.

editor PARK HOJUN



©세일링서울

## ① 요트를 탄다는 것 ↓

시작은 고무보트(IBS)였다. <강철부대>에서 특수부대원들이 머리에 지고 달리던 바로 그 배. 훈련병 6~8명이 한 조가 되어 노를 저었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커녕 파도에 밀려 제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버거웠다. 언젠가 보았던 영화 <벤허>의 주인공이 목숨을 걸고 노예선에서 탈출했던 심정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후 “동강에 래프팅하러 갈래?”라고 말하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며 살았다. 사실 고무보트는 수상레포츠 중 굉장히 역동적인 쪽에 속한다.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모터를 사용하면 최고 시속이 60km에 육박한다. 무게가 가벼워 파도를 만나면 선체가 잠시 공중에 뜨는 진귀한 경험도 할 수 있다. 영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가 머리를 휘날리며 몰던 2인승 요트부터 영화 <테넷>에 등장한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4층짜리 요트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요트 혹은 보트라고 하면 심적으로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지만, 한강에서 누구나 탈 수 있다.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 마리아나’와 반포에 위치한 ‘골든블루마리아나’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형태의 보트가 준비되어 골라 타는 맛이 있다. 한강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감상하고자 사방이 흰히 뿜린 ‘리무진 보트’에 올랐다. 최대 11명까지 탑승 가능한데 평일 낮이라 선장을 포함해 고작 5명이 전부였다. 참고로 배는 탑승객이 1명뿐이라도 예정대로 출발한다. “멀미약을 미리 먹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고이 접어두길 바란다. 잔잔한 강물 위에 선 멀미를 느낄 일이 없다. 체험 프로그램은 약 30분간 정해진 코스를 운항한다. 해 질 녘 보트 위에서 바라보는 한강이 얼마나 예쁜지 설명하던 리무진 보트 선장은 프리포즈나 기업 행사를 위한 프라이빗 렌탈도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동승만으론 성이 잘 리 만무했다. 직접 몰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5마력 이상의 동력이 있는 배는 면허 없이 조종할 수 없다. ‘결국 면허를 따야 하는 건가?’라고 체념할 즈음 ‘세일링 서울’의 임대군 선장을 만났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는 흔쾌히 “언제 오실래요?”라는 짧지만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이렇게 덧붙였다. “근데 세일링 요트(sailing yacht)예요.”

모터가 아니라 돛으로 바람의 힘을 이용해 움직이는 배를 세일링 요트라고 부른다. 엔진이 달려있긴 하지만 바람이 아예 없는 무풍지대를 지나거나 배를 접안할 때만 사용한다. “아무리 초보여도 배에 오르는 순간 크루(crew)입니다. 스킵퍼(skipper) 지시에 잘 따라주세요. 로프 밟지 마시고요.” 요트에선 선장을 스킵퍼라고 부른다. 김포 아라 마리아나의 갑문을 통과해 본격적으로 한강에 들어서자 갑판 위가 분주하다. 돛을 올리고 바람에 따라 방향을 맞추는 일련의 과정 전부 두 손으로 직접 줄을 당기며 조정한다. 대신 한 번 바람을 타면 말 그대로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쪽쪽 나아간다. 엔진 소리가 요란한 모터 요트와 달리 세일링 요트는 필력이든 돛과 잔잔한 물살이 내는 소리가 전부다. 그물이나 부유물이 없는 안전한 구역에서 방향을 조절하는 킬러(tiller)를 잠시 쥐어볼 수 있었는데 손끝으로 느껴지는 배의 움직임이 꽤 직관적이다. 킬러를 급하게 다루면 요트가 눈에 띄게 기울지만 괜찮다. 요트는 120도까지 기울어져도 전복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박호준



돛을 접고 펼 때 사용한 ‘윈치’라는 장치다.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간다.

돛을 접고 펼 때 사용한 ‘윈치’라는 장치다.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간다.

## ② 합법적 요티(Yachtie)가 된다는 것 ↓

면허를 따기 전에 운전부터 했다. 무면허 운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아닌 스페인 마요르카였기 때문이다. 지중해에 위치한 마요르카섬은 연중 온화할 날씨와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한 휴양지다. 그곳에선 면허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보트를 몰아볼 수 있다. 만나질 사용하는 데 150유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 직접 보트를 몰고 사람이 많은 해변을 벗어나 바다를 위를 달리는 경험은 전에 없던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선사했다. 눈부신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며 ‘한국에 돌아가면 반드시 면허를 따겠다’고 다짐했다. 2017년 7월의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0년 5월 일반조종 2급 면허를 따다.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선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일반조종 면허 또는 요트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일반조종 면허는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 다른 사람을 감독할 일이 없다면 2급으로도 충분하다. 요트 면허는 돛이 달린 세일링 요트를 다루기 위한 면허다. 굳은 다짐을 하고도 면허 취득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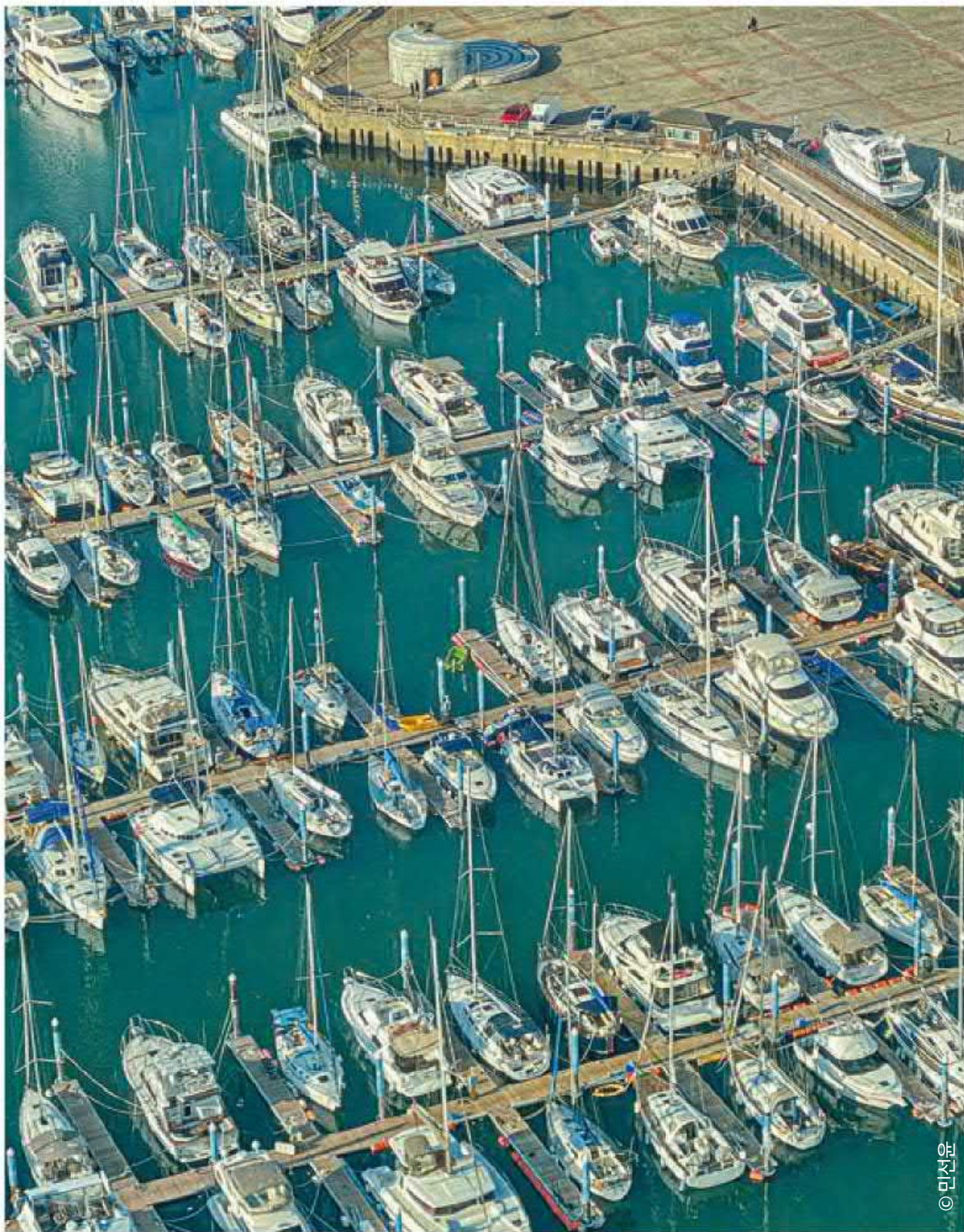
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는 면허를 따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바빠서...’로 시작하는 허약한 의지 탓이다.

과정은 이랬다. 스페인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돌아왔으니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잘못된 생각이었다. 필기시험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30분만 공부해도 통과할 수 있다는 자동차 면허 필기시험과 달리 일반조종 면허의 필기시험은 낯선 용어와 개념이 잔뜩이었다. 탈락의 고배를 맛보니 오기가 생겼다. 문제은행 파일을 다운받아가며 공부했고 한 달 만에 재시험을 통과했다. 2018년 7월이었다.

참고로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러니까 2018년에 필기시험을 통과했는데 2020년에 면허를 땀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앞서 말한 ‘바빠서...’가 재발한 탓이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트 운전대를 만져보지도 못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각종 모임과 약속이 끊기고서야 다시 보트 생각이 났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엔 ‘면제 교육 과정’에 등록했다.

운전면허학원과 비슷하다. 일반조종 2급을 기준으로 이론 20시간, 실습 16시간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 비용은 80원 정도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딸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과정이 허술한 건 아니다. 호수나 강이 아닌 바다에서 교육을 받아 실습 과정이 더욱 험난했다. 실습 교육은 10가지 미션을 반복 숙달하는 것으로 교관이 ‘좌현 90도 변침’이라 외치면 나침반을 확인하며 왼쪽으로 90도 꺾는 식이다. 팁은 ‘부드럽게, 천천히’다. 자동차와 달리 보트는 조향을 했을 때 한 박자 늦게 움직인다. 이때 마음이 급해 운전대를 더 꺾으면 90도가 아니라 유턴을 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눈길에서 차의 엉덩이를 미끄러뜨리며 탄다’는 느낌으로 보트를 다루면 적응이 빠르다. 차간 거리나 차선 유지를 신경 써야 하는 차와 달리 보트는 비교적 빨리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 면허가 있어도 보트가 없다는 게 문제지만 말이다. 마요르카와 달리 우리나라는 ‘보트 체험’은 많아도 ‘보트 대어’는 드물다. 있더라도 1시간에 30만원 수준으로 무척 비싸다. “이럴 바엔 그냥 한 대 사는 게 낫겠다”는 말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정주식(회사원)





라 부산에서 인천까지 이동했다. 총 3박 4일이 걸렸는데 어찌나 힘들었던지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링거를 맞았다.

요트를 구매한 후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우와! 언제 한번 태워줘”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데?”였다. 재벌들만 요트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구매비용과 유지비용을 간략하게 나열하면 이렇다. 요트의 취득등록세는 3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진다. 3억원 이하는 2.02%, 이상은 10.2%다. 만약 4억원짜리 요트를 산다면 취득등록세로만 약 4000만원을 내야 한다. 승용차는 가격에 상관없이 일괄 7%인 걸 생각하면 유독 요트에만 갖대가 엄격한 게 아닌가 싶다. 재산세 역시 3억이 넘는 요트에는 5%가 부과된다. 세금에 비하면 유지비용은 그나마 귀여운 수준이다. 영종도의 왕산 마리아의 경우 요트를 세워놓는 데 월 80만원이다. 여기에 자갈한 소모품 비용이 연간 200만원 정도다. 고장 났을 때 드는 부품값과 공임비는 또 다른 이야기다. 강치성(가명)

④

#### 항해를 떠난다는 것

↓

벳사람들끼리 하는 말 중 “진짜 친구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함께 배를 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검증하려면 1박 2일이나 2박 3일로는 부족하다.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2박 3일 정도 걸리는데 경험상 그 정도는 불편하거나 탐탁지 않은 구석이 있어도 견딜 만하다. 일주일 넘어가는 원양 항해는 다르다. 오키나와에서 출발해 일본 최남단 섬인 이시가키(石垣)를 거쳐 필리핀 수빅(subic)까지 열흘간 약 1900km를 항해하며 느꼈던 건 ‘이래서 선상 반란이 일어나는구나’였다.

일단 몸이 힘들다. 멀미는 차치하더라도 피부가 아플 만큼 강렬한 태양을 견디며 돛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과정은 중노동과 다르지 않다. 열기를 막기 위해 두꺼운 이불을 요트 위에 덮어놓을 정도다. 땀을 뻘뻘 흘렸는데 물이 귀해 마음껏 씻을 수 없으니 짜증이 몰려온다. 해가 저도 힘들긴 때만가지다. 돌아가며 불침번을 서야 한다. 연안에 비해 먼바다엔 암초나 그물은 없지만 종종 큰 배에서 떨어진 부유물이나 다른 배가 불쑥 튀어나오는 아찔한 경우가 있어서다. 체력과 정신력이 바닥을 치는 순간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과도하게 공격적 또는 방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평상시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농담도 잔뜩 예민해진 상황에서선 싸움의 도화선이 되기 십상이다. 45피트(약 14m)짜리 요트라고 해도 실제 거주 공간은 원룸보다 조금 넓은 정도라서 불화가 생기더라도 계속 얼굴을 마주 봐야 한다.

사서 고생인데도 끊임없이 항해를 꿈꾸는 까닭은 먼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발광 플랑크톤을 만난 밤이다. 평소와 달리 요트가 가르는 물살이 초록빛을 내길래 처음엔 항해등이 비친 줄 알았다. 알고 보니 발광 플랑크톤이었다. 요트가 만들어낸 물살을 따라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빛깔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마치 하늘의 오로라를 한 움큼 떼어다가 바다에 풀어놓은 것처럼 말이다. 그 모습이 아름다워 무려 5시간 동안 멍하니 바다 위만 바라봤다. 해가 뜰 때와 질 때 시시각각 바뀌는 하늘과 바다의 색을 보는 것 역시 가슴을 먹먹하게 혹은 몽클하게 만든다.

긴장과 감동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도착한 필리핀 수빅에선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어려웠다. 이유는 두 가지다. 대놓고 뒷돈을 요구하는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담당자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간단하게 끝나는 입국 심사다. 간단한 서류 몇 장과 여권만 있으면 끝이다. 비행



기를 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엑스레이 검사도 없다. 다른 나라에 도착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관광을 즐기는 게 보통이지만, 요트를 이용한 항해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정박 후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코인 빨래방이었다. 임대균(세일링 서울 대표) ●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은 목숨과도 같다. 외부 충격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커버가 있는 것이 특징.

③

#### 요트를 산다는 것

↓

자동차처럼 요트도 제조 국가에 따라 특징이 다르다. 영국에서 만든 요트는 디자인이 화려하고 독일 요트는 만들새가 뛰어나며 미국 요트는 같은 크기라도 공간이 더 널찍한 편이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의 요트로 눈을 돌리면 선택지는 더욱 넓어진다. 외국에 사는 친척 집에 놀러 갔다가 요트의 매력에 눈을 뜬 이후 시간만 나면 ‘파쏘’라는 중고 요트 거래 사이트를 들락거리며 요트 구매의 꿈을 키웠다. 가격이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했는데 가격이 괜찮으면 오래된 연식이 걸리고 디자인이 예쁘면 사이즈가 작아 망설여지는 식이었다.

몇 달을 ‘눈팅’만 하다가 지인을 통해 부산에 괜찮은 매물이 떴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독일의 ‘바바리아(BAVARIA)’라는 브랜드가 만든 2017년식 요트였는데 크기도 46피트(약 14m)로 넉넉하고 관리 상태도 좋았다. 바바리아같이 규모가 큰 제조사가 만든 요트를 ‘프로덕션 요트’라고 부르는데 비교적 부품 수급이 수월하고 관련 정보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결정적으로 4년 동안 133시간밖에 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자동차에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요트는 엔진을 돌린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체할 겨를이 없었다. 혼자 살피긴 무리라고 판단해 경험 많은 요트 전문가를 섭외해 함께 내려갔다. 엔진 룸을 열어보며 면밀하게 살핀 것은 물론 바다에 나가 테스트 세일링까지 진행했다. 그것도 모자라 배를 띄워 물에 잠겼을 땐 보이지 않는 하부까지 살폈다. 유별나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출고가 5억, 중고 가격도 3억원이 훌쩍 넘는 물건을 사게 된다면 누구든지 나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구매 후 부산에 있는 요트를 서울로 가지고 오는 것도 일이었다. SUV 뒤에 매달아 끌고 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로 이동해야 했는데, 이제 막 배를 산 초보 선장이 감당하기엔 벅찬 길이다. 결국 또다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배를 옮겨주는 ‘딜리버리 캡틴’을 초청해 그의 지시에 따









INTO THE

DEEP

프리다이버 김정아는 숨을 한 번 쉬고 수심 88m를 찍고 돌아왔다. 차가운 수온과 성난 조류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을 뚫고서 말이다. 아시아 최고 기록을 세운 그녀는 여전히 바다가 좋다고 말했다.

editor PARK HOJUN photographer JO HYEJIN

© Kohei Ueno



작년 여름, 바하마에서 열린 '버티컬 블루(Vertical Blue)' 대회에서 88m를 잠수하며 아시아 여자신기록을 세웠어요.

테니스 선수에게 워블던이 있다면, 프리다이버에게 버티컬 블루가 있어요. 전 세계 모든 프리다이빙 선수들이 버티컬 블루에 참가하는 걸 꿈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처음 프리다이빙을 시작할 때부터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버티컬 블루 대회 영상을 무수히 봤어요. 버티컬 블루는 세계 랭킹 1~10위인 선수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데, 2019년에 드디어 저한테도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2020년 대회가 취소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다행히 2021년에는 개최가 됐고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무척 기뻐요.

상금도 많이 받았어요?

아니요. 버티컬 블루는 상금이 없었어요.(웃음) 원래 있었다는데 작년엔 없었죠. 얼마 전 키프로스에서 열린 월드 챔피언십 메달을 땀을 땀 500유로 받았네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대회에 나갔을 땀 현금 다발을 받은 적도 있어요. 몇몇 대회를 제외하면 상금보단 다이빙 장비를 부상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수심 88m는 어떤 모습일지 감이 오지 않네요.

바다마다 조금씩 다른데 버티컬 블루가 열린 '딘스 블루홀(Dean's Blue Hole)'은 많이 어두운 편이에요. 다른 바다에서 연습했을 땀 수심 80m 정도 내려가도 어느 정도 빛이 있었는데 딘스 블루홀은 깜깜했어요. 헤드 랜턴을 착용하고 수중 드론이 빛을 쬐주는데도 그랬죠. 평소 물에 대한 공포가 없는 편인데 너무 어두우니까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처음 들어가보는 낯선 바다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종목으로 참가한 거죠?

신기록을 달성한 건 'CWTB(Constant Weight with Bi-fins)'라는 종목이에요. 양발에 핀을 신고 물에 들어가 하강 로프(로프를 활용하는 종목도 있다)를 잡지 않고 다이빙을 하는 방식이에요. 'CNF(Constant Weight without Fins)'라고 핀 없이 내려가는 종목도 있어요. 아무래도 핀이 없으면 체력 소모가 더 심해서 깊이 내려가기 어려워요. CWTB로는 88m를 기록했지만, CNF 기록은 그 절반 수준입니다.

잘하는 종목만 출전하는 게 일반적인데 정아 씨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재밌어서 그래요.(웃음) 몸을 혹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해주는 분들도 있는데, 대회에선 선수 보호 차원으로 하루에 한 번만 다이빙을 할 수 있어요. 버티컬 블루 같은 경우 쉬는 날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각 종목마다 쓰는 근육이 조금씩 달라요. 줄을 잡아당겨도 되는 'FIM(Free Immersion)'은 상체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모노 핀(mono fin)'을 착용하는 종목은 코어 근육을 주로 쓰거든요. 귀한 시간과 돈을 들여 해외 대회까지 나갔으니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쌓고 싶었어요. 특히 버티컬 블루는 수중 드론을 사용해서 실시간 중계를 해요. 웨이트트레이닝은 거울을 보며 자세 교정을 할 수 있지만, 프리다이빙은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큰 대회에 참가해 영상들을 얻는 것도 제 다이빙에 큰 도움이 돼요.

바다에는 변수가 많잖아요. 위험하진 않아요?

아주 변화무쌍하죠.(웃음) 그게 매력이기도 하고요. 프리다이빙은 평정심을 유지해야 유리한 스포츠예요. 잡생각이 많거나 불안하면 몸이 더 많은 산소를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수온, 조류, 바다 환경에 민감해요. 수심 20m까진 수온이 따뜻했는데 21m부터 갑자기 물이 차가워질 수도 있는 게 바다예요. 조류도 마찬가지로인데 아침에 들어갔을 때랑 오후에 들어갔을 때가 달라요. 안전을 위해 줄로 몸을 연결해놓긴 하지만, 갑자기 몸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떠밀리는 경험이 유쾌할 수는 없죠. 프리다이빙이 단순히 숨을 오래 참는다고 능사가 아닌 이유입니다. 다른 선수와 몸을 부대끼는 스포츠가 아니라서 골절 같은 부상은 발생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블랙아웃 정도?

기절할 수도 있다는 말을 너무 담담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7년 동안 다이빙을 하면서 딱 한 번 경험했어요. 올라가려고 방향을 바꾸는데

'아, 블랙아웃 오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은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생각도 많고 몸도 너무 무거웠죠.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는 도중에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안전해요.(웃음) 만약 80m를 내려간다고 치면 세이프티가 상승하고 있는 선수를 위해 미리 내려와요. 30m, 20m, 10m에 각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식이죠. 블랙아웃이 오더라도 즉각 대처해줄 동료들이 있어서 두렵진 않아요.

들어갈 바다를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군요.

물론이죠.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도 큰 대회가 있으면 미리 전지훈련을 가잖아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요. 프리다이빙도 똑같아요. 제주 바다와 필리핀 바다가



페스트레칭은 프리다이빙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준비운동이다.

다르고 바하마 바다는 또 다르기 때문에 대회가 열리기 한 달 전부터 적응을 위한 훈련을 시작해요. 수온은 어느 지점에서 변하는지, 조류의 세기는 어떤지 등을 사전에 체크하고 그 바다를 알아야 전략을 짤 수 있어요.

무슨 전략이요?

예를 들어 급격한 수온 변화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몇 mm짜리 다이빙 슈트를 입고 착용할 웨이트(납)의 무게를 정하는 것도 전략의 일부예요. 두꺼운 슈트를 입으면 차가운 수온으로부터 체온을 지킬 수 있지만 부력이 강해져요. 이 부력을 상쇄하기 위해 웨이트를 착용하는데, 무겁게 차면 내려갈 때 힘을 덜 들일 수 있지만 올라올 때 그만큼 더 많은 힘이 필요하죠. 힘이 좋은 선수들은 웨이트를 무겁게 착용하고도 쭉쭉 잘 올라오기도 해요. 결국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걸 바다에 맞춰 최적의 장비 세팅을 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셈이죠.

프리다이빙에 유리한 체형도 있어요?

음, 아무래도 폐가 크면 좋겠죠. 공기를 많이 저장할 수 있으면 더 깊은 곳까지 도달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폐가 조금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무호흡 트레이닝이나 러닝, 요가를 꾸준히 하면 좋아요. 어떤 다이버는 매일 1시간씩 명상을 한다고 해요. 물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 개념으로요.

훈련은 주로 어떻게 해요? 매번 바다로 나가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우리나라엔 가장 깊은 인도어 풀도 26m밖에 되질 않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프리다이빙을 즐기기에 딱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삼면이 바다지만 수온이 많이 낮은 편이에요. 저는 인도어 풀보다 바다를 선호하는 편이라 되도록 바다로 나가려고 노력해요. 한국에 오더라도 주로 제주도에 머물러요. 깊이도 그렇고 인도어는 바다에 비해 답답해요. 등산도 그렇잖아요. 깊은 산에 오르는 것과 방 안에서 스텝밀 머신(stepmill machine)을 오르는 게 천양지차 이인 것처럼요. 물론 '이퀄라이징(equalizing)'같이 수중에서의 압력 평형을 위한 기술이나 '덕다이브(duck dive)'같이 프리다이빙에 필요한 자세를 익히는 데에는 인도어가 도움이 돼요. 최근 몇 년 사이 프리다이빙을 위한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요.

최근 몇 년 새 프리다이빙의 인기가 급격히 높아진 이유는 뭘까요?

인스타그램?(웃음)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처럼 기록에 도전할 수도 있고, 바닷속 산호초를 감상하거나 스피어 피싱을 즐기기도 하죠. 물속에서 멋진 사진을 찍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수심 10m, 20m라고 하면 엄청나게 깊어 보이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집중해서 배우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수심이거든요. 덩달아 국내에서 인도어 대회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프리다이빙 협회인 'AIDA(Association International for the Development of Apnea)'에 등록된 여자 선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해외에 나가면 외국 선수나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일 정도죠.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몸집이 커지면 문제가 생기기도 쉽죠. 예를 들면 프리다이빙 강사의 자질 문제 같은 것들이요.

다른 강사들을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프리다이빙을 잘하는 것과 강습을 잘하는 건 분명 다른 영역이기도 하고요. 뛰어난 실력을 가진 강사도 많아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돈벌이로 프리다이빙을 대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수강생을 배출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사람을 종종 보는데 그게 다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강사는 강습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트레이닝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밟아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강사 제의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웃음) 제안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제 기록에 충실하고 싶어서 정중히 사양하고 있어요. 세미나 형태로만 몇 번 진행했죠. 바다랑 프리다이빙이 너무 좋아서 원래 하던 일까지 그만뒀는데 강사가 되면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록에 대한 욕심도 나요. '100m를 찍겠다!'가 아니에요. 88m를 기록한 2021년도보다 조금 더 발전한 제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조금씩 기록을 늘려가다 보면 100m까지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모노 핀은 추진력이 강해 속도를 내기 유리하다.





도심 속 워크아웃 페스티벌

# CITY FORESTIVAL

⊕ BARREL FIT

2022.5.21토 \_ 5.22일

한강 노들섬



예매처 **runable** WELLPLE Yeet  예약

주최  | ELLE COSMOPOLITAN BAZAAR  주관 **runable** WELLPLE  후원 ⊕ BARREL FIT  



#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에스콰이어> 체코판 편집장 페트르 마테이체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목격한 것들. 그리고 세계적 테니스 선수 세르게이 스타코프스키가 키이우 우크라이나 군대 안에서 느낀 것들.

editor PETR MATĚJČEK photographer BENEDIKT RENČ

2022년 3월 1일, 프라하에서 764km 떨어진 위치. 버스가 한쪽 방향으로만 운행하는 도로 위에서 이 기사는 작성되었다. 슬픈 마음의 여성들이 내보이는 용감한 미소, 누구도 원하지 않는 수프, 평범한 사람이 본의아니게 영웅이 되도록 만드는 음울한 시대에 대해 말할 것이다.

“어떻게 아직도 미소 짓는 게 가능한가요?” 버스에서 막 내린 우크라이나 여인에게 CNN 기자가 묻는다. 오른손에는 가방, 왼팔에는 이제 세 살 된 아들을 안은 여인이 이렇게 답한다. “그게 우릴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녀는 왼팔을 가볍게 흔들고 있는데, 아마도 무의식적인 행동인 것 같다. 그때 등에 ‘자원봉사’라고 쓰인 빛이 반사되는 노란 조끼를 입은 남성이 미국 카메라맨 앞으로 끼어들다. “몇 명이고 어디로 가시나요?” 여인은 또 답한다. 두 명. 바르샤바. “바르샤바까지 두 명.” 남성은 유럽 도시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있는 자원봉사 운전자들을 돌아본다. 베를린, 크라쿠프, 비엔나, 부다페스트, 프라하.

폴란드 남동부의 도시 프세미실의 동쪽 끝 주차장의 풍경이다. 이곳은 최근에 난민 수용소가 되었다. 파란색 텐트는 유럽 전역에서 헌 옷, 신발, 유모차, 장난감을 사들인다. 오렌지색 텐트에는 기저귀, 아기용 물티슈, 반창고, 깁스, 화장지, 아기용 우유, 의약품, 생리대가 있다. 바로 옆에 붙은 검은 텐트에서는 학생들이 폴란드식 사워도우 수프인 주랙을 데우고 있다. 언론인들에게도 친절히 수프를 권하지만, 그다지 식욕이 당기지 않는다. 날씨는 무척 춥고, 전쟁은 불과 11km 떨어진 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내가 태울게요.” 사람들 속에 있던 다부진 몸집의 중년 여성이 대답한다. 아들을 안은 여인은 말없이 그녀의 차 뒷좌석에 앉는다. 아무래도 그녀에게 오늘 오후는 긴 이야기를 나누기 적합한 때가 아닌 것 같다. 이야기를 나눌 만한 상황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매일매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진 세상, 갑자기 찾아온 탈출, 그녀의 삶을 넣기에는 너무 작은 가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어쩌면 고향에 남은 남성들의 이야기까지도 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2월 24일에 동부 전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명확해 보였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것이다. 문이 쿵 닫히고 차는 곧장 출발한다. 그녀는 몸을 틀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선을 던진다. 어디로? 그저 뒤편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숨을 돌리거나 미련을 곱씹을 새도 없이 이곳을 떠났다. 이곳에서 만남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고, 최신 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최소 100만 번은 더 있을 것이라 한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지겠지.

## 세관 통과를 위한 영혼

우리도 곧 차에 올라타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메디카 마을을 돌아다닌다. 10km 정도 이동했을 때 경찰차를 맞닥뜨린다. 경찰 두 명이 국경 바로 앞에서 차들을 우회시키고 있다. 그러

나 프레스 카드를 보여주자 지나가라고 손짓한다. 곧 빛이 반사되는 조끼를 입은 또 다른 남성이 등장하고, 그는 혼잣말처럼 말한다. “아, 또 언론인이네.” ARD(독일 제1공영방송), ZDF(독일 제2텔레비전), RAI(이탈리아 공영방송), 뉴스 에이전시와 기관에서 온 사람들, 기자, 블로거, 사진가들이 이 지역으로 모여들었다. 우리는 폴란드의 가장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심연 위를 조심스레 지나고 있다.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포착하게 되기를 고대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현실이 뉴스 헤드라인을 따라잡지 못한다. 이 국경이 우리가 이제껏 살면서 가본 그 어떤 국경과도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그건 무섭도록 규칙적인 리듬으로 국경을 건너오는, 인파로 가득한 버스들에 의해 드러날 뿐이다.

“우크라이나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우리가 국경 경찰에게 묻는다. “네. 가능합니다.” 그녀는 영어로 답한다. 하지만 도보로만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녀는 늘어진 이동식 임시 화장실 뒤로 철조망을 따라 몇백 미터 뻗어 있는 길을 가리킨다. 몇 남자가 그 길로 가고자 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과 동행하기로 한다. “키이우 방향이죠.” 미하일리라는 이름의 남자는 우크라이나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곳으로 간다고 한다. 그는 계속 걸음을 옮기며, 이를 악문 채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고향을 떠나지 못하겠다고 중얼거린다. 또 다른 남자 두 명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걷기만 한다. 한 남자는 연세 지긋한 노부부와 동행 중이다. 우리는 폴란드 체크포인트 앞에 잠시 멈춰 선다. 건물 입구에 설치된 금속제 회전문이 한쪽으로만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체코의 가수 카렐 크릴은 세관에서 검사할 것은 영혼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마르티나’의 가사를 쓸 때 이런 순간을 생각했던 게 아닐까.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2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밤에 대대적 동









УКРАЇНА  
UKRAINE

No Smoking  
No Photography  
No Pedestrians

STOP













원령을 내렸다. 미하일리를 비롯해,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우크라이나 남성이 조국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기는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질 것이다.

동행하고 있던 부부 중 한 명이 긴 침묵을 깨고 말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 그녀는 자기 옆에서 여권을 들고 있던 청년을 꼭 안는다. “그럴 리는 없을 거야.” 나이 지긋한 여성은 한 번 더 말하며 엄지손가락으로 남자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린다. 2022년 유럽, 프라하에서 차로 8시간 떨어진 곳의 풍경이다. 회전문은 기계적으로 다섯 번 딸깍 소리를 내고, 우리는 여권 검사 창이 있는 회색 방에 들어간다. 하늘색 폴란드 국경 경비 셔츠를 입은 갈색 머리 여성이 묵묵히 우리 개인 서류를 살피고, 능숙한 손짓으로 지나가도 좋다는 신호를 준다. 여러 해 동안 자주 여행을 다니며 이제는 무감각해진 이런 절차가, 심각한 분위기가 감도는 이곳에서는 갑자기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우리 뒤에서 문이 천천히 닫히고 나서야 그 이유를 선명히 깨닫는다. 안전 유리창 건너편에서 한 여성이 울고 있다.

우리 앞에는 날카로운 철조망, 먼 곳에 기관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무인 지대가 펼쳐져 있다. 체코에서 태어났고 EU라고 쓰인 진홍색 여권까지 가진 두 언론인이라면 지금 겁을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겁이 난다. 우리는 전쟁 상태를 선포한 지 일주일도 안 된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마지막 검문소를 지날 때 카무플라주 군복을 입은 우크라이나 국경 경비대가 당신과는 꽤 다른 행색의 우리를 보며 말한다. “나도 알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쯤은.” 모호크 머리를 한 키 큰 남성이 날카로운 어조로 답한다. 지금껏 한 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는 출구 표시가 붙어 있는 기다란 탄소섬유 트렁크를 문 쪽으로 민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억양이 없는 영어로 덧붙인다. “나는 전쟁에 많이 가봤어요.” 나는 나중에 신문을 보고서야 52개국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외인부대에 자원했다는 걸 알게 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섰다가 폴란드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를 알아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여기서 누군가에게 묻기에는 꽤 창피한 질문이지만. 국경 경비대는 “쉽지 않다”고 대답한다. 우리가 눈길을 피하는 동안 그는 우리 여권에도 장을 찍고 말한다. “행운을 빌어요.” 오래 인사말로 쓰이는 관용구지만, 지금은 경고에 더 가깝게 들린다.

## 천국의 동쪽

마지막 문을 지나서 몇 발짝 걸으니 완전히 다른 세계다. 세계 전쟁이 이미 발발한 곳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막대기와 돌로 싸우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제4차 세계대전이다. 사실은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무수한 재앙의 여러 장면 중 하나일 뿐이다. 피부색이 짙은 남성 수백 명이 끝없이 줄지어 서 있다.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도 있다. 티셔츠나 추리닝만 입은 사람도 많다. 수십 명이 급히 피운 불가에 웅송거리며 모여 있다. 차갑고 짓밟힌 흙바닥에 담요를 덮고 누운 사람들도 있다. “담배 있어요? 담배, 제발! 담배!” 우리 주위에서 계속 들려오는 말이다. 여기는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하는 상황이 아니다. 그저 오랫동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싸우다 지친 사람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 이 줄에서 있는 사람들은 폭격을 피하는 우크라이나 여성이나 어린이가 아니다. 여유 없이 태어난 사람들, 그 이후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반대편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전수는 없다.

미하일리는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옆을 지나간다. 지금 그의 싸움은 다른 곳에 있다. 국경 너머, 앞에 있는 숲 근처의 리비프에서 친척을 만날 예정이다. 친척은 650km 정도 떨어진 키이우까지 차로 그를 데려다주기로 했다. 키이우에서 두 사람은 현역 예비군에 합류해 러시아 군으로부터 도시를 지킬 예정이다. 예비군은 복싱 챔피언 출신인 비탈리 클리츠코가 이끌고 있다. 오후 5시 30분이 되기 직전이고, 메디카 국경은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땅거미와 함께, 평범한 남자들이 본의 아니게 영웅이 되도록 하는 저주받은 시대가 유럽에 돌아온다. 멈출 길 없이. “당신들은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무장한 군인이 예기치 않게 우리 앞에 끼어든다. 우리는 사진가이고 기자라고 설명하자, 그는 지금 여기에는 사진 찍을 거리도, 기사 쓸 거리도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혹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다급히 묻는다. 돌아가고 싶다.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우리는 중군기자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오늘 그걸 깨달았다. 자유 세계의 경계, 평화가 끝나고 전쟁이 시작되는 여기서 알게 되었다.

**“사람이 죽는다. 그다음엔? 아무것도 없다. 바람은 계속 분다.  
엘베강은 계속 흐른다. 전차는 따르릉 소리를 낸다...  
신은 잠들고 우리는 살아간다.”**

- 볼프강 보르헤르트, <문 밖에서> (1947)

순찰이 곧 시작된다. 우리에게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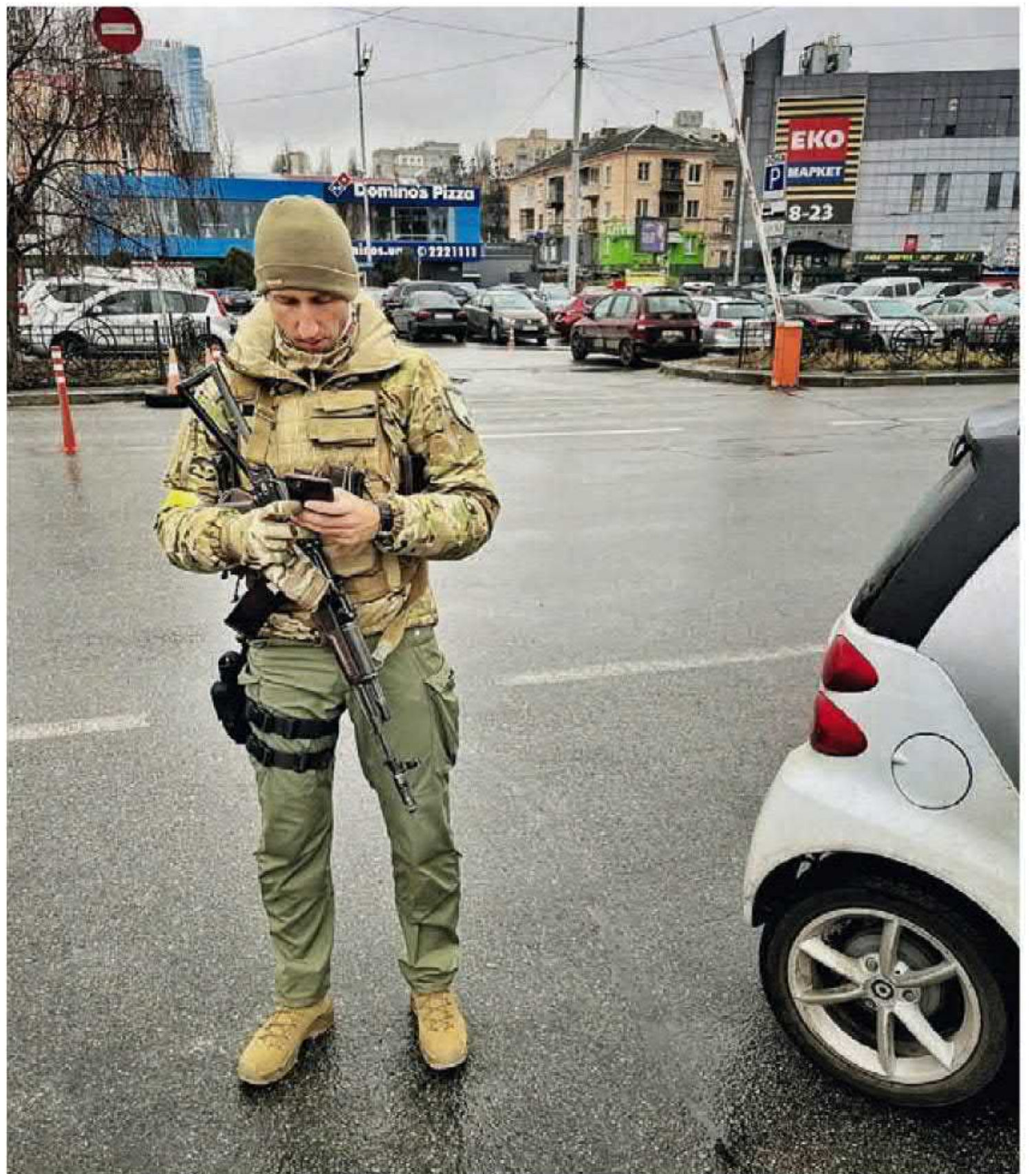
세르게이 스타코프스키 역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도보로 국경을 건넌 사람 중 하나다. 키이우 출신 프로 테니스 선수였던 그는 ATP 토너먼트에서 네 번 우승했다. “러시아가 사람은 더 많을지 몰라도, 동기와 의지를 헤아린다면 우리 쪽 수가 더 많죠.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미래를 위해 나섰으니까요.” 2022년 3월 4일부터 11일에 걸쳐 여러 번에 나눠 전화 인터뷰를 했을 때, 그가 한 말이다.

**일단 이것부터 물어보자. 당신 안전한가? 지금 기분이 어떤가? 모르겠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길 원하나? 묘한 시기다. 며칠 전에는 기분이 훨씬 나았다.**

**가족들과 두바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지 않았나?** 그렇다. 아이들이 방학이어서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두바이에 갔다. 우리는 알 아인 축구단의 수석 코치이자 내 막내아들의 대부인 세르게이 레브로프를 만나러 갔다. 두바이 테니스 챔피언십에도 가서 선수들과 인사를 했다. 키이우에 계신 부모님과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 어머니 생신이었고, 두 분 역시 휴가 중이었다. 그런데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갑자기 부재중 전화와 문자 수십 개가 와 있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미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뒤로 며칠은 한숨도 못 잤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내 아내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했다. 당시 내 어머니, 아버지, 형제, 형제의 가족 전부와 할머니가 키이우에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건 정말 끔찍한 기분이다. 러시아가 얼마나 빨리 진격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밖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한다는 건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일이었다. 당장 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최소한 내 가족이라도 데리고 나오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어조를 바꿔서) 만약 전화가 끊어지더라도 당황하지 말라. 우리는 검문소 몇 곳을 지나게 될 거고, 전화를 끊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바로 다시 걸겠다.

**당신 부모님은 키이우에 남기로 하셨다.**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거의 침공 즉시 수도 주위 60~80km 구간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서쪽으로 가서 리비프를 지나가려 했다. 우리는 토요일에 유럽으로 돌아왔다. 아내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파악하려고 계속 애썼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봤다. 내내 그 얘기를 나눴고, 안타깝게도 말다툼도 했다. 물론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을 하는 게 옳은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내도 분명 느꼈을 것이고. 하지만 100% 확신은 없었다. 우리에겐 아이가 셋이나 있으니까. 일곱 살, 여섯 살, 세 살의 어린아들이. 아내와 나는 아주 사이가 좋다. 전쟁 시작 전에는 우리가 싸운 적이 아예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결정하기가 아주 힘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결국 결단을 내렸다.** 그렇다. 꼭 필요한 것들을 배낭에 챙기고 아이들에게 키스한 다음 떠났다. 물론 내 아내는 흔들렸다. 아내는 내게 이렇게까지 말했다. “이건 옳지 않아. 이건 배신이야.” 하지만 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우선 군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브라티슬라바(슬로바키아의 수도)로 갔다. 그들이 내게 방탄조끼 몇 벌과 장비를 줬다. 칼라니쉬코프 자동 소총을 처음 잡아본 건 2014년, 우크라이나와 분리주 지역 돈바스 사이의 이른바 그라운드



제로에서였다. 그때는 총이 엄청나게 무서웠다. 그런 두려움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 그 뒤로 몇 년 동안 사격을 배웠고, 그래서 지금의 나는 최소한 총 쓰는 법은 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우즈호로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건넜다.

**도보로?** 그들이 나를 국경 바로 앞에 내려줬다. 거기서부터는 걸어갔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남성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발을 디디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점이다. 계엄령이 발동 중이라, 18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은 우크라이나 출국이 금지되어 있다. 운동선수였던 사실을 이용해 출국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는 충분히 상상 가능할 것이다.

**얼마나 걸었나?** 몇 킬로미터. 국경 주위에는 차량 정체가 아주 심했다. 게다가 그날은 아주 추웠다. 영하 8°C였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피난 가는 여성들이 길게 줄 서 있었다. 슬픈 광경이었다. 나는 가족을 국경으로 데려가는 친구를 만났다. 우리는 가족이 폴란드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 키이우로 갔다. 차를 타고 리비프를 비롯한 다른 도시들을 지났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절반을 지나간 셈이다. 러시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의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꼭 말하고 싶다. 국경 너머의 광경을 지켜봐야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평온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그렇다. 나는 무섭다. 아주 어려운 거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나는 사람들의 용기에 둘러싸여 있다.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국민의 절반은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다. 이젠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안다. 여기엔 끝까지 싸울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정말 감탄할 만한 일이다. 지금 내 주위에는 화염병이 수만 개 쌓여 있다. 현역 예비군은 새로 들어오는 자원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고,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지원한다.

**희망적으로 들린다.** 만약 러시아가 계속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나도 희망을 느꼈을 것 같다. 우리 도시들이 불타고 있다. 최근엔 원자력발전소도 폭격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원전 사고 직전까지 갔다. 그들은 진짜 미쳐버렸다.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는 계속 이곳에 ‘나치’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유대인이다. 끔찍할 정도



의 슬픔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어처구니없게 느껴졌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러시아 영토에서 푸틴의 프로파간다를 너무나 강력해서, 러시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믿는 것 같다. 전 세계가 그들과 달리 생각하며 모두가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는데도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두렵다.

**무슨 뜻인가?**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가 된 것이 분명하다. 푸틴이 얼마나 빨리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며 위협했는지만 봐도 그렇다. 그건 진짜 절망적이다. 나는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하는 싸움이란 걸 이해한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오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우리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다. 그들의 군대와 우리 군대를 비교해보라. 우리가 버텨내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포악하게 장악하고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국경까지 올 것이다. 계속 밀어붙이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나? 그들이 “1960년대에는 여기가 다 우리 거였다, 이제 되찾고 싶다”고 말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 세계를 타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기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한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와 폴란드가 1939년에 나뉘었을 때도 전쟁을 원한 사람은 없었다. 당시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나쁜 평화는 전쟁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우리 모두 알지 않나?

**러시아 군인들이 대부분 자기가 무슨 일에 투입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젊은이들이란 게 사실인가?** 아니다. 반반 정도다. 자기가 무슨 일에 투입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전쟁터에서 자포자기한 젊은이들도 있다. 반면, 무자비하게 민간인, 가족과 아이들을 죽이는 살인자들도 있다. 나 홀, 닷새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하면 지하에 숨어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그런 살인자들의 기관총에 맞는다. 부차, 이르핀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당신이 키이우에 도착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국경을 건너자마자 군대에 끌려가는 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두바이로 가기 전부터 예비군에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그때는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했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고 나자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그래서 키이우에 도착해서 영토 방위군과 계약서만 작성했다. 도시 여러 곳을 지키는 부대들이 있다. 시장이 조직했고, 우리가 메트로폴리탄 경계 밖에 배치되는 것은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

**당신이 그 부대에 들어가면 무기와 군복을 받는 건가? 실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 총만 받을 수 있었다. 모두 자기 장비는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 내 경우에는 다행히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었다.

**키이우에서의 일상은 어떤가?** 지금은 정보 전쟁을 주로 지휘하고 있다. 시간이 남을 때면 최대한 인터뷰를 많이 해서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계에 알리려 한다. 그리고 6시간마다 한 번씩 순찰을 돈다. 2시간밖에 안 걸린다. 틈틈이 가족들과 통화도 하고, 전쟁 전에는 와인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와인 산업을 도우려 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유통상들에 접근해서 우리나라 와인을 수출할 길을 찾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에는 금주령이 내려졌다. 술을 판매할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의 와인 전통은 최근 몇 년 전야야 뜨기 시작했고,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 시즌을 버텨낼 수가 없다. 와인 산업은 이번 분쟁의 희생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밤에는?** 우리는 기지에서 잔다. 공습 위협이 있으면 지하로 대피한다. 안타깝게도 요새는 공습 위협이 많았다. 언제나 뭔가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다. 여기에 별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오전에 지나쳤던 주거 건물이 밤 사이 사라져버린다.

**계속 머무를 결심인가?** 나는 돌아갈 수가 없다.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한다.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아직 잘 모르겠다. 나도 모른다. 정말 모르겠다.**

**죽을까 봐 두려운가?** 그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여기서 언제든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 깨닫는다.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 어젯밤, 우크라이나 안보 차관이 자기 휘하의 사람들 손에 죽었다. 러시아 스파이가 그의 차에 타 있었다는 익명 보고가 있었다. 경찰이 그를 불러 세웠을 때, 그의 보안 팀원 중 한 명이 넘어지며 실수로 공중에 총을 쏘았다. 그리고 결국 그들 모두가 현장에서 사살당했다. 실제로 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드물지만, 돌아다니는 총은 아주 많다. 다들 잠이 부족하고, 불안해하고, 늘 경계하고 있다. 우리는 옳은 일만 하려고 애쓰지만 때때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생길 때도 있다.

**지금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될까? 키이우에서 아쉬운 것은 무엇인가?** 현지에서 제일 필요한 물건은 방탄조끼, 헬멧, 장갑, 활동을 위한 옷이다. 전반적으로 가장 아쉬운 것은 방공 능력이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영공을 막아준다면 좋을 것이다. 그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러시아가 지상 전투에서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굳게 확신한다. 그들에게는 우리만큼의 동기와 결의가 없다. 키이우 상황을 말하자면 우리는 대충 모든 걸 갖고 있는 셈이다. 물, 식량, 전기가 있다. 우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한 달 더 이어진다면 인도주의적 위기가 터질 거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러시아 군인들이 이미 침공한 마을들처럼 말이다.



예를 들면 마리우폴은 사방으로 포위된 상태다. 그곳 사람들은 나홀째 가족들을 집단 무덤에 매장하고 있다. 공동묘지에서 총격이 일어나서다. (소음) 아 쟀장, 가까운데.

**무슨 일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좀 가까운 곳에서 큰 폭발이 있었을 뿐이다.

**키이우로 다가오고 있다는 러시아 수송대에 대한 소식이 있나?** 모두들 러시아 수송대 이야기를 물어본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러시아 수송대가 불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뿐이다. 그들은 아직 아무 데도 오지 못했다. 최근에 키이우 시내 외곽까지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건 일부러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복잡한 지하차도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쏘서 박살 내버리고, 그러면 수송대는 끝장난다. 그들이 머릿수는 더 많은 게 사실이지





만 동기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위다. 러시아군은 자칫하면 죽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젠 여기에 오기도 싫어한다. 우린 여기가 집이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들을 환영할 줄 알았을까?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들이 서방세계 전체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거기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을 과대 포장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다. 여기 분위기는 해일과도 같다. 러시아인들이 있으면 우크라이나인들은 굉장한 관심을 보이며 유심히 살펴본다. 정말 대단하다. 마치 사파리에 온 것 같다. 우리는 마지막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싸우고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모두 결의를 품고 있다. 우리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나는 요즘 그가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방식,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모두와 함께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한다.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된다. 과거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코미디언으로 변한 정치인들이 많았다. 이제 우리에게 진짜 대통령으로 변모한 코미디언이 있다. 이걸 정말 대단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일 뒤에, 세계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세계는 분명 정신을 차리겠지만, 러시아는 안 될 것이다. 오늘 나는 미국 인디언웰스에서 토너먼트에 참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테니스 선수 마르타 코스튜크의 인터뷰를 읽었다. 그녀는 러시아 테니스 선수 중 자신에게 다가와 유감을 표한 선수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갑자기 모두들 귀머거리, 장님이 된 것만 같다. 나는 집단의 죄책감에 대한 논의가 언젠가 이 이야기에 포함될 거라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오늘 계획은 뭔가?** 2시간 뒤에 기지로 돌아가야 한다. 5시에 순찰을 나간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





watch

01

## 스위스 시계 브랜드의 생애

박찬용

오데마 피게가 파텍 필립을 제치고 스위스 시계 업계 매출 4위로 올라섰다. 아, 자극적인 카피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구가 <에스콰이어> 담당 에디터를 자극해 포켓볼 첫 스트로크를 맞고 흩어진 공들처럼 이리저리 튕겨 내게까지 원고가 왔다. 그리하여 이달 내가 제안받은 원고 주제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의 생애주기’다.

다만 시계 브랜드의 생애주기라는 개념은 조금 모호하다. ‘생애’ 자체를 말하기가 애매하고, 그러니 흥망성쇠를 논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매출이 늘었는데 알고 보니 스펙을 낮추고 가격을 떨어뜨려 가격 저항선을 낮췄다면 경영상으로는 성공이지만 애호가들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다. 매출을 기준으로 삼기에는 시계 업계의 주요 지표가 너무 많이 숨겨져 있다.

‘오데마 피게가 파텍 필립을 제치고 시계 매출 4위로 올라섰다’는 문구가 전 세계 언론에 재 생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팩트’ 자체가 귀하기 때문이다. 이 문구의 출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와 시계 전문 컨설팅 회사 럭스 컨설트의 협업 리포트다. 정확히 말하면 2021



년 매출 기준으로는 오데마 피게 매출이 파텍 필립보다 50억 스위스프랑(약 6000억원) 많았다. 물론 그렇다고 파텍 필립이 오데마 피게에 한풀 꺾였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위스 시계 업계는 정확해야 하는 부분만 빼고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굳이 생애주기라는 개념으로 스위스 시계 브랜드를 본다면 X축과 Y축 그래프를 생각해볼 수 있다. X축은 시간, Y축은 수준이다. '수준' 안에는 매출이나 브랜드 가치, 기계적 사양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갈 수 있을 테니,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즉 개별 예시들은 재미로 봐주시면 되겠다). 아무튼 이 두 축을 기준으로 시계 브랜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계속 소소한 브랜드 (2) 소소했다가 높아진 브랜드 (3) 높았다가 소소해진 브랜드 (4) 계속 높은 브랜드. 이렇게 나눠서 따져보면 스위스 시계라는 업계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노력이나 품질과 별개로 늘 소소한 수준에 머무르는 브랜드가 있다. 어느 업계에나 그런 회사는 있고, 스위스에도 있다. 어떤 브랜드는 자신만의 제조 철학과 미감과 높은 수준의 기계적 완성도를 가졌음에도 브랜드 인지도가 좀체 오르지 않는다. 이유는 소극적 유통 또는 기타 우리가 알 수 없는 요소들 때문이기도 하다. 시계 전문 브랜드의 생산설비까지 인수하며 고급 시계라는 카테고리에 진입하려는 브랜드도 있다. 개중 몇은 가격 대비 사양도 상당히 훌륭하고, 스펙이나 창의력도 좋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은 제품의 완성도와 노력에 비해 늘 낮은 인지도 카테고리에 머무른다.

다음은 매출이나 인지도처럼 경영상 눈에 띄는 지표가 낮았다가 높아진 브랜드다. 이쪽 분야의 대표 사례는 블랑팡이다. 블랑팡은 1755년 창립 후 200여년을 이어져오다 스위스 시계 업계 최대 불황기였던 1970년대에 문을 닫았다. 그리고 불세출의 시계 마케터 장 클로드 비버가 헐값에 블랑팡을 인수했다. 비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진 블랑팡에 새로운 시대적 서사를 입혔다. 대중적인 퀵츠 시계 대신 블랑팡은 고급 기계식 시계만 만든다고. 이후 승승장구한 블랑팡은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시계 브랜드가 되었다. 비버는 블랑팡을 팔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브랜드인 위블로를 만들어 또 한번 성공시켰고, LVMH의 시계 부문 총괄이 되기까지 했다. 한 번 사는 인생 비버처럼 살아도 나쁠 것 없다.

기계식 시계의 역사에서 봤을 때 남다를 것 없는 역사성과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럭셔리 시계 업계에서는 늘 '접근 용이한 시계'라는 이미지에 머무는 브랜드도 있다. 대개는 브랜드의 포지셔닝 전략 때문이다. 포지셔닝 때문에 스펙과 가격을 조금씩 낮춘 엔트리 모델을 출시하는 브랜드가 있고, 반대로 포지션을 다시 높이기 위해 엔트리 라인을 단종시키는 브랜드도 있다. 뭐가 됐든 목적은 브랜드의 생애주기를 연장시키기 위함이니 비즈니스의 세계는 심오하다.

마지막으로 계속 높은 포지션을 유지하는 브랜드가 있다. 롤렉스,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오메가, 까르띠에, 그리고 최근 추가된 리차드 밀. 매출만 놓고 봐도 이들의 높은 포지션은 모건스탠리 리포트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해당 보고서에서 매출과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호명된 상위 7개 브랜드는 순서대로 롤렉스, 까르띠에, 오메가, 오데마 피게, 론진, 파텍 필립, 리차드 밀이다. 이들의 입지는 몇 년이 지나도록 쉽게 변하지 않았으니(비록 그들끼리는 엇치락뒤치락한다 해도), 한번 높은 포지션을 차지한 브랜드는 좀처럼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여기 언급된 7개 회사 중 5개는 19세기에 만들어졌다. 까르띠에, 오메가,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론진은 모두 1800년대부터 시작했다. 말인즉슨 이들이 3세기에 걸친 온갖 풍파를 헤쳐왔다는 뜻이다. 풍파를 헤친 방법은 모두 다르다. 까르띠에는 기본적으로 보석 회사가 시계를 만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계 외에도 강한 주력 비즈니스인 보석업이 있었다. 파텍 필립은 고품질 고급 시계를 고급 고객에게 판매한다는 기조를 지켰다. 오데마 피게는 한 번도 소유 구조가 바뀐 적이 없는 회사라 특유의 고집스러운 운영 방침이 있다. 스위스 시계의 암흑기인 1970년대에 초고가 스포츠 시계인 로얄 오크를 출시한 게 그 예다. 오메가와 론진은 스와치그룹 산하에서 각자의 캐릭터를 구축하며 살아남았다.

20세기의 롤렉스와 21세기의 리차드 밀에는 강력한 원천기술과 콘셉트가 있었다. 롤렉스는 오늘날 사람들의 이미지 속 포지션과 달리 기계 단위로 뜯어보면 철저한 실용 시계다. 롤렉스가 타 시계 회사와 달랐던 건 케이스의 방수 기술이었다. 이는 아직까지도 오이스터 퍼페추얼이나 서브



마리너 등으로 남아 있다. 오늘날의 빈티지 롤렉스가 시장에 건재한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그 시계들이 지금껏 멀쩡하기 때문이다. 리차드 밀 역시 시계의 경량화에 집중한다는 원천기술과 광기의 캐릭터 플레이로 21세기의 시계 시장에 안착했다. 결과적으로, 생존한 브랜드들에 공통 공식은 없다. 각자의 정답만이 있을 뿐이다.

사실 21세기 시계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스위스 시계가 아니다. 스마트워치다. 애플 워치의 출하량은 이미 모든 스위스 시계의 합산 출하량을 넘어선 지 한참 됐다. 스마트워치의 생애주기는 어떻게 될까, 스마트워치가 기존 손목시계 브랜드의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일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이미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 시장의 거대한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애플 워치는 스위스 시계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21년 현재 스위스의 주요 고급 시계 브랜드는 모두 성장했고, 스위스 시계 수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액을 회복했다. 다만 애플 워치는 비슷한 가격대의 시계 브랜드 생애주기에 영향을 끼친다. 애플 워치와 가격대가 겹치는 브랜드의 시계 보고서 속 순위들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스위스가 어떤 나라인가. 집집마다 지하에 핵 병커를 만들어둘 정도로 생존에 특화된 나라 아닌가. 이들은 분명 어떻게든 답을 찾아낼 것이다.

---

## culture

①②

### 깡치지 맵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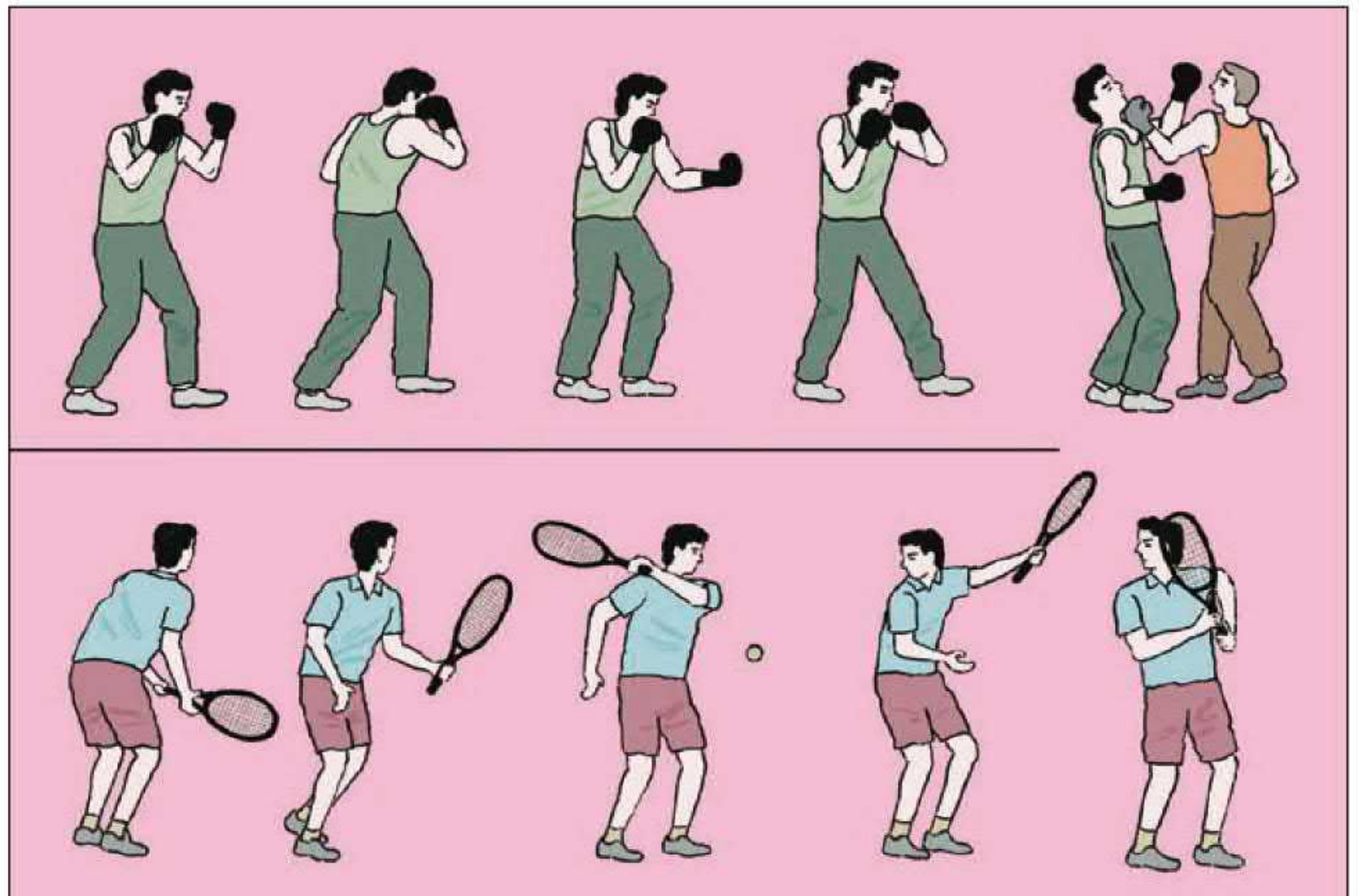
박세희

처음 복싱을 시작했을 때는 아직 피가 끓던, 아니 끓는 것까지는 아니고 따듯하던 나이였다. 어려서부터 날렵한 축에 속했고, 농구를 좋아해 풋워크에도 자신이 있었다. 게다가 중학생 시절 2개월이나 복싱 체육관을 다니며 흑까지 마스터한 전력이 있었던 터라 금세 내가 정한 체육관의 에이스가 되리라 마음먹으며 입관 서류를 작성했다. 물론 나를 보는 관장의 마음은 좀 달랐을 것이다. 30대 중반의 아저씨가 매일 와서 워밍업 줄넘기만 여섯 세트를 하며 열정을 불태우니 좀 무서웠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관장은 사실 내 육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한 달 동안은 ‘깡깡원투’만 시켰으니까. 천재 복서에게 깡만 시키는 관장이 원망스러웠지만, 착실히 실력을 쌓아 언젠가는 저 사각 링 위에서 천재적인 감각을 뽐내보리라 다짐하며 오욕의 나날을 견뎠다. 그때도 사실 마음만은 <더 파이팅>의 전일보였다. 현실의 주먹은 14온스(16온스였나?) 글러브를 끼고 허공을 향해 깡깡원투나 날리고 있을지언정 뇌내 망상 속에선 이미 뎀프시 롤이 한창 플레이 중이었으니까. 가끔 관장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면 살짝 스트레이트를 날리며 주먹을 비틀었다. 들어는 봤는가? ‘코크스크류 블로’라고?

그러던 어느 날 스파링은 예고도 없이 도적처럼 나를 덮쳤다. 깡깡원투에서, 깡깡원투 더킹 더킹 흑흑으로 장족의 발전을 이뤄가던 어느 날, 관장이 무심하게 “세희 씨, 스파링하게 올라오세요”라고 말했다. 갑자기 심장이 어찌나 빨리 뛰던지. 내 천재성을 보여주기 위해 기다린 그 오욕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상대는 이미 링 위에 올라 있었다. 상대 역시 점심시간을 불태우는 체육관 인근의 회사원으로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복싱 경력은 1년 정도라고 했다. 키가 꽤 크고 리치도 나보다 반 뺨쯤 길어 보였지만, 문제없었다. 나에겐 러시아인 흑과 가젤 펀치가 있으니. 일단 아마추어 스파링에서 하트브레이크 샷은 봉인해두는 것으로.

박세희는 <에스콰이어 코리아>의 피쳐 디렉터이자 소설가다.





우리는 가끔 주제를 모르고 갑치다 얻어맞는다. 얼마 전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 경기를 치른 UFC 정찬성 선수는 ‘정찬성 Korean Zombie’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이 채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시리즈 중 하나는 <좀비트립 : 파이터를 찾아서>다. 정찬성이 제자 박문호 선수를 데리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그 동네에서 싸움 좀 한다며 빼기고 다닌 ‘내로라 가이’를 찾아 스파링 대결을 해보는 프로그램이다. 말이 스파링이지 사실상 실전 예절교육이나 다름없다. 5000명과 싸워 다 이겼다는 광주 아저씨도 문호 씨의 펀치에 턱을 맞고 나뒀굴었고, 싸움을 즐긴다는 태권도 유단자는 기절한 채 녹다운됐다. 만나뵈면 적도 없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주제가 ‘갑치고 얻어맞기’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아내가 한 마디 한다. “어떻게 저렇게 못 때려?” 그렇다. 어떻게 저렇게 못 때릴까? 나는 사람이 그렇게 못 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올라가본 링 위에서 절절하게 알아버렸다. 시합용 글러브를 끼고 가드를 올리면 대략 시디 두 장보다 큰 메주 덩어리로 얼굴을 가리는 것과 비슷하다. 얼굴이 완전히 가려져 때릴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든 때려보려 주먹을 날리긴 하는데, 내가 날리는 모든 주먹이 결국 상대에겐 기회다. 날리는 주먹을 더킹으로 흘리며 들어와 훅이나 바디를 내 몸뚱이와 얼굴에 쏜다. 링 위에 오르기 전에는 인파이팅을 해야 하나 아웃파이팅을 해야 하나 한창 고민했지만, 링 위에선 그저 안팎으로 2라운드 동안 골고루 맞기만 했다. 리치가 길고 키가 큰 상대라 잽을 던지고 왼쪽으로 몸을 숙이며 라이트로 러시아 훅을 날려보려 하다가 가드가 열리는 바람에 오른쪽 턱에 어퍼컷을 맞았던 기억이 아직도 밤에 가끔 떠올라 깊은 우울에 빠지곤 한다. 그날 이후 나는 스파링을 그만두고 줄넘기와 잽잽 원투 더킹 더킹 훅훅에만 더욱 매진했다.

실수를 통해 잘못을 깨닫고 인생의 자세를 수정해나가는 바람직한 일은 내 인생에선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테니스를 친 옛 회사의 입사 동기에게 “테니스? 그거 그냥 베드민턴처럼 라켓으로 공 치면 되는 거 아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 친구는 가소롭다는 듯 “내 서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리턴하면 라켓을 사주겠다”며 으름장을 냈다. ‘뭔가를 처음 할 때는 절대 갑치지 말 것.’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교훈을 스파링 경험을 통해 배웠을 법도 한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친구와 대화를 나눈 그 주 주말, 나는 형광색 티셔츠, 해변에서 입던 반바지에 러닝화를 신고 친구네 대학 테니스 코트에 섰다. 그날 테니스 25년 차의 서브를 어떻게든 받아보려는 나의 몸짓은 아마 거미의 웹에 걸린 형광 나방의 몸부림만큼 처절했을 것이다. 그 후로 본격적으로 테니스를 배우는 동안에도 ‘처음 하는데 갑치다 손해를 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서브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페더리의 유려한 폼을 머릿속에 그



리며 점프 서브로 폴스윙을 했다가 회전근개를 다쳐 18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았고, 슬라이스를 배운 적도 없으면서 따라 하다가 옆 코트 아저씨를 맞추기도 했다.

깁치지 말아야 할 곳이 링이나 코트뿐인 건 물론 아니다. 기자로 있다가 홍보팀으로 이직한 친구가 있다. 홍보팀이라고는 하지만, 전통적인 기자 핸들링 업무가 아니라 자사 제품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외주 주는 부서라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신나 했다. 입사할 당시에는 얼마나 큰 열정에 불타고 있었는지, 곧 해당 기업에서 훌륭한 바이럴 CF가 쏟아질 것만 같았다. 입사 후 약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만난 친구는 풀이 죽어 있었다. 친구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말했다. “아티스트 A 알지? 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만이 넘잖아? 그런데 그거 다 가짜란 말이야. 회의 때 A 얘기가 나왔길래, 내가 그랬거든, ‘그 팔로워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개 다 자가 발전이에요’라고. 그런데 반년 전에 우리 회사랑 단발성 모델 계약을 했더라고. 그것도 우리 부장이 밀어서.” 아마 여기까지만 들으면 내 친구가 옳은 얘기를 한 것이니, 큰 잘못이 아니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친구의 설명에 따르면 그건 큰 잘못이었다. 친구는 말했다. “다들 알더라고. 돈 주고 산 팔로워인 것도, 가짜 인기인 것도. 그 얘기를 듣고 난 처음에는 화를 냈지. 왜 가짜 인기에 돈을 주냐고. 동료 차장이 참다 못해 한 마디 하더라고. ‘우리도 현빈 원빈 모시고 싶죠.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정적인 예산으로 셀럽 섭외해서 임원 결제까지 받아내려면 가짜 숫자라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진짜 인기 셀럽을 이 돈에 섭외할 수 있을까요?’라고.”

친구의 얘기를 들으며 난 우리가 ‘깁친다’라고 말하는 행동의 근본이 되는 마음이 뭔지를 깨달았다. 친구는 왜 깁쳤을까? A의 팔로워가 가짜라는 사실을 회의 석상에 앉은 사람 중에 자신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는 아니었을까? 그 많은 홍보맨들이 자기보다 모른다고 얕잡아본 때문이 아닐까? 나는 링 위에서 왜 깁쳤을까? 어려서 체력장 특급 몇 번 받은 자신감 때문에 웬만한 사람보다 내가 운동을 잘한다는 근자감 때문은 아니었을까? 나이 마흔에도 점심시간을 쪼개 복싱 체육관을 다닐 정도의 열정을 가진 상대방 아저씨라면, 중고등학생 때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운동을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거란 생각은 왜 하지 못했을까? 코트 위에선 왜 깁쳤을까? 25년 차 친구가 다른 운동은 나보다 조금 못하니까, 그 따위 구력은 재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은 건 아니었을까? 깁침의 본질은 어찌면 나를 올리고 남을 내리는 내로남불의 마음이 아닐까? 문득 꽤 오래전 전직 군청 공무원과의 술자리에서 들은 말이 생각났다. “군수들은 선거 이기고 나면 자기가 다 바꿀 수 있을 줄 알아요. 근데 막상 수십 년 된 베테랑 공무원들이랑 일을 시작해보면 그제야 아는 거죠. 아 못 바꾸는 텐 이유가 있구나.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 말은 물론 링이나 코트나 회사나 군청에서만 유효한 말은 아닐 것이다.

## 35세 박모 씨가 어촌에 정착하려 할 때 생기는 일

김준

요란한 새소리에 눈을 뜬 박씨는 소풍 가는 날처럼 마음이 설렘다. 이사하고 처음으로 갯벌에 나가는 날이다. 옆집 할머니가 보름달이 뜨면 물이 많이 빠져 갯벌에서 바지락도 캐고 낙지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어젯밤에 감나무 사이로 둥근 보름달을 보았다. 이사 온 지 반년이 되었지만, 아직 갯벌에 나가보지 못했다. 오늘은 옆집 할머니를 따라 나서기로 했다.



박씨는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서울 토박이다. 학교도 직장생활도 서울에서 했다. 서울에서 만난 아내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다. 시골에 집을 마련하기 몇 년 전에 회사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직장생활 하는 아내가 아이와 서울에 머물고 있다. 성격도 취미도 다른 부부지만 전원생활만은 통하는 꿈이었다. 특히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보면서 그 꿈은 더욱 절실해졌다. 가능하면 바닷가에 집을 마련하고 싶었다. 그렇게 정착한 곳이 전라도 남쪽 바닷가 ‘동백마을’이었다.

동백마을에 집을 구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귀촌할 마을을 찾아다니다 보니 빈집이 정말 많았다. 개중에는 마음에 드는 집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을 얻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주민들도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알아도 사는 곳이나 연락처를 얻기가 힘들었다. 마을과 집이 마음에 들어도 자식이 팔지 않겠다며 반대했고, 부동산을 통해 찾아가면 땅이나 집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마을 사람들이 빈집의 사정을 알 리가 없었다. 그렇게 집을 찾아다니던 중 우연히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할머니 한 분을 차에 태워주었다. 그리고 박씨가 집을 찾아 마을을 헤맨 사연을 들은 할머니가 동네에 내놓은 옆집을 소개해준 것이다. 오늘 갯벌에 함께 가기로 한 할머니와의 인연은 그렇게 맺어졌다. 어촌 주민들은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기보다는 아는 사람을 통해 거래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부동산 비용을 내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 들어오길 원해서였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었다. 땅을 구하고 측량을 해보니 실제 집과 도면의 땅이 일치하지 않았다. 박씨가 구하려는 땅의 일부가 마을 안 길로 이용되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넓힐 때 이전 주인이 땅을 마을에 내놓았는데, 법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길을 넓히고 담을 쌓은 것이다. 하지만 박씨 집만 그런 게 아니었다. 동네에 그런 집이 많았다. 박씨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집수리를 마친 후 이사를 했다.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도 하고, 집도 손보고 하는 동안 반년이 훌쩍 지났다. 주말에 내려오는 아내와 아이도 만족했다. 가족은 주중에는 도시에서, 주말이면 시골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웃집 할머니와 바지락을 캐고 나서 생겼다.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어 아내와 아이와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촌계장이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박씨네는 갯벌에서 바지락을 채취할 수 없다’고 전했다.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어장인데, 왜 하지 말라는 것인가? 박씨는 손님도 아니고, 마을로 이사를 와서 주민등록도 옮기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어촌계장은 ‘정 바지락 밭을 이용하고 싶으면 어촌계에 가입을 하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황당했다. 이웃집 할머니도 어촌계원이 아니다. 나중에 알았다. 할머니는 대대로 마을에 살면서 갯벌에 의지해 살아온 분이라 마을 어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마을 규범이자 어촌 문화다. 귀촌을 해서 갯벌을 이용하려면 우선 수협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이후 마을에서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어촌계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협 조합원은 60일 이상 어업 활동을 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동백마을 어촌계 가입 절차는 최소 마을에서 1년은 거주해야 하며, 500만원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내야 한다. 기준이 좀 까다롭다고 생각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이전에는 더 어려웠다.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가입금도 1000만원이었다. 어촌계 가입 절차는 마을마다, 마을 어장의 가치와 크기, 어촌 계원의 수에 따라 다르다. 정부가 새롭게 어촌에 진입하는 귀촌인을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기를 권고하고 있지만, 결국 ‘마을법’에 의해 꾸려지는 일이라 강요할 수는 없다. 제도만으로 볼 때, 박씨는 갯벌을 이용할 수 없다. 직접 바지락을 캐고, 굴도 까고, 해초도 뜯어 밥상에 올리는 꿈을 실현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농촌처럼 텃밭을 얻거나 일귀서 씨를 뿌리고 채소를 키우듯이 갯벌을 이용할 수 없다. 물론 낚시는 가능하다. 그러나 갯벌은 안 된다. 역시 어촌의 특징이자 문화다.

박씨가 귀촌을 결정하고 가장 크게 걱정한 부분은 아이였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동백마을에 있던 초등학교는 박씨가 이사하기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다. 먼저 귀촌한 젊은 부부 몇 명은 자가용이나 통학버스를 이용해 가까이 있는 학교로 보내고 있었다. 자동차로 20여 분 거리를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마는. 사실 박씨 부부는 학교보다도 학원이 걱정이었다.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지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박씨 아내가 군청이 있는 중심지 학원도 돌아다녀 봤지만 마음에 차는 곳이 없었다. 아이는 유치원에 다닐 때도 영어, 수학, 악기 등을 학



원에 의지했는데, 이를 만족할 만한 곳이 시골 어디에 있겠는가. 젊은이들의 귀촌을 가로막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자녀 교육 문제일 것이다. 결국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족의 손을 빌려 해결하곤 하는 게 한국 사회의 사정이다. 박씨 아내는 퇴직하고 시골로 내려가면서 서울의 언니에게 아이를 부탁하기로 했다. 박씨 부부는 도시에서 톡톡이 즐겼던 수영, 백화점 쇼핑, 영화, 외식을 포기했다. 그건 괜찮았다. 그러나 육아와 교육에서 '양보'나 '포기'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 글은 픽션이지만, 실제 사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사실을 반영한다. 오늘날 어촌이 당면한 여러 문제는 이렇게 개인의 삶에 개입한다. 국내 어촌의 대부분은 초고령사회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 젊은 인구가 수혈되지 않으면 소멸할 급박한 위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겠다고 소리를 높이지만 어촌 마을 학교는 대부분 폐교되었다. 학교가 없는 곳에 돌아올 수 있는 젊은 가정은 없다. 젊은 사람들이 어촌을 안정된 정주 공간으로 여기도록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젊은이들의 귀촌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내세운다. 그깟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다. 생계, 주거, 교육, 의료를 포함한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그 와중에 어촌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업 종사자여야 한다는 규정은 배제의 규정이다. 박씨처럼 어업이 아닌 어촌 생활이 그리워 귀촌하는 이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런 이들이 적지 않은 데 말이다.

귀어귀촌에는 교육이 필요하다. 앞서 묘사했듯이, 어촌의 주민들은 공동의 영역에서 자원을 획득한다. 각자의 소유권이 명확히 구분된 땅에서 생산을 하는 농촌과 구분되는 셈이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독특한 문화가 있다. 이 또한 어촌의 정체성이다. 귀촌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민들이 살아오며 축적된 이러한 삶의 방식과 규범을 존중하는 시선을 교육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앞세워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갯벌을 일구며 살아온 방식에 공감하는 자세를 교육해야 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어촌 주민들은 이제 마을 규범과 규칙이 진입 장벽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장벽을 디딤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지 못하면, 어촌에 활력은 절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들어오려는 사람도 들어려는 사람도 모두 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 일제강점기라는 한국의 시대극

김도훈

오사카는 스펙터클이었다. 선자가 오사카에 도착하는 순간 나는 잠시 시각적 황홀경을 느꼈다. “역시 돈이 좋네” 중얼거렸다. 그렇다. 이건 요즘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드라마 <파친코> 이야기다. <파친코>는 재미 작가 이민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애플TV+의 대하드라마다. 1915년 부산에서 태어난 선자(김민하)를 중심으로 한국, 일본, 미국을 오가며 역사에 휩쓸리는 제일 동포 가족의 삶을 다룬다. 하나의 타임라인은 없다. 드라마는 일제강점기와 1980년대를 경쾌한 편집으로 오간다. 당신은 어쩌면 드라마 한 편을 위해 애플TV+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여전히 망설이고 있을 것이다. 망설일 필요 없다. 미국 OTT의 자본력과 할리우드식 문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현대사를 조금 낯선 방식으로 그려낸다. 새로운 형식과 익숙한 내용의 묘한 균열은 <파친코>를 보는 가장 거대한 즐거움이다. 맞다. 이건 영업이다. 나는 이 짧은 문장으로 당신이 이미 영업당했기를 바란다.

만약 당신이 이미 <파친코>를 봤다면 1회를 보자마자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의 시간이 펼쳐질 것을 예감했을 것이다. 한국인에게 일제강점기는 언급하기도 두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역사다. 한국의 대하드라마에는 그 역사를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하게 담아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 <파친코>와 비교할 수 있는 한국의 드라마라면 박경리 원작의 <토지>(1987)와 김종성 원작의 <여명의 눈동자>(1991)가 있다. 두 드라마는 <파친코> 이전에 어느 정도는 여성의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굳이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파친코>는 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와는 묘하게 결이 좀 다르다. 여기에도 일제강점기의 악역들은 등장한다. 부산 영도의 어시장을 순찰하는 일본 순사들은 익숙한 악당들이다. 부산에서 오사카로 가는 여객선 안에서 한국인 여자 가수의 등을 징그럽게 쓰다듬는 일본 고위층 관리의 묘사는 이미 우리가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서 종종 보아온 캐리커처에 가까운 악당이다. 그런데 <파친코>는 그 이상으로 일본인 악당의 악당다운 존재감을 밀어붙이지 않는다. 오히려 선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일본 순사들이 아니라 그들을 돈으로 지배하는 오사카 출신의 자수성가한 한국인 사업가 한수(이민호)다. 익숙한 고문 장면도 처형 장면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파친코>는 배우들의 얼굴, 그들의 표정, 그들의 감정적 리액션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비애를 실어나르는 방식을 선택한다. 익숙하지만 낯설다.

선자가 남편과 오사카에 도착하는 순간 애플TV+의 자본이 CG와 세트로 창조한 1931년의 오사카 거리가 등장한다. 선자의 표정은 놀라움 그 자체다. 그는 조국의 쌀과 피를 뽑아 먹던 거머리 같은 제국의 경관에 압도당한다. 선자의 남편은 노면전차 안에서 아시아 두 번째 지하철을 짓고 있는 공사장을 보며 말한다. “난 벌써 미래에 온 것 같은데?” 그것은 확실히 미래다. 그런데 나는 <파친코>의 오사카와 비슷한 무언가를 이미 본 적이 있다. 정지우 감독의 2008년작 영화 <모던보이> 속 경성이다. 2000년대 말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갑자기 ‘경성’의 스펙터클에 사로잡혔다. 로맨스 소설 <경성애사>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경성 스캔들>(2007), 호러 영화 <기담>(2007), 조선 최초의 라디오 방송을 다룬 <라디오 데이즈>(2008), 그 모든 경성 트렌드를 종합한 <모던보이>가 줄줄이 나왔다. 꽤 재미있는 트렌드였다. 그간 일제강점기 경성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억압받는 고통의 도시로만 등장했다. 그 시절의 경성을 스펙터클로 다루는 것은 일종의 금기였다는 뜻이다. 그런데 2000년대 말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오랜 금기를 갑자기 세상이 허용하기라도 한 듯 경성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데 집착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살짝 덜어낸 시각적 접근법은 이후 박찬욱의 <아가씨>(2016)와 <미스터 션샤인>(2018) 같은 작품으로 이어졌다.





나는 <모던보이>를 처음 본 순간을 기억한다. 박해일이 연기하는 조선총독부 서기관 이해명은 모던보이다. 그는 서양식 저택에서 하얀 슈트를 꺼내 입고 외출한 뒤 보브컷을 한 가수들이 스윙 댄스를 추는 무도회장에서 1930년대의 경성을 마음껏 즐긴다. 그 시대의 경성은 갑자기 조선에도 달한 미래였다. ‘신문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백화점과 커피숍과 극장이 생겼다. 밤은 네온사인으로 빛났다. 모던보이와 모던걸이 등장했다. 그들은 단성사에서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명동 거리를 걷다가 미쓰코시백화점에서 유행하는 모자를 산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옥상 정원에서 경성을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셨다. 설렁탕이 10전이던 시대에 커피 한 잔은 15전이였다. 지금도 점심값보다 커피값이 더 비싼 시대이니 그 정도 가격 차이는 이해할 만도 하다. 당시의 기록을 읽어보면 “경성 젊은이들은 커피를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고 하니 특별한 호사는 딱히 아니었을 것이다. 잘 차려입은 <모던보이>의 이해명은 웃으며 말한다. “독립이니 친일이니 따져서 뭐 하겠소?”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것은 1910년이다. 1930년대의 미쓰코시백화점에서 커피를 마시던 모던보이, 모던걸은 어찌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제국의 신민이라는 신분을 곧바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부모 세대와는 달리 별 죄책감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근대의 신문물을 즐겼을 것이다. 나는 종종 당대의 무용가 최승희가 세련된 단발을 하고 미쓰코시백화점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진을 구글에서 찾아보곤 한다. 그 사진은 너무나도 매혹적이어서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당대 경성 스펙터클의 집약체이다. 최승희는 군국주의 선전 영화에 출연했다. 일본군 위문 공연에 참석했다. 거액의 국방헌금을 내기도 했다. 당연히 그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친일인명사전에 당당히 들어 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최승희 앞에서 역사적 고민에 사로잡힌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민족의 배신자였을까? 아니면 당대의 경성 문화를 어떻게든 조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예술적 투쟁이었을까? 아니, 그 시절에 예술을 하고 싶었던, 혹은 그냥 폼 나게 살고 싶었던 젊은이들의 욕망을 모두 반민족적이며 알파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걸까?

미쓰코시백화점은 신세계백화점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있다. 호안 미로와 알렉산더 콜더의 조형물이 번드르르하게 빛나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옥상 정원에서 종종 생각한다. 만약 내가 1930년대 경성에서 이십대를 보내던 사람이었다면 어떤 인생을 선택했을까를 고민한다. 영화 <모던보이>는 가수 조난실(김혜수)이 일본인 고위층들 앞에서 스스로를 폭사시키는 것으

김도훈은 글을 쓰는 사람이다. <씨네 21> <GEEK>과 <히프포스트>에서 일했고, 에세이 <우리 이제 낭만을 이야기합시다>를 썼다.



로 끝난다. 죽음을 지켜본 모던보이 이해명은 독립운동가로 굳이 각성해야만 한다. 경성을 다루는 모든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어쩔 도리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결한 결말이었다. 경성의 스펙터클에 현혹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역사적으로 '바른 결말'이어야 한다고 부르짖는 예술적 아이러니였다. 하지만 역사 속 개인들 모두가 윤리 교과서의 주인공 같은 투사들이었던 건 아니다. 그 시대에도 개인은 존재했다. 많은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다. 뮤지컬 배우 이지혜는 <파친코> 4화에 선자가 오사카로 가는 여객선에서 노래하는 소프라노 가수로 등장한다. 아마도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에서 모티브를 따왔을 이 가수는 일본인들이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이탈리아 가곡 '울게 하소서'를 부르다 돌연 '춘향가'를 열창하고, 곧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러나 그 죽음은 이 드라마의 중심부가 아니다. 드라마는 이지혜가 아니라 그가 노래를 부르던 무대 아래 짐 부리는 선창에서 나뒹굴던 보통 사람들에게 주목한다. 보통 사람은 소프라노 가수가 죽은 배를 타고 오사카로 건너가 미래를 본다. 윤심덕의 서사는 <모던보이>에선 결론이지만, <파친코>에선 과정이다.

오사카에서 파친코 사업을 하는 선자의 아들은 말한다. "대부분 레버를 잘 당기면 파친코가 터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손님들은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파친코 알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거대한 역사의 레버가 당겨지는 순간 이리 튀고 저리 튀며 각자의 포물선을 그린다. 어쩌면 우리는 개개인에게 무겁게 부가된 역사의 무게를 픽션에서나마 조금 덜어내는 것으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를 마주할 새로운 미학적, 혹은 정치적 태도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마침 <파친코>는 이런 문구와 함께 시작한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나에게 이 문구는 역사 속 개인을 비극의 주인공으로만 망쳐버릴 필요는 없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한국이라는 정신적 국경의 외부로부터 당도한, 익숙하지만 새로운 서사의 시작이다.

---

## technology

⑤⑤

### 메타라는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윤상필

미국 프로 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벤트다. 워낙 시청률과 화제성이 높아, 경기에 붙는 광고가 곧 전 세계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야심을 겨루는 장이 된 것이다. 그래서 슈퍼볼 광고의 내용이나 품질에 대한 평가도 매해 미식축구 경기 못지 않게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대결이 되었다. 30초에 약 84억원이 들어가는 이 광고판에 올해 메타(Meta)도 참전했다. 광고 내용은 이렇다. 레스토랑에서 밴드 공연을 하던 로봇 개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버려진다. 그대로 폐기물이 될 뻔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구해져 전시관의 안내원으로 일하게 된다. 겨우 밥줄을 유지하게 된 로봇 개에게 누군가 메타의 VR 기기를 씌워준다. 이제 로봇 개는 가상 세계에서 다시 동료들과 함께 밴드 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광고는 슈퍼볼 역대 최악의 광고라는 평을 받았다. 사람들은 현실을 피해 가상 세계에서 살라는 것이냐며 우울한 광고라고 조롱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메타는 왜 이런 광고를 만들었으며,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질타를 하는 걸까?

메타는 작년 10월 페이스북이 새롭게 내건 사명이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가 이제 SNS를



넘어 가상현실 기반의 미래 플랫폼인 메타버스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훼손된 회사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페이스북 알고리즘의 위험성과 경영진의 비윤리적 태도를 지적하는 내부고발로 조사가 이어지면서 회사의 이미지와 주가도 크게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메타는 '빅테크 저승사자' 리나 칸 위원장이 이끄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반독점 조사와 소송 문제도 마주하고 있다.

메타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생각처럼 쉬울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지금까지 발표한 것들을 살펴보면 메타가 메타버스의 개념을 어떻게 구현하려는 것인지 뚜렷한 그림이나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 메타버스의 개념은 1992년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한다. 현실에서 빗쟁이 피자 배달부인 주인공 히로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천재 해커이자 뛰어난 검객으로 활동한다. <레디 플레이어 원>이나 <매트릭스> 같은 영화 작품에서도 가상 세계는 어두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표현된다. 메타가 보여준 메타버스의 모습은 이와 다르지 않았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그림을 보여줬으니 사실 해당 광고는 앞선 소설이나 영화보다도 못한 텅 빈 영상에 불과하다. 메타는 메타버스에서 원하는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보다는 역으로 메타버스를 통해 현실의 삶이 더 즐겁고 윤택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줬어야 했다. 무엇보다 전신인 페이스북이 비윤리적인 경영을 일삼으며 시장과 데이터를 독점하려 했다는 비판적 시선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광고는 불씨만 더 키운 셈이 됐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더 큰 문제가 보인다. 바로 데이터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다. 메타와 그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의 데이터 윤리 철학을 이해하려면 페이스북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혜성같이 등장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페이스북은 근본적으로 극도의 연결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서비스다. 하버드대학교 재학생 신분이었던 마크는 당시 학교에서 공개하지 않던 학생들의 사진과 정보를 해킹해 더 마음에 드는 여학생 사진을 고르도록 하는 '페이스매시(Facemash)'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일종의 이상형 월드컵처럼 여학생의 사진 두 장을 띄우고 '누가 더 핫한가' 묻는 웹사이트였다. 훗날 이 문제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했지만, 사람들의 사진과 정보를 모으겠다는 마크의 집념은 마침내 페이스북의 창업으로 이어진다. 2010년 기준 미국 인구의 41.6%가 페이스북 계정을 갖게 되었고, 바로 그해 마크는 지울 수 없는 꼬리표 하나를 스스로의 손으로 달았다. 한 인터뷰에서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해버린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마크의 생각만큼 프라이버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프라이버시는 인류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부터 존중하던 본질적인 가치 중 하나다. 집이라는 공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내밀한 영역이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쓴 편지를 수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읽는 걸 바라지 않는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신체나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가 마을에 퍼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어릴 때 일기를 쓰고 자물쇠를 걸어 잠갔던 추억도 돌아보라. 요즘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내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도록 사생활 보호 필름을 붙이는 것은 또 어떠한가? 이런 현상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다르지 않다. 오늘날 사회는 프라이버시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프라이버시 시대가 끝났다고 주장했던 마크도 태도를 바꿨다. 2018년 페이스북 사용자 약 5000만 명의 데이터가 유출되어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운동에 사용됐다는 이른바 '페이스북 데이터 스캔들'이 터졌다. 이 사건으로 마크는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사과문을 공개했다. 2018년 유럽에서 오늘날 전 세계 정보보호법의 흐름을 주도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시행되고 각종 보안사고들도 증가하자 2019년에는 아예 프라이버시 중심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정책을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또 사건이 터진다. 2021년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내부 연구 결과가 있었음에도 경영진이 이를 묵살했다는 내부고발이 발표된 것이다. 이쯤 되니 사람들은 마크 저커버그 CEO 개인의 윤리적 결함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다시 메타버스 이야기로 돌아와보자. 지금의 메타버스는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제페토와 같이 다소 한정된 형태의 게임이나 소통 플랫폼 정도로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선 시



## watch<sup>01</sup>

스위스 세계 브랜드의 생애  
writer PARK CHANYONG

## media<sup>04</sup>

일제강점기라는 한국의 시대극  
writer KIM DOHOON

## culture<sup>02</sup>

갑치지 말시다  
writer PARK SEHOI

## technology<sup>05</sup>

메타라는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writer YOON SANGPIL

## society<sup>03</sup>

35세 박모 씨가 어촌에 정착하려 할 때 생기는 일  
writer KIM JUNE

대의 상상력에 힘입어 알고 있는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 세계가 실시간으로 이어져 모든 행위와 경험이 공유되는 공간이다. 게다가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빠르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면 시장과 자본 권력도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사실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이유도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팬데믹 시대의 급격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더 많은 영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정도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이 이행한 메타로의 변모도 그랬고, 메타버스 관련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는 현상도 그렇다. 가상화폐와의 연계는 또 어떤가? 이쯤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초창기 모습을 떠올려보라. 분명 그때만 해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주변 지인들과 소통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정말로 그렇게 즐길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온갖 광고나 불법도박, 자극적 콘텐츠들이 피드를 지배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고민 없는 메타버스는 정말 디스토피아가 될지도 모른다. 현실의 모든 행동과 공간이 실시간으로 반영된다는 메타버스의 관념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은 디지털 기기로 클릭하고 접속하는 정도의 행동이 기록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당신의 걸음걸이와 시선까지 더 포괄적이고 방대한 데이터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집 구조를 똑같이 옮겨놓은 메타버스 공간의 집을 아무나 들여다보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누군가가 나의 동선을 훤히 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특정 계층이 필연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세계라고 할 수 있는가? 굳이 노년층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20대, 30대보다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메타버스 서비스에 익숙한 시대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메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문제는 없을까?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 혐오 표현이나 폭력적 언행들을 모두 규제할 수 있는가? 메타가 메타버스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더 근본적인 고민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기술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보이겠다는 의지에 앞서 사회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철학적 고민을 바탕으로 윤리적 문제들을 식별해야 한다. 무엇보다 마크 개인의 도덕적 결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메타의 길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용자인 우리들의 생각도 중요하다. 고객이기 전에 시민인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 정보는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내 정보로 돈을 번다면 수익도 배분해야 한다. 숫자나 문자로 표현된 나의 인격이나 가치를 가볍게 여기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 디지털 세상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





몽블랑 산의 빙하를  
패턴으로 형상화한  
마이스터스틱 셀렉션  
글래시어 체스트백 몽블랑.  
재킷 언어팩티드. 니트 톱  
코스. 팬츠 큐레이티드  
퍼레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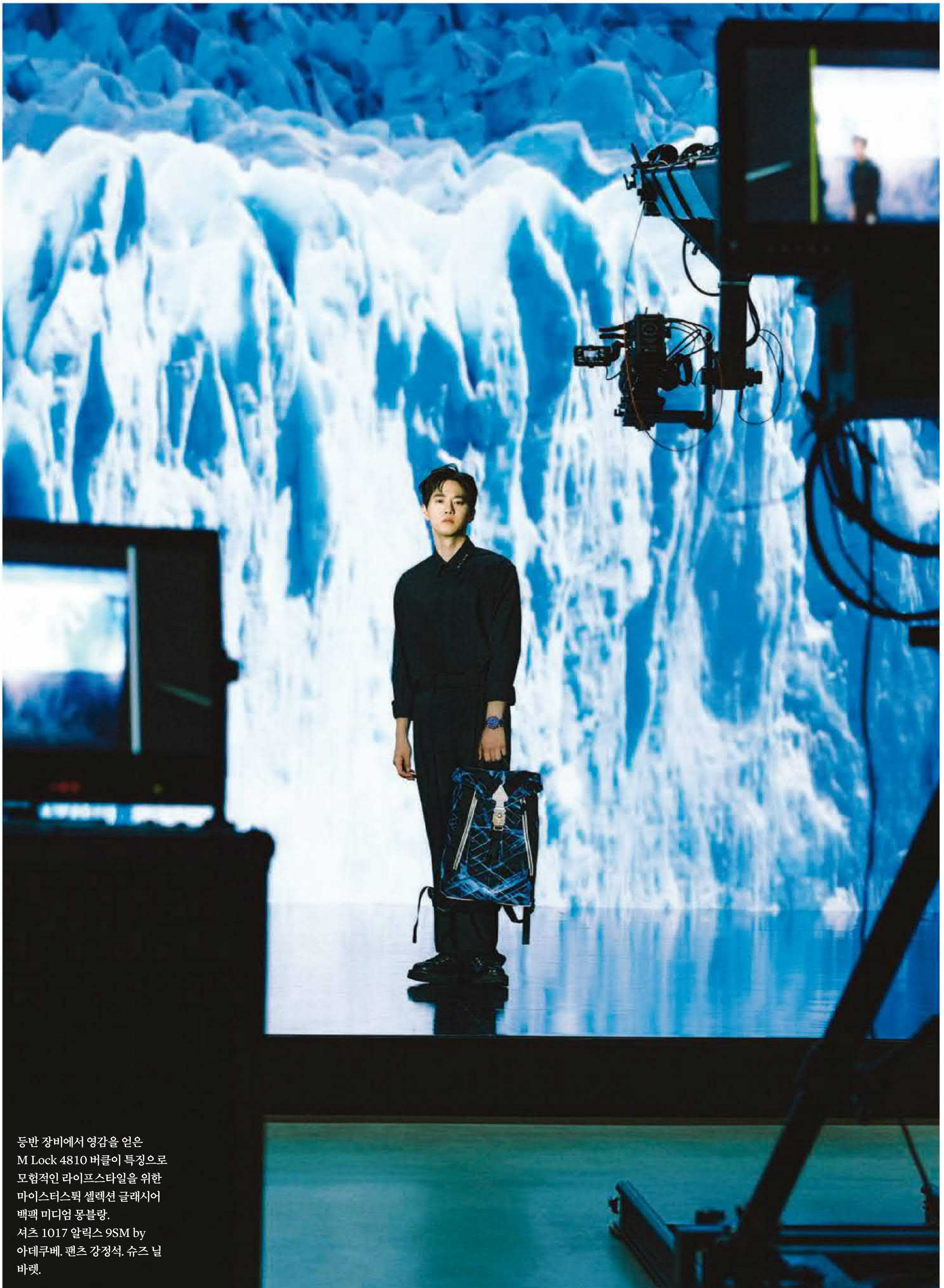




수호는 자신을 너무도 잘 안다고 말했다.  
너무 잘 알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돌덩이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fashion editor KO DONGHUI features editor PARK SEHOI  
photographer YOON JIYONG





등반 장비에서 영감을 얻은  
M Lock 4810 버클이 특징으로  
모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마이스터스틱 셀렉션 글래시어  
백팩 미디엄 몽블랑.  
셔츠 1017 알릭스 9SM by  
아데쿠베. 팬츠 강정석. 슈즈 닐  
바렛.



빙하 결정의 패턴을  
다이얼에 적용한 다이버  
워치, 몽블랑 1858 아이스드  
씨 오토매틱 데이트 몽블랑,  
스웨트셔츠 문선, 셔츠  
솔리드 옴므.





지속 가능한 에코닐 나일론  
원사에 강렬한 글래시어 모티브를  
프린팅한 마이스터스틱 셀렉션  
글래시어 백팩 미디엄 몽블랑.  
윈드브레이커, 팬츠 모두  
포스트아카이브팩션. 티셔츠  
언어팩티드 x 미즈노. 슈즈  
프라다.



몽블랑과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든 게 커머셜인 이 시대에 흔치 않은 리얼 스토리 더군요.

소집 해제 후 팬들에게 알리기 위해 손 편지를 써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 옆에 평소 쓰는 만년필을 같이 뒀어요. 사진에 펜이 정말 살짝 보였는데, 몽블랑 관계자분이 그걸 알아 보셨나 봐요. 제가 가사를 쓸 때도 몽블랑 펜으로 쓰거든요.

그 펜이 어린 왕자 에디션인 건 알고 계셨어요?

알았죠. 친구가 선물로 준 펜이에요.

아하! 수호 씨가 <어린 왕자> 좋아하는 걸 알고 준 거군요.

어려서부터 <어린 왕자>를 좋아했으니까요. 생일 선물이었어요.

“<어린 왕자>는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볼 때마다 그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한 인터뷰가 기억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나이가 들어서 읽으면 또 다르더라고요.(웃음)

다음 주 월요일에 <그레이 수트>가 공개되죠. 들어보고 인터뷰를 하고 싶는데 들어볼 수가 없어서 아쉬워요. 이번 앨범 주제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인가요?

사실은 소집 기간이죠. 복무하며 보낸 시간. 1년 9개월 동안 팬들을 만나지 못했던 시간, 그때 느끼고 경험한 감정을 앨범을 통해 소통해보고 싶었어요.

<그레이 수트>라는 제목이 그 시간에 대한 메타포인가요?

메타포라고 볼 수 있죠. <모모>라는 소설책에서 가져온 모티브예요. 그 소설을 보면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회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시간을 훔치는 회색 정장을 입은 신사들과 그들을 쫓아가 다시 시간을 되찾아주는 신비로운 여자아이 ‘모모’의 이야기가 소설의 중심축이죠. 동화지만 어른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다룬 소설이에요. 1년 9개월 동안 팬들을 만나지 못한 시간이 어떤 의미에선 제겐 잃어버린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을 훔쳐간 회색 정장의 신사들을 메타포로 차용해 앨범명으로 쓴 거죠. 그 기간 동안 다른 멤버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서 ‘세상은 저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나 빨리 흘러가는데 나만 멈춰 있구나. 내가 사는 지금의 시간은 흑백인데, 저 세계는 컬러구나’라고 느꼈거든요.

나의 흑백 시간에 대한 노래로도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웃음)

책을 좋아하시는군요.

활동 중에는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제가 줄곧 ‘좋아하는 책은 <어린 왕자>’라고 말한 것도 사실은 데뷔 후에 읽은 책이 많지 않아서였어요. 데뷔 전에 읽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소설이 <어린 왕자>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활동할 때보다 복무 기간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아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남자들은 보통 복무 기간에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것 같아요.(웃음) 이번 앨범의 가사 중에 시

간에 대한 성찰이 들어간 펀치 라인이 있을까요?

펀치 라인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너와 나 다시는 no more grey’라고 말하며 팬들을 만나 그레이 수트를 벗는 내용의 가사가 있어요. 그동안 흑백이었지만, 이제 다시 컬러풀해지는 내용이지요.

여섯 곡 전곡의 작사에 모두 참여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나요?

‘이리 온(濫)’이라는 노래 앞부분에 ‘어느 날 네가 내게 불어와 (중략) 환한 빛 아래 내가 널 안아줄 테니’라는 소절이 있어요. 수미상관으로 마지막 소절에는 ‘그날에 내가 내게 날아와 환한 미소를 담아 널 안아줄 테니’라고 되어 있죠. 앞부분에는 내가 수동적으로 불어왔고, 환한 빛이 그냥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뒷부분에 쓴 가사에선 넌 나에게 능동적으로 날아왔고, 나 역시 환한 미소를 담아 안아요.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필연이었던 거군요.

맞아요. 나도 너도, 우리도 모르게 우연히 만났지만, 이제 서로를 믿는 존재가 되어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로 ‘이리 온’이라고 한 거죠.

그 노래의 부제가 ‘Bear hug’죠. 꼭 껴안아주고 싶은 사람한테 불러주는 노래군요.

제가 부를 때는 사실 아이한테 불러준다는 마음으로 부르긴 했어요. ‘알아 넌 어른이 되고 싶어 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도 했죠. 예를 들면 ‘딱히 약속은 없지만 집에 가고 싶지는 않아 방향 중인 퇴근길의 회사원들’에게 불러줘도 좋을 노래라고 생각하고 써봤어요.

마음에 드는 멜로디는 뭔가요?

한 곡만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또 ‘이리 온’이네요. 이 노래 후렴에 좀 높은 고음부가 나와요. 반음씩 반음씩 올라가며 감정을 폭발시켜요. 아마 흔하게 듣는 멜로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보통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의식중에 멜로디의 전개를 예상하거든요. ‘이 음 다음에는 이 음, 혹은 저 음이 나오겠지’라고요. 또 그 음 중에 어울리는 음이 나와야 편하게 들려요. 그런데 이 멜로디는 예상했던 음이 아니라 긴장감을 유발하면서도 어울려서 좋았어요.

여러 작곡가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좋은 멜로디는 예상을 살짝 비껴나가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그런 멜로디입니다.

어떤 노래를 쓸 때가 가장 고민했어요?

‘모닝 스타’요. 1번 트랙이죠. 처음에 이 노래를 구상할 때는 ‘콘서트 무대에서 있는 장면에서 잠에서 깨고 보니 꿈인 걸 깨닫는다. 현실의 나는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무대 위’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 결국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다. 꿈에만 머무르고 싶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결국 다른 작사가들이랑 상의 끝에 전복하기로 했죠. 반대로 복무 기간을 꿈으로 바꾼 거죠. 그렇게 바꾸고 나서야 ‘나를 꿈에서 깨워줘’라는 내용의 가사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민이 많았죠.

작사를 해서일까요? 손악기에도 관심이 많은가 봐요. 인스타그램에 기타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복무 기간부터 익히고 있는데 아직 보여드리기에는 미흡해요. 언젠가 콘서트나 팬미팅 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기타는 정말 계속 잡고 있어야 늘더라고요. 레슨받을 때는 그렇게 안 늘더니 사랑니 뽑을 때 확 늘더라고요. 사랑니를 뽑았더니 영어 공부도 못 하고, 노래 연습도 못 하고, 흔들리면 아파서 춤도 못 댔거든요. 그때 집에만 있으면서 기타를 계속 잡고 있었어요. 사랑니를 뽑고 집에 있는 그 3주 동안 정말 확 들었어요.

어쩐지, 기타 사진을 올린 포스팅에 ‘C’라고 써 놨더라고요. 완전 초보자라면 ‘G’를 잡았겠죠. 그런데 정말 웃긴 건 해외 팬들이 “C는 ‘큐티’라는 뜻”이라고 단 댓글이었어요.

(웃음) 그날이 기타를 산 날이었어요.

마지막 인터뷰 중 하나가 <농구 인생>과의 인터뷰더라고요. 보통 수호 정도의 슈퍼스타가 일상복을 입고 셋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면 인터뷰에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놀랐어요.

그날의 인터뷰 주인공인 ‘모용훈’이라는 친구가 저랑 너무 친해서요. 정말 많이 친해요. 제가 덕도 많이 봤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찐우정이네요.

맞습니다. 휘문중학교 동창에 같은 반이었고, 그 아이도 전학생 저도 전학생이었죠. 그 친구는 농구부여서 사실 보통 학생들이랑 친해질 일이 잘 없었어요. 어째서인지 저랑은 잘 맞았죠. 데뷔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어요. 그 친구도 프로농구 데뷔를 하기도 했어요. 팔꿈치와 무릎 부상이 계속돼서 선수 생활을 그만둘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은퇴 후에 스킬 트레이닝 센터를 차려서 시작하는 단계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죠.

올해가 데뷔 10주년이죠. 수호 씨는 연습생까지 합치면...

17년 차죠.

방금 얘기한 친구와의 관계가, 제가 수호 씨를 특별하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보통의 아이돌 트랙만 걸어온 분들과 만나보면, ‘엠티가보고 싶어요’ ‘대학 생활 해보고 싶어요’ ‘사실 친구가 많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에 반해 수호 씨는 훨씬 다양한 관계와 그 관계에서 생긴 여러 감정들을 느껴본 셈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전 다 해봤네요. 사실 연습생이었지만, 부모님의 영향으로 중고등학교 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요.

어떤 시절에 겪은 감정이 가장 다양했던 것 같아요?

고3에서 대학교 1학년까지요. 그때 사이니 선배님들이 데뷔를 했어요. 저랑 같이 연습하던 선배들이 데뷔를 한 거죠. 그때 전 다리 부상도 입었고, 여러 이유로 데뷔가 미뤄지던 시절이에요. 그 상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한 거죠. 고3이 힘들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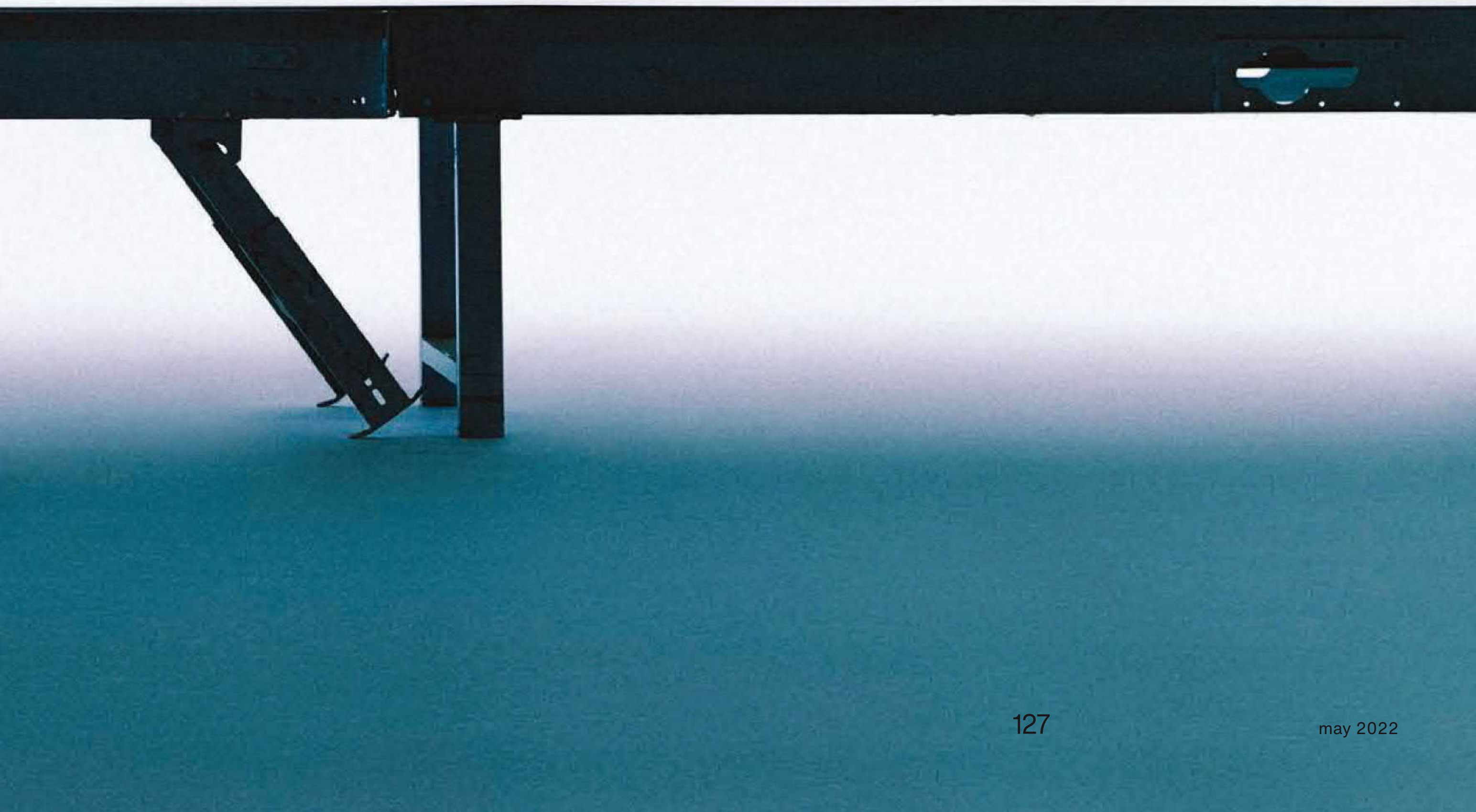
그럼요 힘들죠. 한국인에겐 가장 힘든 1년이죠.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부모님과 형 그리고 연기 선생님의 격려 덕에 끝까지 할 수 있었죠. 한예종 영화과에서 그때 만난 친구들이 지금은 다 잘나가는 배우로 활동 중이에요. 그 친구들이랑 오티도 가고 엠티도 가고 대학생활을 즐겼죠.







역동적인 디자인과 실용성, 등반  
장비에서 영감을 얻은 버클 장식이  
특징인 마이스터스틱 셀렉션  
글래시어 체스트백 몽블랑.  
재킷 코스트포킬러. 티셔츠 닐  
바렛. 팬츠 쿠시코크 by 아데쿠베.  
슈즈 GmbH x 아식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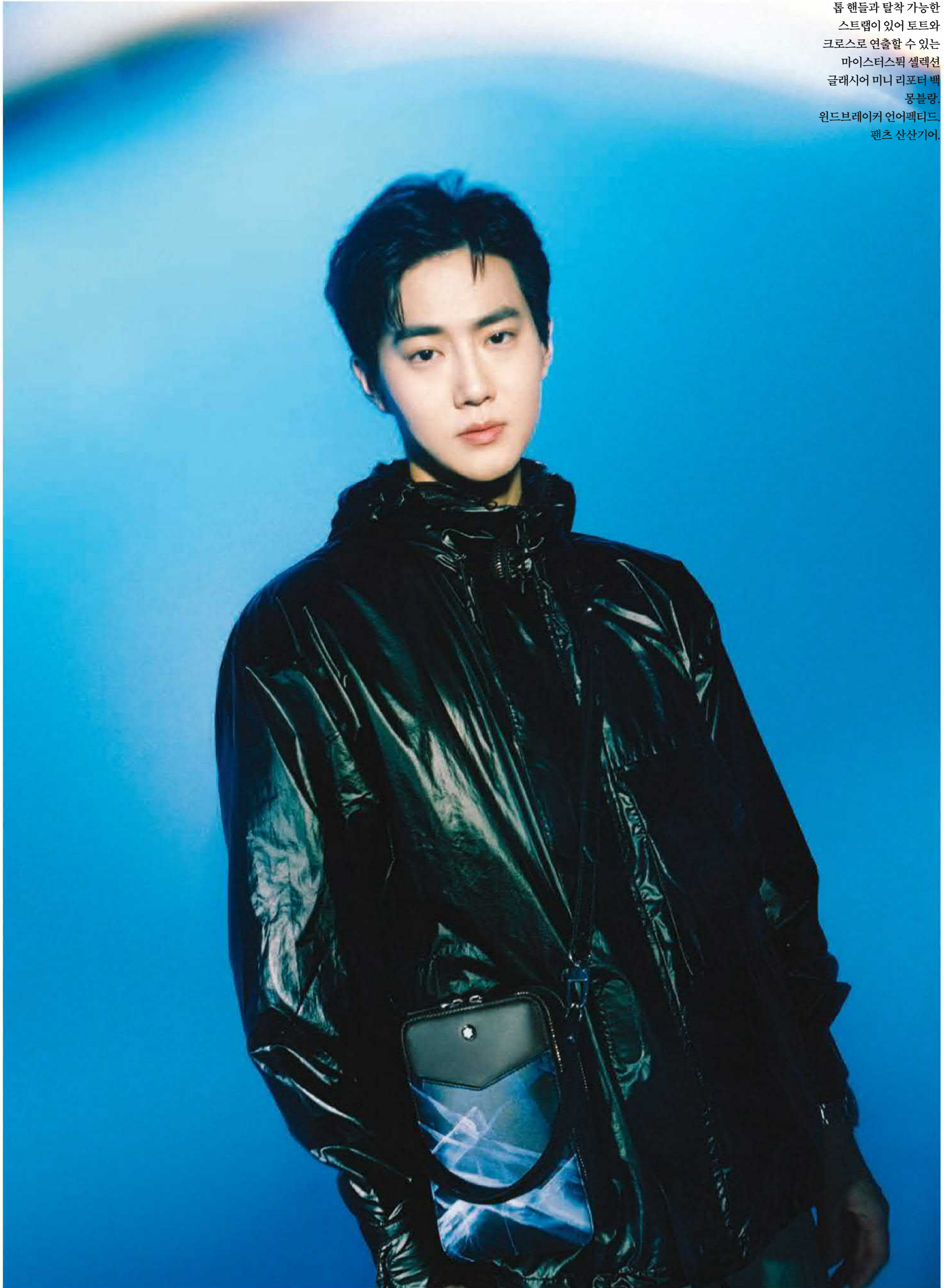


강렬한 버클 장식에 한층 더  
커진 몽블랑 로고가 인상적으로  
장식된 마이스터스틱 셀렉션  
글래시어 체스트백 몽블랑.  
재킷 코스트포킬러, 티셔츠 닐  
바렛, 팬츠 쿠시코크 by 아테쿠베,  
슈즈 GmbH x 아식스.





툽 핸들과 탈착 가능한  
스트랩이 있어 토트와  
크로스보로 연출할 수 있는  
마이스터스틱 셀렉션  
글래시어 미니 리포터 백  
몽블랑.  
윈드브레이커 언어팩티드.  
팬츠 산산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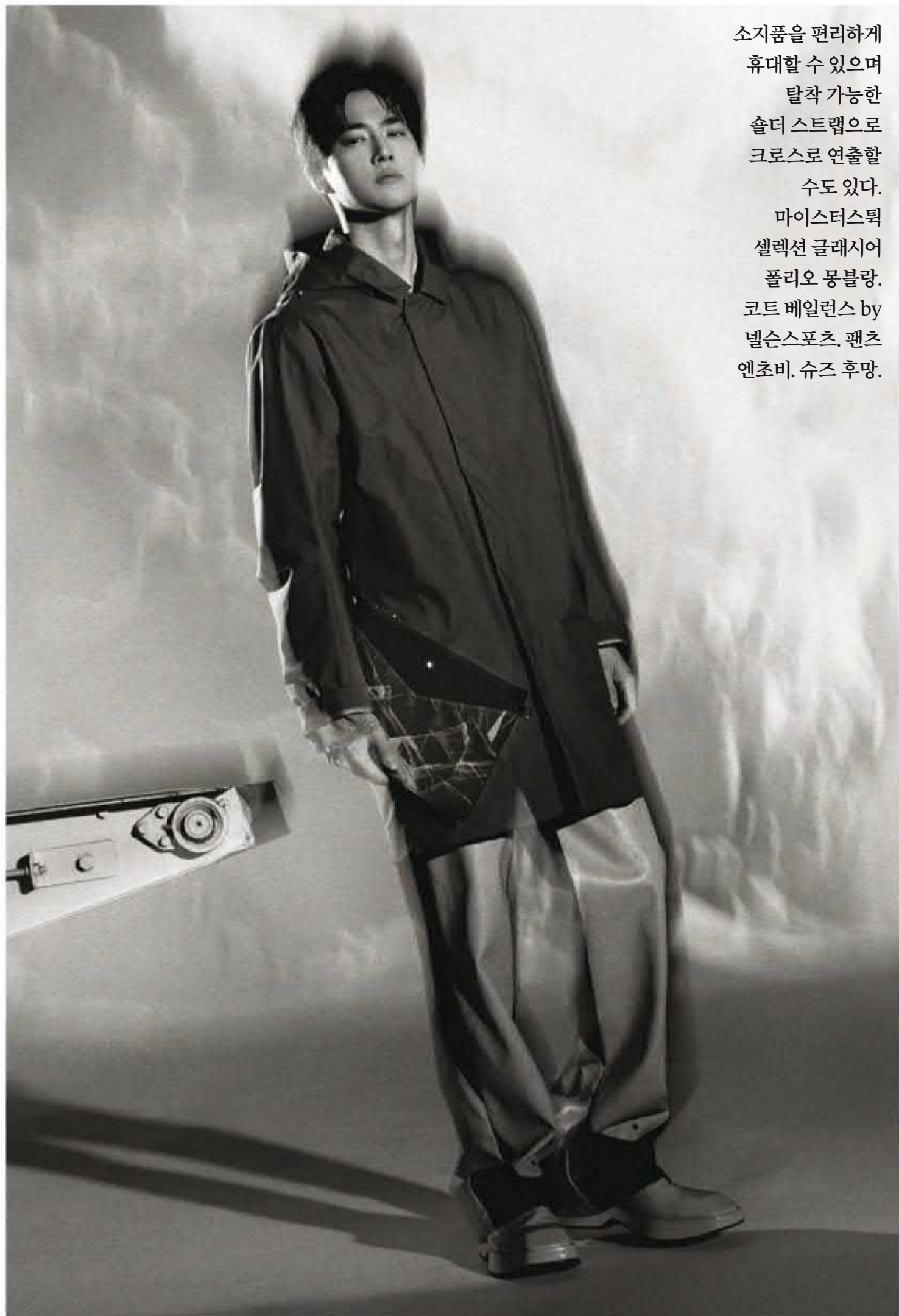
실용성과 활동성, 스타일을 모두  
고려한 백으로 레더 트림은 탄소  
중화 태닝 공정으로 만들었다.  
마이스터스틱 셀렉션 글래시어  
벨트 백 몽블랑.  
후드 티셔츠 GmbH, 팬츠 어템트  
by 샘플라스, 슈즈 후망.

COVER STORY



단방향 회전 세라믹 베젤과  
300m 방수 기능을 갖춘 몽블랑  
1858 아이스드 씨 오토매틱  
데이트 몽블랑.  
재킷 큐레이티드 퍼레이드. 니트  
툽 곱데가르송 움프 플러스, 팬츠  
엔초비. 슈즈 후망.





소지품을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으며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으로 크로스도 연출할 수도 있다. 마이스터스틱 셀렉션 클래식어 폴리오 몽블랑. 코트 베일런스 by 넬슨스포츠. 팬츠 엔조비. 슈즈 후팡.

와... 정말 재밌었겠네요.

(웃음) 그 1년을 정말 재밌게 보냈죠. 고3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가 제 지금까지 인생의 희로애락이 가장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정말 재밌었으니까요.

<글로리데이>의 상우 등을 연기하는 걸 보면서 수호 씨는 감정의 도서관 안에 진짜 감정을 모아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맞았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여행지에서 웬만하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요. 그런 일상의 감정을 느끼는 게 여행을 가는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웃음) 그렇죠. 낯선 도시의 지하철 노선표도 찾아보고 버스도 타보고 하는 일이다 행복했죠.

수호 씨 필모그래피가 길지는 않은데, 함께한 배우들 면면이 대단해요. 그분들과 안다는 사

실만으로도 든든하겠어요.

<글로리데이> 팀 친구들이랑은 정말 친해요. 청춘 영화라 동년배들이랑 출연했고 감독님을 포함해 동아리처럼 친해졌어요. 아직도 단체 메시지 방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열린 준열이 형 사진전에도 다녀왔죠.

국제에서 열린 라이카 전시요?

네, 저번 주에 갔다 왔어요. 그 팀들이랑 다 친하고 또 하균이 형과도 친해요.

신하균 씨에게 하균이 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럽네요. 참 많은 사람이 연기의 신이라고 하죠.

제가 어려서 연기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부터 신하균 선배 연기를 보면서 자랐어요. <공동경비구역 JSA> <복수는 나의 것>을 보면서 감탄했죠. 그래서 <선물>에서 만났을 때 연예인이 아니라 존경하는 위인을 만난 느낌이었어요.(웃음)

<선물>이 사실은 소품인데, 신하균 씨는 그 와

중에도 엄청난 열연을 하시더군요.

허진호 감독님도 너무 좋으셨죠. 배우뿐 아니라 제작진과의 케미까지 좋아야 정말 편한 연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엔 <글로리데이>랑 <선물>이 그랬어요.

전 <선물>에서 하늘이 수호인 줄 한참 몰랐어요. 안경 쓴 공대생 역할을 정말 완벽하게 해내는 바람에요.

진짜 그냥 공대생으로 봐주시다니, 감사합니다.(웃음)

지난번에는 세훈 씨를 만났어요. 그때도 그렇고 다른 인터뷰에서도 세훈 씨가 수호 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더군요. 세훈은 수호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친동생? 물론 멤버들도 다 아끼지만, 세훈이는 남달라요. 너무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5~6년 동안 같은 방을 쓰기도 했고요. 다인실을 쓰던 다른 멤버들이 각방을 쓰겠다고 독립할 때도 저희는 같이 썼어요. 세훈이한테 물어보니 혼자 자는 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형 불편하면 각방 써도 되는데 나는 같이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절할 수가 없었고 세훈이는 제가 항상 품어주는 존재가 됐죠

와, 그건 정말 애정이네요. 언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을 때 세훈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지금은 뭐 그냥 형이지만, 그때는 제 눈도 제대로 못 쳐다봤거든요. 일단 저보다 키가 작았고요. 지금은 엄청 커져서 제가 눈도 못 쳐다보죠.(웃음)

이제 수호 인생의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된 것 같아요. 엑소 데뷔, 솔로 데뷔까지가 2라운드였다면, 포스트 소집 해제가 3라운드인 셈이죠. 어떤 느낌인가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3라운드가 되지 않을까요? 고집이 아닌 자기 확신이 커졌거든요. 1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정말 잘 알게 됐어요.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또 보완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10년 동안 나를 알았고, 2년 동안 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으니 이제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든 시도해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실한 자기 인식이 자기 확신인 셈이군요.

맞아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명확히 알고 있는 나를 믿는다.’ 좀 꾸며보니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호의 위치에서도 아직 더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누군가에겐 수호가 꿈일걸요?

음악으로 보면 수호만의 색깔이 생기고, 누가 들어도 수호의 음악이란 걸 알 수 있는 제 장르를 만들고 싶어요. 이번 앨범이 끝나고 나면 작곡에 도전해볼 계획이에요. 배우로서는 사실 할리우드라는 공간에서 작업해보는 게 꿈이에요. 이미 수많은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처럼 대단한 작품의 대단한 역할이 아니라, 글로벌한 배우들과 할리우드 시스템 안에서 작품을 만드는 경험을 꼭 해보고 싶어요.

웬지 오늘 한 말이 자기 성취적 예언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한 얘기네요. ●



야외 활동을 위한 필수품을  
담기에 충분한 크기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소재,  
마운티어링 장비에서 영감을  
얻은 버클 장식과 기능성이  
인상적인 마이스터스틱 셀렉션  
글래시어 백팩 미디엄 몽블랑.  
스웨트셔츠 문신. 셔츠 솔리드  
옴므. 팬츠 프라다. 슈즈 후망.





나,



김지은,

욕심쟁이



배우 김지은은 이제 두려운 게 없다고 했다. 그저 앞에 놓인 가능성이 궁금할 뿐. “내가 다음엔 뭘 또 할 수 있을까?”

editor OH SUNGYOON photographer KIM SINAE

블랙 원피스 비뮈에트.  
스웨트 팬츠 아더에리.  
그린 스틸레토 힐 세르지오 로시.  
샅스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슬리브리스 톱 알렉산더 왕.  
플라워 패턴 팬츠 문선.  
슬링백 펌프스 미우미우.  
실버 네크리스 이스트인디고 x 아몬즈.  
필 네크리스 세라보니또 x 아몬즈.  
링 센터명.



화보 시안을 따로 출력해서 보셨나 봐요.  
(프린트 파일을 소파 옆으로 옮기며) 아, 네. 봤어요.  
시안도 보고 사전 질문지도 봤고요. 제대로 준비하  
고 싶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까지요.  
사실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시간 날 때마다  
보고 또 보고 했던 거죠. 특히 질문지는 딱 한 번 봤  
어요. 이번에 인터뷰를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하  
고 싶어서.

요즘 촬영 때문에 바쁘지 않아요? 내일도 드라  
마 대본 리딩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어제도 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났어  
요. 대본 보느라고.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제가 뭔가  
를 앞두고 미리 준비를 못 하면 불안해하는 성격이  
거든요. 제가 또 일정 여유가 없을 때 오히려 시간을  
잘 분배해서 뭘 하는 편이라, 다행히 잘 준비한 것 같  
습니다.

욕심쟁이인가요?

굉장히 욕심쟁이입니다.

굉장한 욕심쟁이란 어떤 것일까요. '살면서 나  
만한 욕심쟁이는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

(웃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그냥 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뭘 하면 잘하고  
싶고, 기본적으로 그런 욕심이 있죠. 챙기고 싶은 사  
람도 많고. 욕심만큼 몸이 따라주지는 않지만요.

몇 마디만 나눴는데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  
는 게 느껴지네요. 사실 화보 촬영하면서 느끼  
기에는 그냥 타고나기를 재능이 넘치는 사람인  
가 보다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진심이예요. 포토그래퍼랑 스타일리스트도 지  
은 씨 너무 잘한다고 계속 감탄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것보다 몇 착장 더 촬영했잖아  
요. 다들 신나서.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어서 저도 즐겁게 촬영했어요.  
사실 오늘 내내 촬영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거든요.  
저녁 6시에 촬영 시작이네. 늦게 하네. 난 빨리 하고  
싶은데, 지금, 12시에 하고 싶은데.(웃음) 계속 그러  
고 있었어요.

너무 잘하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미있었다  
는 답으로 살짝 돌리셨네요.

(웃음) 제가 칭찬에 약해서요. 이번 화보 콘셉트의 시  
작점이 김지은이였잖아요. 시안에 '표정이 풍부하고  
표현을 겁내지 않는 배우 김지은의 매력을 잘 살렸  
으면 좋겠다'고 써두셨더라고요. 사실 제가 화보 촬  
영할 때 긴장을 많이 해서, 원래는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준비를 하면 오히려 어  
색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냥 카메라 앞에서 스타프  
들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놀듯이 해야겠다 생각했  
는데, 다행히 그게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문했다고 비밀상적  
인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  
는 것도 큰 재능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부끄러운데요.(웃음) 스타프  
들이 다 친한 사람들이라 다행이었어요. 저보고 예  
쁘다 예쁘다 해주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칭찬받는 거 익숙하지 않아요? 드라마 메이킹

영상들만 봐도 '컷' 하면 바로 기라성 같은 배우  
들이 지은 씨 칭찬을 쏟아내던데요.

제 생각에는, 어린 친구가 열심히 하니까 그냥 격려  
해주는 것 같아요. 따로 얘기할 때는 쓴소리까지  
는 아니어도 제가 듣고 배울 만한 얘기도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선배님들이.

특히 남궁민 씨는 거의 함께 촬영하는 신마다  
칭찬을 했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남궁민 씨를  
인터뷰했었는데요. <검은 태양> 끝났을 때.

봤어요. <에스콰이어> 인터뷰.

아, 그걸 봤어요?

네. 선배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셔서요.

자랑을?(웃음) 정말 신기한 본인 것 같아요. 중  
잡을 수 없는 사람.

(웃음) 그죠.

아무튼 남궁민 씨도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배우잖아요. 그런데 인터뷰 때 그러더라고요.  
연기를 잘하는가 못하는가보다 연기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라 생각한다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볼 때도 자세를 더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다고요.

네. 제 경우에도 제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고,  
선배님이 그걸 캐치하고 봐주신 듯해요. 사실 저희  
가 처음 만난 게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때였거든  
요. 선배님이 주인공이고, 저는 거의 단역이었고. 같  
이나오는 건 딱 한 신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름 물  
어봐주시고 계속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시더라고  
요. 저는 '우와 남궁민 선배님이 나보고 열심히 한다  
고 했어. 더 열심히 해야지' 감격했거든요.

진심이 느껴지는 격려였나 보네요.

맞아요. 그러다가 오랜 뒤에 광고 촬영장에서 또 한  
번 뵈는데, 그때도 선배님이 먼저 알아봐주시더라고  
요. 뭐 하고 지내냐고 물으시길래 그냥 또 '열심히 하  
고 있습니다' 하니까 '요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잘 지내나 했어' 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열심히  
하는데도 오디션에 계속 떨어지고 잘 안 풀려서, 나  
중에는 본가에 내려갈까 생각도 했거든요.

활동을 멈추려고 했군요.

이러다가는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서 좀 쉬고 오자  
했던 거죠. 그런데 <검은 태양> 오디션을 볼 때 감독  
님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 지은 씨가 최종 캐스팅이  
되면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요. 결국 오디션을 서  
너 번 더 보고 나서야 정말 본가에 내려가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출연이 결정됐고, 그때 감독님이 그러시  
더라고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가 있다고. 감독  
님도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를 통해서 저라는  
배우를 알고는 있었는데, 존재를 다시 상기시켜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남궁민 선배님이었던  
거죠. 유제이 역을 신인 배우로 하고 싶어서 여럿 놓  
고 고민하고 있을 때 선배님이 제 얘기를 했대요. 이  
런 친구도 있으니까 어떤 역할이든 고민할 때 한번  
같이 봐주세요 하고.

그랬구나. 몰랐어요.

네. 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얘기를 언급하는 게  
처음인데요. 혹시나 선배님께 예상치 못한 누를 끼  
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워낙 그런 부분에 조심스러  
워서. 그런데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남궁민 선배

님한테 항상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기도 했어요.  
그때의 저처럼 열심히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말해  
주고 싶어서요. 저는 그랬거든요. 어떤 순간에는 세  
상이 저한테 '안 돼. 열심히 살아도 안 돼 너는. 최선  
을 다해도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어' 하고 말하는 것  
만 같아서 혼자 엄청 울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야 깨달은 걸 전해주고  
싶은 거죠.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정말로 최선을 다  
하면 누군가는 알아주고 도와줄 거라고요.

지은 씨에게는 그게 남궁민 씨였고요.

나도 꼭 선배님 같은 배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  
요. 열심히 하는 후배가 보이면 어떻게라도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겠다고. 그래야 그때의 저  
같은 배우가 포기를 안 할 테니까요.

이유는 물어봤어요? 지은 씨를 기억하고 추천  
한 이유가 뭐였는지?

네. 촬영하는 동안 제가 선배님한테 연기에 대한 걸  
정말 많이 물었거든요. 그러다 대뜸 그런 질문도 한  
거죠. "그런데 선배님은 왜 저를 추천해주셨어요?"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고요. "열정도 넘치고 스스로 생각하  
기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고 환경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랬던 예  
전의 내가 생각이 났어." 저한테는 그게 정말 큰 칭찬  
으로 느껴졌어요.

<닥터 프리즈너> 때 워낙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  
주기도 했잖아요. 지금도 배우 김지은을 이야기  
할 때 많은 사람이 회자하는 연기인 것 같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기억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작은 역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역할이었던  
데도.

오민정이 극의 흐름에서는 사실 게임의 판세를  
뒤집는 일종의 '변수' 정도로 제시되는 캐릭터였  
죠. 그런데 동시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라는 무  
거운 인물 설정을 갖고 있기도 했잖아요. 주요  
인물들의 동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불쑥불  
쑥 등장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오민정이 겪  
고 있는 끔찍한 감정이 전달돼서 저는 그게 참  
놀라웠어요.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캐릭터였죠. 그런데 어쩔  
든 제가 맡은 건 오민정이라는 사람이고, 저는 그 캐  
릭터의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 연인에게 배신을 당했고, 끔찍한 일을  
당했고, 그걸 누군가에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  
는데 그 사람에게조차 배신을 당했고. 그랬을 거라 생  
각하니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표현이  
극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방해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감독님께서 컷트를 해주실 거라 믿고  
그냥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감독님이 좋  
게 봐주셔서 추가 촬영으로 몇 번 더 출연시켜 주  
기도 했어요. 오민정이라는 친구는 짧게 나왔지만 저  
도 생각이 많이 나는 친구예요.

궁지에 몰린 인물이나 어두운 인물을 많이 연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나 봐요. 입을 열지 않  
고, 웃지 않고 있으면 좀 차가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



재킷, 메탈릭 플레이트 블랙  
드레스 모두 로에베.  
링 토마르 x 아몬즈.









도 깨달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죠. 솔직히 처음에는 좀 속상했어요. '나 차갑지 않은데' '나 어둡지 않은데' '되게 밝은데'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그런 걸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했고 마냥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캐릭터들을 거쳐온 덕분에 다양한 연기를 할 수 있게 됐구나 싶으니까요. 제가 아직 해보지 않은 걸 생각할 때도 무섭기보다는 '내가 다음엔 또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고.

너무 잘 소화하는 바람에 비슷한 톤의 캐릭터가 많이 들어온 것일 수도 있죠. 드라마 데뷔작인 <회사를 관두는 최고의 순간>의 현이 역할부터 너무 잘해내서.

맞아요, 현이. 그런 친구들을 많이 받았어요. 차갑고, 사연 있고.

그런 역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일까요?

그런데 현이도 그렇고 민지은(<타인은 지옥이다>)도 그렇고 라희(<눈 떠보니 세 명의 남자친구>)도 그렇고 제이도 그렇고, 제가 겪어본 적 없는 사연을 갖고 있다 해도 그들의 감정은 다들 겪어봤을 법한 감정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극대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 현이는 기간제 교사라서 늘 압박감을 느끼고, 남들이 모르는 자격지심도 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대하고 예민하잖아요. 친구가 직장 일이 힘들다고 우는데 갑자기 화내면서 나가버리고.(웃음) 개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는 정규직인데 지금 왜 우느냐고.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감정인 거죠. 저도 작품 하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음엔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언제 하게 될까, 그런 심리적 압박을 겪어봤으니까요. 주변에 친한 배우가 일을 맡게 되면 '아 축하해' 하면서도 '왜 나는 안 되지' 하는 자격지심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겪어본 감정 중 최대한 비슷한 걸을 찾아서 대입하는 거예요.

<눈 떠보니 세 명의 남자친구> 같은 작품은 또 다른 의미로 쉽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줄곧 로맨틱 코미디처럼 흘러가다가 마지막 회에서야 그 모든 게 주인공의 우울한 욕망과 거짓말에서 비롯된 소동이었던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드라마였잖아요. 지은 씨가 연기한 라희는 발랄한 내레이션으로 방정맞은 속마음을 들려주다가 갑자기 그 저변의 냉혈한 거짓말쟁이를 표현해야 했어요.

다행인 게, 제가 촬영 전에 미리 결말까지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죠. 마지막 회까지 다 본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첫 회부터 보더라도 말이 되게 만들자. 예를 들어 "기억은 돌아올 거니까" 이런 대사 하나를 할 때도 그게 내 기억을 말하는 건지 상대의 기억을 말하는 건지 모호한 느낌을 내는 식으로요. 혹시나 누군가 결말을 알고 봤을 때 '말이 안 되잖아'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 되게 주의해서 하고 생각을 많이 했죠. 감정적인 반전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도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란 집에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은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앞에서는 마

냥 밝아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어둡고, 누군가를 아무렇지 않게 속이고, 나쁜 일을 준비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하긴 내가 이런 사람인지도 남들은 모를 텐데' 하고. 그래서 이해가 갔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또 김지은이라는 배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코미디도 된다' '원맨 드라마를 이끌고 갈 힘이 있다' '이런 반전도 어색하지 않게 소화한다' 하고.

그런 면에서는 맞아요. 라희가 초반에는 마냥 밝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친구였잖아요. 그게 그간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이기도 했고, 어쩌면 웃긴 모습, 반전 있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장르가 재미있고 욕심나는 편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좋기도 했어요.

표정을 겁내지 않는다는 장점도 잘 드러났어요. 왜 세 남자가 마주치는 상상을 하다가 비명을 지르는 신이 있었는데...

(경악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이렇게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면이에요.(웃음) 감독님이 왜 그때 NG를 안 하셨을까 당황하기도 했고. 제가 중간에는 확인을 안 하고 마지막에만 모니터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때 "감독님 이거 괜찮았어요?" 여쭙았는데 "네" 그러시길래 '어... 감독님이 괜찮다면 된 거지' 했죠.

저도 그 장면 너무 좋았는데요. 지은 씨의 오버스럽지 않으면서 표정을 시원시원하게 쓰는 느낌 때문에 작품 전체에 생동감이 더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뭔가 진짜 리얼한 표정이 나와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지금껏 제일 힘들었던 역할은 뭐예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표현해야 할 때요. 감정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서 극대화하면 되는데, 경험은 그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이가 제일 어려웠어요. 유제이라는 캐릭터가 국정원 정보분석실 요원이었잖아요. 정말 똑똑한 친구였고, 전문용어를 프로페셔널하게 구사해야 하는 역할이었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말 단어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야 하는 표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밤새 외우고 그랬죠.

감정적인 부분보다 직업적인 묘사가 힘들군요.

네. 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니까 찾아볼 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국정원 직원은 참고할 만한 작품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놉시스 보니까 곧 방영 시작하는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서도 굉장히 지적인 인물을 맡았던데요.

희아도 똑똑하죠. 재벌 그룹 경영팀 연구소장이는데, 머리도 비상하지만 일처리 능력도 뛰어나고 대처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또 굉장히 밝고 저돌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드라마 초반의 긴 머리일 때는 밝고 사랑스럽고, 단발로 자른 이후로는 좀 더 지적인 느낌이고. 그런 부분이 제이를 보셨던 분들에게도 좀

다르게 다가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니 독립 영화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적지 않은 작품을 했는데, 지은 씨가 똑똑하지 않은 역할, 말하자면 폰수 역할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아, 그죠! 그게 저인데. 폰수 역할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딱인데 진짜.

하하하. '딱' 정도인가요. 오늘 직접 뵈니까 되게 재미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평상시에 워낙 차분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이미지라서 그런가 봐요. 메이킹 필름이나 영상 인터뷰에서 봐도, 작년에 MBC 연기대상에서 신인상 받았을 때도 그랬어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상 받는 거 나중에야 영상으로 보고. '어 뭐지? 재 왜 상 받을 줄 알았던 애 같지?'

(웃음) 선선히 걸어 나와서 일말의 동요 없이 논리정연하게 소감을 밝혔죠.

저 진짜 제가 받을 줄 전혀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때도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있었는데.(웃음) 긴장을 너무 해서 그랬나 보다 했어요. 이게 제 성격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MBIT가 그... ENFJ라고 하죠. 굉장한 J거든요.

굉장한 욕심쟁이에, 굉장한 J이시군요.

(웃음) 네. 맞아요. 철두철미하려 하고, 늘 완벽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고. 흐트러진 순간에도 티를 안 내려고 하죠. 시상식 때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당황하지 않았습시다' '긴장하지 않았습시다' 저도 모르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감사 인사하고 내려온 거죠.

첫 주연으로 작년에 신인상을 탔고, 이제 그다음 작품 공개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이 배우 김지은에게 어떤 시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시기라...(고민하다가) 이제 시작?

시작.

제가 연기를 시작한 지 올해로 10년 됐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저라는 배우가 있다는 걸 알렸으니까, 이제 정말 저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제가 화보 시안에 '김지은의 어떤 가능성들'이라고 써놓았잖아요. 사실 다채로운 표정이 나오는 화보에 어울릴 것 같아서 대충 달아놓은 가제였는데요. 이 순간에 그 표현이 번뜩 다시 생각나네요. 시작점에 서서, 배우 김지은은 어떤 종류의 가능성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단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에 비해 아직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했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김지은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 역시 제 한계를 아직 못 봤으니까요.

와. 저 방금 소름 돋은 게 '오 <무궁무진 김지은> 제목으로 딱인데'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 제목을 한 달 전에 썼더라고요. 김성철 배우님 화보에, <무궁무진 김성철>로.

(웃음) 김성철 배우님 무궁무진하시죠. 그런데 저는 '가능성'도 좋은데요? '김지은의 가능성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



그레이 니트 톱, 그린 블라우스,  
오렌지 컬러 스커트, 벨트,  
슬링백 펌프스 모두 프라다.





그런 셔츠 보태가 베네타.





화보 콘셉트를 춤으로 할 걸 그랬나 봐요.  
화보 찍을 때 춤을 춘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확실히 몸을 크게 움직이니까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평소에도 춤추는 걸 워낙 좋아해요.

밤늦게 한강공원에서 혼자 춤추는 영상 봤어요. 근데 스스로는 낮을 가리는 편이라고 얘기했죠. 이준영은 어떤 사람인가요?

낙천적입니다. 공상을 굉장히 즐기고요. 불명, 물명 같은 각종 명 때리기를 좋아해요. 낮을 가리는 건 맞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랑 눈을 마주치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게 여전히 어색해요. 굳이 골라야 한다면 활발보단 조용에 가까워요. 공원에서 춤을 췄던 건 나대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즉흥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순간 느껴졌던 야경, 바람, 노래 등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것저것 재지 않고 하고 싶으면 그냥 해요. 요즘은 글도 써보고 있어요.

어떤 글이요?

시나리오를 써보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한 수준이라 부끄럽네요.(웃음) 춤과 댄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릴 때부터 춤을 췄던 제 모습을 간접적으로 담았죠. 최근 <스우파> 이후에 스트리트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잖아요. 이것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나라에 춤을 소재로 한 영화가 의외로 별로 없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써보는 게 연기에도 도움이 돼요?

감독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도 일부러 촬영장에 붙어 있어요. 촬영감독님 옆에 앉아서 카메라 동선이나 움직임을 관찰하죠. 조명을 쓰는 법도 배우고요. 그러다 귀찮게 굴지 말고 빨리 가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웃음)

원래는 댄서가 꿈이었죠. 그래서 아이돌로 데뷔했죠.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에서 1등까지 했는데 미련이 남진 않아요?

일단 <더 유닛>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건 결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참가했던 참가자들도 입을 모아 말한 건 ‘등수를 나누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였어요. 등수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가진 매력을 보여주자는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댄서가 되고 싶어 아이돌이 됐던 것에 비하면 연

기를 시작한 건, 우연한 계기에 가까워요. ‘연기자가 되겠어’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연기는 음악을 할 때와 또 다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대본에 적힌 글자가 배우를 통해 말과 행동으로 바뀌는 과정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춤도 그랬고 노래도 그랬고 한번 꽃히면 전력을 다하는 성격이라 지금 이렇게 연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배우로서 희열을 느껴요?

“제가 이준영이라고? 에이, 말도 안 돼”라는 말을 들을 때요. 제대로 연기를 했다는 말로 들려서 짜릿해요. 연기를 하면서 의도했던 부분이 시청자에게 제대로 전달됐을 때 보람되죠. 넷플릭스 시리즈 <D.P.>가 공개됐을 때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막말하고 여자 친구에게 돈 뜯을 궁리나 하는 양아치 탈영병 역을 맡았는데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이준영은 원래 저런 성격인데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거다’ 같은 댓글을 자주 봤어요. 촬영장에 가면 친한 스태프 형들이 “어, 나쁜 놈 왔어?”라고 말을 걸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연기 잘했다는 칭찬으로 들려요.

연기돌이라는 꼬리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요?

꼬리표를 떼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연기를 더 열심히 해요. 아이돌 출신이지만 배우로서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는 선배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길을 닦아놓은 덕에 저도 연기에 입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의지를 잇는다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그런 자세로 연기에 임하고 있어요. 아이돌이던 이준영도 저고 배우 이준영도 저예요.

그동안 부잣집 도련님, 살인자, 밴드 리더 등 다양한 역을 맡았어요.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가요?

연기를 시작할 무렵 제가 가진 장점이 뭘까 많이 고민했어요. 찬찬히 둘러보니 제 나이 또래에 잘생긴 배우는 정말 많더라고요. 외모로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했죠.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배역에 도전하다 보면 배움이 쌓일 거라 믿었어요. 웃도 입어보기 전엔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웃을 입어보니 어때요?

작품 하나가 끝날 때마다 자신감을 얻어요. <미스터

기간제>의 살인자 역할이나 <모럴센스>의 정지후 역할을 처음 맡았을 땐 부담이 컸어요. 걱정만 많았죠. 그런데 회를 거듭할수록 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생겨요. ‘이 작품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한 작품을 끝내면서 얻은 힘으로 그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식입니다.

배역을 맡으면 사전 조사나 취재를 많이 해요?

예전엔 그랬어요. 대본도 엄청 꼼꼼하게 지문 하나 하나 밑줄 쳐가면서 읽었어요. 연기 레슨을 받고 연기를 시작한 게 아니라서 그렇게라도 해야 덜 불안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배역에 충실한 게 아니라 레퍼런스 속 인물을 따라 하고 있더라고요. 아차 싶었죠. 요즘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고민해서 캐릭터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모럴센스>의 정지후는 멜협 성향을 지닌 캐릭터죠.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라서 캐릭터를 잡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낯선 용어나 개념이 많긴 했지만, 사전에 제작진이 관련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줬어요. 그걸 토대로 감독님이란 서헌 씨랑 상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자주 볼 땐 일주일에 네 번이나 만난 적도 있어요. 그냥 한 명의 배우로 참여한다기보단 영화 전체를 같이 만들어간다는 인상을 받았던 작품이에요. BDSM이라는 소재를 다루지만,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더 고민을 많이 했죠.

<모럴센스>를 첫 주연 작품으로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가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였거든요. <모럴센스> 대본을 읽고 나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다름과 틀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정지후라는 캐릭터가 더 탐났어요. 강아지처럼 짙는 장면이나 손에 수갑을 차고 플레이하는 장면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찍었어요. 리허설을 하도 많이 해서 본 촬영이 리허설같이 느껴질 정도였죠.

영화가 공개된 후에 관련 기사가 쏟아졌어요. 파격적이라고 하는 사람과 BDSM을 소재로 한 로맨틱 코미디라는 사람으로 반응도 갈렸죠.

예상하지 못한 반응은 아니에요. 기준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죠.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를 시킬 수도 카푸치노를 시킬 수도 있어요. 아무도 “너 왜 카푸치노 시켜. 변태야?”라고 말하지 않죠. 반면 영화 속 정지후는 남들과 조금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매장을 당할 만큼 공격받아요. 비단 BDSM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차별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싶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는 메시지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으니 약 3년 만에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주연을

# 지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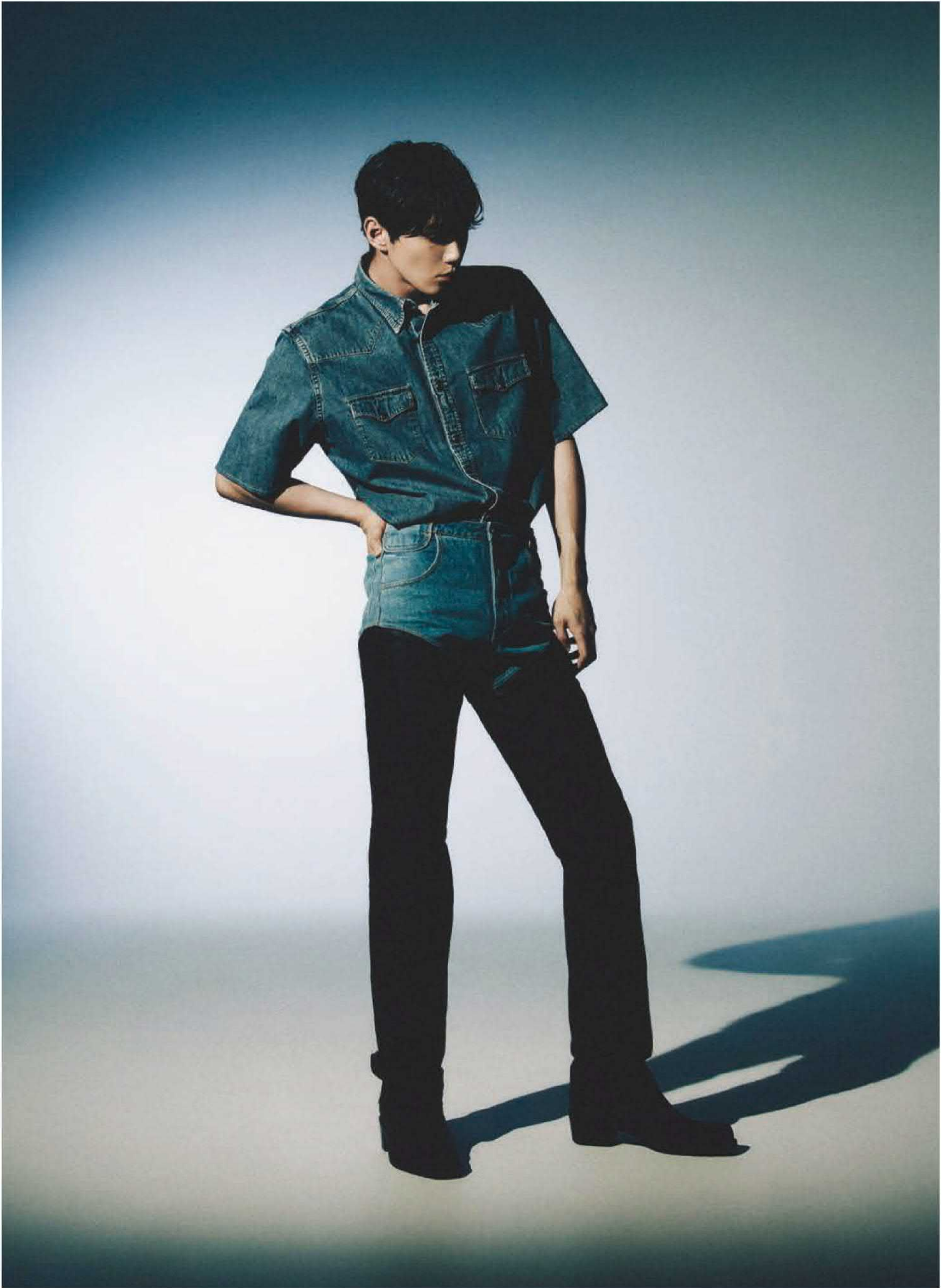
# 치 떨리는

# 惡漢

이준영은 “개가야?”라는 말을 들을 때 큰 희열을 느끼고 “나쁜놈”이란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인다. 배우니까.

editor PARK HOJUN photographer CHAE DEAHAN







블랙 시퀀 셔츠 김서룡.  
패턴 데님 팬츠 막시밀리안.

(Opposite Page)  
데님 셔츠 블레스.  
웨스턴 데님 팬츠 텔파.  
부츠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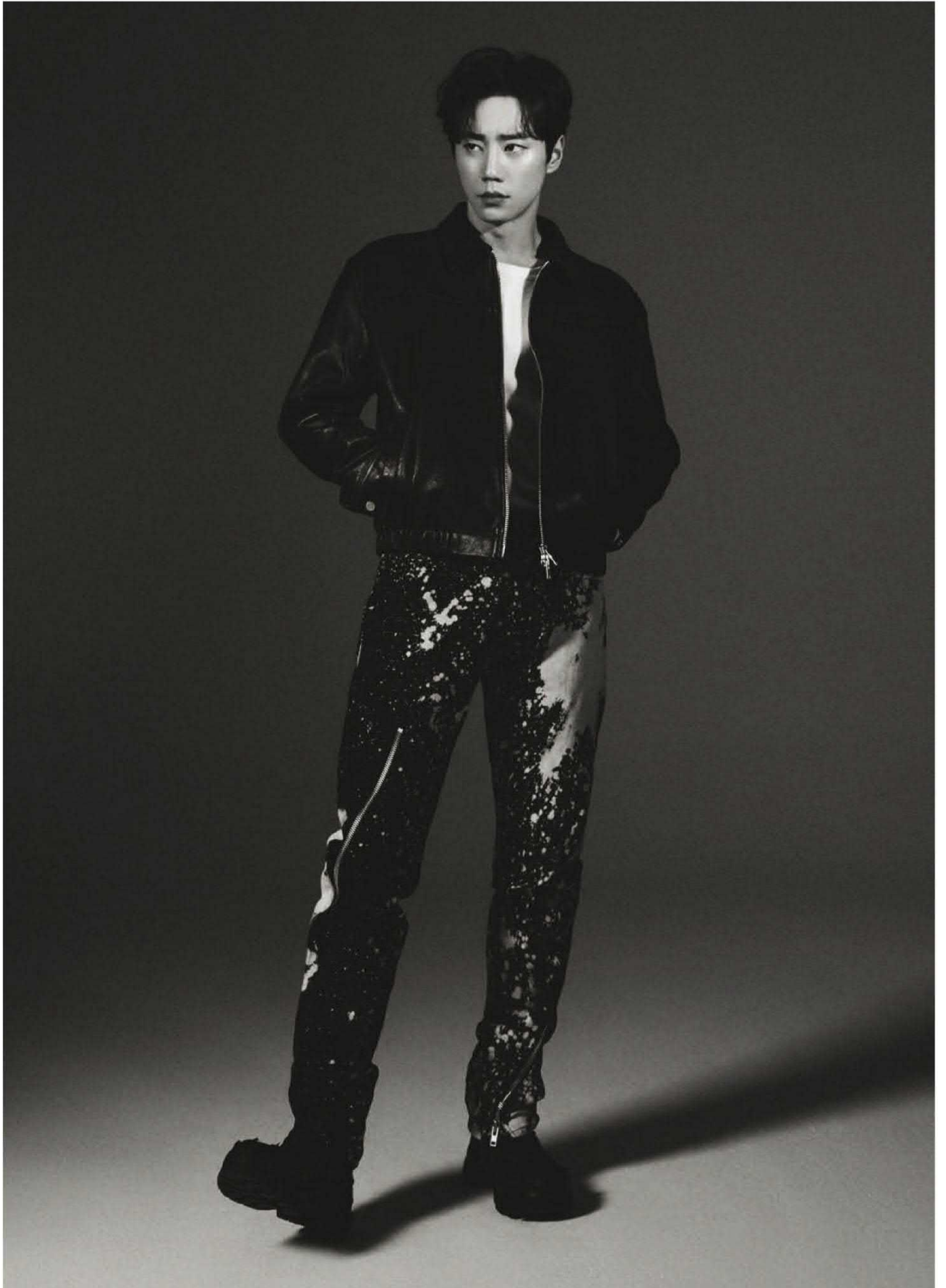


레드 니트 후디, 체크 실크  
쇼츠 모두 김서룡.

(Opposite Page)  
블랙 레더 재킷 느와르  
라르메스, 화이트 티셔츠  
사카이, 데님 팬츠, 슈즈  
모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따낸 셈이에요. 빠르게 필모그래피를 쌓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까요?

자기 비하요. 스스로 상처를 많이 줘요. 계속 채찍질하는 거죠. 힘들어도 이 악물고 버티기만 했어요.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쉽게 만족하는 성격도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친동생이 팩트 폭행을 많이 한다면서요.

(웃음) 맞아요. 사이가 좋은 거랑 별개로 냉철한 피드백을 자주 해줘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니까 가장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면 대부분 맞는 말이라서 반박하기도 어려워요. 동생이 드라마를 워낙 많이 보기도 하고 20대 초반이니까 어떤 면에선 저보다 더 트렌드에 빠른 구석이 있거든요.

힘들 때 해소하는 방법은 찾았어요?

원래는 춤으로 풀었어요. 연습실에서 정신없이 춤추고 나면 기분이 나아졌거든요. 사실은 회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잡생각 들지 않게 바쁘게 움직이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스케줄 때문에 지친 몸을 춤으로 더 혹사시키니까 결국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해요. 산책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침대에서 빈둥거리기도 하면서요.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성공에 집착했는지 잘 모르겠어요.(웃음)

언제 그랬는데요?

<더 유닛>에서 1등 하고 프로젝트 그룹인 'UNB' 활동이 막 끝났을 무렵이 피크였어요. 가수로서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뭘 해야 할지 막막한 시기였어요. '응원해준 사람들을 배신했어' '나는 실패자야'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있었죠. 돌이켜보면 성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에 사로잡혀 낭비했던 감정이랑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요샌 어때요? 영화 <용감한 시민>이랑 <황야>를 동시에 찍느라 정신없죠?

어유, 죽겠어요.(웃음) <용감한 시민>은 마무리 단계고 <황야>는 아직 꽤 남았어요.

두 영화에서 맡은 배역이 아예 다르다고 들었어요.

<용감한 시민>에선 메인 빌런이고 <황야>에선 착한 편에 속하죠. 정반대의 캐릭터를 동시에 연기하는 건 처음인데 서로 얽히지 않게 하는 게 꽤 어려워요. 예를 들어, <황야>를 나흘 촬영하고 그다음 날 바

로 <용감한 시민>으로 넘어가는 스케줄이면 사흘째부터 긴장감이 올라와요. 두 배역의 대사 톤, 표정, 태도가 전혀 다르니까요. 그럴 땐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그전 촬영분을 계속 돌려 봐요. 감정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매니저 형이 저를 걱정할 적도 있어요.(웃음)

두 작품 모두 웹툰을 기반으로 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웹툰을 전부 보긴 했지만 스토리를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빠르게 봤어요. 텍스트와는 달리 웹툰은 캐릭터의 상황이나 표정이 시각적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갇히면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오질 않아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할까요? '물컵을 집어 든다'라는 단순해 보이는 지문도 상황과 호흡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연기할 수 있잖아요. 처음엔 연기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영화 속 인물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까'라고 끊임없이 몰입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D.P.>에도 액션 신이 있었지만 <용감한 시민>은 캐릭터 설정 자체가 무에타이 선수예요.

저는 재밌게 찍었는데 주변에서 좀 힘들어했어요. 대역 없이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액션 스쿨에서 만난 무술감독님이라도 친해져서 촬영 중에 막히거나 궁금한 게 생기면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고 그랬어요. 욕심이 과해서 이곳저곳 많이 까지고 멍들긴 했지만 그림은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요. 신기하게 촬영할 땐 멀쩡하다가 꼭 차에 타거나 집에 오면 아프더라고요.

어쩐지 화보 촬영할 때 보니 몸이 탄탄하더라고요.

최근까지 성수기였는데 지금은 타락했어요.(웃음) 얼마 전에 상의 탈의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은 먹고 싶은 거 막 먹어서 살이 올랐어요. 아까 스타일리스트가 준 바지가 잠기지 않아서 뜨끔했습니다.

<용감한 시민>에선 이준영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나요?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악랄한 모습으로 나와요. 오죽하면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징그럽다는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나쁜

놈 지나간다"라며 장난을 걸기도 하고요. 그럼 "다 들려요"라고 대꾸하죠. 배우 스태프 가릴 것 없이 친하게 지내는 걸 선호해요. 밥 먹을 때 뛰어가는 배우는 처음 봤다고 신기해해요.

어느 인터뷰에서 사람 냄새 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한 것과 이어지네요.

맞아요. 카리스마 있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배우가 되고 싶어서 그런 선배님들을 따라 한 적도 있는데 잘 안 됐어요. 저란 사람 자체가 멋있고 근엄한 것과 거리가 멀어요. 되도 않는 척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자고 다짐한 후로는 편하게 지내요. 연기할 때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나 캐릭터는 뭐예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요. 스마트한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요. 회사에서도 이제 액션 쪽은 당분간 그만하자고 하고요. 자꾸 어딜 다쳐서 돌아오니깐.(웃음) 이렇게 자꾸 말하고 다니면 신기하게 정말 그런 배역이 들어와요.

<황야> 촬영이 끝나면 좀 쉴 건가요? 지난 3년간 쉴 새 없이 달려왔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럴 예정이긴 한데 가봐야 아는 거죠. 좋은 작품 제안이 들어오면 계속 달리는 거고 아니면 좀 쉬고요.

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직원들이랑 잘 이야기해봐야죠. 1인 소속사라서 다들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담감이 좀 있나 봐요.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처음 회사를 차렸을 때보단 많이 내려놨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깜깜했는데 다행히 유능한 인재가 한 명씩 합류하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최근엔 제가 군대를 일찍 갔다 오겠다고 우겨서 대표님이랑 한참 씨름했죠. 어제는 점심 뭐 먹을지 두고 다뤘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제발 그냥 아무거나 빨리 먹자고.(웃음)

2인 소속사가 될 가능성도 큰가요?

물론이죠. 애초에 저 혼자 편하려고 차린 게 아니에요.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꿈꿨어요. 사무실도 가정집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답니다.(웃음) 편하게 연락 주세요. ●







# 아마도 우린

홀로서기를 시작한 류수정과 음원 차트 역주행의 주인공 디핵이 함께 노래한 봄은 슬프고 아름답다.

커플 화보를 처음 찍는 것치고 능숙해서 놀랐어요.

류수정(이하 '류') 오랜만에 화보를 찍어서 살짝 긴장했는데 오빠가 잘 리드해줘서 재미있게 찍었어요. 촬영장 분위기도 편했고요.

디핵(이하 '디') 화보 자체가 아예 처음이었는데, 그 순간을 수정 씨랑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촬영한다고 하니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빠라고 부르는 걸 보니 에스콰이어의 오리지널 웹드라마 <아마도 우린>에 함께 출연하면서 꽤 친해졌나 봐요.

류 그때그때 달라요. '디핵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디수정 씨 혹은 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요? 수정 씨가 동생이잖아요.(웃음) 첫 인상이 선생님 같았나요?

디 첫인상이 선생님 같진 않았어요. 밝고 친절한, 따스한 느낌이 강했죠.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된 건 곡 작업을 같이하면서 음악적으로 제가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수정 씨가 곡 작업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지하고 깊게 집중하거든요.

류 처음엔 약간 낮을 가리더라고요. 저도 먼저 잘 다가가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어떡하지?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오빠가 엄청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후로 한결 편해졌죠.

프로젝트가 시작된 계기는 <에스콰이어>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OHAYO MY NIGHT' 커버 영상이었어요. 조회수가 벌써 250만을 향해 가고 있죠.

류 부르고 싶은 커버곡을 메모장에 차곡차곡 적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에스콰이어>에서 영상 제작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저히 한 곡만 고를 수가 없어서 후보곡 3개를 전달했다니 'OHAYO MY NIGHT'를 골라주셨더라고요. 평소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라서 촬영일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부른 기억이 나요. 힙합

을 베이스로 한 노래라서 촬영장을 개라지 콘셉트로 잡았는데 제가 너무 여릿여릿하게 노래를 불러서 스태프들이 당황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MR을 구하기가 어려워 다짜고짜 디핵님한테 연락했는데 흔쾌히 MR을 보내줘서 고마웠어요.

디 엄밀히 말하면 이 협업의 시작은 작년 여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수정 씨가 인스타그램에 'OHAYO MY NIGHT' 노래가 좋다고 스토리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같이 곡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죠. 이렇게 빨리 기회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원작자로서 커버곡 영상이 많은 인기를 얻는 걸 보는 건 어떤 마음인가요?

디 아주 흐뭇해요. 질투심 같은 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OHAYO MY NIGHT'를 커버해준 사람들은 많지만, 유독 그 영상이 제 마음에 들었던 건 수정 씨의 목소리가 가진 힘 때문인 것 같아요. '내 노래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뻐나?' 싶을 정도였어요. 부모님도 수정 씨가 부른 버전만 듣습니다.(웃음) 감정선을 다르게 가져간 것도 신기했어요. 영상에 달린 댓글도 전부 읽어봤는데 '심장이 녹는다' '당장 혼인신고서를 준비하겠다' 같은 반응이 재밌더라고요. '류수정이 부르니까 가사에 설득력이 생겼다'는 댓글을 특히 좋아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랑 생각이 통했습니다.(웃음)

'OHAYO MY NIGHT'를 커버할 때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나요?

류 가사의 예쁜 부분들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힙한 멜로디와 보컬이지만 가사를 찬찬히 뜯어보면 감성적인 면이 있거든요. 첫 소절부터 '자기야 날 사랑해주면 안 될까'라고 하잖아요. 어설픈게 힙합 스타일로 부를 바에는 아예 사랑스럽게 바꿔보려고 했어요.

한 번 더 커버 영상을 찍는다면 어떤 곡이 좋을 까요?

류 저는 'OHAYO MY NIGHT' 이후에 '투명 인간의 노래'에 꽂혔어요. 가사는 슬픈데 멜로디는 귀여

워서 오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디아, 그 곡도 명곡이죠.(웃음) 2년 전에 낸 'TWIN-TAIL20'이라는 곡이 있는데 어쿠스틱을 베이스로 한 여유롭고 말랑말랑한 분위기라서 수정 씨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커버곡은 한계가 분명해요. 애초에 제가 부르려고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커버가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함께 작업하면 더 좋겠다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프로젝트 <아마도 우린>의 시작이군요.

디 맞아요.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고 시작한 건 아닌데, 수정 씨랑 같이 작업한 노래 제목이 '아마도 우린'이라서 자연스럽게 '아마도 우린 프로젝트'가 됐어요. 곡에 대한 아이디어는 '나비 효과'에서 얻었어요. 아주 작은 사건이나 선택이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초래한다는 의미요. 연인 사이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날 우리가 거기 있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상상하는 내용입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 취하면 '만약에'나 '혹시'로 시작하는 부질없는 가정을 하는 거랑 비슷하죠.

슬픈 사랑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디 그렇긴 한데, 언뜻 들으면 평범한 봄노래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음원이 나오는 4월 14일이 봄의 절정인 점을 노렸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사에 담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바이브가 흘러넘치는 곡이 있잖아요. '아마도 우린'도 직접적으로 이별이나 슬픔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런 감정을 은근히 녹였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다가 평평 울지도 모릅니다. 저는 진작 울었어요.(웃음)

역할 분담은 어떻게 했나요?

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노래하는 구성이라 각자가 가사를 썼어요. 근데 가사를 써서 보내면 오빠가 별다른 말 없이 매번 '음, 좋네요'라고만 하길래 '내가 아직 불편한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좋다고 해주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든 거죠.(웃음)

디 억울합니다. 정말로 가사가 좋아서 '좋네요'라는



디랙이 입은 스트라이프 니트 준야 와타나베 폼데가르송. 선글라스 젠틀몬스터. 코트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수정이 입은 레더 싱글 코트, 니트 원피스 모두 베르소.





디랙이 입은 스웨이드 재킷 네이비 바이 비온드 클로젯. 폴로셔츠 메종 키즈네 by 비이커. 선글라스 프라다 by 룩소티카.  
팬츠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수정이 입은 데님 재킷, 팬츠 모두 메종 키즈네 by 비이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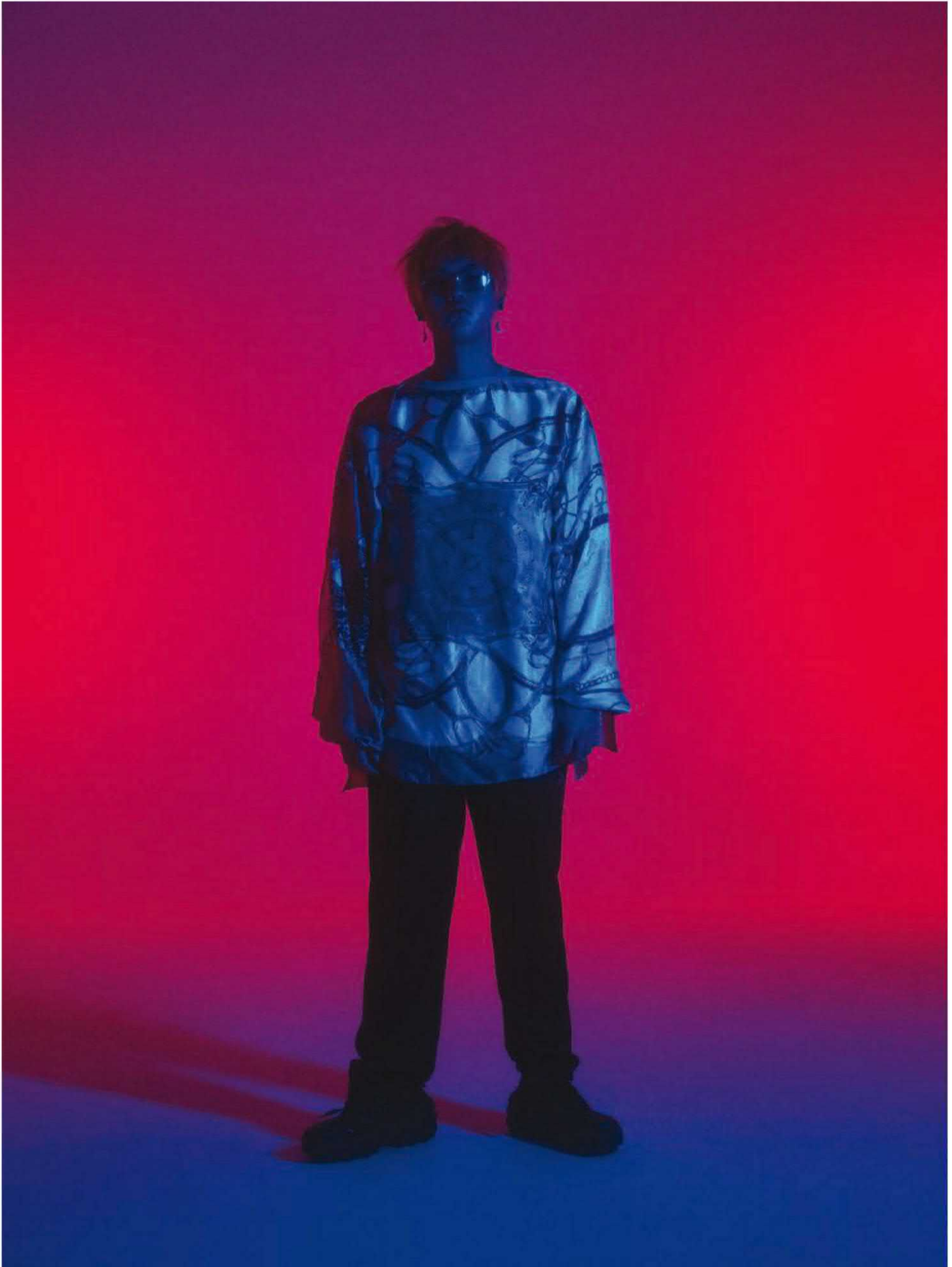






니트 베스트 끌로디피어로. 이어링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실크 롱 슬리브리스 톱 블레스, 선글라스 젠틀몬스터, 팬츠, 스니커즈 모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말밖에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가사에 예민한 편입니다. 별로면 별로라고 그냥 말해요. 그런데 수정 씨가 써준 가사는 흡잡을 구석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인위적인 가사를 싫어해요. 들었을 때 ‘어, 나도 그런 적 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자연스러운 가사를 추구하는데 수정 씨가 쓴 가사가 딱 그랬어요.

디랙이 만든 노래엔 일본 문화 또는 제이팝의 향기가 배어 있는 게 특징이죠. 아예 일본어 가사를 넣기도 하고요. ‘아마도 우린’도 비슷한 느낌인가요?

디 제 노래가 제이팝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선보인 노래를 두고 일본 감성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일본어가 가사를 직접적으로 넣지 않더라도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곡을 끌어가는 과정만으로도 얼마든지 느낌을 살릴 수 있어요. ‘아마도 우린’도 그래요. 은근하게 녹였습니다.

음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웹드라마 형식으로 담았어요. 어떤 내용이죠?

류 복학생과 신입생이 만나 조별 과제를 진행하는 페이크 다큐예요. 제가 신입생, 오빠가 복학생이죠. 중간중간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인터뷰도 있어요. 처음엔 음악 스타일이 맞지 않아 뼈격거리지만 같이 밥도 먹고 회의도 하면서 점점 서로의 숨은 매력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결국 성공적으로 조별 과제를 끝마친다는 훈훈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린’이라는 곡은 조별 과제의 결과물인 셈이죠.

하지만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이죠.

디 음, 어땠죠?

류 아니, 이렇게 떠넘긴다고요?(웃음) 트러블까진 아니고 편곡에 대한 취향이 달라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저도 그렇고 모든 아티스트는 자기만의 고집이 조금씩 있잖아요.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는 방법밖엔 없는 것 같아요. 디의외의 조합이잖아요. 그동안 걸어온 길이 다르니까요. 서로 맞춰가는 과정은 수정 씨가 아닌 다른 누구와 작업했다라도 똑같이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 같은 거죠.

촬영장 분위기가 엄청 유쾌했다고 들었어요.

류 대본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애드리브가 난무했어요.(웃음) 평소 주어진 걸 충실히 따르는 타입인데 오빠가 자꾸 즉흥 연기를 하니깐 나중에는 이게 연기인지 리얼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진짜 류수정의 모습을 많이 드러냈죠.

디 일단 제가 맡은 캐릭터가 원래 성격이랑 찰떡이었어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피겨를 모으고 뜬금없이 이상한 말을 하고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애드리브를 몇 번 쳤는데 반응이 좋길래 계속했죠. 나중에는 PD님이랑 작가님이 오하려 제 애드리브를 기대하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애드리브는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수정 씨가 능청스럽게 대화를 이끌어어나간 덕에 빛이 날 수 있었어요.

편집된 것도 봤어요?

류 으악, 못 볼 것 같아요. 벌써부터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디 이하 동문입니다.

연기하는 모습을 기대해도 될까요?

류 저희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저보단 디렉님이 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디 음악 열심히 하겠습니다.(웃음)

그럼 유튜브는 어때요? 둘 다 이제 막 개인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잖아요. 유튜버 꿈나무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예정인지 궁금해요.

디 ‘디렉화선언’이라고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채널이죠. 예정이 없는 게 콘셉트라 뭐라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밀도 끝도 없이 맥락 없는 영상들이 업로드될 것 같아요. 실제로 촬영 당일까지 어떤 콘텐츠를 찍는지 저한테도 말을 안 해줍니다. 가끔 ‘나를 너무 막 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왕 하기로 했으니 열심히 해보려고요.

류 되게 재밌던데.

디 정말요? 이제 겨우 영상 2개밖에 안 올렸는데.

류 진짜 봤어요. 구독도 했다고요.(웃음) 저는 친언니랑 같이 ‘아이러브류(loveveryu)’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촬영과 편집을 언니가 전부 도맡아 하고 있어서 고생이 많아요. 가족이 다 같이 둘러앉아 편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건 좋은데 가끔 못생긴 표정을 가감 없이 내보낼 땐 ‘아니, 이 언니가?’ 할 때도 있죠. 솔로로 활동하려고 보니 생각보다 제 목소리를 들려드릴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팬들을 위해서라도 음악 콘텐츠 외에도 일상이나 패션에 관한 이야기도 풀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고 보니 둘 다 옷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류 요즘 눈독 들이고 있는 건 ‘로 라이즈’예요. 패션 잡지에서 자주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무대에서 비슷한 스타일로 입은 적이 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으면 왠지 자신감이 더 샘솟는 기분이 들어요.

디 ‘독특하다’ ‘특이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도쿄 하라주쿠에 가면 저 같은 애들이 널렸어요.(웃음) 그들을 따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입고 싶으면 입어요. 음악이건 패션이건 결국은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함께 가사를 쓰고 편곡 작업을 하고 화보를 찍고 인터뷰를 하고 연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해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디 곡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류수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공부했어요. 러블리즈는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정 씨의 노래하는 스타일, 목소리, 성격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작업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팬들이 정리해놓은 내용이나 유튜브 직캠 같은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고생 많이 했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아마 데뷔조차 하기 어려웠겠죠. 처음 만났을 때 ‘류 선생님’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던 것도 그래서였을 거예요.

류 비슷한 이야기를 처음 곡 작업을 시작할 무렵에 저한테 해줬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물

이 주룩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으레 하는 인사 말고 진심으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라며 제 노력을 인정해준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러블리즈 공식 활동이 멈춘 이후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오빠가 ‘앞으로도 계속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라고 말해준 덕에 힘이 났어요. 고맙다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죠.

오랫동안 함께한 멤버들이 없어서 외로울 때도 있나요?

류 외롭다기보단 그리워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외로움을 타는 편은 아니에요. 그 대신 같이 고생한 일들이나 활동 중 소소한 일상들이 떠오를 때 그립죠. 방송국 앞을 지나갈 때 몰래 눈물을 흘리는 정도?(웃음) 같이 활동을 안 하는 것뿐이지 연락은 자주 해요. 오늘 디렉님이랑 <에스콰이어> 화보 촬영하는 것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거꾸로 혼자여서 자유로워진 점도 있을 텐데요.

류 내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다는 것? 그룹 활동은 말 그대로 팀워크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펼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러블리즈라는 팀 이름처럼 대부분 부드럽고 감성적인 곡 위주였죠. 앞으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밴드 음악이요. 데뷔하기 전 만들었던 아기자기한 곡들도 선보일 수 있고요. 아, 5월에는 네이버 웹툰 <아홉수 우리들>이랑 협업한 노래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디렉 씨는 어때요? <아마도 우린> 프로젝트 외에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이벤트가 있나요?

디 있어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웃음) 농담이구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동안 해온 것처럼 즐겁게 곡 작업하는 정도죠. 하고 싶은 게 워낙 자주 바뀌는 터라 저도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겠어요.

예전 어느 인터뷰에서 ‘비주류의 최고가 되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비주류의 최고는 결국 주류가 되는 것 아닌가요?

디 제가 말하는 주류란, 안정적인고 뻥한 것들을 가리켜요. 그걸 의식적으로 경계해요. 뻥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시도를 하죠. 어떤 사람은 제 음악을 힙합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저에게 힙합은 무지 티셔츠 같은 거예요. 슈트에 받쳐 입어도 라이더 재킷 안에 입어도 잘 어울리는 게 무지 티셔츠잖아요. 어느 장르 어느 아티스트와 어울려도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만 않으면 돼요. 뻥한 것들만 추구했다면, 류수정과 디렉이라는 신묘한 조합은 탄생하지 못했겠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류 매번 따뜻한 응원 해준 것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항상 행복하고 만수무강하길 바라요.

디 약간 선긋는 느낌인데요?

류 (웃음) 앞으로 오래오래 봅시다!

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절대 기 죽지 말고 끈기 있으면 좋겠어요. 수정 씨는 그동안 이룬 것들만으로도 박수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니까요.

류 방금 또 울컥했어요. 아, 저도 다시 말하면 안 돼요? ●





디랙이 입은 데님 재킷 앤 드릴미스터 by 아데쿠베. 셔츠 보라미 비귀에 by 아데쿠베.





바서티 재킷 데우스. 선글라스 젠틀몬스터. 티셔츠, 팬츠 모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Opposite Page) 니트 톱, 하이웨스트 니트 쇼츠, 실크 스커트 모두 프라다.









# 아마도 우린

D-Hack

×

류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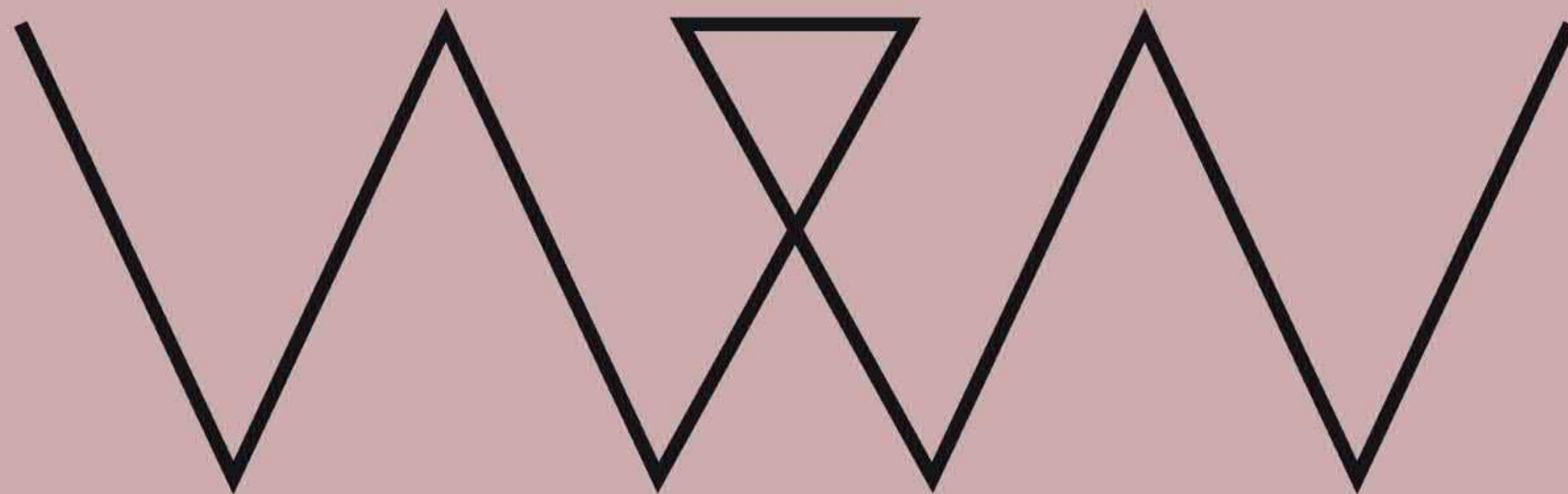
## 에스콰이어 <아마도 우린> 음원 프로젝트

“그날, 그때, 그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린’ 지금처럼 남이 되진 않았을 텐데”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아련한 마음을 드라마처럼 그려낸  
디랙과 류수정의 ‘아마도 우린’

4월 14일 발매,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Esquire





# WATCHES & WONDERS 2022

지난 2년간 디지털로만 개최된 워치스앤원더스 제네바가 드디어 피지컬 이벤트로 돌아왔다. 이전보다 더 커진 규모, 방대해진 볼거리와 함께. 그간의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듯 수많은 브랜드가 풍성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워치메이킹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증명했다. <에스콰이어>가 직접 취재한 13개 브랜드의 시계를 여기에 소개한다.

editor YUN WOONGHEE, PARK CHANYONG, LEE HYUNSANG







# CARTIER

1/13

## Masse Mysterieuse ▼

마쓰 미스터리어스는 까르띠에 파인 워치메이킹의 현재를 가장 정교하고 명징하게 보여주는 시계다. 까르띠에의 상징적인 미스터리어스와 스키텔론 무브먼트, 첨단을 개척하는 기술적 진보와 대담한 미적 아이디어... 메종의 유산과 비전이 이 시계에 오롯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쓰 미스터리어스의 핵심은 무브먼트와 완전하게 통합된 로터에 있다. 기존의 오토매틱 칼리버는 로터가 무브먼트의 일부를 가려 미스터리어스 콘셉트를 완벽하게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까르띠에는 발상을 전환했다. '로터에 무브먼트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설계된 무브먼트가 무려 8년간의 연구와 개발을 거쳐 완성된 매뉴팩처 칼리버 9801 MC다. 까르띠에는 트랜스미션, 레귤레이션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는 모든 부품을 회전하는 로터 안에 집어 넣었고,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자동차에 사용되는 차동 시스템도 적용했다. 게다가 정교한 움직임을 드러내기 위해 무브먼트를 스키텔론 처리했다. 그 결과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 부드럽게 회전하는 로터와 무중력 공간에서 떠다니는 듯한 핸즈만이 다이얼 위에 남았다. 지름 43.5mm, 두께 12.64mm의 플래티넘 케이스에 루비 카보숑 크라운을 매치한 마쓰 미스터리어스는 딱 3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다. 기술력으로 빛은 미학적 결과물. 이렇게 도전적인 시계는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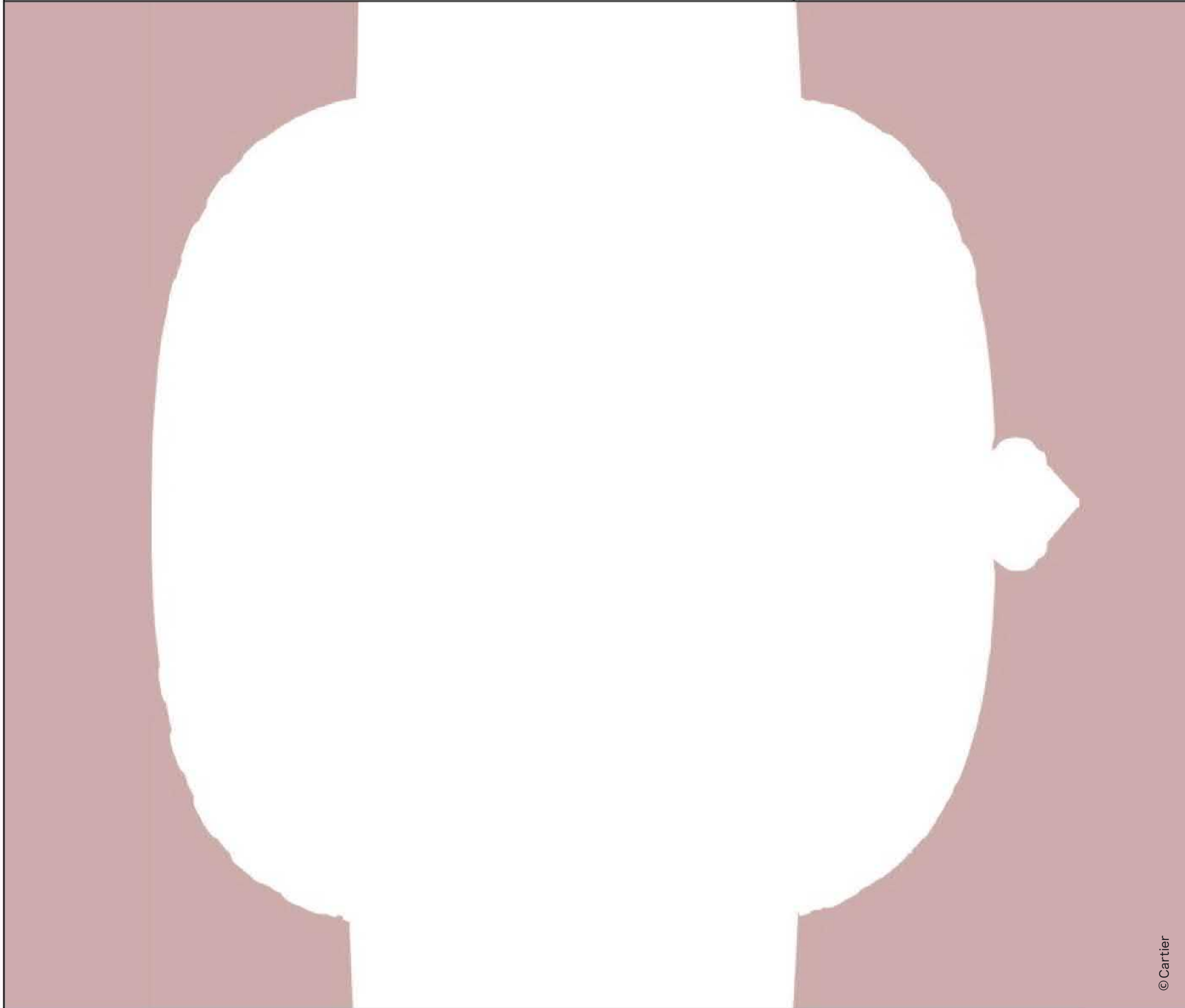
© Cartier

CARTIER



올해 까르띠에의 여성 위치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모델은 꾸쌍 드 까르띠에. 꾸쌍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사각형의 네 귀퉁이를 둥글린 쿠션형 케이스 시계다. 까르띠에의 장기인 미학적인 디자인과 보석 세공 기술은 이 모델에서 특히 돋보인다. 각기 다른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베젤 위에 나선형으로 배치하고, 그래픽적인 골드 테두리를 더해 역동적이면서도 정교한 인상을 강조했다기 때문. 케이스 안에 다이아몬드를 직접 세공하는 트라이앵글 세팅 역시 이 시계를 한층 화려하게 만드는 디테일이다. 다이아몬드로 베젤을 장식한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 버전 이외에 블루 투르말린과 차보라이트, 다이아몬드와 블랙 스피넬을 사용한 투 톤 버전도 선보인다. 투 톤 버전은 고유번호가 부여된 30피스 혹은 5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했다.

Coussin de Cartier



© Cartier



© Cartier

까르띠에는 한층 특별한 꾸쌍 드 까르띠에까지 마련했다. 케이스 전체를 다이아몬드나 컬러 스톤, 에메랄드, 투르말린, 사파이어 등으로 파베 세팅한 두 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이 바로 그것. 전체적인 형태는 조금 더 둥근데, 케이스 자체를 신축성 있는 특수 소재로 제작해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 촉각적인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점. 1011개, 총 5.45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세팅한 시계, 블루 투르말린과 차보라이트,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 컬러 스톤으로 정교하게 장식한 시계 두 버전으로 각 20피스 한정 출시한다.





© Cartier

**Pasha de Cartier**

1985년 론칭한 파샤 드 까르띠에는 원형 케이스와 아라비아숫자 인덱스, 체인으로 연결된 스크루-다운 크라운 캡 등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컬렉션. 까르띠에는 지난 2020년 이 파샤를 대대적으로 탈바꿈했고, 올해 새로운 모델을 추가하며 컬렉션을 한층 더 풍성하게 다듬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디테일은 다이얼 전면에 다시 등장한 그리드다. 까르띠에의 1943년형 밀리터리 방수 시계에서 따온 이 그리드는 가로와 세로로 다이얼을 가로지르며 4개의 오버사이즈 아라비아숫자를 더욱 강조한다. 스프링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탈착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취향에 따라 두 가지 스타일로 즐길 수 있다는 얘기도. 새로운 파샤 드 까르띠에는 41mm 골드 버전과 30mm, 35mm 주얼리 버전으로 마련했다.



CARTIER



© Cartier

파샤의 진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컴플리케이션 모델도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파샤에 적용한 컴플리케이션은 크게 세 종류. 문페이즈, 스켈레톤 그리고 플라잉 투르비옹이다. 문페이즈와 스켈레톤 모델은 과감한 슈퍼 루미노바 처리로, 플라잉 투르비옹 버전은 까르띠에의 이니셜 C를 새긴 투르비옹 케이스로 특별함을 더했다. 라쇼드퐁 매뉴팩처에서 개발한 각각의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는 파샤의 존재감을 한층 더 또렷하게 드러낸다. 문페이즈는 핑크 골드와 스틸 케이스로, 스켈레톤은 블랙 ADLC 코팅 처리한 스틸 케이스로, 플라잉 투르비옹은 핑크 골드 케이스로 만날 수 있다.







Cartier Prive - Tank Chinoise



까르띠에 탱크는 사각 손목시계를 대표하는 모델이다. 절묘한 비율과 창의적인 디자인, 다양한 변주 덕분에 지금까지도 굳건하고 상징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올해 까르띠에는 프리베 컬렉션으로 탱크를 다시 한번 조명했다. 그 주인공은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탱크 쉬누아즈다. 이 시계의 가장 큰 특징은 묵직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케이스 상하의 가로축. 아시아 사원의 현관 지붕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모델명도 프랑스어로 차이나스를 뜻하는 쉬누아즈가 붙었다. 까르띠에 프리베의 탱크 쉬누아즈는 총 여섯 가지 버전으로 등장했다. 로만 인덱스 다이얼의 옐로 골드, 핑크 골드, 플래티넘 버전과 오픈워크 다이얼의 옐로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세팅 플래티넘 버전이다. 특히 오픈워크 모델은 동양적인 창문 형태에서 모티브를 따온 9627 MC 스켈레톤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블랙과 레드 래커로 장식된 이 칼리버는 오직 탱크 쉬누아즈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무브먼트다. 케이스 사이즈는 가로 29.2mm, 세로 39.5mm. 고급 라인업임을 증명하듯 스틸 케이스가 하나도 없고 모두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1922년 제작된 오리지널 탱크 쉬누아즈.



© Cartier



© Cartier



© Cartier

CARTIER



## HUBLOT

2/13



## Square Bang Unico ▲

위블로의 첫 스퀘어 시계. 대범한 디자인, 현대적인 소재, 입체적인 디테일 등 위블로의 고유한 정체성이 이 시계에도 고스란히 계승되었다. 일단 위블로는 스퀘어 밴그 유니코를 위해 다양한 조합과 변형이 가능한 모듈러 구조의 케이스를 개발했다. 빅뱅처럼 6개의 스크루를 베젤에 배치했으며, 스퀘어 시계라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100m까지 방수를 보장한다. 여기에 탑재한 무브먼트는 72시간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유니코 무브먼트. 샌드위치 다이얼과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무브먼트의 구조와 움직임을 훤히 드러냈다. 스트랩에 원 클릭 시스템을 적용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덕분에 초콜릿 스퀘어 디테일로 장식한 스트랩을 간편하게 악어가죽이나 러버 스트랩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스퀘어 밴그 유니코는 티타늄과 세라믹, 킹 골드 등 소재 조합을 달리한 다섯 가지 버전으로 출시했다. 이 중 블랙 세라믹을 새틴 마감 처리한 올 블랙 모델은 250개 한정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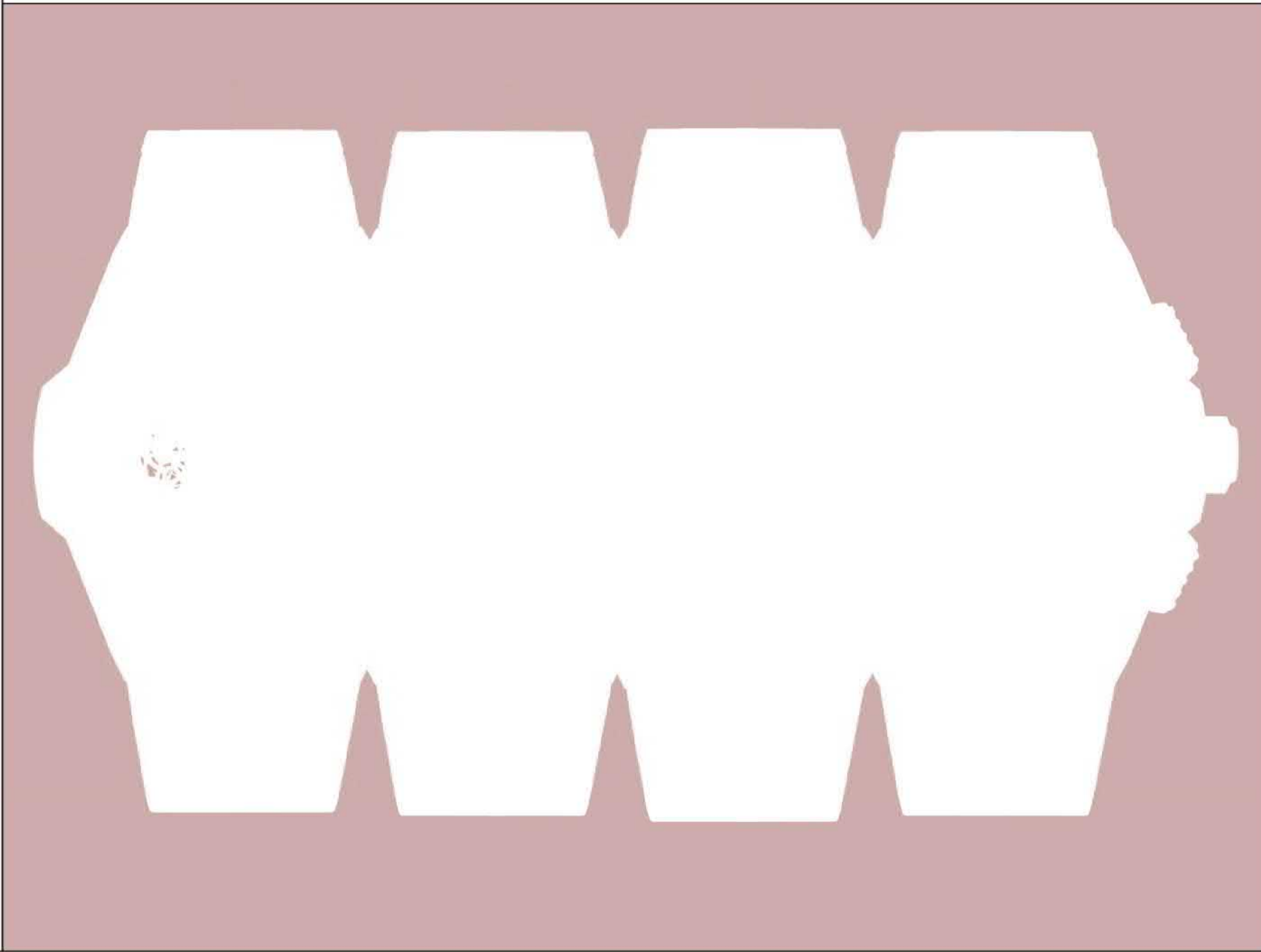


**Big Bang Tourbillon Automatic Purple Sapphire**

이름처럼 보라색 사파이어 케이스에 오토매틱 투르비옹 무브먼트를 탑재한 시계. 위블로는 사파이어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유니코 사파이어, 올 블랙 사파이어, 레드 사파이어와 블루 사파이어, 스피릿 오브 빅뱅 옐로 사파이어 등 거의 모든 컬러의 사파이어 시계를 출시한 바 있으니까. 올해의 퍼플 투르비옹은 그 최신판이다. 오토매틱 투르비옹 역시 남다르다. 일반적인 투르비옹은 매뉴얼 와인딩으로 만들지만 위블로는 72시간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셀프와인딩 방식을 적용했다. 마이크로 로터를 12시 방향에 배치한 덕분에 다이얼 구성이 조화롭고, 투르비옹의 움직임도 깨끗하게 볼 수 있다. 5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Big Bang Integral Ceramic**

빅뱅의 일체형 세라믹 케이스 버전. 다양한 컬러를 만들 수 있는 세라믹의 특징을 백분 활용했다. 열대우림을 상징하는 정글 그린, 모로코와 인도를 떠오르게 하는 인디고 블루, 남태평양의 색을 담은 스카이 블루, 사막과 캐리비언의 모래사장을 연상케 하는 샌드 베이지 네 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빅뱅 인테그랄 유니코에는 위블로가 축적한 시계 제작 노하우와 균형 감각도 담겨 있다. 세라믹 부품의 각 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면 처리한 것이 그 예시.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모두 세라믹으로 만들었지만 단순해 보이지 않는 이유다. 색에 따라 티타늄 부품을 그냥 쓰거나 블랙 PVD 코팅하는 등 세심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 무브먼트는 72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인하우스 무브먼트 HUB1280. 각 250개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HUBLLOT



# ROGER DUBUIS

## 3/13

Excalibur Knights of the Round Table Monotourbillon/X ▲

로저 드뷔 원탁의 기사 시리즈의 여덟 번째 에디션. 원탁의 기사 컬렉션에 처음으로 적용된 투르비용 컴플리케이션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12명의 기사 시선을 압도한다. 이 시계의 메커니즘적 특징은 대부분 다이얼 정중앙에 배치한 모노투르비용에서 비롯한다. 센터에 투르비용을 배치하기 위해 시침과 분침은 과감하게 없애고, 시와 분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 골드 블록을 사용한 것. 또 투르비용 케이스에 티타늄을 적용해 내구성을 보장하며, 밸런스 휠의 크기를 키워 안정성까지 높였다. 메티에 다르의 성격이 강한 만큼 로저 드뷔는 세공에도 공을 들였다. 인덱스 역할을 하는 기사 미니어처의 크기는 불과 6mm. 모두 장인의 손으로 하나하나 조각한 것이며, 12명 모두 포즈가 달라 감상하는 재미도 있다. 원탁은 블루와 퍼플, 버건디 컬러 무라노 글라스로 제작했다.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털 위에 부착한 무라노 글라스는 시와 분을 알리는 골드 블록의 배경이 되며 여러 겹의 레이어로 입체적인 느낌을 강조한다. 케이스 소재는 핑크 골드, 지름은 45mm. 8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이 이미 모두 주인을 찾았다.



Excalibur Monobalancier

엑스칼리버 모노밸런시어의 신모델. 외관상의 큰 변화는 없지만, 새로운 무브먼트를 탑재해 더 강력해졌다. 이 시계에 탑재한 무브먼트는 오토매틱 칼리버 RD720SQ. 밸런스 휠의 관성모멘트를 두 배로 끌어올려 안정성을 개선하고, 파워리저브를 72시간까지 늘린 것이 특징이다. 또 다이얼 10시 방향의 마이크로 로터도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42mm 케이스는 로저 드뷔의 독자적인 신소재 이온 골드로 만들어 색이 쉽게 바래지 않으며, 브랜드의 상징적인 스키텔론 무브먼트와 그 위로 펼쳐진 별 모양 브리지, 이를 에워싼 플루티드 베젤은 여전히 우뚝하다. 제네바 실 인증을 받았고, 100m 방수를 지원한다.



INTERVIEW

**드디어 원탁의 기사 시리즈에 컴플리케이션 모델이 등장했다.**

원탁의 기사 컬렉션은 어느덧 로저 드뷔의 주요 축이 될 만큼 중요한 컬렉션으로 자리 잡았다. 사실 우리도 이 시계가 이렇게 컬트적인 인기를 얻게 될 줄은 몰랐다. 이제는 슬슬 원탁의 기사 컴플리케이션 위치를 선보일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컴플리케이션은 로저 드뷔 시계의 핵심 DNA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시작은 투르비용이었을 거고.**

물론이다. 투르비용은 미스터 로저 드뷔의 시그너처니까. 첫 컴플리케이션은 반드시 투르비용이어야 했다.

**일단 모노투르비용을 다이얼 한 가운데 딱하니 배치한 점이 인상적이다.**

완벽한 디자인을 위한 선택이었다. 원탁의 기사는 모든 시선이 다이얼 정중앙으로 모이는 시계다. 케이스도 원형이고, 기사도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투르비용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어색할 수밖에 없다. 또 투르비용을 향한 로저 드뷔의 오랜 여정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번 원탁의 기사 시계를 제작하면서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었나?**

다이얼 정중앙에 배치한 투르비용 때문에 시침과 분침을 옮겨야 했는데, 별도의 서브다이얼을 또 만들어 시선을 빼앗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시와 분을 알리는 블록 형태의 인디케이터를 선택했다. 하지만 핸즈는 가벼워야 움직임이 수월하다. 기술적으로는 골드 블록을 움직이기 위한 충분한 동력을 마련하는 것, 그러면서도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까다로웠다. 이를 위해 우리는 투르비용의 구조를 두 번이나 변경했다.

**원탁의 기사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무라노 글라스를 적극 사용했다.**



**GREGORY BRUTTIN**  
그레고리 브루탱

로저 드뷔 제품 전략 디렉터

맞다. 원탁의 보라색, 파란색, 빨간색 블록을 포함해 크라운까지 모두 무라노 글라스로 만들었다.

**다이얼에 무라노 글라스를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스켈레톤을 활용하기 위해선 투명한 소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단 플라스틱은 좋은 소재지만 고급 시계에는 맞지 않고, 일반 유리는 내부의 작은 기포 때문에 품질 면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다. 또 사파이어 크리스털은 고급 소재지만 다양한 색을 내기가 어렵다. 사실 무라노 글라스도 긴 제작 공정으로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지만, 소재 자체의 한계는 가장 적다. 이런 디테일을 모두 고려했을 때 무라노 글라스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원탁의 기사 시리즈에서 다른 컴플리케이션도 기대할 수 있을까?**

물론 다른 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계획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원탁의 콘셉트를 유지할 수 있는 동심원형의 컴플리케이션일 것이다. 일반적인 퍼페추얼 캘린더나 여러 인디케이터가 필요한 컴플리케이션은 디자인적으로 맞지 않다.

**시계 한 피스를 제작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미니어처 기사를 하나 만드는 데만 꼬박 3일이 걸린다. 12개를 만들면 단순하게는 3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무브먼트를 조립하는 데도 1~2주 정도가 걸리고, 다이얼의 무라노 글라스도 손으로 하나하나 세팅하며, 기사를 다이얼 위에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새로운 엑스칼리버 모노밸런시어 얘기를 해보자. 새로운 무브먼트 RD720SQ를 탑재했는데, 파워 리저브가 72시간으로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무브먼트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효율적인 마이크로 로터를 위해 골드와 텅스텐 소재를 사용하고, 밸런스 휠의 관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한 이스케이프먼트를 개발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는 주말을 감안한, 그러니까 주말에 시계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신이 로저 드뷔에서 일한 지도 20년이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딱 하나만 꼽자면?**

20여 년 전, 입사를 권유하는 미스터 로저 드뷔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리고 2010년, 은퇴했던 미스터 로저 드뷔에게 다시 복귀하도록 권유하는 전화를 걸었을 때. 이 두 순간이 내겐 기념적인 순간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로저 드뷔다운 시계란 뭘까?**

미스터 로저 드뷔는 늘 “시계를 만들 땐 전통을 존중하면서 규칙에 도전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이게 로저 드뷔의 핵심이 아닐까? 고급 워치메이킹의 가치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현대적이고 동시대적인 접근을 하는 것. 소재, 디자인, 기술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말이다.





### Chronomaster Open

제니스의 핵심 컬렉션 중 하나인 크로노마스터 오픈이 리뉴얼됐다. 가장 큰 변화는 컷아웃되었던 9시 방향의 카운터를 헤갈라이트 크리스털로 덮었다는 점. 크로노마스터 삼색 카운터의 오리지널리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레귤레이팅 기관과 이스케이프먼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42mm에서 39.5mm로 사이즈를 줄인 케이스도 인상적인 변화다. 절제된 비율, 슬림해진 러그, 정교하게 폴리싱한 가장자리 등 모든 세부가 한층 현대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무브먼트는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효율성을 개선한 엘 프리메로 3604를 탑재했다. 크로노마스터 스포츠의 3600 칼리버를 수정한 이 무브먼트는 60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시간당 3만6000회 진동하는 하이비트 덕분에 10분의 1초까지 측정 가능하다. 케이스는 로즈 골드와 스틸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인다. 로즈 골드 케이스에는 푸른 송아지가죽을, 스틸 케이스엔 브레이슬릿을 매치했다. 100m 방수.



↑  
화이트와 블랙 다이얼로 선보이는 크로노마스터 오픈 스틸 버전.



# ZEN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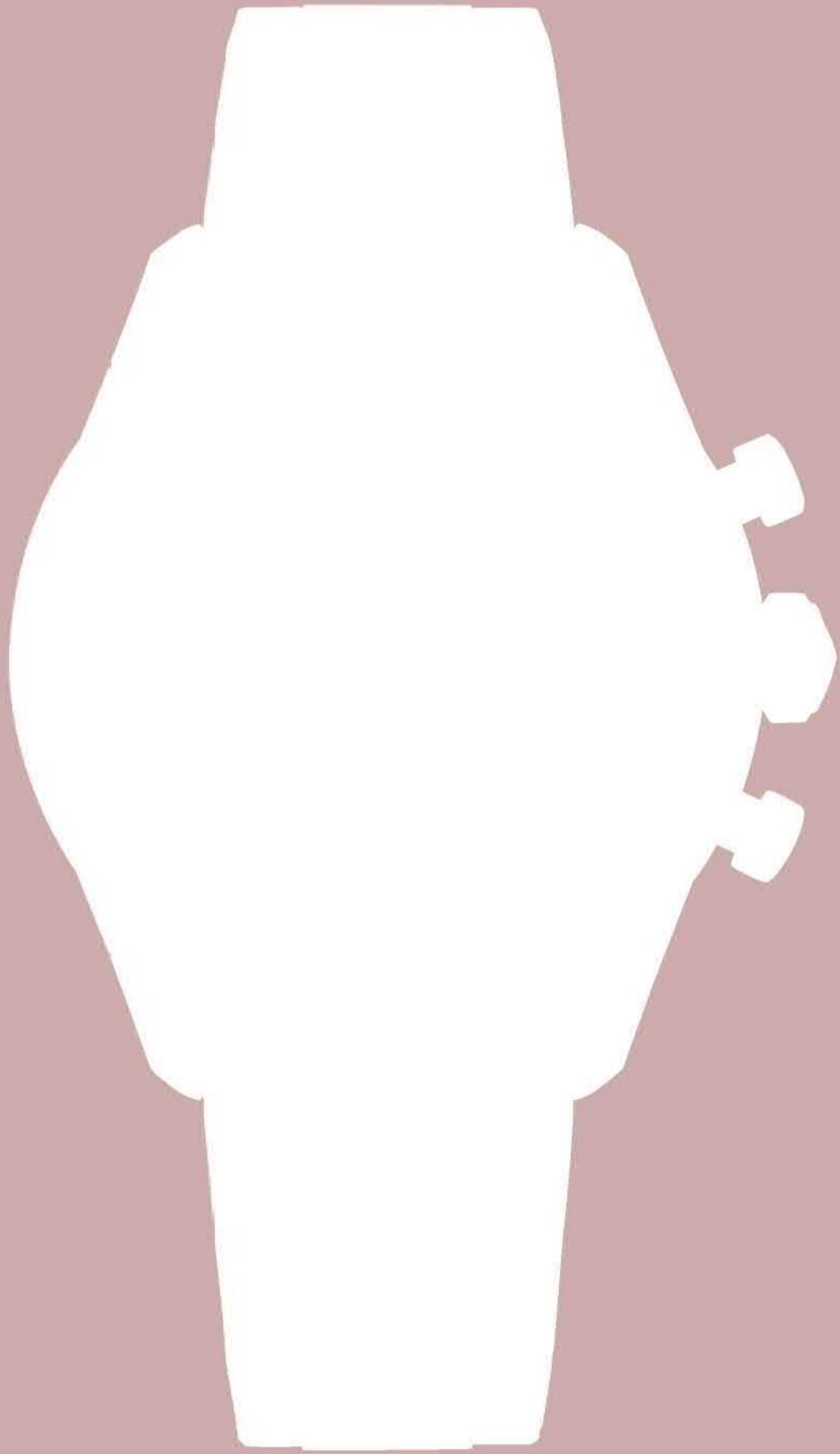
4/13

## Chronomaster Sport Gold



작년 제니스가 야심 차게 론칭한 크로노마스터 스포츠 컬렉션의 신모델. 올해는 골드 모델을 추가하며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스틸과 골드를 혼합한 콤비 모델도 있지만, 역시 눈에 띄는 건 케이스와 베젤, 핸즈와 인덱스, 브레이슬릿과 버클까지 모두 로즈 골드로 된 모델이다. 브레이슬릿까지 모두 골드로 만든 스포츠 위치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삼색 카운터, 4시 30분에 위치한 날짜 창, 별을 엮은 크로노그래프 핸즈 등 전체적인 구성은 전작과 동일하다. 다만 새틴 브러싱과 폴리싱으로 세심하게 마감한 로즈 골드 덕분에 훨씬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한다. 무브먼트는 작년 도입된 엘 프리메로 3600을 사용했다. 시간당 3만6000회 빠르게 진동하기 때문에 0.1초까지 시간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교함을 뽐내듯 다이얼과 베젤에 표시했다.

워치스앤원더스 2022의 제니스 부스.



ZENITH



# TAG HEUER 5/13

SPECIAL REPORT



스위스 아방가르드라는 태그호이어 슬로건에 걸맞은 시계. 케이스 위에 보석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다이아몬드 위치와 달리, 까레라 플라즈마는 케이스 안에 다이아몬드가 쏙 들어가 있는 듯한 모습이다. 산화 알루미늄 케이스에 랩그론 다이아몬드를 화학 증착시키는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태그호이어는 이 혁신적인 시계를 만들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협업했고, 그 결과 전에 없던 독특한 형태를 완성하게 되었다. 크라운에 삽입한 2.5캐럿 다이아몬드, 다이얼 플레이트 커버를 장식한 다결정 다이아몬드 등 다이아몬드를 활용하는 방식도 제각각. 그래서 무려 11.7캐럿의 랩그론 다이아몬드가 이 시계에 사용되었음에도 기존의 다이아몬드 위치와는 전혀 다른 외관을 보여준다. 시계에 탑재한 무브먼트 호이어 02 투르비용 나노그래프 역시 급진적이다. 일단 헤어스프링을 일반적인 금속이나 실리콘이 아닌 카본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덕분에 이 시계는 뛰어난 항자성과 내충격성, 다양한 온도에서 안정성을 자랑한다. COSC 인증과 5년의 워런티 보증에서도 태그호이어의 기술력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Carrera Plasma







**Aquaracer Professional 1000 Superdiver**

2021년 아쿠아레이서 라인을 재정비한 태그호이어는 올해 기술적으로 좀 더 완성도 높은 다이버 워치를 선보였다. 수심 1000m까지 방수를 지원하는 아쿠아레이서 프로페셔널 1000 슈퍼다이버다. 4시 방향의 헬륨가스 배출 밸브, 가장 높은 등급의 슈퍼 루미노바로 처리한 인덱스와 핸즈, 육중한 크라운 가드... 이 시계는 전문 다이버를 위한 장치를 빠짐없이 마련하고, 포화 잠수를 위한 ISO 인증까지 받았다. 게다가 일상에서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게 하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그레이드 5 티타늄으로 무게를 줄였으며, 가시성을 위한 오렌지 컬러 디테일 역시 도시 생활의 좋은 디자인 포인트가 된다. 무브먼트는 케니시 매뉴팩처에서 제작한 TH-30-00. 70시간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며 COSC 인증으로 정확성까지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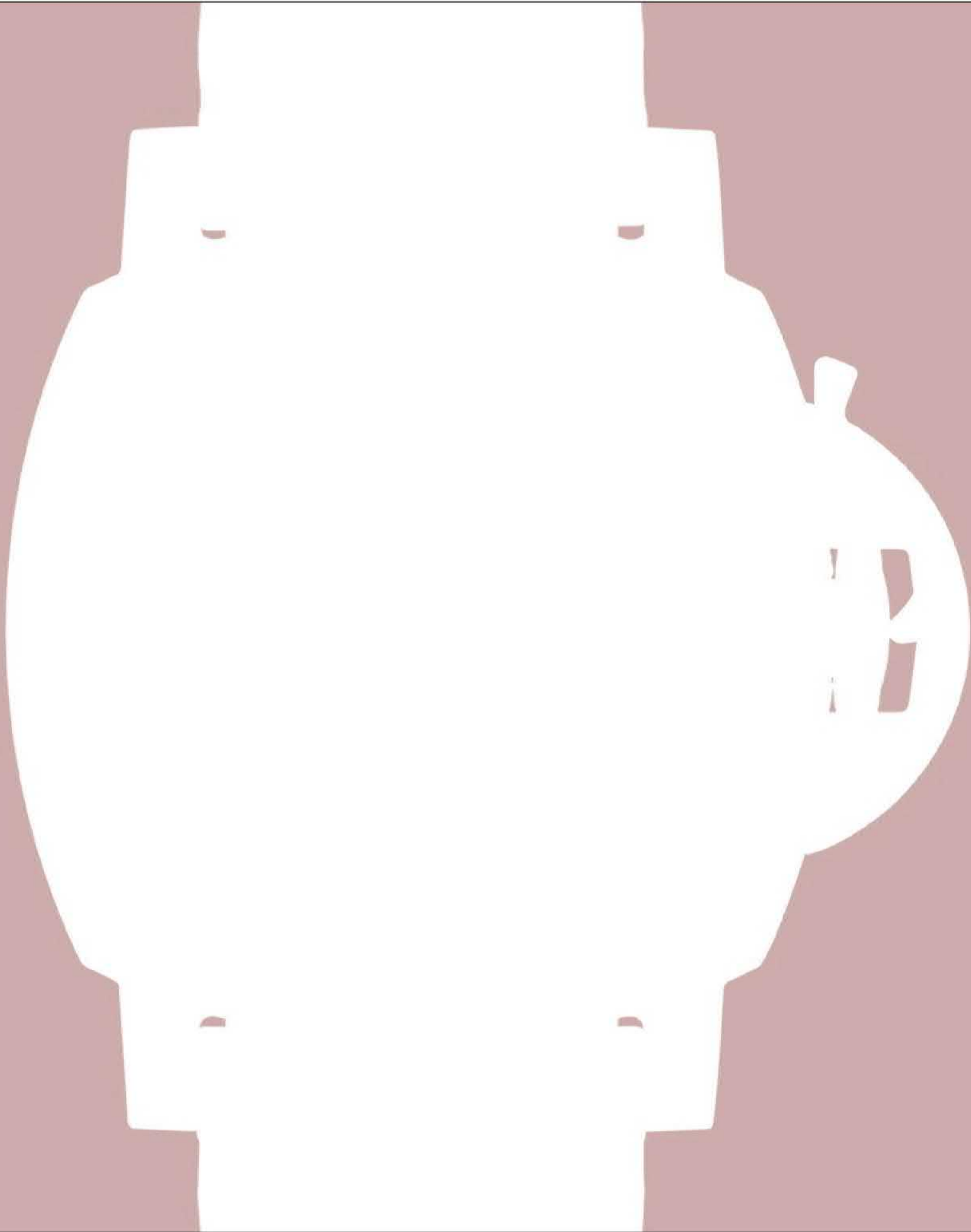
**Aquaracer Professional 200 Solargraph**

태그호이어 최초의 태양열 작동 시계. 최신식 에코 드라이브 기술의 솔라그래프 무브먼트를 탑재해 태양광이나 인공광 등의 빛만으로 시계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배터리가 방전돼도 몇 초만 빛을 비추면 시계가 작동하며, 충분한 햇빛 아래에서 2분 정도 충전하면 하루 동안 구동된다. 20시간 충전할 경우 6개월 동안 별도의 충전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 크라운을 당겨 파워 세이브 모드를 작동시키면 3년 6개월까지 배터리 성능이 연장된다. 아웃도어를 위한 시계인 만큼 40mm 케이스는 블랙 DLC 코팅 스틸, 베젤은 특유의 결을 살린 카본으로 만들었다. 스트랩은 야외 활동에 적합하도록 고무로 제작하고 다이빙 익스텐션까지 장착해 서핑 슈트 위에도 쉽게 착용할 수 있다. 방수는 200m까지. 이런 게 진짜 아웃도어를 위한 럭셔리 워치다.



TAG HEUER





Submersible QuarantaQuattro

올해 파네라이의 워치스엔원더스 신제품은 모두 섭머저블. 루미노르와 라디오미르에 발맞출 수 있도록 섭머저블에 힘을 실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중에서도 메인은 새롭게 등장한 44mm 라인업 쿼란타콰트로다. 44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쿼란타콰트로를 당당하게 이름으로 삼은 이 시계는 기존의 42mm, 47mm 모델과 함께 섭머저블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견고한 크라운 가드와 300m 방수, 단방향 회전 베젤, 슈퍼 루미노바를 채운 인덱스와 시곗바늘 등 전체적인 형태는 기존 섭머저블과 거의 동일하며, 스트랩은 최근 몇 년간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온 파네라이답게 30%의 재활용 소재를 더해 만들었다. 무브먼트는 3일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오토매틱 칼리버 P.900. 파네라이의 초경량 소재 카보테크™와 블루 다이얼을 결합한 블루 아비소, 스틸 케이스에 화이트 다이얼을 접목한 비앙코, 스틸 케이스에 블랙다이얼을 매치한 세 가지 베리에이션으로 선보인다.



↑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다이얼로 선보이는 섭머저블 쿼란타콰트로 스틸 모델.



# PANERAI

6/13



## Submersible QuarantaQuattro eSteel™

지속 가능성에 대한 파네라이의 관심을 증명하는 모델. 스틸을 재활용한 소재 e스틸™이 케이스에 사용되었는데, 화학적 거동이나 물리적 구조, 내부식성 등 소재의 특성은 일반 스틸과 동일하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실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스트랩에도 PET를 재활용한 패브릭을 사용한 것. 시계의 총 중량 137g 중 72g을 재활용 소재로 만들었으니, 시계의 52%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셈이다. 전체적인 형태와 기능은 쿼란타콰트로와 거의 같다. 다만 파네라이 최초로 하이글로시 가공 처리한 폴리시드 세라믹 베젤을 적용한 것은 분명 특기할 만한 점이다. 베젤은 그라데이션 다이얼과 시각적 대비를 이루며 시계에 입체감을 선사한다.

## INTERVIEW

**파네라이 CEO가 된 지도 벌써 4년이 지났다. 그동안 파네라이는 어떻게 바뀌었나?**

사실 제품 구성엔 큰 변화가 없다. 파네라이 시계의 정체성은 그때도 이미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기도 기존 컬렉션을 다듬고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 예를 들어 섭머저블을 좀 더 스포티하고 역동적으로 포지셔닝한 것처럼. 가장 큰 변화는 리테일 네트워크의 강화다. 우리는 고객들이 파네라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부티크 확장에 힘썼다. 전 세계에 거의 3주에 한 개씩 부티크를 오픈했다고 보면 된다.

**한국에도 파네라이 부티크가 많이 생겼다.**

특히 서울이 그렇다. 서울은 파리나 런던, 뉴욕, 상하이, 베이징 같은 세계 주요 도시보다도 부티크 수가 많다. 부티크가 하나도 없던 8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놀라운 성장세다.

**올해 신제품 중 가장 눈여겨볼 만한 모델은 지름 44mm 케이스의 섭머저블 쿼란타콰트로다. 42mm와 47mm 사이에 사이즈를 하나 더 만듦으로써 선택의 폭을 늘린 셈이다. 섭머저블에 더 작은 사이즈를 추가할 계획도 있나?**

42mm 이하 사이즈를 출시할 계획은 없다. 섭머저블은 빅 워치를 대표하는 시계이기 때문이다. 작은 시계에 대한 필요가 생긴다면 두에 컬렉션에서 38mm 이하를 고려해볼 수는 있을 거다. 하지만 우리는 사이즈 이외에도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무브먼트나 방수 기능도 그중 하나다.

**최근 파네라이의 화두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소개한 e스틸을 섭머저블에 이식하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개인적으로도, 파네라이의 CEO로서도 지금의 우선 과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상관 없이 지속 가능성은 앞으로 더 중요



**JEAN MARC PONTROUÉ**  
장 마크 폰트로이

파네라이 CEO

해질 거다. 특히 파네라이에겐 더더욱 그렇다. 바다는 파네라이의 시작점이자 무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에 더 진지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e스틸이었고. e스틸은 시계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을 재활용한 소재다. 화학적 거동이나 물리적 구조, 내부식성 등 소재의 특성은 일반적인 스틸과 거의 동일하다. 버려지는 소재를 활용해 시계를 만드는 것은 환경을 생각했을 때도 의미 있는 일이고, 비즈니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모델이 된다.

**파네라이의 다른 컬렉션에도 e스틸을 적용할 예정인가? 언젠가 e스틸이 일반 스틸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우리는 2025년까지, 즉 3년 이내에 파네라이의 모든 스틸 시계를 e스틸로 대체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카보테크, 브론즈, 골드 등의 소재를 제외하고, 파네라이 전체 시계의 75%가 e스틸로 교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섭머저블 컬렉션뿐 아니라 모든 컬렉션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른 시도도 있나?**

올해 안에 패키징도 바꿀 예정이다. 재활용 소재를

72% 사용한 지속 가능한 패키징이다. 기존의 패키지는 대부분 구매 후 벽장에 보관되거나 버려졌다. 자원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나 가죽으로 만들었던 기존의 박스를 종이로 대체하고, 안쪽의 작은 케이스는 여행을 갈 때 트래블 파우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또 하나는 파트너십이다.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심도 깊게 논의하고, 가능성을 확장시키기 위해 유네스코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워치파인더와의 협업도 흥미롭다. 이들과의 만남은 어떻게 성사되었나? 많은 중고 시계 플랫폼 중 워치파인더를 고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

가장 큰 이유는 워치파인더가 리치몬드 그룹 소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일단 워치파인더는 중고 시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회사다. 게다가 파네라이는 중고 시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워치파인더도 이미 우리에게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왜 고객들이 파네라이를 판매하거나 구매하고 싶어 하는지 충분한 분석이 있었다는 얘기다. 또 중고 시계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어차피 이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면 초기부터 이 분야에 진입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파네라이의 포부에도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파네라이가 서랍 속에 잠들어 있기보다는 다른 고객에게 판매되기를 원한다.

**중고 시계 시장의 성장이 새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극장이 사라질 것이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중고 시계 시장이 부티크와는 다른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게다가 중고 시계든, 새 시계든 더 많은 사람이 파네라이를 손목에 얹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PANERAI



# IWC

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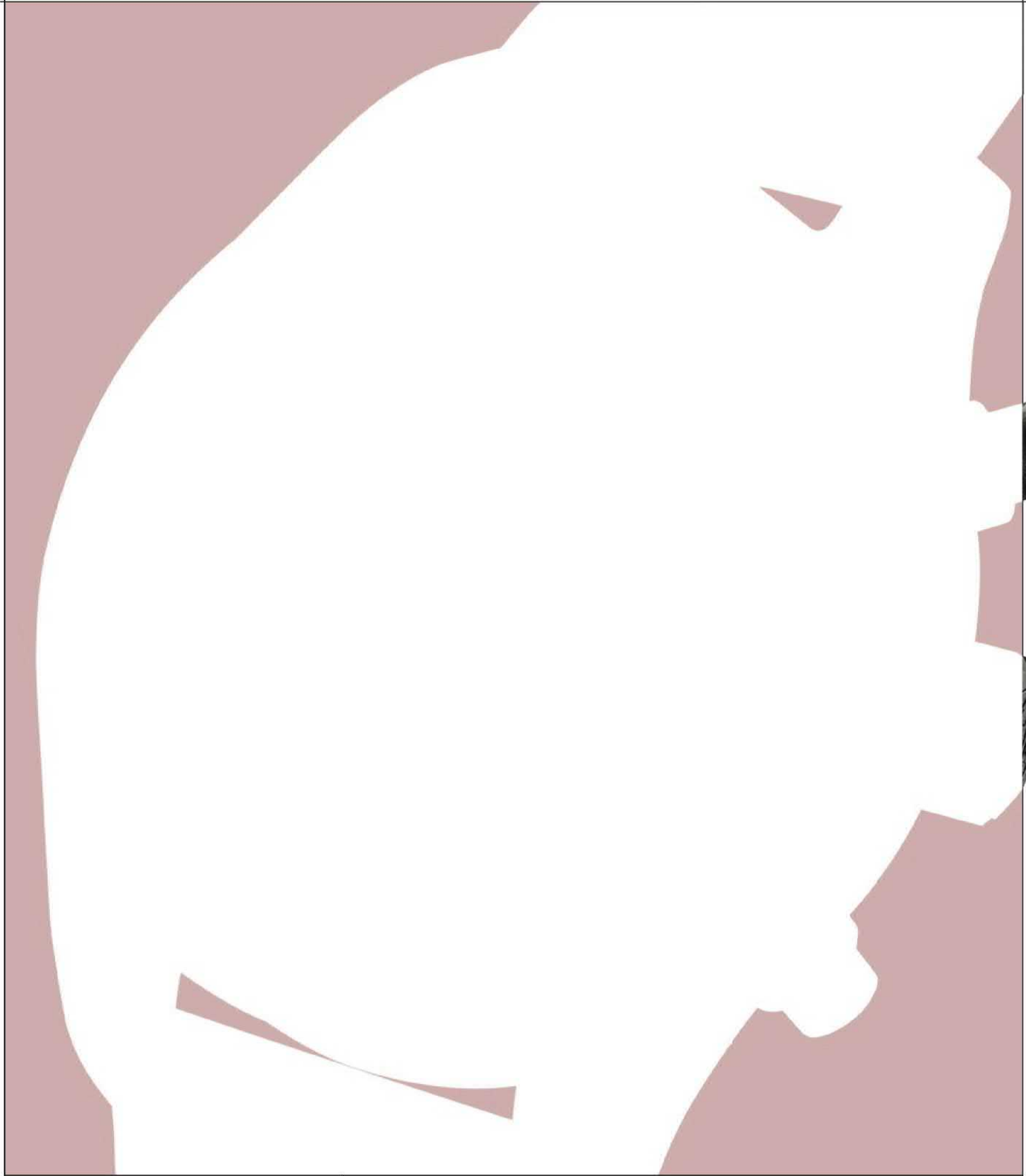
Pilot's Watch Chronograph  
Top Gun Edition 'Woodland'

IWC는 세라믹 시계 제작에 남다른 노하우를 갖고 있다. 1986년 처음 세라믹 시계를 제작한 이후 꾸준히 소재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2019년 샌드 컬러의 모하비 데저트 에디션을 선보인 IWC는 올해 '우드랜드'라고 이름 붙인 초록색 세라믹 위치를 탑재 라인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우드랜드 위치는 미 해군 파일럿의 비행복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특징. 짙고 묵직한 우드랜드 그린을 케이스와 다이얼, 스트랩 등 시계 곳곳에 두루 사용했다. 다만 핸즈, 아워 마커, 카운터와 날짜-요일 창 텍스트는 가독성을 위해 좀 더 밝은 컬러로 마무리했고, 크로노그래프 푸셔와 케이스백은 견고함을 위해 IWC가 개발한 세라타늄으로 만들었다. 무브먼트는 칼럼 휠 방식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63980을 탑재했으며, 다른 탑재 위치와 동일하게 자기장으로부터 시계를 보호하는 연철 내부 케이스도 갖추고 있다. 연간 1000개 생산한다.



IWC





**Pilot's Watch Chronograph 41  
Top Gun Ceratanium**



세라타늄은 세라믹과 티타늄을 혼합한 IWC의 신소재다. 쉽게 말해 스크래치에 강한 세라믹의 장점과 가볍고 견고한 티타늄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IWC는 5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이 소재를 완성했고 자랑스레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41 탑건에 이식했다. 41mm 케이스, 크라운과 크로노그래프 푸셔, 심지어 스트랩 버클에도 세라타늄을 썼다.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41 탑건 세라타늄의 특징은 소재 자체에 있다. 세라타늄은 소재의 공학적 특성뿐 아니라 색채에도 고유한 매력이 있는데, 금속성의 희미한 광택을 띠면서도 블랙에 가까운 짙은 컬러다. IWC와 팬톤은 이 색깔을 따로 IWC 세라타늄 컬러라 부른다. 검은색과 짙은 회색 사이에 놓인 이 미묘한 컬러가 IWC 탑건 크로노그래프와 합쳐지며 세련된 느낌을 배가한다. 무브먼트는 46시간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69385. 스트랩은 블랙 러버 스트랩을 매치했다.



Big Pilot's Watch 43 Top Gun

2012년부터 블랙 세라믹으로 빅 파일럿 워치를 출시해온 IWC가 올해는 인체공학적인 43mm 버전을 발매했다. 블랙 세라믹 버전을 계승하는 모델인 만큼 산화지르코늄 세라믹 케이스도, 다이얼도 모두 검은색이다. 파일럿 워치의 정체성은 시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건 한눈에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커다란 시곗바늘과 다이얼의 숫자 표시. 갑작스러운 기압 강하에도 문제없도록 견고하게 고정된 전면 글라스, 자성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내부 연철 케이스도 전통적인 파일럿 워치의 디테일 중 하나다. 이 시계에는 IWC가 자체 제작한 오토매틱 칼리버 82100을 탑재했다. 60시간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며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으로 동력을 축적하는 효율적인 무브먼트다. 탑건 엠블럼을 새긴 케이스백은 티타늄으로 제작했고, 스트랩은 그린과 블랙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인다. 100m 방수 지원.



IWC

Pilot's Watch Chronograph Top Gun Edition 'Lake Tahoe'

우드랜드와 함께 2022년 IWC가 선보인 컬러 세라믹 워치.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경계에 자리한 타호 호수에서 영감을 얻었다. 케이스와 다이얼, 스트랩까지 초록색으로 마무리한 우드랜드와 달리 레이크 타호 에디션은 화이트를 메인 컬러로 삼았다. 다만 몇 가지 색과 소재를 더해 좀 더 다채로운 느낌을 낸 것이 차이점이다. 다이얼은 파일럿 워치의 전통을 따르며 가독성 높은 블랙으로 처리했다. 크라운과 크로노그래프 푸셔에는 거울처럼 말끔하게 폴리싱한 스틸을 썼다. 케이스백 소재도 다르다. 우드랜드는 세라 타늄, 레이크 타호는 티타늄. 연간 1000개만 생산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 Octo Finissimo Ultra

옥토 컬렉션 탄생 10주년을 기념하는 불가리의 역작. 초박형 케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옥토 피니씨모의 특징을 극적으로 진화시킨 모델이다. 이 시계의 두께는 불과 1.8mm. 이는 현존하는 기계식 시계 중 가장 얇은 두께이며, 불가리는 이 시계로 울트라 신 분야에서 여덟 번째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 기록적인 두께를 성취하기 위해 불가리의 연구개발팀은 케이스, 케이스백, 다이얼과 무브먼트 등 모든 부품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케이스백은 부품을 조립하는 메인 플레이트로 활용되었고, 시·분·초 디스플레이는 각기 다른 인디케이터로 보여주는 레귤레이터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크라운도 기존 형태가 아닌 톱니의 노브(knob) 형태로 바꿨다. 레이어를 줄여 두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도 극도로 얇게 제작하고, 브레이슬릿도 케이스 두께에 맞춰 볼륨을 조정했다. 시계의 모든 세부가 두께를 줄이기 위해 재설계, 재배열된 셈이다. 10시 방향의 배럴 래치 휠에 QR 코드를 새겨 디지털 경험을 선사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소재는 샌드블라스트 티타늄, 사이즈는 40mm. 1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했다.

↑  
두께 1.8mm의 세계에서 가장 얇은 기계식 시계,  
옥토 피니씨모 울트라 측면.



# BVLGARI

8/13

## INTERVIEW

옥토가 탄생한 지 올해로 딱 10주년이 되었다. 그리고 불가리는 이를 자축하듯 세계에서 가장 얇은 기계식 시계 옥토 피니씨모 울트라를 선보였다. 이 시계를 만드는 데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

세계에서 가장 얇은 시계를 만들기 결심했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이전의 방식을 답습하면서 각각의 파트를 작게 만드는 것. 상대적으로 쉬운 방식이지만 이것은 진정한 혁신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기로 했다. 부품 제작에서부터 전반적인 구조 설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과제가 되었다. 기존의 크라운조차도 너무 커서 그대로 쓸 수 없었으니까. 결국 익숙한 것들을 재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 처음부터 개척해야 했다. 우리는 거의 모든 부품과 생산 과정을 압축했고, 구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했으며, 세심하게 디자인을 조정했다. 돌이켜보면 이번 프로젝트는 울트라 신과 미니어처 세계의 모든 패턴을 탐색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케이스와 베젤에 텅스텐 탄화물을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모든 파트를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견고한 소재를 사용해야 했다. 텅스텐 탄화물은 무척 단단하고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다. 텅스텐의 모스경도는 9. 다이아몬드의 경도가 10이고, 사파이어가 9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단단한지 짐작할 수 있을 거다.

**사실 옥토 피니씨모 울트라를 처음 봤을 때 걱정이 앞섰다. 케이스가 너무 얇아서 깨지거나 부러지진 않을까 하고, 시계의 견고함과 안정성을 체크하기 위해 어떤 테스트를 거쳤나?**

물론이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불가리의 다른 시계들이 거치는 것과 동일한 테스트를 통과했으니까. 단 한 가지 차이는 방수다. 이 부분만큼은 얇은 두께를 위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얇아진 브레이슬릿도 꽤 인상적이다. 케이스와 두께를 맞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알아봐줘서 고맙다. 초박형 시계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브레이슬릿 두께를 줄이는 것도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한 과제였다. 솔직히 케이스 구조를 보는 순간부터 브레이슬릿 두께를 고민했으니까. 옥토 피니씨모 울트라에 걸맞은 브레이슬릿을 만들려면 두께를 절반으로 줄여야 했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결국 우리는 다른 파트너와 협업해 얇은 티타늄 브레이슬릿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또 버클도 다시 디자인했다. 브



ANTIONE PIN  
양투안 핀

불가리 매니징 디렉터

레이슬릿 두께 안에 버클을 통합하기 위해서다.

**배럴 래칫 휠에 QR코드를 인그레이빙한 디테일도 굉장히 흥미롭다. 이 QR코드로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나?**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일단 QR코드를 스캔하면 미니 웹사이트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시계의 구조와 제작 과정, 개발자 인터뷰, 파브리지오의 예술적 디자인, 피니씨모를 표현한 디지털 아티스트 작품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의 콘셉트와 형태, 불가리 시계의 세계관을 다양한 디지털 방식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이 QR코드는 두 개의 블록체인 인증과도 연결되어 있다. 하나는 시계의 소유권에 대한 인증이고 다른 하나는 영상, 즉 NFT 소유권에 대한 인증이다. QR코드는 실제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한다. 불가리가 두 개의 블록체인 코드 사이의 연결고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트라 신 분야에 더 남은 과제가 있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비밀을 전부 털어놓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깊이 파 내려갈수록 더 많은 전문성을 얻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질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다음 과제는 미니어처 무브먼트가 아닐까 하는 예상도 해봤다. 최근 불가리의 여성 위치를 보면 이러한 경향이 꽤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피콜리씨모를 보면 알겠지만, 미니어처 무브먼트 제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확실히 남다르다. 하지만 불가리의 위치메이킹을 단순히 울트라 신이나 미니어처로 한정 짓고 싶지는 않다. 우리가 두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조건 얇거나 작은 것이 좋은 시계라고 단순히 정의 내릴 순 없다. 중요한 것은 볼륨과 성능 사이에서 최적화를 꾀하는 것이다. 울트라 신과 미니어처는 그 최적화의 가능성을 훨씬 넓게 만들어준다.

**이번엔 옥토 10주년 기념 워치 얘기를 해보자. 이 시계에 파브리지오 부오나마싸-스티글리아니가 구상한 최초의 옥토 스케치를 넣었다. 특별한 이유나 스토리가 있었나?**

불가리의 핵심 컬렉션인 만큼 옥토의 10주년을 특별하게 기념하고 싶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일단 옥토의 시작점을 돌이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 시작점이 바로 파브리지오의 드로잉이었다. 개인적으로 이 시계가 무척 마음에 든다. 이 시계가 존재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불가리의 섬세한 창의성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BVLGA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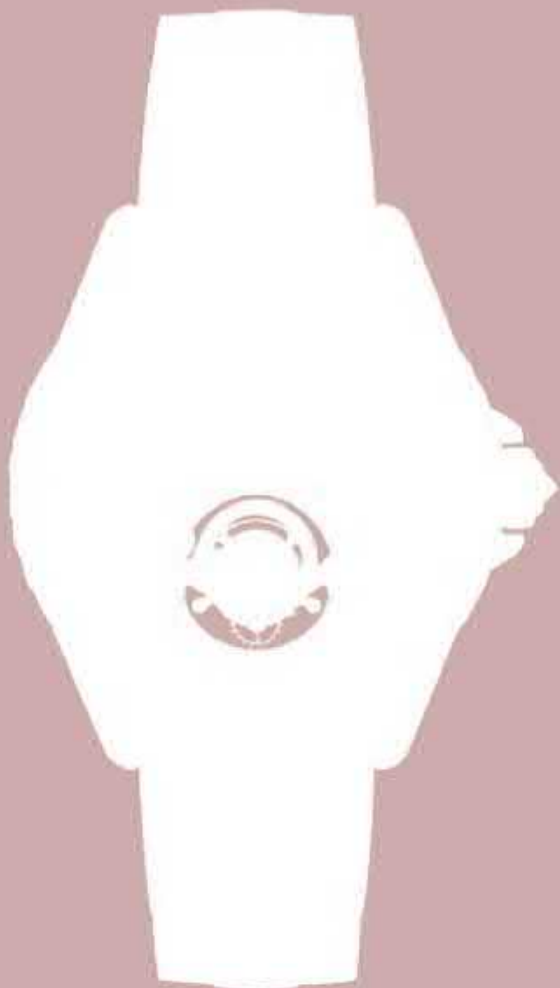


# CHANEL

9/13

## J12 Diamond Tourbillon

2000년 탄생해 샤넬 위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J12 컬렉션의 하이 컴플리케이션 모델. 이 시계의 가장 큰 특징은 제품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다이아몬드 투르비용이다. 중력을 상쇄하는 투르비용 케이지 중앙에 0.18캐럿 솔리테어 다이아몬드를 얹어 풍성한 광채를 발하는 것. 다이아몬드를 삽입한 투르비용 케이지는 1분에 한 바퀴 회전하며, 케이지를 에워싼 둘레의 작은 다이아몬드와 함께 극적인 화려함을 강조한다. 이 시계를 위해 새로운 무브먼트 칼리버 5가 개발되었는데, 이는 샤넬이 자체 제작한 첫 번째 플라잉 무브먼트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실 이전에도 하이 컴플리케이션 전문 업체 르노&파피와 협업한 플라잉 무브먼트를 선보인 바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샤넬 매뉴팩처에서 제작한 플라잉 무브먼트는 이번이 최초다. 칼리버 5를 통해 하이엔드 워치 매뉴팩처로서의 기술력과 위상을 증명한 셈이다. 42시간 파워리저브를 지원하는 이 셀프와인딩 무브먼트는 다이아몬드와 컬러 대비를 이루는 38mm 블랙 세라믹 케이스 안에 담겼다. 투르비용과 호응하도록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한 시침과 분침, 바게트 컷처럼 성형된 블랙 세라믹 베젤, 케이스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블랙 세라믹 브레이슬릿도 놓칠 수 없는 세부다. 55점 한정 생산한다.



CH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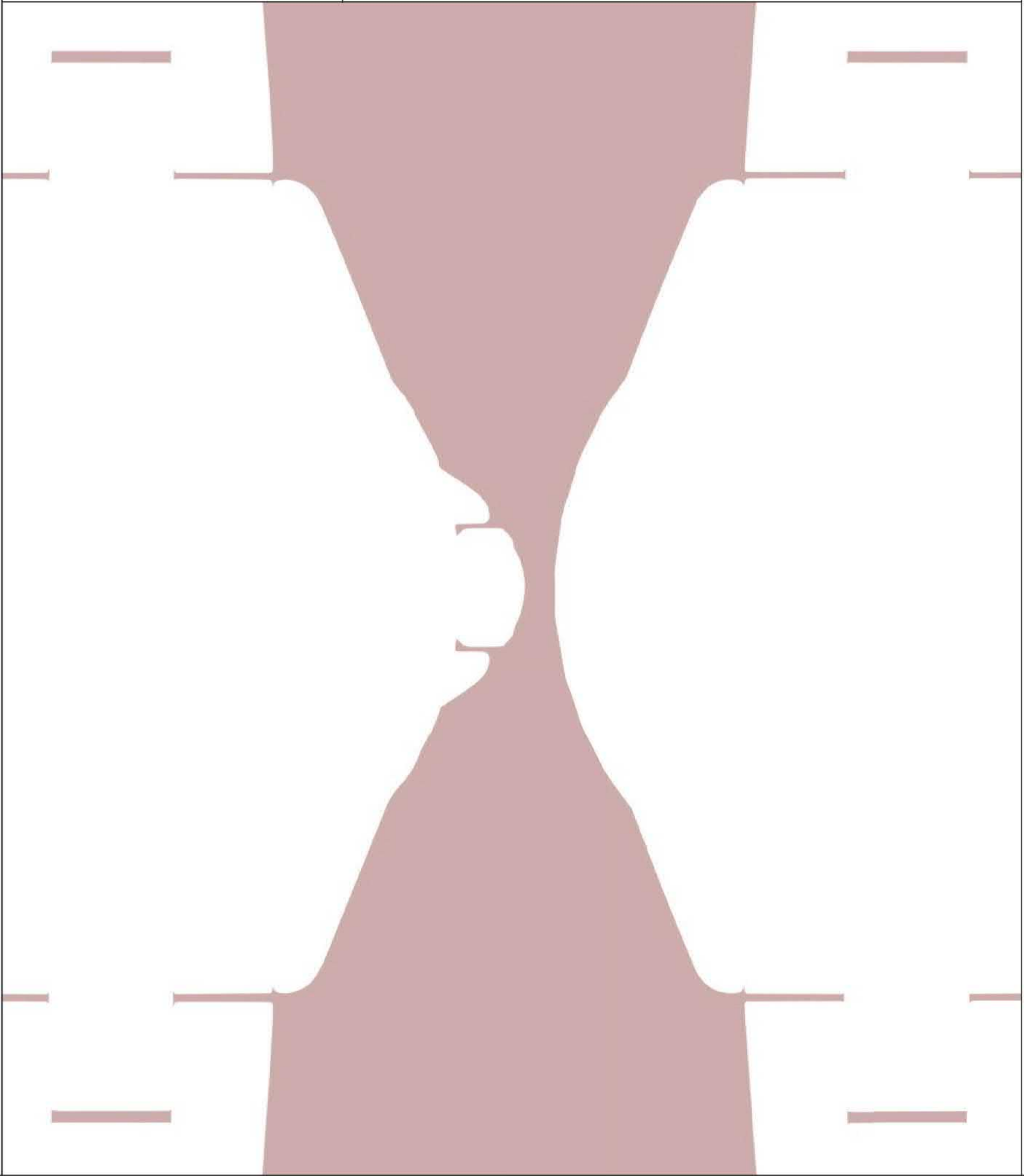
블랙 하이테크 세라믹과 다이아몬드에 대한 샤넬의 애정과 관심을 심분 느낄 수 있는 시계. 블랙 코팅 스틸 케이스에 바게트 컷 블랙 하이테크 세라믹을 빼곡하게 삽입해 마치 주얼리 위치 같은 인상을 자아낸다. 그런데 이 시계의 진짜 묘미는 옆면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케이스 측면에 22개의 바게트 컷 블랙 세라믹과 총 3.58캐럿에 달하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55개를 세팅해 시각적인 대비를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물론 브레이슬릿도 마찬가지. 342개의 바게트 컷 세라믹으로 장식된 브레이슬릿 측면에는 160개, 무려 7.51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38mm 블랙 스틸 케이스에는 COSC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고 70시간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오토매틱 무브먼트 칼리버 12.1을 탑재했는데, 여느 12.1 무브먼트와 달리 로터에까지 다이아몬드를 장식해 화려함을 배가했다. 50m 방수 기능 지원. 시리얼 넘버를 새긴 12개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J12 Black Star



**J12 Caliber 12.2 33mm**

샤넬은 지난 2020년 J12 론칭 20주년을 기념해 컬렉션을 재정비한 바 있다. 탄생부터 완벽을 기한 터라 디자인의 변화는 소소했으나, 대신 이들은 무브먼트 업데이트에 각고의 노력을 쏟았다. 그중 하나가 38mm 사이즈의 J12 워치에 탑재한 오토매틱 칼리버 12.1이었다. 그리고 올해 샤넬은 칼리버 12.1을 좀 더 축소한 칼리버 12.2를 새롭게 발표하고, 이를 33mm 케이스의 J12에 이식한다. 참고로 무브먼트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선 거의 모든 부품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새로운 칼리버 12.2의 기능은 기존 12.1과 거의 동일하다. 유일한 차이는 파워 리저브. 무브먼트의 크기를 줄인 만큼 배럴의 크기도 축소되었기 때문에 파워 리저브가 7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블랙과 화이트 세라믹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하며, 사파이어 글라스 케이스백을 적용해 칼리버 12.2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200m 방수 지원.



CHANEL



# MONTBLANC

## 10/13

1858 Geosphere  
Chronograph Zero Oxygen



SPECIAL REPORT



탐험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비전을 보여주는 몽블랑이 올해 아주 희귀한 시계를 공개했다. 무산소 상태에서 밀폐한, 1858 지오스피어 크로노그래프 제로 옥시젠이다. 무산소 밀폐를 구현한 이유는 가혹한 환경에서의 작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다. 시계 안에 산소가 없으면 고도에 따라 발생하는 김 서림이 발생하지 않고 산화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시계엔 영하 50°C에서도 작동하는 특별한 윤활유가 사용됐다. 극한의 환경까지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산에서의 다양한 경과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MB 29.27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나 티타늄으로 무게를 최소화한 44mm 케이스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는 5월, 세계적인 산악등반가 님스 푸르자가 실제로 이 시계를 차고 탐험을 떠난다. 그는 보조 산소 탱크 없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할 계획이다. 모든 이야기가 에베레스트에 맞춰져 있으므로 케이스백에는 에베레스트산을 그려 넣었고, 생산 수량도 290개로 한정했다. 에베레스트의 고도인 2만9031피트에서 따온 숫자다.





MONTBLANC

1858 Iced Sea Automatic Date

이번엔 다이버 워치다. 몽블랑이 만들었으니 물론 흔한 다이버 워치는 아니다. 고산지대의 빙하 호수에서 영감을 받은 1858 아이스드 씨 오토매틱 데이트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샤모니 계곡의 빙하인 메르 드 글라스를 보며 이 시계를 떠올렸다. 그리고 얼어붙은 빙하의 질감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고전적인 세공 기술 그라테 부아제(Gratté Boisé)를 적용했다. 0.5mm 두께의 얇은 다이얼에서 오묘한 깊이와 광채가 느껴지는 이유다. 만듦새도 무척 훌륭하다. 41mm 스틸 케이스와 세라믹 단방향 베젤은 정교하게 마감되었고, 케이스백에는 스쿠버다이버를 3D 양각으로 인그레이빙해 넣었다. 테이퍼드 형태의 스틸 브레이슬릿은 별도의 도구 없이도 쉽게 러버 스트랩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방수와 내충격성, 항자성, 온도 성능 등 역시 ISO 6425를 충족시킬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다양한 빙하의 색을 상징하는 블랙, 블루, 그린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한다.



↑  
블랙과 그린 버전으로도 만나볼 수 있는  
1858 아이스드 씨 오토매틱 데이트.





# GRAND SEI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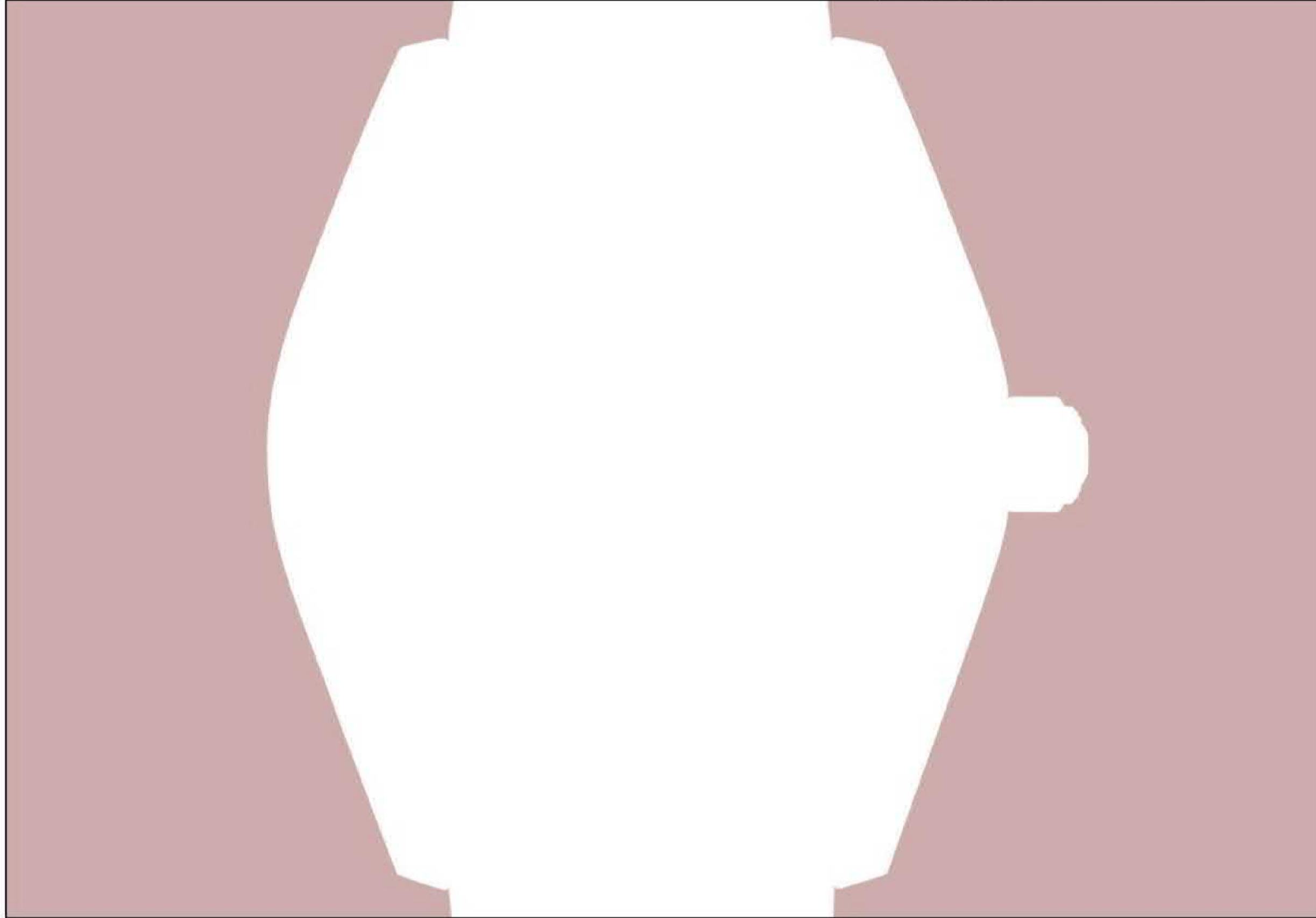
11/13

## Evolution 9 Collection Sports Diver's 200m ▶

올해 그랜드 세이코는 에블루션 9 컬렉션을 스포츠 영역으로 확장했다. GMT와 크로노그래프, 다이버 기능의 다섯 가지 신모델을 추가한 것. 넓은 러그와 손목에 편안하게 밀착하는 케이스, 견고한 브레이슬릿 등 전체적인 스타일은 에블루션 9의 특징을 적용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뛰어난 가독성까지 더했다. 다이버 모델은 스프링 드라이브 9RA5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높은 정확도와 5일의 파워 리저브, 물 흐르듯 부드럽게 움직이는 글라이드 모션 초침을 자랑하며,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가벼운 티타늄으로 제작한 점도 눈에 띈다. 오묘한 질감의 다이얼 패턴 역시 돋보인다. 이는 흑류라고 알려진 쿠로시오 해류의 물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GRAND SEIKO



## Masterpiece Collection White Lion ▲

2020년 선보인 마스터피스 주얼리 위치는 그랜드 세이코의 장인 정신을 천명하는 일종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올해 다시 한번 놀라운 주얼리 위치를 공개했다. 바로 마스터피스 컬렉션 화이트 라이언이다. 모델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시계는 흰 사자의 강렬한 힘과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얻었다. 정교하게 마감한 플래티넘 케이스, 사자의 갈기를 표현한 다이얼 텍스처, 화이트 골드 레일 사이로 세팅한 26개의 블랙 스피넬과 총 5.97캐럿에 달하는 267개의 다이아몬드까지. 모든 세부가 그랜드 세이코의 미학과 예술성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사자의 심장에도 힘을 실었다. 여기에 탑재한 무브먼트는 스프링 드라이브 칼리버 9R01. 월 ±10초의 정확도를 자랑하며 세 개의 배럴로 무려 8일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한다. 5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 PIAGET

12/13

## Altiplano Ultimate Concept

울트라 신 분야에서 피아제가 일군 업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끊임없이 위치메이킹 한계에 도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해왔기 때문. 초박형 시계에 대한 이들의 열정과 노하우는 마침내 2018년 선보인 알티플라노 울티메이트 콘셉트에서 빛을 발했다. 무브먼트와 다이얼을 통합해 두께를 2mm로 줄인 이 시계는 말 그대로 울트라 신 설계의 혁신. 각 부품들의 건축적 요소는 마이크로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그 자체였다. 그리고 올해 피아제는 알티플라노 울티메이트 콘셉트의 새 버전으로 그 영광을 이어갔다. 전체적인 기능과 구조는 전작과 동일하다. 하지만 다이얼 배경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촘촘하게 슈퍼 루미노바를 박아 넣었다. 피아제 라코토펬 매뉴팩처에서 바라본 밤하늘의 모습을 모사한 것이다. 또 래킷 톱니바퀴 휠에는 매뉴팩처의 좌표를 새기고, 다이얼의 2시 30분 방향에는 시계가 처음 작동한 순간인 2017년 2월 7일을 새겨 넣었다. 그러니까 이 시계는 피아제의 여정이 시작된 라코토펬 매뉴팩처에 헌정하는 모델인 셈이다. 케이스 사이즈는 41mm. 새틴 브러싱 가공 처리한 코발트 기반 합금으로 완성했다.



PIAGET



‘여행자의 시간’이라고 이름 붙인 아쏘 르 땡 보야주는 월드타임에 대한 에르메스의 기발한 해석이 돋보이는 시계다. 아쏘 타임 서스펜디드, 아쏘 레흐 드라룬 같은 독창적인 에르메스 컴플리케이션의 계보를 잇는 모델이기도 하다. 크게 보자면 시침과 분침이 놓인 서브다이얼로 로컬 타임을, 12시 방향의 숫자 인디케이터로 홈 타임 시간을 알리는 구조인데, 표준시간대의 도시명을 새긴 링 덕분에 세계 시간까지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다. 작동법은 무척 간단하다. 케이스 9시 방향의 푸시 버튼을 누르면 서브다이얼이 15도씩 움직이며 시간대가 이동하는 것. 서브다이얼은 지도 위에서 위성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며 동시에 시침은 1시간씩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홈 타임 설정은 크라운으로 가능하다. 에르메스적인 상상력은 다이얼 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승마 세계의 지도’라 명명한 지도 모티브가 바로 그것이다. 지름 41mm의 플래티넘 버전과 38mm의 스틸 케이스 버전으로 출시한다.

Arceau Le Temps Voyage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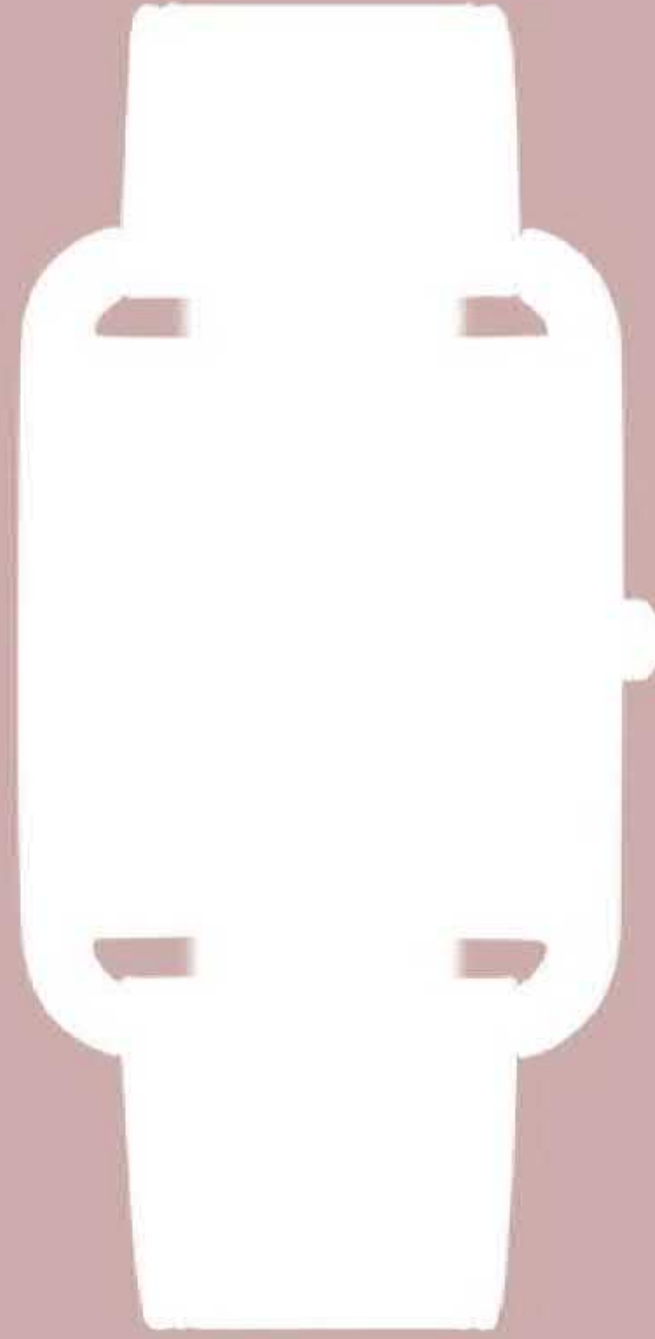
HERMÈS

13/13



Cape Cod Crepuscule

▶  
 케이프 코드 컬렉션에 특별한 다이얼이 추가됐다. 바로 스위스 전자 및 마이크로 기술센터(CSEM)와 2018년부터 공동개발에 착수해 완성한 실리콘 웨이퍼 다이얼이다. 실리콘 웨이퍼는 반도체 제작에 사용하는 소재로, 재료의 양에 따라 미묘하고 독특한 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두께 0.5mm 실리콘 플레이트 위에 72나노미터에 불과한 질화 규소 필름을 코팅하고, 이를 다시 블루 라이트에 노출해 패턴을 인쇄하는 포토리소그래피 단계까지 거쳐 완성한다. 다이얼의 모티브가 된 원작은 그래픽 아티스트 탄-퐁레(Thanh-Phong Le)의 '황혼'. 이를 바탕으로 완성된 결과물은 착용자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 오묘한 빛을 발한다. ●



INTERVIEW

**올해 신제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아쏘 르 명보야주다. 이 시계는 일반적인 월드타임 위치와 어떻게 다른가?**

월드타임은 하나의 기능일 뿐이다. 이 시계는 오히려 '세계의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다이얼 위에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행에 대한 에르메스식 해석을 여기에 담고자 했다. 기능면에서 이 시계는 전통적인 GMT와 월드타임 사이의 어떤 지점에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은 결코 전통적이지 않다. 서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에르메스적이라는 것이 시계가 특별한 이유다.

**이 시계를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시간을 알려주는 서브 다이얼이 위성처럼 도시를 부유하도록 만드는 것. 우리는 이 서브 다이얼이 지도 위에서 최대한 부드럽게 움직이기를 원했다. 작은 부품으로 조립하는 과정도 까다로웠고, 컴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설계에도 무척 신경을 썼다. 지금은 에르메스가 이 메커니즘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실리콘 웨이퍼 다이얼의 케이프 코드 역시 눈여겨볼 만한 신모델이다. 이런 방식의 다이얼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전에 못 본, 새로운 재질의 다이얼을 시도하고 싶었다. 다양한 방식을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로 실리콘 웨이퍼 다이얼을 선택했다. 재질이 매우 얇아 활용도가 높고, 그 위에 골드를 입힐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첨단 기술 재질과 전통적인 시계 제작 방식을 결합해서 흥미로운 결과물로 완성할 수 있었다. 또 에르메스 시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도 확인했다.



**PHILIPPE DELHOTAL**  
 필립 델로탈

에르메스 워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클래식한 방식도 좋지만 때론 기존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도 있다.

**확실히 이 시계는 새로운 버전의 메티에 다르라는 생각이 든다. 매우 현대적이면서 아름답고 또 에르메스적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신기술과 신소재를 사용한다고 해서 메티에 다르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다. 최첨단 기술과 미학적인 공예는 얼마든지 결합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예술의 발전은 기술의 발전과 궤를 함께해왔다. 장인의 수공 기술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것만이 고급 예술의 조건은 아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고 조화롭게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다른 시계에도 실리콘 웨이퍼 다이얼을 사용할 의향이 있나?**

아마도. 실리콘 웨이퍼 다이얼을 응용한 다이얼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를 테면 주얼 세팅이나

자개를 추가한 웨이퍼 다이얼이 될 수도 있다. 다른 재질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 더 예술적인 다이얼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 아이디어엔 한계가 없고, 그 무한함은 에르메스적인 상상력으로 이어진다.

**이번에는 남성 워치 H08 얘기를 해보자. 작년 H08을 대대적으로 론칭한 만큼 올해는 다양한 컴플리케이션 모델을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확실히 H08은 큰 성공을 거뒀다. 당연히 이 컬렉션은 더 발전하고 확장할 것이다. 다만 올해는 기존 라인업에 블루 버전만 추가했다. 앞으로 공개할 새로운 모델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

**H08을 제외하면 남성 시계엔 브레이슬릿 워치가 거의 없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지금까지는 가죽이나 패브릭 스트랩을 좀 더 선호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계의 전체적인 라인을 고려한 결정이기도 했다. H08은 시계가 가진 스포티함이 메탈 브레이슬릿과 잘 어울렸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브레이슬릿 모델을 소개한 것이다.

**에르메스다운 시계란 뭘까? 무엇이 에르메스 워치를 에르메스답게 만들까?**

시계에 담긴 각각의 스토리다. 케이프 코드나 아쏘가 승마 세계와 이어져 있듯, 우리의 모든 컬렉션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테마를 바탕으로 각 모델에 맞는 미적 시그니처를 발전시킨다. 때론 서정적으로, 때론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시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오브제가 된다. 그래서 에르메스의 시계는 딱 보면 안다. 이러한 독특함이 에르메스 워치를 다른 시계와 구분 짓는다.

HERMÈS





**WATCHES & WONDERS**  
**2022**





# INVITATION

내일의 문화유산을 위한 오늘의 공간, 아름지기 오픈하우스를 찾을 시간.

editor YOO JEONGSU(MEDIA LAB)

아름지기의 사옥 문이 활짝 열린다. 우리 문화의 정수를 찾아내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아름지기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하는 것. 아름지기 오픈하우스는 다양한 즐길 거리로 복작이다. 먼저 아름지기 통의동 사옥의 오픈하우스 1층에서는 창덕궁 대조전과 희정당 내 방치된 궁궐 근대 조명 기구에 1백년 만에 불을 켜고 공간을 재현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2층 한옥과 중정에서는 차가 한반도에 도래한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우리 차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오픈하우스의 대미는 '아름지기 기금 마련바자'가 장식한다. 2010년부터 진행해온 아름지기 기금 마련바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년간의 공백을 두고 맞는 터라 행사를 여는 소식이 더욱 반갑다. 2022 아름지기 기금 마련바자에서는 아름지기가 엄선한 패션 의류, 주얼리, 가구 및 생활용품, 식품, 플라워, 가드닝, 아트 앤 크래프트 등 약 30여 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바자회 수익금은 우리 전통 의식주 문화 연구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아름지기의 다양한 사업 기금으로 사용된다. 매년 아름지기 기획 전시를 통해 계절의 발자취를 느꼈다면, 이번 바자를 통해 한옥과 현대 건축물이 한데 어우러진 아름지기 사옥만의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 오픈하우스 일정

### 아름지기 미니 전시

기간 5월 10일(수)~25일(수)

### 아름지기 다점(茶店)

기간 5월 13일(금)~22일(일)

### 제10회아름지기기금마련바자

기간 5월 27일(금)~28일(토)

장소 아름지기 통의동 사옥(서울시 종로구 효자로17)

문의 | 재단법인 아름지기(www.arumjigi.org)



올해 워치스앤원더스에서 가장 풍성한 신제품을 공개한 까르띠에의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아르노 카레즈(Arnaud Carrez)를 만나 까르띠에 위치의 비전과 현재를 물었다. editor MIN BYUNGJOON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서, 까르띠에는 다른 세계 브랜드와 어떻게 다른가?

까르띠에는 형태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워치메이커다. 주얼러로 시작한 브랜드 헤리티지가 워치메이킹 비전에 창의성과 특별함을 불어넣는다. 우리는 지난 6년간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 그 결과 큰 성공을 거뒀다. 리테일 매출에 따른 시장 점유율에서 까르띠에가 세계 브랜드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한편 다채롭

고 폭넓은, 그러면서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제품군 또한 까르띠에를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하는 요소 중 하나다. 아이코닉한 컬렉션부터 독창적인 주얼리 워치, 메종의 기술력을 응집한 하이엔드 피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까지 모든 카테고리를 두루 아우른다.

까르띠에의 커뮤니케이션 포인트는 무엇인가?  
까르띠에의 크리에이션은 시대를 초월하며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오브제가 된다. 그래서 메종의 진실된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2년 전 론칭한 파샤 드 까르띠에 캠페인이 그 좋은 예다. ‘당신의 길을 개척하세요(Make Your Own Path)’라는 파샤의 슬로건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기존 고객은 물론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했다. 현재의 모든 이들을 관통하는 메시지가기 때문에.

지난 2~3년간 까르띠에 위치 고객과 타깃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까르띠에는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성장하며 더 많



은 고객을 접하게 되었다. 물리적인 제약으로 로컬 마켓에서의 결실 역시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 미국 시장의 로컬 고객 증가폭이 도드라진다. 한편 이커머스로 까르띠에 부티크를 찾는 고객은 대부분 신규 고객이다. 주얼리와 시계는 물론 액세서리 라인도 마찬가지다.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있나?

사실 우리는 젊은 고객층 유인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미 젊은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까르띠에 고객의 50% 이상이 밀레니얼세대이며,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까르띠에는 특정 세대에 국한하지 않는다.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보편적이다.

올해의 신제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쓰 미스터리어스다. 무브먼트 개발, 특히 트랜스미션이나 레귤레이터를 로터에 통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시계를 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

몇 가지 난제가 있었다. 첫 번째는 짐작할 수 있듯, 기술적인 어려움이었다. 회전하는 로터 안에 무브먼트를 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설계와 혁신적인 기술력이 요구됐다. 이 무브먼트를 완성하기까지 무려 8년이 걸렸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이 시계는 단순히 기술력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까르띠에의 상징적인 두 가지 컴플리케이션, 미스터리와 스키텔레톤을 결합해 아름다운 시계를 만들고 싶었다. 탁월한 기술력과 미학적 형태 사이의 완벽한 균형. 그것이 바로 까르띠에가 추구하는 가치다.

미스터리어스 무브먼트에 집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파인 워치메이킹 부문의 기술력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룹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도 있었다. 그 결과 이제 까르띠에는 정교한 무브먼트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더 많은 내부 자원을 보유하게 됐다. 만들 수

있는 시계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 얘기가. 하지만 동시에 ‘까르띠에적인 시계’에 대한 비전이나 해석도 조금 더 또렷하고 간결해졌다. 우리는 10년 전만 해도 매우 많은 신제품을 선보였으나, 이제는 까르띠에의 독창성을 표현하는 제품 개발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미스터리어스와 스키텔레톤 같은 컴플리케이션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에서도 이 시계를 만나볼 수 있을까?

마쓰 미스터리어스는 세 가지 버전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지만, 제작이 까다로워 많은 수량을 확보하긴 어렵다. 2016년에 론칭한 까르띠에 프리베 컬렉션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클로쉬드 까르띠에, 탱크 상트레, 탱크 아시메트릭 등 모든 에디션이 거의 공개와 동시에 판매되었고, 이미 이 시계 역시 많은 문의를 받았다.

꾸쌍 드 까르띠에에도 눈길을 끄는 신제품이다. 디자인에 영감을 준 역사적인 모델이 있나?

동일한 헤리티지 모델은 없지만, 디자인 영감은 메종의 풍성한 아카이브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까르띠에는 과거에도 이미 수차례 이런 쿠션 형태 위치를 선보인 적이 있다. 꾸쌍 드 까르띠에는 일반적인 쿠션 케이스보다 볼륨감을 강조한, 주얼리 위치의 캐릭터에 충실한 모델이다. 마이용 드 까르띠에의 계보를 잇는 시계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꾸쌍 드 까르띠에 리미티드 에디션의 감촉은 무척 놀랍다.

이 케이스를 눌러봤나? 처음 만져보는 사람은 모두 놀란다. 진짜 방수가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다. 살짝 말갱하면서도 유연한 케이스의 텍스처는 시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니까. 다이아몬드 세팅 또한 혁신적이다. 특히 다양한 컬러 스톤을 세팅한 그린&블루 버전은 더욱 강렬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지 않은, 좀 더 커머셜한 버전의 꾸쌍 드 까르띠에도 만날 수 있을까?

지금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향후 다양한 꾸쌍 드 까르띠에가 등장할 수도 있을 거다. “이후 더

무브먼트를 로터에 통합한 마쓰 미스터리어스 워치.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만 말해두는 것이 좋겠다.

이젠 새로운 탱크 얘기를 해보자. 지난해 선보인 레드와 블루, 그린 컬러 탱크 머스트에 이어 이번에는 블랙 다이얼이 등장했다.

맞다. 지난해 선보인 블루, 그린, 레드 버전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 중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역시 급등했다. 기대했던 것 이상의 반응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이 탱크 머스트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는 블랙 다이얼을 선보였다. 이 시계는 1970~1980년대 탱크 머스트의 빈티지한 감성을 오롯이 담고 있다.

동일한 빈티지 블랙 다이얼을 탱크 머스트와 탱크 루이 까르띠에 두 가지 모델로 선보이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탱크 머스트는 스틸 케이스의 퀴츠 모델로, 탱크 루이 까르띠에는 옐로 골드 케이스의 기계식 무브먼트 모델로 출시한다. 탱크 머스트의 전체적인 형태가 탱크 루이 까르띠에와 유사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일관된 철학을 유지한다. 이는 탱크 머스트를 론칭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기존의 탱크 솔로가 탱크 루이 까르띠에와 다른 디자인을 지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두 디자인 모두 아름답기를 원하기도 했고.

어제 프레젠테이션 이후, 탱크 루이 까르띠에 블랙 다이얼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많은 이들이 “이 예쁜 빈티지 까르띠에는 뭐냐”고 물었다. 많은 사람이 언제 이 시계가 론칭하는지 궁금해한다.

이러한 제품은 등장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산토스나 팬더 드 까르띠에처럼 역사적인 아이콘을 재해석해 현대적인 피스로 귀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선 9월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두가 이 시계를 선점하기 위해 뛰어갈 테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다. ●



주얼 세팅이 돋보이는 꾸쌍 드 까르띠에.



# 아이콘의 탄생

대담하고 스포티한 동시에 클래식하다.

editor KIM SOYEON(MEDIA LAB)

photographer CHUNG WOORYOUNG

스포츠한 디자인과 기술력을 담은 '2022 태그호이어 까레라x포르쉐 리미티드 에디션'.



태그호이어가 '2022 태그호이어 까레라x포르쉐 워치'를 새롭게 선보였다.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들의 협업은 고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까레라'는 모터 레이싱이라는 공통된 DNA로부터 시작된 두 브랜드의 상징적 모델이다. 특히 이번 모델은 이전 버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한눈에 봐도 태그호이어와 포르쉐의 협업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눈에 띈다. 포르쉐의 아이콘적인 옐로 컬러를 포르쉐 로고, 크라운의 래커, 다이얼, 초침에 사용했고, 어둠 속에서도 노란색으로 빛나는 슈퍼 루미노바를 적용했다. 포르쉐의 카시트 커버에서 영감을 받은 스트랩은 컬러 스티칭과 라이닝이 블랙 레더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포르쉐의 메탈릭한 차체처럼 반짝이는 효과를 더한 다이얼과 두 개의 크로노그래프 서브 카운터에 적용된 아스팔트 효과는 경주 트랙을 묘사하여 레이싱 정신을 강조한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공개하는 이번 태그호이어 까레라x포르쉐는 백 케이스에 'One of 1500'을 각인하여 희소성을 높였다. 에디션의 전반적인 컬러 코드를 적용한 특별 제작 패키지에 판매될 예정이다.





1969 오리지널 모델에 최신 기술을 탑재한 '뉴 모나코 칼리버 11 리에디션'.

1969년 스위스 워치메이킹 역사 최초의 사각형 방수 시계 '호이어 모나코'. 독보적인 실루엣으로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모나코 컬렉션이 출시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탄생했다. '모나코 칼리버 11 리에디션'은 지름 39mm 사이즈, 왼쪽에 위치한 크라운, 전설적인 페트롤리움 블루 다이얼과 두 개의 화이트 카운터, 다이아몬드로 폴리싱한 수평의 아워 인덱스, 빈티지 '호이어(Heuer)' 로고 각인, 날짜 기능을 갖춘 칼리버 11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와 100m 방수 기능 모두 오리지널 모나코의 특징을 갖췄다. 시계의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탑재된 크라운은 와인딩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출시 당시 화제를 모았다. 시계 내부에 탑재된 크로노매틱 칼리버 11 무브먼트는 워치메이킹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판매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로 기능 면에서도 브랜드의 혁신적인 DNA를 나타낸다. 사각형 프레임의 모양을 더욱 강조하고 2시와 4시 방향에 위치한 두 개의 푸시버튼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러그는 조금 더 크게, 소가죽 스트랩에는 펀칭 디테일을 가미했다. 또한 글라스의 경우 사파이어 크리스털로 되어 있어 오픈된 백케이스를 통해 칼리버의 모든 움직임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Brilliant Watch

예술품처럼 견고하고 정교하다.  
대담해져 돌아온 미도 멀티포트 스텔레톤 버티고.  
editor AN HYEMI(MEDIA LAB)







미도 특유의 메커니즘과 미학으로 완성한 멀티포트 스킼레톤 버티고 컬렉션.

스위스 워치 브랜드 미도에서 멀티포트 스킼레톤 버티고를 새롭게 출시했다. 클래식한 스타일과 정교해진 워치메이킹으로 한층 대담해져 돌아왔다. 이번 컬렉션은 스킼레톤으로 처리된 플레이트로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정수를 보여준다. 멀티포트 스킼레톤 버티고는 시드니 하버 브리지에서 영감을 받았다. 1930년대부터 이어져온 이 제품이 실제로 하버 브리지와 동시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멀티포트의 견고한 외관은 오랜 시간을 견뎌온 건축물과 닮아 있는 듯하다. 특히 다이얼의 제네바 스트라이프 패턴은 하버 브리지의 서스펜션 케이블을 연상시킨다.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디테일에서도 미도의 정교함을 발견할 수 있다. 제네바 스트라이프가 화이트 슈퍼 루미노바로 장식된 인덱스와 중앙 미닛 트랙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은 물론, 3면의 시침과 분침 그리

고 다이아몬드로 커팅 처리된 플랫폼 초침이 가독성을 높였다.

멀티포트 스킼레톤 버티고는 업그레이드된 기능도 주목할 만하다. 최대 10바(bar)의 방수 기능을 갖췄으며, 칼리버 80이 80시간 파워리저브를 제공한다. 게다가 시계의 정확성을 위해 자기장의 영향을 줄이고 탁월한 내성을 제공하는 니바크론 밸런스 스프링까지 장착했다. 이 모든 조화는 투명한 백 케이스로 오토매틱 무브먼트와 함께 확인해볼 수 있다. 이번 컬렉션은 누구나 쉽게 시계를 다룰 수 있도록 스크루 고정 방식의 백 케이스와 크라운이 있는 직경 42mm 케이스 그리고 폴딩 버클이 있는 스트랩으로 선보인다. 스트랩의 경우 스틸과 브라운 가죽, 패브릭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멀티포트 스킼레톤 스틸 스트랩 138만원 미도.



멀티포트 스킼레톤 패브릭 스트랩, 브라운 가죽 스트랩 모두 142만원 미도.



# TIME IN MODERNISM

과거와 현재가 만나 더욱 강렬하고 대담해진 해밀턴의 새로운 타임피스, 재스마스터 오픈 하트 오토매틱.

freelance editor NOH HAENA(MEDIA LAB)







일상의 품격을 중시하는 모든 이를 위한 해밀턴의 타임피스. 그중에서도 도시의 화려한 불빛으로 둘러싸인 거리, 사무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난 휴양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어우러지는 재즈마스터 오픈 하트 오토매틱이 새로운 모습으로 그 자태를 뽐낸다. 클래식한 드레스 워치였던 재즈마스터 오픈 하트 오토매틱은 대담한 컷아웃 디자인과 그레데이션된 다이얼, 파티나를 살린 가죽 스트랩을 더해 모던한 타임피스로 변모했다. 기존 42mm 모델의 실버 화이트 다이얼, 블루 프레임 핸즈, 딥 블루 레더 스트랩 버전에 이은 40mm 모델로 시계 전체에 깊이감을 더하는 미드나이트 블루 및 딥 그린 컬러로 그레데이션된 다이얼이 자리한다. 정교한 패턴으로 완성된 다이얼 오프닝을 통해 시계에 탑재된 강력한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으며, 이는 내부 구조와 외부 디자인 모두에서 탁월한 수준의 워치메이킹 기술을 보여준다. 파티나를 살린 스모키다크 브라운 가죽 스트랩과 스테인리스스틸 브레이슬릿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80시간의 파워리저브, 정확한 시간을 전달하는 최첨단 항자성 합금인 니바크론® 소재의 밸런스 스프링이 장착된 오토매틱 무브먼트 H-10 칼리버까지 탑재해 어느 곳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타임피스가 바로 해밀턴 재즈마스터 오픈 하트 오토매틱이다. 이미 42mm 모델로 출시된 실버 화이트 다이얼과 블루 프레임 핸즈, 딥 블루 가죽 스트랩 버전은 새로운 40mm 재즈마스터 오픈 하트 오토매틱 모델로도 만나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28일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열린 신제품 소개 행사를 통해 그 모습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롭게 출시하는 세 가지 타임피스 컬렉션도 함께 선보였다.

1970년 최초의 디지털 시계로서 해밀턴의 혁신적인 유산으로 자리 잡은 PSR 컬렉션은 하이브리드 LCD 및 OLED 시스템이 탑재된 밝은 레드 도트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와 깔끔한 올 블랙 컬러 스테인리스스틸 소재가 모던 퓨처리즘의 정수를 보여준

다. PSR의 특징으로 손꼽히는 사이드 버튼을 누르면 단숨에 최대 밝기로 시간이 표시된다. 봄을 맞이하는 여성들을 위한 워치로 청량한 터콰이즈, 햇살을 머금은 코랄빛의 컬러풀한 스트랩과 로마 숫자 다이얼의 아드모어 퀴츠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해밀턴의 색다른 매력을 자랑하는 아메리칸 클래식 스타일의 워치로서 세련된 느낌의 데일리 스타일을 완성해준다. 계단식 직사각형 케이스, 아르데코 스타일의 러닝 세컨즈 서브 다이얼이 조화롭다. 42mm 사이즈의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던 이전 모델에 새롭게 38mm 사이즈가 추가되었다. 각각 브러싱 처리된 케이스에 블랙 다이얼과 카키 누벅 스트랩 버전, 브러싱 처리된 케이스에 카키 다이얼과 브라운 누벅 스트랩 버전, 블랙 PVD 코팅

케이스에 콘크리트를 연상시키는 그레이 다이얼과 그레이 누벅 스트랩 버전으로 완성된 카키 필드 티타늄 컬렉션. 이와 함께 브러싱 처리된 케이스에 카키 다이얼과 브라운 누벅 스트랩 또는 브러싱 처리된 케이스에 블루 다이얼과 베이지 누벅 스트랩의 조합으로 두 가지 새로운 42mm 모델이 출시된다. 20세기 동안 여러 군대를 위해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타임피스를 제공해왔던 해밀턴의 유산인 만큼 핸즈와 12시간 숫자에는 고급 슈퍼 루미노바® 코팅을 더해 한눈에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통적인 군용 시계의 사양을 반영하여 24시간 눈금 표시도 가능하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해밀턴의 워치 컬렉션은 워치 마니아들의 마음을 빼앗을 준비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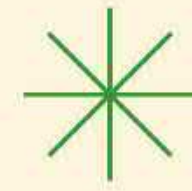


1 블랙 다이얼과 카키 누벅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의 카키 필드 티타늄 오토 38MM. 2 터콰이즈 컬러의 스트랩과 인덱스로 포인트를 준 아드모어 퀴츠. 3 새로운 올 블랙 컬러의 PSR.





# ELLE NEWSLETTER



여성의 삶, 내 고민에 레퍼런스가 필요할 때

에  
르

보  
이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황선우 작가  
<관찰지 않습니다> 최지은 작가  
소설가 김초엽과 천선란  
팟캐스트 <비혼세> 곽민지  
유튜버 김겨울  
심수미 기자와 임현주 아나운서...

이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를 격주 화요일에 만나 보세요!



# GEAR FOR TRAVEL

세계 여행자를 위한 프레드릭 콘스탄트 하이라이프 월드타이머 매뉴팩처.

editor JUNG JIEUN(MEDIA LAB)



6시 방향으로는 날짜, 시, 분, 표시 기능을 단일 크라운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됐다. 시침과 분침은 야광 처리되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높은 가독성을 자랑한다.

프레드릭 콘스탄트 하이라이프 월드타이머 매뉴팩처의 시스루 백 케이스를 통해 브랜드의 독자적인 무브먼트를 확인할 수 있다. 백 케이스 뒤로 매뉴팩처의 장인들에 의해 수공으로 장식된 코트 드 제네바(호수 안으로 밀려드는 잔물결을 모티브로 한 장식)와 페를라주(작은 원을 포개 문양)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근사한 디자인과 메커니즘의 조화를 보여주는 하이라이프 월드타이머 매뉴팩처는 교체 가능한 통합형 스트랩을 제공한다. 세 개의 링크로 연결되어 접을 수 있는 버클이 있는 폴리싱과 새틴 마감 처리된 스테인리스스틸 소재가 기본 스트랩이다. 여기에 부드러운 블루 컬러 나뭇가지 가죽으로 마감한 다크 블루 송아지 가죽 스트랩과 도회적인 느낌을 강조한 고무 소재 블루 스트랩까지 세 가지 스타일의 스트랩을 만나볼 수 있다. 브레이슬릿과 스트랩은 퀵 체인지 시스템을 적용해 누구나 쉽게 교체할 수 있다.

하이라이프 월드타이머 매뉴팩처의 표면은 고도의 폴리싱 처리로 되어 있으며 수심 50m까지 방수가 가능하다.

41mm 매뉴팩처 오토매틱 5백만원대 프레드릭 콘스탄트.



프레드릭 콘스탄트에서 세계 여행자를 위한 시계 하이라이프 월드타이머 매뉴팩처를 출시했다. 오랫동안 시계 제작 기술을 발전시켜온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통합형 매뉴팩처로 자리 잡으며 30개의 무브먼트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 하이라이프 월드타이머 매뉴팩처는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 잡은 매뉴팩처의 노하우를 집약했다. 브랜드 매뉴팩처와 자체 무브먼트 FC-718이 조화를 이루는 부분은 브랜드 기술력과 미학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직접 설계하고 생산 및 조립

한 FC-718 매뉴팩처 칼리버는 진동수 4헤르츠, 파워리저브 약 42시간으로 모던함, 정확성, 신뢰성을 두루 갖췄다.

41mm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 다이얼 외곽에는 제네바부터 뉴욕까지 세계 주요 타임존에 해당하는 24개 도시의 세계 표준 시간대를 나타내는 디스크가 자리한다. 안쪽으로는 화이트와 딥블루 컬러의 디스크 링이 낮과 밤의 인디케이터 역할을 한다. 낮 시간대인 도시에 해당하는 브라이트 존에는 12시간, 밤 시간대인 도시에 해당하는 블루 존에는 12시간이 새겨져 있는 내부 디스크를 탑재했다.



실크 셔츠, 하이라이즈 팬츠,  
톱 햇, 벨트,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Opposite Page)  
시스루 셔츠, 스팅글  
디스트로이드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디스퀘어드2. 부츠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셔츠를 활짝 풀어헤친 오후.

editor KO DONGHUI photographer MOK JUNGWOOK

# Unbutto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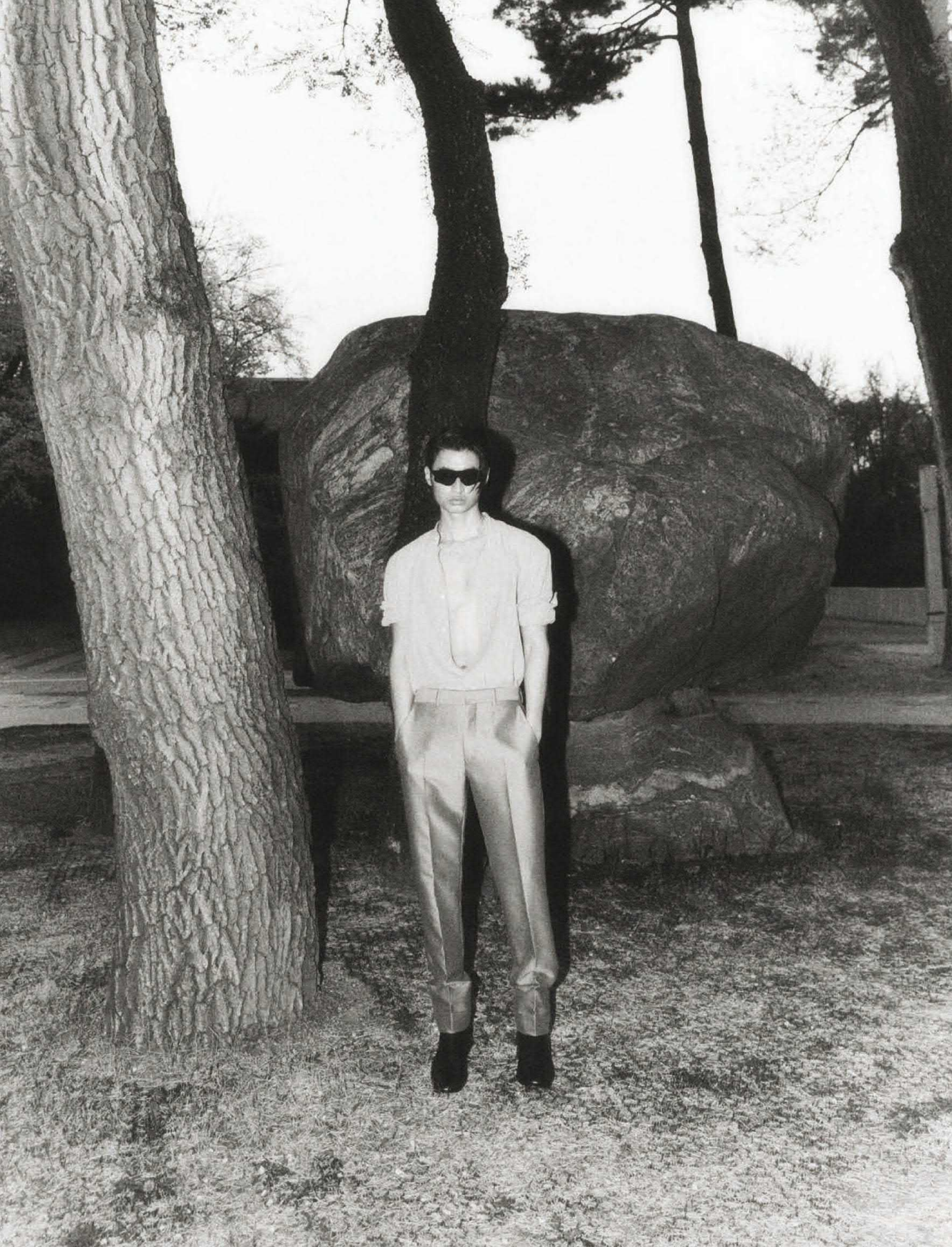




솔칼라 재킷 294만원,  
하와이안 셔츠 136만원,  
레깅스 105만원, 카우보이  
해트 114만원 모두 구찌.  
컴뱃 부츠 171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Opposite Page)  
바로크 & 로고 프린트 셔츠  
100만원대 펜디. 와이드  
데님 팬츠 가격 미정 셀린느  
옴므 by 에디 슬리먼. 벨트  
4만9000원 리바이스. 부츠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발라클라바 가격  
미정 스테판 스텐다.









페이즐리 셔츠 가격 미정  
에트로, 로고 스웬 쇼츠  
45만원 JW 앤더슨.  
선글라스 30만원대 오클리.

(Opposite Page)  
스탠드칼라 셔츠, 팬츠,  
첼시 부츠 모두 가격 미정 톰  
포드. 선글라스 20만원대  
오클리. 네크리스 에디터  
소장품.





크롭트 셔츠, 치노 팬츠,  
벨트, 브리프 모두 가격 미정  
미우미우. 네크리스 에디터  
소장품.

(Opposite Page)  
실크 셔츠 105만원, 실크  
팬츠 98만원 모두 김서룡.  
선글라스 20만원대 오클리.







새틴 재킷 가격 미정 아미.  
언밸런스 셔츠,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셀린느 움프 by 에디  
슬리먼.

(Opposite Page)

아카이브 프린트 셔츠  
270만원 발렌티노. 데님 팬츠  
13만9000원 아모멘토. 로퍼  
가격 미정 돌체앤가바나.  
벨트 가격 미정 디스퀘어드2.  
네크리스 60만원대 펜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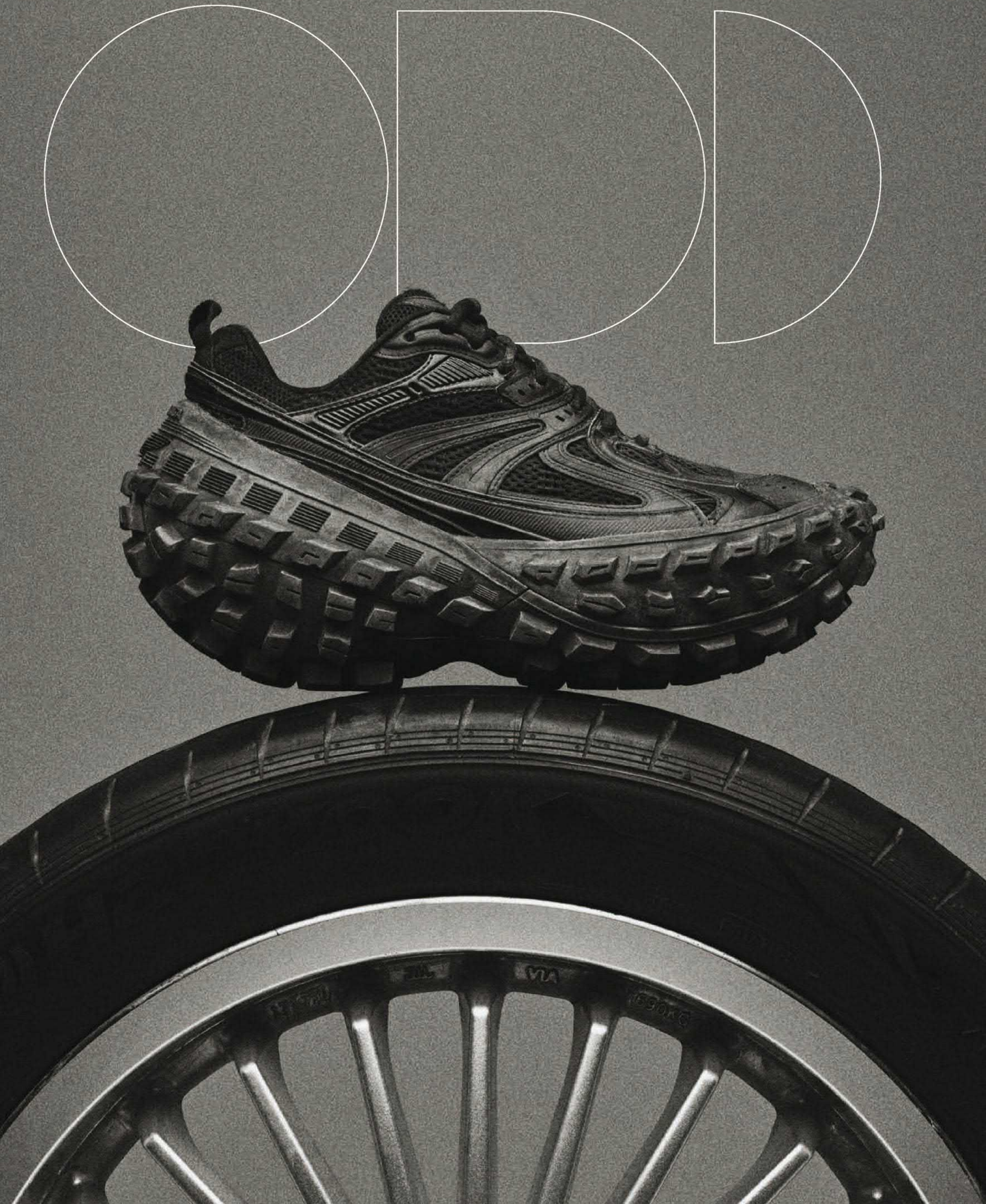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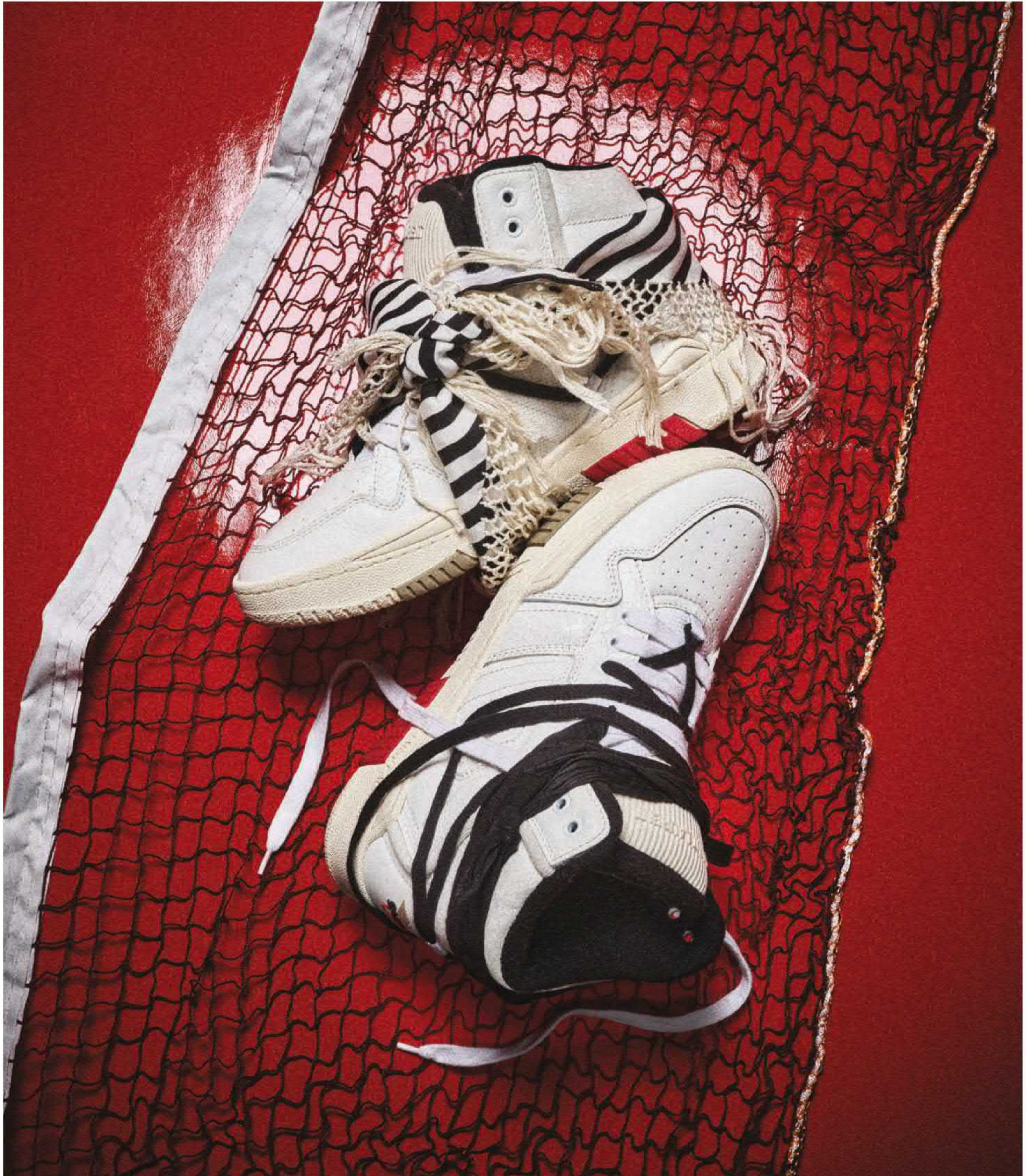


생경할 만큼 개성적인, 비범할 정도로 특별한 뉴 스니커즈 6.

editor YUN WOONGHEE photographer CHUNG WOORYOUNG







스트라이프 패브릭과 네트 디테일의 스미스 스니커즈 300만원대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Opposite Page)

아웃솔이 타이어를 연상케 하는 디펜더 스니커즈 134만5000원 발렌시아가.









독특한 짜임이 돋보이는 크로셰 스니커즈 123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Opposite Page)

거울 같은 표면의 실버 LV 트레이너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체인과 그래피티로 장식한 CT-01 Z 트레이너 가격 미정 셀린느 옴므 by 에디 슬리먼.

(Opposite Page)

라텍스를 덮어놓은 듯한 모뉴멘탈 멜로우 로 슈즈 88만원 지방시.







We are  
who we are



(왼쪽) 도스킨 울 재킷 가격  
미정, 플로셔츠 14만원대,  
시어셔커 패치워크 팬츠  
41만원대, 버킷 햇트 가격  
미정 모두 폴로 랄프 로렌.  
(오른쪽) 데님 팬츠 가격  
미정 폴로 랄프 로렌.







폴로셔츠 14만원대,  
시어서커 체크 슈트 팬츠  
23만원대, 트릴 폴로 캡  
6만원대, 체크 타이 가격 미정  
모두 폴로 랄프 로렌.





(왼쪽) 크리켓 베스트 49만원대, 메시 폴로셔츠 25만원대, 쇼츠 가격 미정, 하이톱 레더 스니커즈 17만원대, 삭스 가격 미정 모두 폴로 랄프 로렌.  
 (오른쪽) 재킷 35만원대, 폴로셔츠 14만원대, 스트레치 포폴린 쇼츠 13만원대, 플립플롭 4만원대 모두 폴로 랄프 로렌.



폴로셔츠 14만원대 폴로 랄프 로렌.





(왼쪽) 폴로셔츠 14만원대 폴로 랄프 로렌. (가운데) 폴로셔츠 14만원대, 허리에 두른 스웨터 23만원대, 데님 팬츠 가격 미정, 버킷 햇 8만원대 모두 폴로 랄프 로렌.  
(오른쪽) 폴로셔츠 14만원대, 쇼츠 가격 미정 모두 폴로 랄프 로렌.





크리켓 베스트 49만원대, 메시  
폴로셔츠 25만원대, 쇼츠 가격  
미정, 레더 하이톱 스니커즈  
17만원대, 삭스 가격 미정 모두  
폴로 랄프 로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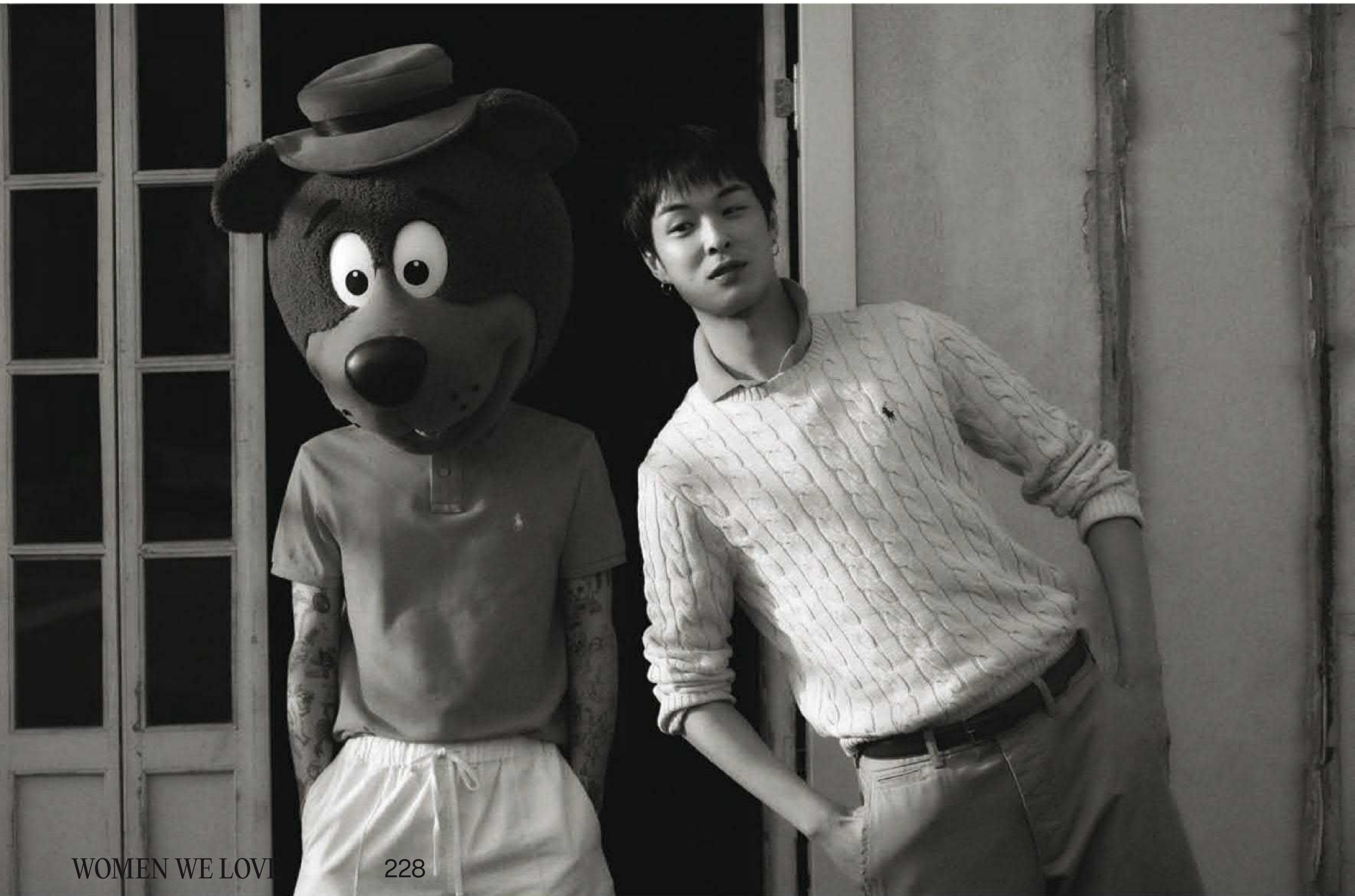






폴로셔츠 14만원대, 체크 셔츠  
17만원대, 쇼츠 가격 미정, 하이탑  
레더 스니커즈 17만원대, 삭스 가격  
미정 모두 폴로 랄프 로렌.

(왼쪽) 폴로셔츠, 쇼츠 모두  
가격 미정 모두 폴로 랄프 로렌.  
(오른쪽) 스웨터, 폴로셔츠,  
치노 팬츠, 벨트 모두 가격 미정  
폴로 랄프 로렌.





코튼 니트 베스트 가격 미정,  
폴로셔츠 14만원대 모두  
폴로 란프 로렌.







윈드브레이커 재킷 35만원대,  
메시 폴로셔츠 25만원대,  
플리즈 울 팬츠 가격 미정 모두  
폴로 랄프 로렌.





데님 재킷 가격 미정, 플로서즈 14만원대, 이너 셔츠 가격 미정, 데님 팬츠 가격 미정, 스니커즈 가격 미정 모두 폴로 랄프 로렌.





# SHOW YOUR UNDIES

팬츠를 슬쩍 내려 벨트 라인 위로 브리프나 트렁크가 보이게 입는다. 속옷 안으로 상의 아랫자락을 폭 찢어 넣어 속옷을 대범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가장 쿨한 방식.



DOLCE & GABBANA



ALLED MARTINEZ



ALLED MARTINEZ



DIESEL

# LITTLE BUT

런웨이에서 찾은  
비범하고도 색다르게 입는  
12가지 방법.

editor  
KO DONGHUI

# BIG



JACQUEMUS

## HANGING OUT

선글라스, 작은 지갑, 열쇠, 라이터...  
벨트 고리에 사사로운 물건을  
경쾌하게 단다. 여름의 추억과 흔적처럼.



LOUIS VUITTON



JACQUEMUS



BRIONI



# ROLL ME UP

루스한 실루엣의 팬츠를 둘둘 걷고 플립플롭을 신는다. 우아하고 편안하게, 클래식한 스타일을 트위스트하는 효과적인 방법.

GMBH



TOM FORD



TOM FORD

TOM FORD



# TIE UP

셔츠의 밑단을 대수롭지 않게 묶는다. 여름밤을 위한 슈트 차림에 적용하면 더 짜릿하다.

# SHORTS & BOOTS

짧은 쇼츠에 목이 높은 컴뱃 부츠를 신는다. 쇼츠를 더 강렬하고 화끈하게 입는 방법.

ETRO



ETRO

# WIDE OPEN

셔츠 단추를 평소보다 두세 개쯤 더 푼다. 탄탄한 가슴이야말로 여름 최고의 액세서리.

SAINT LAURENT



PHIPPS

ACNE STUDIOS



# VERY BIG BELT

큼지막한 로고 장식의 버클 벨트로 포인트를 준다.  
2000년대 패션의 귀환.



DOLCE & GABBANA



DIESEL



BALENCIAGA



BALENCIAGA



VALENTINO



NANUSHKA



AMIRI



VERSACE

# PAJAMAS EVERYWHERE

파자마를 세트로 맞춰 입는다.  
진짜 파자마처럼 실키하고 화려한 것일수록 좋다.



VERSACE

## FUN FANNY PACK

가방이 거추장스러울 때는 패니 팩만 한 것도 없다.  
이왕이면 로고 장식이나 프린트가 강렬한 것으로 고를 것.

DIESEL



DIOR MEN



PHIPPS

GUCCI

## MEN IN TIGHTS

맨다리가 아닌 레깅스를. 쇼츠에 레깅스를 입는다.  
포멀한 쇼츠나 스포티한 쇼츠 어떤 것도 상관없다.



VERSACE



JW ANDERSON



JW ANDERSON



VTMNTS



### LET'S SL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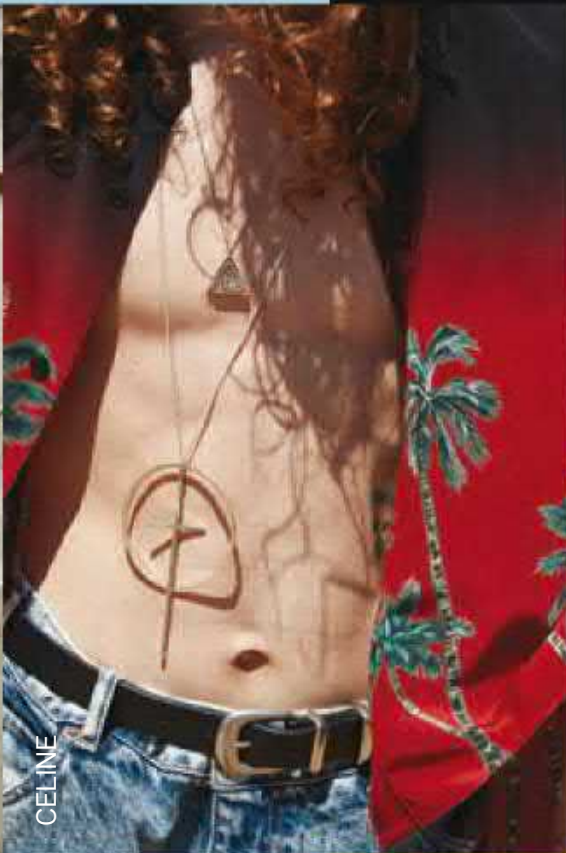
슬라이드에 스포츠 양말을 신는 어글리한 패션마저  
화끈하게 등장했다. 양말은 컬러와 프린트가 화려하면 더 좋다.

## ART OF LAYERING

길이와 뉘앙스가 서로 다른 네크리스를  
여러 개 레이어드해 별거 아닌 룩에 포인트를 준다.  
비즈와 골드처럼 소재가 다른 것도 좋다.



SAINT LAURENT



CELINE



VERSACE

VERSACE



# PUT

# IT

# ON

기분과 취향에 따라 다르게 쓰는 각양각색 캡 10.

editor KIM YUJIN

photographer CHANG KIPYUNG



데님 재킷 가격 미정 메종 마르제엘라 by 미스터 포터. 셔츠 에디터 소장품. 스웨트 팬츠 17만원대,  
타이 가격 미정 모두 폴로 랄프 로렌. 로퍼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네이비 예일 캡 7만2000원 이벳필드 by 블루스맨.



블랙 재킷, 셔츠,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디올 맨. 옐로 고글 캡 18만9000원 써피킵퍼나.



레드 저지 톱 25만9000원 말본콜프, 팬츠 가격 미정 디올 맨. 블랙 메시 캡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선글라스 28만 원 쉐틀본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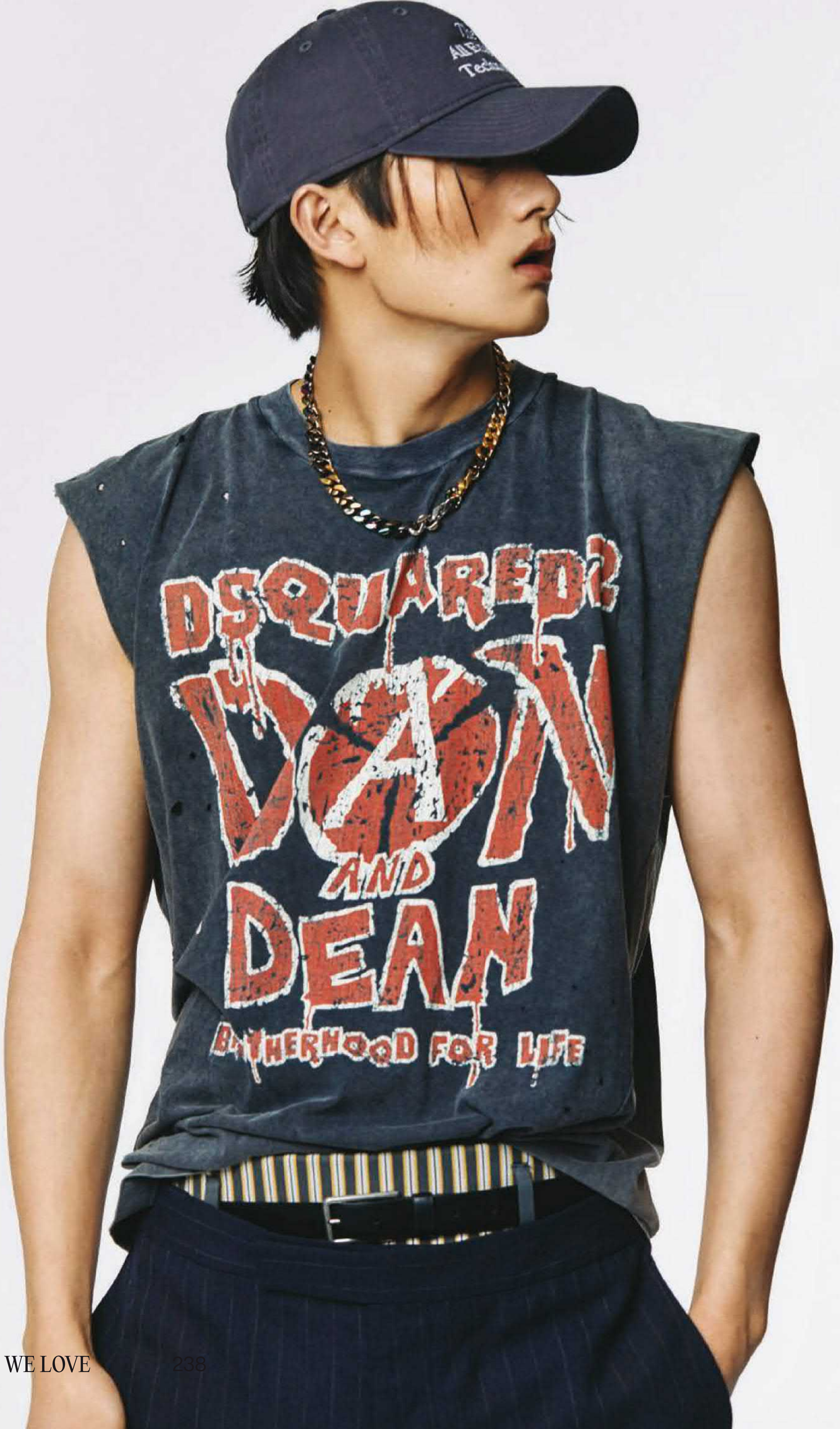
니트 베스트 가격 미정 에트로. 티셔츠 66만원 구찌. 네크리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코듀로이 로고 캡 13만원 032C by 저 스트리트 494 옴므 플러스.



체크 재킷 294만원, 티셔츠 66만원 모두 구찌. 팬츠 가격 미정 디올 맨. 레드 로고 캡 2만9000원 나이키. 안경 31만6000원 프라다 by 록소티카. 로퍼 가격 미정 처치스.



슬리브리스 59만원 디스퀘어드2. 쇼츠, 팬츠, 벨트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레터링 캡 6만3000원 IDEA by 하이즈 스토어.  
체인 네크리스 가격 미정 루이비통.





크롭트 니트, 셔츠, 팬츠, 벨트, 로고 캡  
모두 가격 미정 미우미우.



체크 셔츠 19만원대 플로랄프 로렌 로고 캡 가격 미정 데켓.  
안경 52만6000원 올리버 피플스 by 루스타카.



체크 코트 가격 미정, 티셔츠 가격 미정, 그래픽 프린팅 캡 66만5000원 모두 지방시.  
이어링 가격 미정 루이비통.



베이지 블루종 39만8000원 레토. 스웨트셔츠 34만5000원 JW앤더슨. 셔츠 가격 미정 드리스 반 노튼 by 미스타포터.  
블루 쇼츠 가격 미정 플로랄프 로렌. 핑크 로고 캡 가격 미정 디스퀘어2.





# ALL ABOUT DENIM

데님을 둘러싼  
사소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  
를 모두 담았다.

editor  
LIMILWOONG  
photographer  
KIMHYUNDONG

HANDBOOK



미국 켄터키주의 오래된 담배 농장에서 발견된 데님 팬츠로 1860년대에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빈티지 전문 헌터를 통해 구매했다. 데님 팬츠 유티브 & 블로그 '진짜야만돼' 운영자 유니온 메이드 소장품.



## DENIM

데님이라는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존재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설은 19세기에 서지 드 님스(Serge De' Nimes)라는 원단이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부르기 쉽게 '데님(denim)'이 된 것. 데님 팬츠는 3×1 혹은 2×1 조직으로 짠 능직물을 서로 엮어 만든다. 과거에는 100% 면 혹은 면과 울의 혼방 소재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울과 실크를 조합한 소재를 주로 사용한다.

## 세계 최초의 데님 팬츠

리바이스가 최초로 데님 팬츠를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 브랜드가 처음 등장한 1873년 이전에도 데님 팬츠는 존재했다. 데님 팬츠는 19세기 초반부터 미국 전역에서 작업복으로 입었다. 미국 켄터키주에는 데님 팬츠를 입는 노동자가 특히나 많아서였는지, 데님 팬츠를 '켄터키 진(Kentucky Jeans)'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리바이스는 정확히는 데님 팬츠의 바지 주머니를 고정하는 '리벳(rivet)'을 처음 만든 브랜드 중 하나다.

## 디테일

### 리벳(Rivet)



본래는 마구에 사용하던 못과 철판을 의미한다. 데님 팬츠의 주머니 양옆을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사용했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 스티치를 두껍게 박아 넣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 위치 포켓(Watch Pocket)



회중시계를 편리하게 휴대하기 위해 만든 주머니. 지금은 코인 포켓으로도 불린다.

### 요크(Yoke)



데님 팬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몸판의 윗부분을 잘라 덧댄 역삼각형 모양의 디테일. 데님 팬츠에 입체감을 더해 활동하기 편한 형태를 완성한다.

### 셀비지(Selvedge)



구식 방식으로 원단을 직조할 때 생기는 원단의 하얀 가장자리. 원단이 풀리지 않도록 양 끝에 스티치로 마감한 것이 특징이다.

셀비지 데님 팬츠 26만9000원 데밀.

## Q&A

### 01\_ 데님 팬츠(Denim Pants) VS 진(Jeans)

데님 팬츠가 데님 소재로 만든 바지를 뜻한다면, 진은 그중에서도 '요크'라는 디테일을 갖춘 바지를 의미한다. 요크는 바지에 입체감을 더하는 디테일로, 곡선으로 이뤄진 신체의 활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마치 치노 팬츠나 슈트의 트라우저에 다트와 턱으로 볼륨감을 더하는 것처럼. 요크가 없는 데님 팬츠는 진보다는 덩거리(Dungarees)나 트라우저로 분류한다.

### 02\_ 셀비지의 탄생

구식 방식기에서 원단을 직조할 때 생기는 하얀 가장자리. 원단은 경사(길이 방향으로 뻗은 실)를 고정 한 채로 위사(폭 방향으로 뻗은 실)를 교차해 완성한다. 구식 방식을 사용하면 위사를 감은 실패를 경사 사이로 통과시키고, 그 실을 끊지 않고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작업을 반복한다. 이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원단 끝의 하얀 매듭을 'Self Finished Edge'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줄여 셀비지(Selvedge)라는 이름이 붙었다.

### 03\_ 셀비지 데님 팬츠에 레드 스티치가 있는 이유

셀비지 데님 팬츠의 상징이 된 레드 스티치는 원단 브랜드 콘밀스(Cone Mills)에서 처음 만들었다. 콘밀스는 1915년 리바이스와 XX데님 원단의 단독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1927년에 다른 업체 원단과의 차별화를 위해 셀비지 라인에 레드 스티치를 넣기 시작했다. XX데님은 콘밀스의 프리미엄 원단 중 하나로 높은 내구성이 특징이다. 지금은 다양한 브랜드에서 오렌지, 블랙 등 다채로운 컬러의 스티치를 더해 개

성을 표현하는 디테일로 사용되기도 한다.

### 04\_ 셀비지 데님 팬츠가 비싼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원단에 비해 제작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셀비지 원단을 만들 때는 구식 방식을 사용하는데, 신식 방식기에 비해 한 번에 짤 수 있는 원단의 양도 적고,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린다. 셀비지 데님이 다른 데님에 비해 반드시 품질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식 방식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완성되는 원단의 색깔과 디테일의 미묘한 차이를 감상하는 매력이 있다.

### 05\_ 생소한 데님 팬츠 용어 - 생지 데님

생지는 일본어로 '원단'이라는 뜻의 '키지'에서 온 단어로 생 원단을 뜻하는 의미로 해석되어 혼용되고 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로 데님(raw denim)이다.

### - 온스(Ounce)

데님의 두께를 말하는 가장 보편적인 단위. 일반적으로 12온스 이하의 데님은 라이트 웨이트, 12~16온스는 미드 웨이트, 그 이상은 헤비 웨이트로 나눈다.

### - 웨이스트 오버올(Waist Overall)

리바이스가 진(jeans)의 노동자들이 입는 옷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사용하던 단어. 1960년대 젊은 층 사이에서 진(jeans)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자, 그때부터 리바이스에서도 데님 팬츠를 진(jeans)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 - 리벳티드 웨이스트 오버올 (Riveted Waist Overall)

리바이스가 다른 브랜드와는 달리 리벳을 더한 진을 출시하며 만든 단어.

### - 파이브 포켓 트라우저

### (Five Pocket Trouser)

데님 팬츠를 부르는 또 다른 단어. 5개의 주머니(앞뒤 양면의 포켓 4개와 오른쪽의 위치 포켓 1개)는 진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 06\_ 가장 비싼 데님 팬츠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1890년에 만들어진 리바이스 데님 팬츠. 익명의 말레이시아 데님 컬렉터가 2018년에 한화 약 1억3000만원에 구매했다. 놀라운 사실은 요즘 출시하는 데님 팬츠처럼 거의 새 제품과 같은 컨디션이었다는 것. 당시 모든 데님 팬츠는 주문 제작으로 만들었는데, 미국 애리조나 투산의 구매자가 한 번도 입지 않고 트렁크에 넣어둔 채로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고 한다.

### 07\_ 데님 팬츠의 올바른 관리법

데님 팬츠는 적게 세탁할수록 좋다는 것 또한 잘못된 상식이다. 면바지와 같이 더러워질 때마다 적절한 세탁을 해주어야 원단의 노화를 방지하고 좋은 컨디션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 08\_ 예쁜 워싱을 만드는 방법

뚜렷하게 대비되는 페이딩을 연출하고 싶다면 세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워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정형화한 것은 프랑스의 아페쎬(A.P.C.)라는 것이 통설. 데님 팬츠를 구매하면 함께 주는 워싱 레시피에는 강렬한 페이딩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6개월 이상 세탁하지 않기, 데님 팬츠를 모래로 문지르기 등)이 적혀 있다. 천천히 자연스러운 페이딩을 완성하고 싶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탁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09\_ 이상적인 데님 팬츠의 길이**  
 한때 구두와는 등을 살짝 덮는 길이로, 스니커즈와는 복숭아뼈의 반쯤 오는 길이로 입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말이 있었다. 대부분이 그렇게 입었을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기준은 본인의 의도와 취향이라고 생각한다. 길이 수선에 실패하지 않는 팁이 있다면, 원하는 길이보다 3cm 정도 길게 수선하는 것. 데님은 가공과 세탁을 거친 후에도 수축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유분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이상적인 길이로 수선하고

싶다면, 수선 전에 반드시 두 차례 이상 세탁과 건조를 거치기를 추천한다.

**10\_ 인디고(Indigo)란?**  
 트루 인디고라는 식물 종의 콩으로 만드는 남색 염료를 말한다. 초창기 데님 팬츠에는 천연 인디고를 사용했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데님 팬츠는 합성 인디고로 만들었다. 최초의 합성 인디고는 1878년 독일의 화학자 아돌프 폰 바이어가 소개했으며, 그 이후

로 대부분의 데님 브랜드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11\_ 데님 VS 샴브레이**  
 네이비 컬러 바탕에 하얀 원사가 비치는 색감은 언뜻 비슷하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직조 방식으로 확실한 차이점이 생긴다. 가장 쉬운 구별법은 원단의 뒷면을 확인하는 것. 데님은 원단의 앞뒤 색이 다르지만, 샴브레이는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텍스처 모양도 상이한데, 데님은 사

선 방향, 샴브레이는 격자 모양의 조직감이 특징이다. 데님보다 샴브레이가 얇고 가벼운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

**12\_ 한국 최초의 데님 팬츠**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1961년 동대문 평화시장의 제일피복(지금의 뽕뽕)에서 데님을 처음 판매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국내에서는 인디고로 염색한 화이트 치노팬츠를 판매했는데, 제일피복이 최초로 데님 원단을 사용해 화제가 됐다.

## 데님 팬츠의 종류

COLOR



↑  
**NATURAL**

경사와 위사 모두 염색과 표백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실을 사용한다. 오프화이트에 가까운 은근한 미색을 띤다. 내추럴 화이트 데님 팬츠 9만9000원 데밀.



↑  
**INDIGO**

가장 표준에 가까운 데님 팬츠. 경사는 블루 컬러 인디고 실을, 위사는 내추럴 컬러의 실을 사용한다. 인디고 데님 팬츠 33만9000원 웨어하우스 by 유니페어.



↑  
**BULL**

내추럴 컬러의 면 100% 원단을 각양각색으로 염색한 모든 컬러의 데님 팬츠를 말한다. 멀티컬러 데님 팬츠 가격 미정 로에베.

WASHING



↑  
**RAW**

인디고 컬러의 데님 팬츠를 완성한 뒤 어떠한 세탁이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 로 데님 팬츠 8만9000원 리.



↑  
**ONE WASHED**

로 데님 팬츠를 한 차례 일반 세탁한 것으로 원단이 수축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원 워시드 데님 팬츠 26만5000원 오디너리 핏츠 by 슬로우스테디클럽.



↑  
**BLEACHED**

데님 팬츠의 워싱 과정에서 표백제를 활용해 탈색 효과를 연출한 데님 팬츠. LVC 블리치 데님 팬츠 29만9000원 리바이스.



## 데님 아이콘

CLINT EASTWOOD 1966년 영화 <석양의 무법자>에서 데님 팬츠를 활용한 완벽한 웨스턴 스타일로 등장했다. 그 이후 약 50년간 대부분의 영화에 데님 팬츠와 트러커 재킷을 입고 출연했다.

↓



↑

RUN-DMC. 거의 최초로 데님 팬츠를 스니커즈와 매치한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슬림 스트레이트 핏의 리바이스 501과 리바이스 505를 즐겨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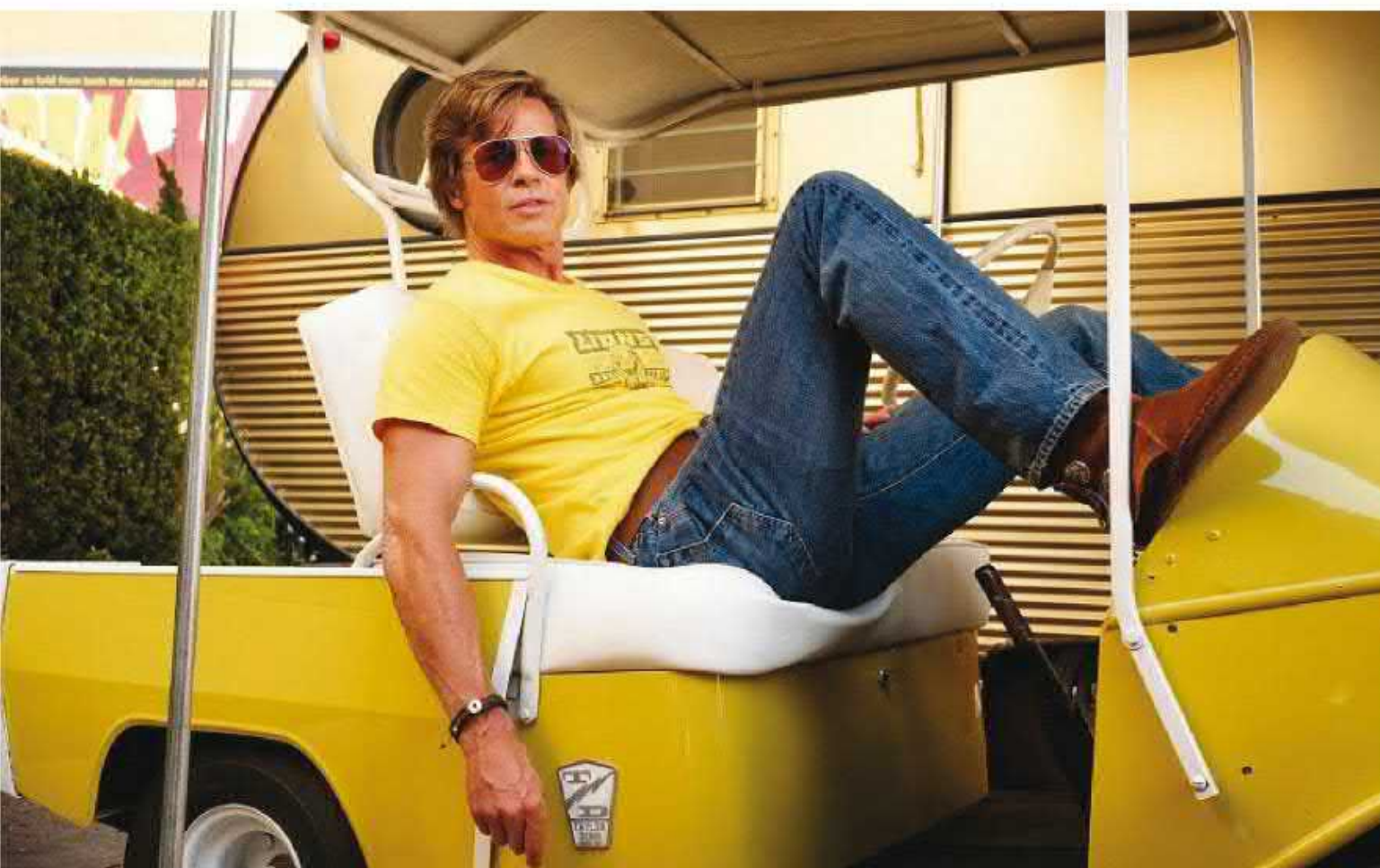


← SID VICIOUS from SEX PISTOLS 펑크 록 밴드 섹스 피스톨즈의 베이스스트. 1970년대의 스타일 아이콘으로, 다리에 딱 붙는 스키니 진의 유행을 선도했다.



↑

JAMES DEAN 노동자의 옷으로만 여겨졌던 데님 팬츠에 젊음과 반항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다. 밑위가 긴 중청의 데님 팬츠를 즐겨 입었고, 브랜드 리(Lee)의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다.



↑

BRAD PITT 1960년대 스타일을 세련되게 재현했다. 레트로한 무드의 티셔츠와 슬림 스트레이트 핏의 리바이스 501 데님 팬츠, 투박한 웨스턴 부츠까지. 영화 <윈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를 본 뒤로 그의 스타일링을 잊을 수 없었다.



ELVIS PRESLEY 영화 <스테이 어웨이, 조>에 블랙 데님 팬츠를 입고 등장했다. 1950년대는 인디고 외의 컬러 데님 팬츠가 생소했는데, 그 이후로 블랙 데님 팬츠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

## 데님 팬츠 트렌드



### EXTRA-WIDE

바지춤이 펄럭거리는 널찍한 핏의 데님 팬츠가 돌아왔다. 다리 모양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두꺼운 모양새로. 부츠를 살짝 덮는 길이도, 바짓단이 뒤꿈치에 질질 끌리는 길이도 좋다.



### NO PAINT NO GAIN

보라, 초록, 노랑의 발랄한 컬러부터 디테일한 묘사를 곁들인 귀여운 프린트까지. 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한 총천연색 데님 팬츠가 등장했다.



### TRANSFORMER

새로운 차원의 데님 팬츠가 탄생했다. 이질적인 소재를 조합한 것은 물론이고, 부츠와 하나로 결합하거나 두 가지 피스를 연결한 것같이 생경한 인상의 팬츠도 눈에 띈다.



아티산 향수의 우디한 향에 남성스러운 레더 향을 더했다. 감귤향으로 시작해 따뜻한 우디 향이 남는다.  
아티산 블랙 EDT 125mL / 11만3000원 존 바바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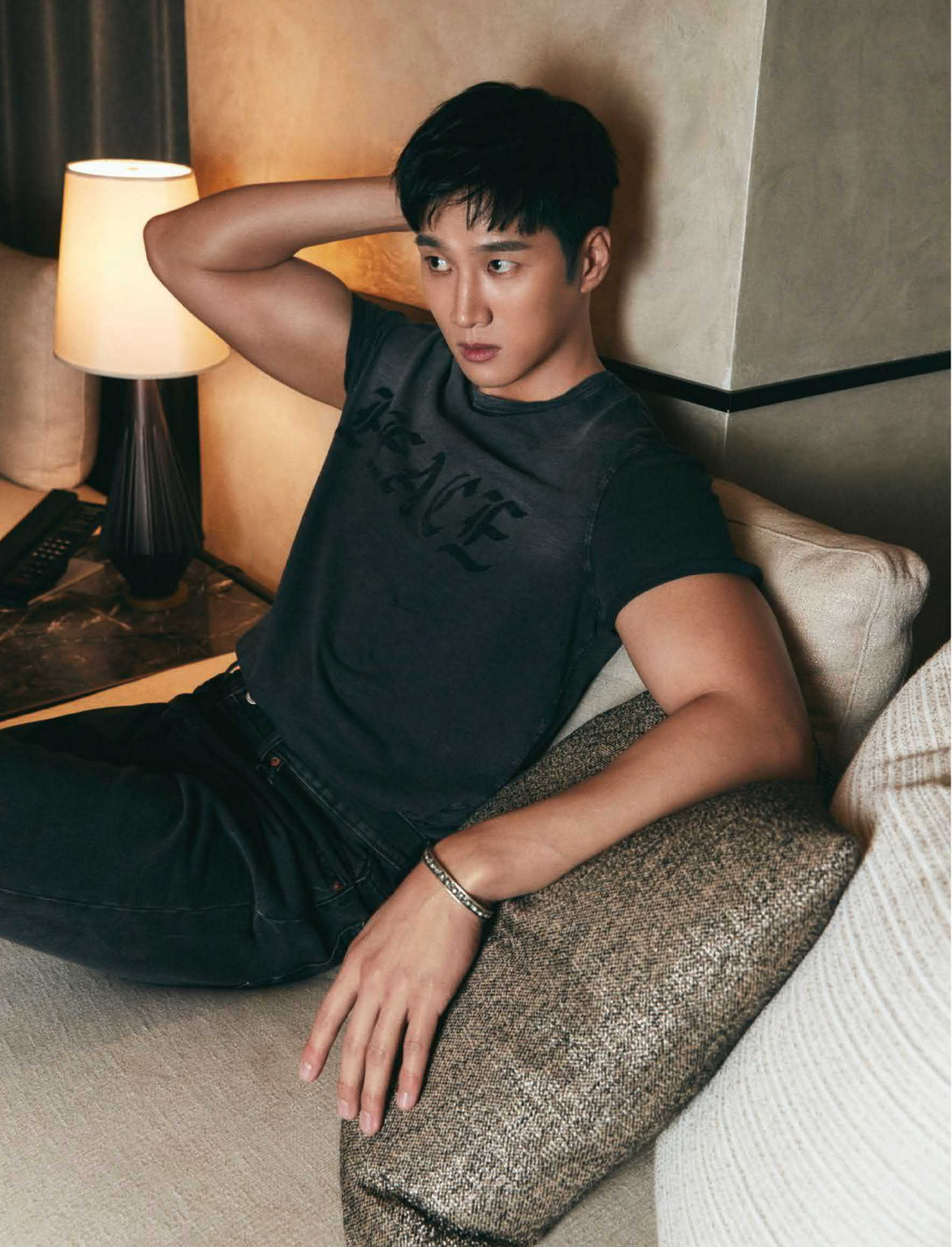
# OUT OF TIME

배우 안보현이 남기고 간  
존 바바토스 아티산의 향.  
editor YOO JEONGSU(MEDIA LAB)  
photographer L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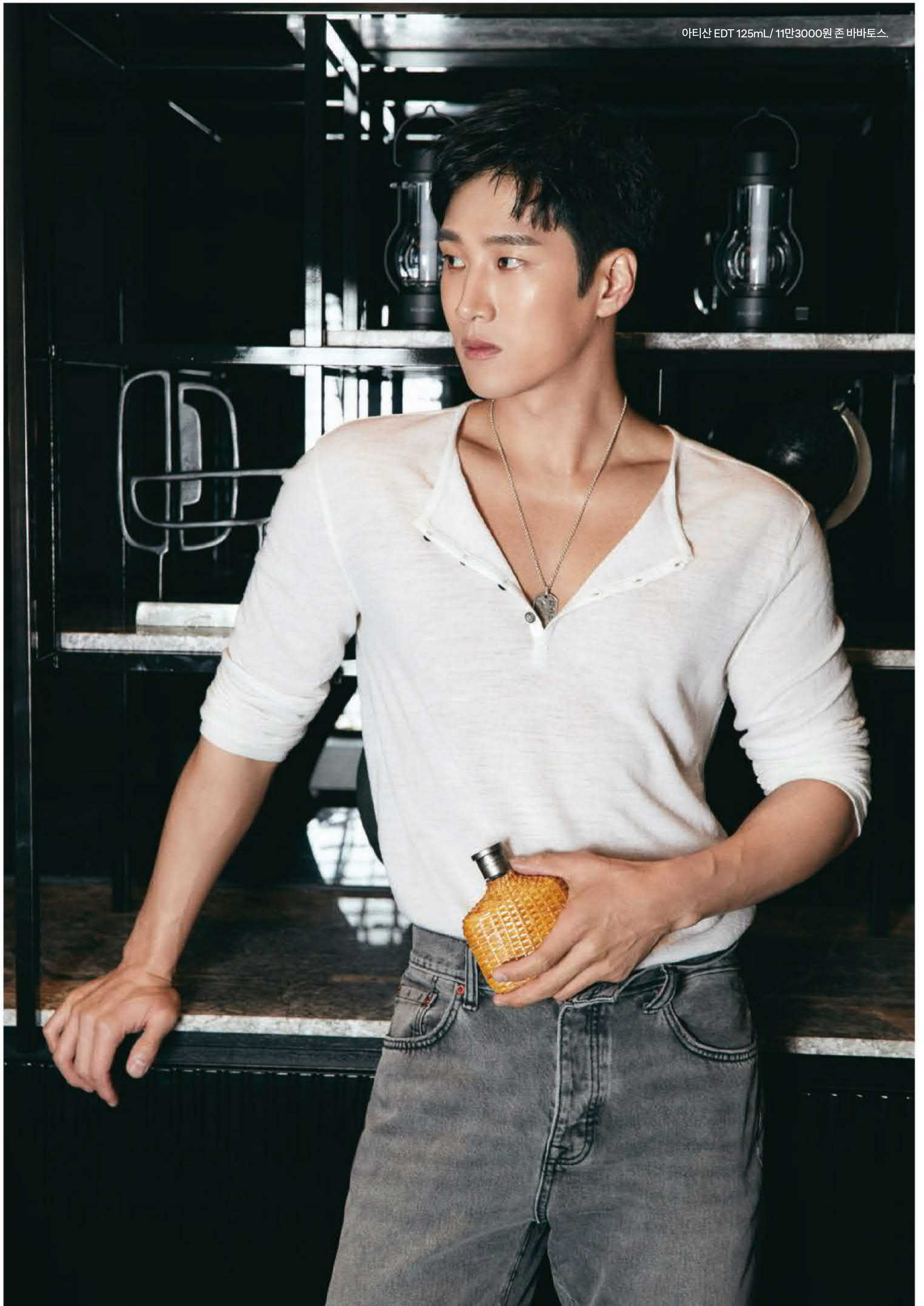
















아티산 EDT 125mL / 11만3000원,  
아티산 블랙 EDT 125mL / 11만3000원 모두 존 바바토스.





아티산 블랙 EDT 125mL / 11만3000원 존 바바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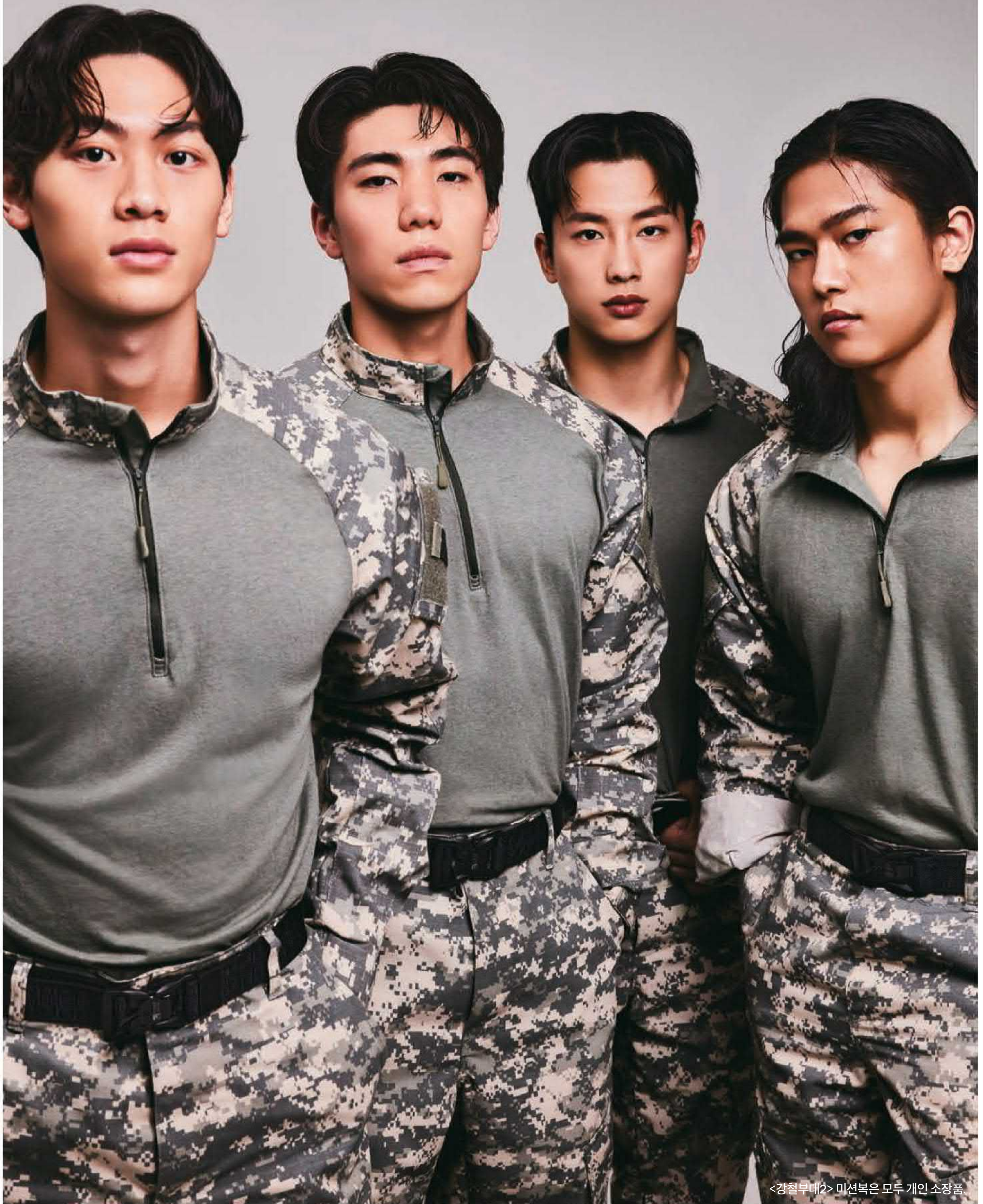




# STRONGER

몰디브 태닝으로 더 강해진 <강철부대2> SSU 해군 해난구조전대 김동록, 김정우, 허남길, 김건.

editor YOO JEONGSU(MEDIA LAB) photographer JEONG CHULHWAN





몰디브 태닝에서 자체적으로 직수입한  
태닝 로션. 브론저 함량 비율이 높아  
극강의 다크함을 표현할 수 있다.  
기분 좋은 플로럴 향이 은은하게 풍기며  
피부에 촉촉하게 발린다.

이탈리안 블랙  
400mL/가격 미정 몰디브 태닝.



김건이 입은 솔리브리스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허남길이 입은 톱 보디 by 분더샵, 팬츠 렉토.

“<강철부대2>에 출연한 SSU 해군 해난구조전대 멤버들과 보디 프로필을 찍을 예정이에요. 까만 피부일수록 남자답다고  
생각해요. 다크한 컬러의 ‘이탈리안 블랙’ 태닝 로션은 제가 원하는 피부색으로 만들어 줄것 같아요.”



김동욱이 입은 셔츠 콤파니,  
팬츠 H&M, 슈즈 라프 시몬스.  
김정우가 입은 팬츠 아트 오브 필드,  
슈즈 라프 시몬스, 슬리브리스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허남길이 입은 팬츠 GMBH,  
슬리브리스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김건이 입은 셔츠 생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팬츠 프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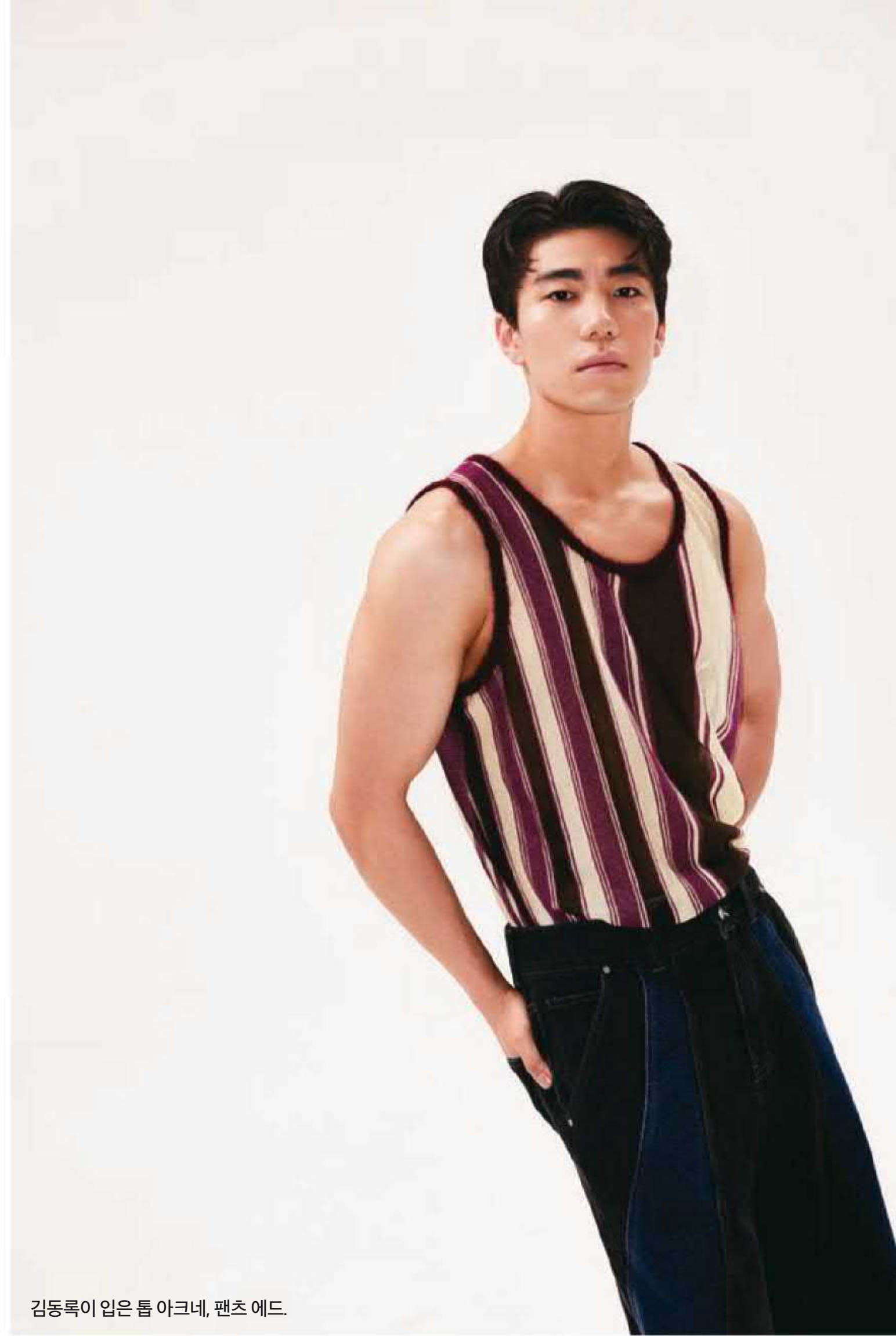


“몇 년 동안 꾸준히 태닝을 해보니 잘 어울리고, 원하는 보디 톤도 확실히 인지하게 됐어요.  
얼굴은 하얗게, 보디는 구릿빛으로 그을리는 걸 좋아해요. 저에게 어울리는 태닝 로션은 ‘블랙 체리 넘버2’ 제품이에요.”

-SSU 해군 해안구조전대 예비역 하사 김정우



김정우가 입은 톱 H&M, 네크리스 아티카.



김동욱이 입은 톱 아크네, 팬츠 에드.



붉은빛 브론저 함량이 높아 강렬하면서  
아름다운 레드 브라운 컬러를 표현한다.  
캐러멜 향이 기분 좋게 풍기며  
수분감이 가득해 피부에 잘 스며든다.

블랙 체리 넘버2  
400mL/가격 미정 몰디브 태닝.



김동욱이 입은 톱 리크 오웬스, 팬츠 폴로 랄프 로렌. 김건이 입은 톱 량방, 팬츠 판가이아. 김정우가 입은 슬리브리스, 팬츠 모두 렉토, 허리에 묶은 셔츠 폴로 랄프 로렌, 네크리스 아티카.

문의 | 몰디브 태닝(031-236-3489) STYLIST 임진, 진성훈 HAIR & MAKEUP 정지은 ASSISTANT 최서은





# HIGHLIGHT

펜디 2022 S/S의  
아이코닉한  
백 컬렉션.

editor  
KO DONGHUI  
photographer  
DANIELE LA MALFA





블랙, 라이트 블루, 옐로, 라일락 컬러로 구성되었으며, FF 클래스프와 플렉시글라스 소재의 견고한 셰이프가 돋보이는 바게트 트렁크 미니 백 각각 500만원대 모두 펜디.







(위) 재생 나일론 소재의 베이지 피카부 아이씨유 미디엄 백 500만원대, 화이트와 라이트 블루 피카부 아이씨유 미니 백 각각 400만원대 모두 펜디.  
 (아래) 블랙&그레이 FF 패브릭과 블랙 레더 디테일이 조화된 미디엄 사이즈 슈트케이스 900만원대, 스몰 사이즈 슈트케이스 800만원대 모두 펜디.







(위) 블랙, 베이지, 라이트 블루, 라이트 그린 컬러로 구성되었으며, 재생 나일론 메시 소재와 FF 싱글 버클 클로저가 돋보이는 펜디니스 미니 백팩 각각 100만원대 모두 펜디.  
 (아래) 핸드 스티칭 디테일이 도드라지는 라이트 베이지 스웨이드 소재 피카부 아이씨유 미디엄 백 700만원대, 블랙 레더 소재 피카부 아이씨유 미디엄 백 700만원대, 미니 백 600만원대 모두 펜디.







(위) 라이트 브라운 레더 소재 피카부 아이씨유 미디엄 백 600만원대, 미니 백 500만원대, 파우더 그레이 레더 소재 아이씨유 미디엄 백 600만원대, 미니 백 500만원대 모두 펜디.  
 (아래) FF 클래스프가 강조된 베이지 재생 나일론 소재 라지 바게트 메신저백 200만원대,  
 블랙 재생 나일론 소재 미디엄 바게트 메신저백 200만원대, 그레이 나일론&레더 소재 라지 바게트 메신저백 400만원대 모두 펜디.







라일락과 블루 컬러로 구성되었으며, 부드러운 레더 소재와 그라데이션 디테일이 돋보이는 피카부 아이씨유 미니 백 각각 500만원대 모두 펜디.



shopyeet.com



# Yeet

서퍼들 사이에서  
힙한 배러댄서프  
알아?



세럼 카인드로  
비건 뷰티 시작해봐~

스킨 그램머  
비누바로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도전!



140년된 스페인  
국민 립밤,  
수아비나

알레씨 10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도  
만나봐!

요즘 힙플에는 다 있다는  
세이프 라이프 소화기야!



유럽 패피들의 잇백,  
토이노 아벨!



<나혼산> 송민호 인센스,  
콜린스

## findYeet!

## loveYeet!

## shopYeet!

트렌디한 매거진의 '찐' 에디터 99명이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힙하고 멋진 아이템들을 소개합니다.

잇트에서 발견하고, 사랑하고, 쇼핑하세요.





# CROSS MY BODY

가뿐하게 둘러메고 나간다.

editor LEE HAMIN photographer CHUNG WOORYOUNG

메종의 아이코닉한 카키 컬러와 부드럽게 각진 실루엣, 안정적인 두께의 벨트 디테일이 돋보이는 퍼즐 카프스킨 범백 270만원 로에베.



물방울 모양을 연상케 하는 리나일론 소재의 미니멀 크로스보디백. 넓은 가방의 뒷면이 등을 감싸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가격 미정 프라다.



벨트와 가방을 분리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콤팩트한 사이즈의 투 스트랩 미니 벨트백 320만원 구찌.



엘로 메시 & 나일론 소재 조합으로 스포티한 무드를 완성한 크로스백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차분한 앙트라시트 그레이 컬러와 모노그램 패턴이 조화로운 새도 카프스킨 디스크버리 범백 가격 미정 루이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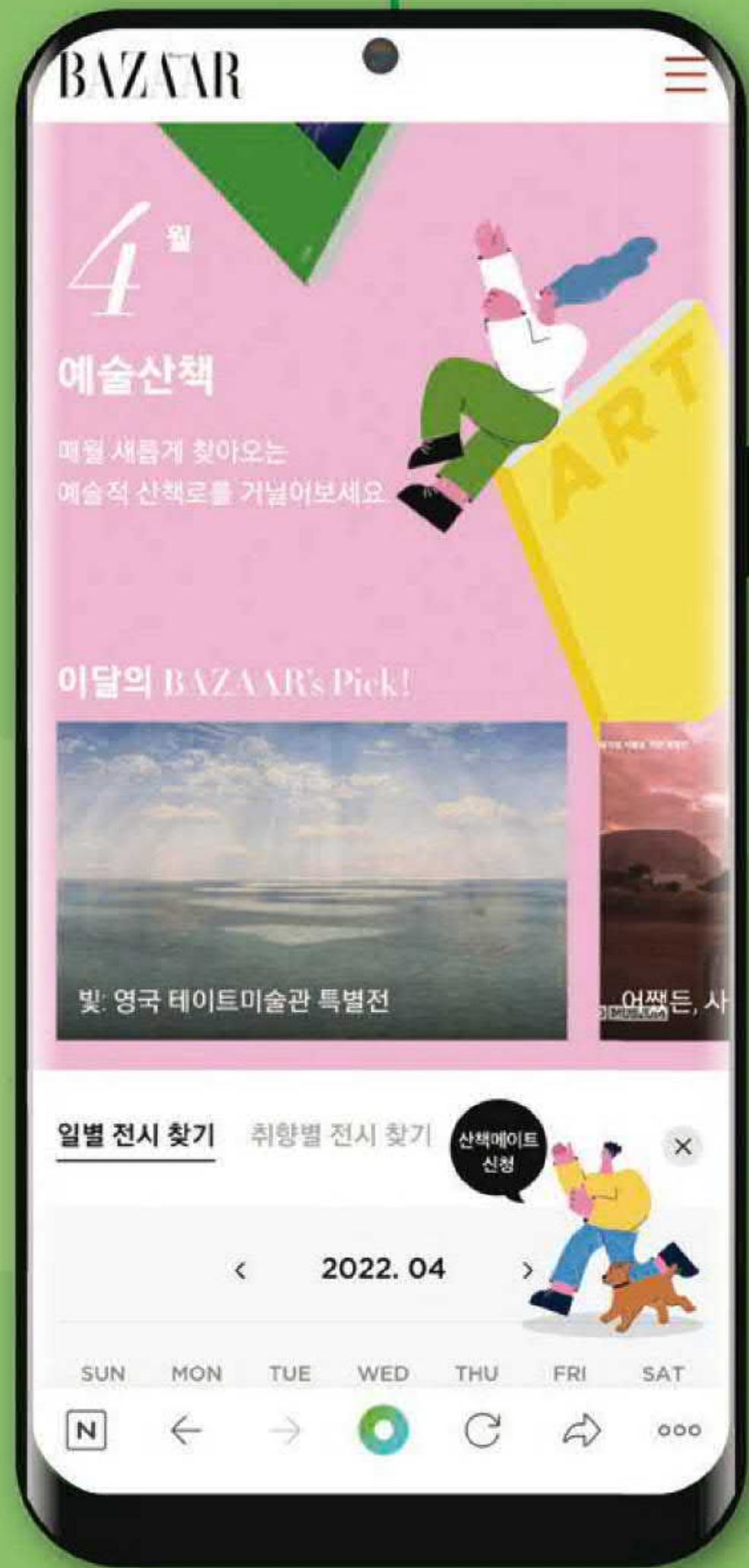
넉넉한 수납공간과 실버 지퍼 디테일을 살린 로고 보디백 가격 미정 셀린느 옴므 by 에디 슬리먼.





일정별로 확인 가능한,  
내 손안의 친절한 아트 가이드

# 바자 예술 산책



'바자 예술 산책'은 국내외 주요 전시를 중심으로 브랜드 팝업, 아티스트와의 협업 등 문화예술계 다양한 소식을 산책하듯 즐길 수 있는 친절한 가이드입니다.

**이 봄, 여러분을 맞이할 산책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함께 거닐어볼까요?





# Buy Better, Wear Longer

좋은 제품을 오랫동안 입기.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리바이스가 오리지널 501® 데님 출시 149주년을 맞아 스타일리스트 정윤기와 'Levi's with YK Jeong'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editor JUNG JIEUN(MEDIA LAB)



지속 가능성이란 키워드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149년 전 최초의 데님을 만들어낸 리바이스는 의류 생산과 소비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있다. 리바이스는 'BBWL(Buy Better, Wear Longer)' 캠페인을 통해 환경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이야기하며, 이 캠페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스타일리스트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윤기와 'Levi's with YK Jeong'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리바이스 재생 데님을 포함해 다양한 데님으로 진행된 이번 협업에 대해 스타일리스트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윤기에게 리바이스는 어떤 의미인지, 이번 시즌 데님 트렌드와 데님 스타일링 팁에 대해서도 물었다.

**리바이스 오리지널 501® 데님이 출시된 지 149주년이 됐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정윤기에게 리바이스 오리지널 501®은 어떤 의미인가요?**

리바이스 오리지널 501®은 저의 첫 번째 데님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패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리바이스 오리지널 501®은 오리지널 데님이면서 클래식 데님의 상징이라 할 수 있죠.

**그동안 지미추, 젠틀 몬스터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협업 프로젝트로 리바이스를 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많은 데님 브랜드가 있지만 '데님' 하면 역시 리바이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이면서 데님을 대표하는 브랜드라 이번 협업에 함께하게 됐어요. 지속 가능성이 패션계 화두로 떠오르는 요즘, 좋은 제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제품을 오래 입자는 취지를 가진 리바이스의 'BBWL' 캠페인은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고,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대로 된 좋은 제품 하나를 구입하면 오랫동안 입잖아요. '환경을



생각하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데님을 만들자는 목표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브랜드 캠페인을 고려해 재생 데님으로 제작된 제품도 포함했죠. 리바이스 'BBWL' 캠페인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는 데 이번 'Levi's with YK Jeong' 프로젝트도 도움이 됐으면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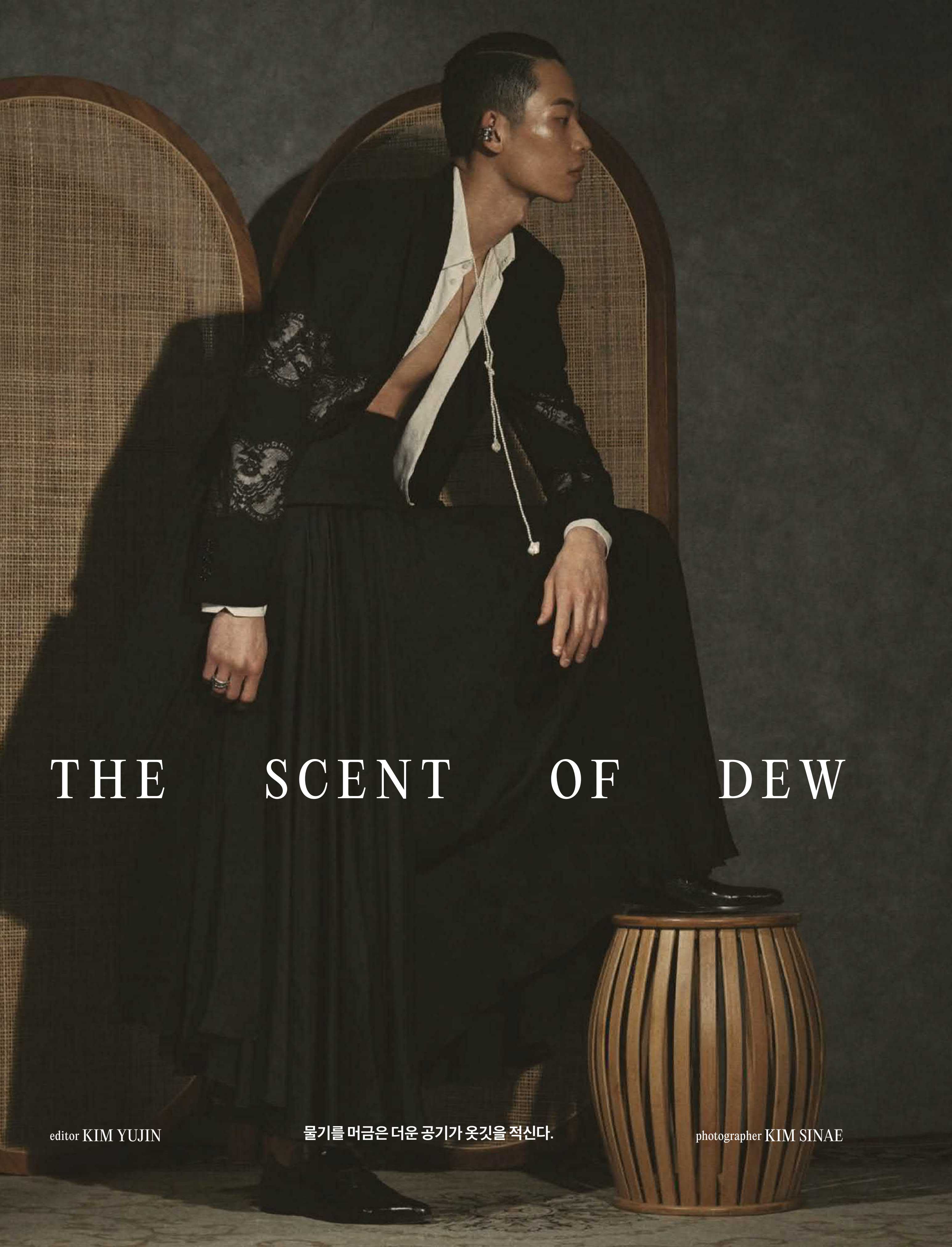
**'Levi's with YK Jeong' 프로젝트의 콘셉트는 무엇인가요?**

149년 역사를 지닌 리바이스 시그너처 데님 제품에 제가 평소 좋아하는 디테일을 더했어요. 반다나 무늬, 스티치, 별, 컬러 버튼, 빈티지 가공 등을 데님에 접목해 유니크함을 드러냈죠.

**'Levi's with YK Jeong' 프로젝트의 스타일링 팁을 소개해주세요.**

숨은 디테일을 살려 스타일링하길 추천해요. 예를 들어 앞면을 보면 기본 데님 아이템 같지만 재킷의 소매나 팬츠 밑단과 뒷면에 디테일한 포인트를 넣었어요. 그렇게 의상 곳곳에 숨겨 놓은 디테일을 살려 룩 전체의 에지를 살려도 좋을 것 같아요. 데님의 진정한 매력은 데님 아이템 하나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멋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번 시즌에는 'Levi's with YK Jeong' 아이템을 활용해 데님 재킷 또는 데님 셔츠에 데님 스커트나 팬츠를 매치하는 '청청 패션'에 도전하길 추천해요.





THE SCENT OF DEW

editor KIM YUJIN

물기를 머금은 더운 공기가 옷깃을 적신다.

photographer KIM SINAЕ





(Opposite Page)

레이스 디테일 재킷, 셔츠, 팬츠, 슈즈 모두 가격 미정 돌체앤가바나. 롱스커트 가격 미정 로에베. 이어커프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진주 네크리스 가격 미정 엘리우 by 10 꼬르소 꼬모 서울. 링 가격 미정 크롬하츠.



로고 실버 링 가격 미정 프라다.



(Opposite Page)

재킷 215만원 김서룡. 셔츠 가격 미정 돌체앤가바나. 팬츠 가격 미정 아미. 햇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로퍼 가격 미정 랄프 로렌 퍼플 라벨. 네크리스 60만원대, 링 40만원대 모두 펜디. 입술에 낀 링 20만7000원 큐밀리너리x더 스톨른 가먼트.













(Opposite Page)

스카프 블라우스 140만원, 팬츠 140만원 모두 발렌티노. 진주 초커 76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드롭 진주 장식 이어커프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Opposite Page)

재킷, 톱, 팬츠, 슈즈,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드레세나 마지나타 화분 가격 미정 포티.











카우보이 펠트 햇 114만원 구찌.



(Opposite Page)

오간자 데이지 자수 셔츠 1040만원 발렌티노, 팬츠 가격 미정 아크네 스튜디오 by 10 꼬르소 꼬모 서울.



브로그 드레스 슈즈 가격 미정 랄프 로렌 퍼플 라벨.



(Opposite Page)

오리엔탈 자카르 슈트, 셔츠 모두 가격 미정 돌체앤가바나. 네크리스 가격 미정 셸린느 움프 by 에디슬리먼.







editor YUN WOONGHEE photographer YOON JIYONG

텀빈 병원, 서늘한 화이트 룩.

SCENE

FOR





베스트 가격 미정 루이 비통. 팬츠 가격 미정 보스 맨.

(Opposite Page)

코트, 셔츠, 팬츠, 스니커즈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STRAWBERRY





셔츠 440만원 발렌티노, 넥리스 76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Opposite Page)  
재킷, 스팅글 톱 모두 가격 미정 셀린느 움프 by 에디 슬리먼.











재킷, 톱,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릭 오웬스. 선글라스 22만9000원 레이밴 by 록소티카.

(Opposite Page)

코트 215만원 김서룡. 톱 15만8000원, 팬츠 26만8000원 모두 렉토.  
플립플롭 가격 미정 하바이아나스.









재킷, 셔츠, 팬츠 모두 가격 미정 톰 포드.

(Opposite Page)

재킷 195만원, 팬츠 85만원 모두 제이백쿠튀르.  
네크리스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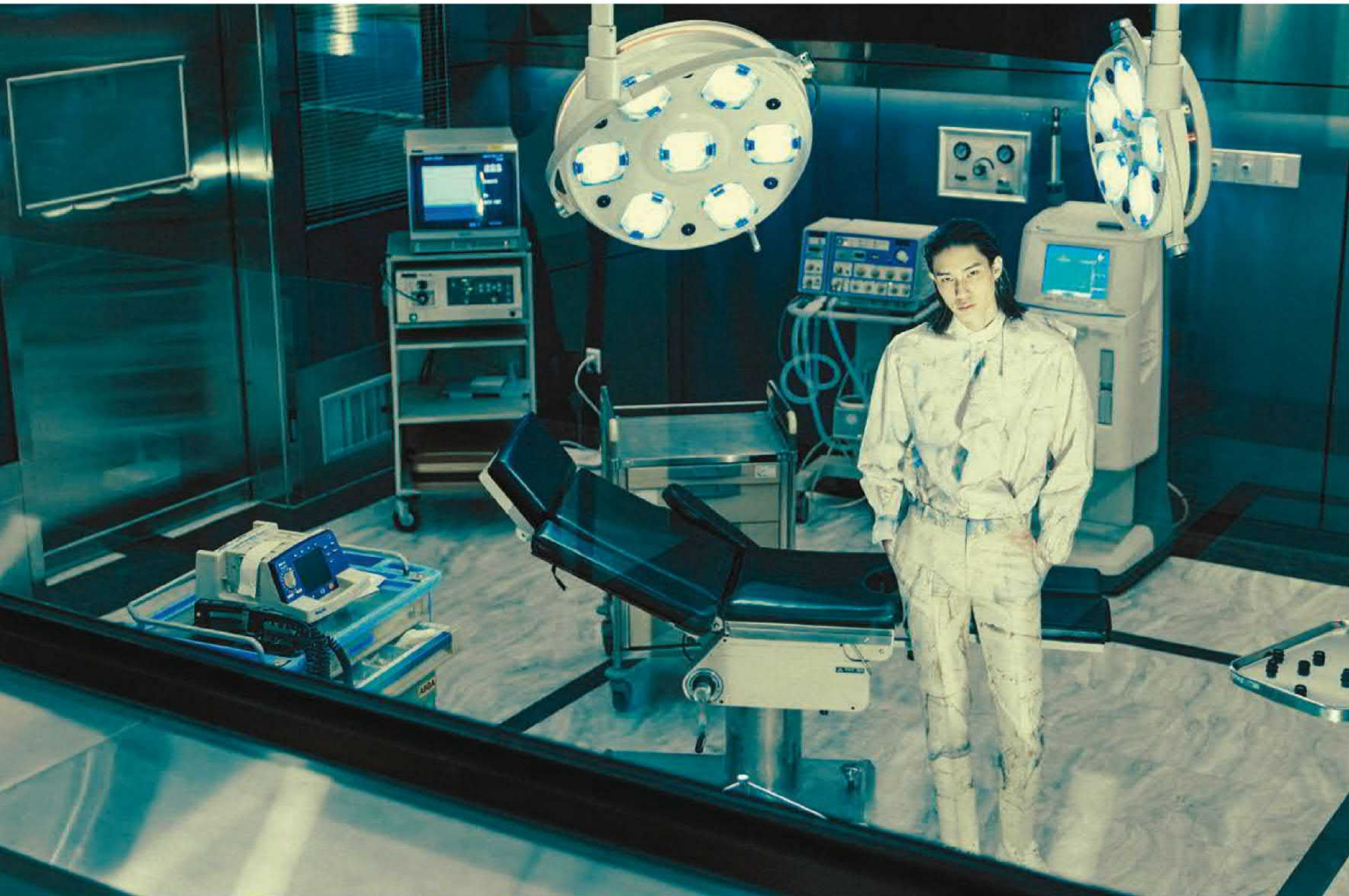




셔츠 187만원, 팬츠 195만원, 슈즈 98만원 모두 알렉산더 맥퀸.

(Opposite Page)

스웨터 221만원 2 몽클레르 1952. 팬츠 26만8000원 렉토.







# SHADE

선글라스의 색과 면.

editor LIM ILWOONG photographer CHAE DAEHAN





데님 베스트, 레오파드 재킷 모두  
가격 미정 셀린느 움프 by  
에디슬리먼, 슬리브리스 톱,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바카렐로, LV  
와이메아 모노그램 패턴  
선글라스 가격 미정 루이비통.  
이어링 모델 소장품.

(Opposite Page)  
스퀘어넥 슬리브리스 톱  
48만5000원, 필 네크리스 가격  
미정 모두 지방시, 로고 디테일  
선글라스 46만원 알렉산더 맥퀸.  
이어링 모델 소장품.







로고 엠보싱 디테일 데님 재킷  
214만5000원 지방시.  
크리스털 스톤 디테일 선글라스  
48만원 젠틀몬스터.

(Opposite Page)  
재킷 410만원, 셔츠 140만원  
모두 발렌티노. 레드 선글라스  
가격 미정 셀린느 옴므  
by 에디 슬리먼.  
네크리스 에디터 소장품.









블랙 & 옐로 나일론 파이버 템플  
선글라스 가격 미정 돌체앤가바나.  
네크리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이어링 모델 소장품.

(Opposite Page)  
(위) 레드 선글라스 가격 미정  
몽클레르 + 젠틀몬스터.  
(아래) 오렌지 컬러 러버 &  
나일론 파이버 프레임 선글라스  
가격 미정 돌체앤가바나.





화이트 선글라스 가격 미정  
프라다. 펠 네크리스 가격 미정  
지방시. 이어 컵프 2개 세트  
19만5000원 스와로브스키.

(Opposite Page)  
페이즐리 셔츠 가격 미정 에트로.  
선글라스 83만5000원 구찌.  
선글라스 체인 2만9000원  
캐롤라인 아브라함 by 오르오르.









# ALONG THE



(왼쪽) 프린트 코트, 팬츠 모두 펜디.  
(오른쪽) 재킷, 티셔츠, 쇼츠 모두 펜디.

# THE BEACH

온종일

해변을

거닐었다.

editor KAI MARGRANDER photographer SERGE LEBLON





(왼쪽) 시어서커 재킷, 화이트 셔츠 모두 알파 타우리.  
(오른쪽) 시어서커 재킷, 네이비 셔츠 모두 알파 타우리.



셔츠, 쇼츠 모두 제나. 샌들 토즈.





모헤어 카디건, 셔츠, 쇼츠, 버킷 햇 모두 에르템.













(왼쪽) 재킷, 팬츠, 샌들 모두 조르지오 아르마니.  
(오른쪽) 실크 셔츠, 버뮤다 쇼츠, 스웨이드 부츠 모두 조르지오 아르마니.





블레이저, 팬츠 모두 간트. 실크 셔츠 에트로, 스니커즈 보스 맨. 벨트 조르지오 아르마니.







더블브레스티드 코트, 브이넥 스웨터, 팬츠 모두 질 샌더.



(왼쪽) 슬리브리스 톱, 쇼츠, 허리에 묶은 재킷 모두 프라다.  
(오른쪽) 스웨터, 쇼츠, 허리에 묶은 재킷 모두 프라다.





피시테일 파카, 캐시미어 터틀넥, 팬츠, 첼시 부츠 모두 디올 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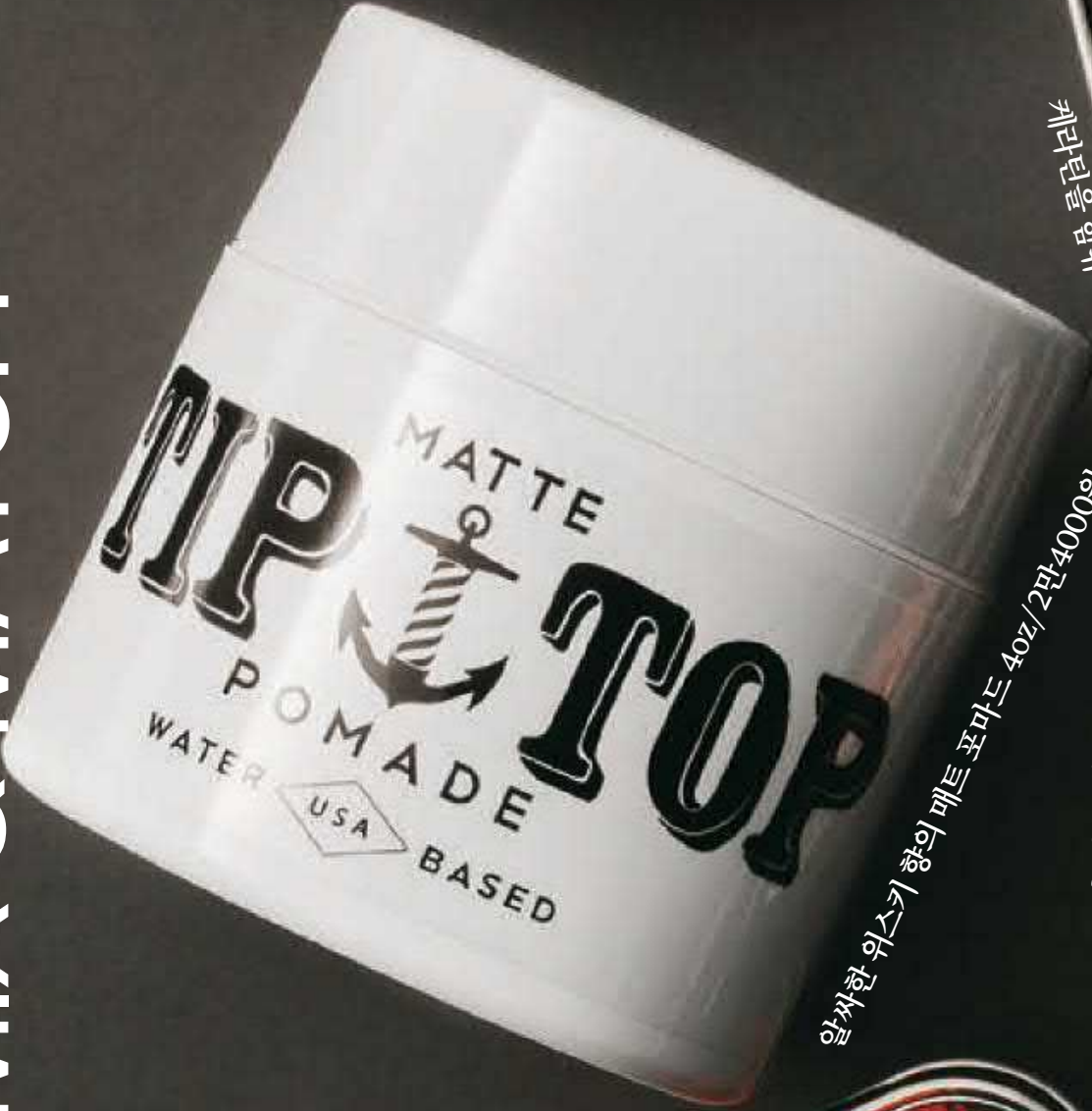
# MIX & MATCH



바닐라와 민트 향이 조화로운 파이버 포마드 4oz/3만3000원 리우젤 코리아



캐리틴 함유 헤어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매트 포마드 4.2oz/2만6000원 레드노즈



알싸한 위스키 향의 매트 포마드 4oz/2만4000원 팁탑



아름다운 레몬 향의 매트 포마드 3.5oz/2만9000원 아퍼컷디럭스 코리아



목격한 레더 향의 매트 포마드 2.6oz/3만2000원 킹브라운 by 코라셋



산뜻한 멘톨 향의 클레이 포마드 4oz/3만2000원 브로쉬

바버들만 알고 있는 완벽한 스타일링의 비밀. 매트 포마드로 베이스를 만들고, 오리지널 포마드로 마무리한다.

editor LIM ILWOONG photographer KIM HYUNDONG

## STEP.01

머리를 말리면서 매트 포마드만 발라도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손쉽게 연출하기 좋다. 매트 포마드는 그루밍 토닉보다는 꾸덕하고 오리지널 포마드보다는 광택감이 적어, 베이스를 세팅하는 데 아주 적합하다. 먼저 포마드를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떠서 축축히 젖은 머리 전체에 고루 바른다. 중요한 건 모발의 뿌리부터 위까지 바르는 것. 도포가 끝났다면 드라이기로 뒷머리부터 앞머리 쪽으로 말리며 모양을 잡는다. 이때 중간 열의 약한 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포인트.

## MATTE POMADE







# NO MORE LOSS

있을 때 잘하자.

editor KIM YUJIN  
photographer KIM HYUNDONG

레이크 롬 12만5000원 오피신 유니버설 볼리.



## Q&A

탈모를 진단하는 기준	탈모약 부작용에 대한 우려	탈모 치료 시기와 기간	두피 케어 제품이나 탈모 치료용 의료기기의 효과	시중에 판매되는 탈모약 복용시 주의할 점
↓ 탈모는 모발이 줄어들고 가늘어지다 결국 탈락되고 다시 자라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통 빠지는 모발의 수가 하루에 100개 이상이고 정수리와 머리 후두부를 비교해 봤을 때 모량이나 굵기에서 차이가 느껴질 때, 가르마를 탔을 때 두피가 많이 보이는 경우 탈모로 진단한다.	↓ 남성의 경우 성기능이나 성욕 감퇴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드물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탈모약이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 반박하는 논문도 꽤 많다. 결국 약효를 의심하거나 부작용이 있다고 믿는 노시보(nocebo) 효과라고 본다.	↓ 탈모는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약은 매일 빠지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고 모발 이식 후에도 약물 치료는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M자 탈모의 경우 앞머리 쪽에 모발을 이식한 후 치료를 중단하면 이식한 부분과 탈모가 진행된 부분에 경계가 생길 수 있다.	↓ 뷰티 관련 제품을 통해 직접적으로 탈모를 막을 순 없다. 그러나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해서 나쁠 것은 없다. 탈모 치료용 기기는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아직은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100%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더 많은 연구와 실험을 거쳐야 할 것이다.	↓ 유전적 탈모 원인 호르몬인 DHT를 차단해 탈모를 막아주는 성분으로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이 있다. 이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이라면 효과가 있겠지만 정확한 치료를 하려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수다. 유전적 탈모가 아닌 경우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HAIR CARE PRODUCT



←

- ① 실리콘 브러시가 각질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준다. 옛지 핑거 9800원 그라펜.
- ② 저자극 성분으로 건조하고 민감한 두피를 진정시킨다. 키리움 엑스트라 젬틀 샴푸 400mL/3만5000원 라로슈포제.
- ③ 힘없는 모근에 활력을 주고 두피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폴리젠 헤어토닉 120mL/1만9000원 닥터포헤어.
- ④ 두피 탄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약산성 성분. 안티로스 샴푸 바 100g/1만8000원 슝푸리.
- ⑤ 카페인 복합체를 함유해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가꾼다. 카페인 샴푸 C1 375mL/2만1000원 알페신.



←

- ⑥ 호호바 오일, 과일즙 성분이 두피를 산뜻하게 가꿔준다. 리햅 샴푸 250g/3만8000원 러쉬.
- ⑦ 우든 스칼프 브러시 스몰 8000원 아로마티카.
- ⑧ 갈라지는 모발을 개선해준다. 비오틴 샴푸 바 120g/1만5000원 라 뷔게르.
- ⑨ 로즈메리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 바 135g/2만2000원 아로마티카.
- ⑩ 14가지 식물성 추출물이 두피에 영양을 공급한다. 프리미엄 TS 토닉 250mL/2만9950원 TS.
- ⑪ 두피 열감을 완화하고 뿌리 볼륨을 살려준다. 로즈마리 액티브브이 안티헤어로스 토닉 100mL/2만2000원 아로마티카.
- ⑫ 튜브 스탠딩 캡 부송 로비넷 1만8000원 오피신 유니버설 볼리.



←

- ⑬ 천연 멘톨 성분을 함유해 쿨링감을 선사한다. 히노키 샴푸 500mL/2만5000원 그라펜.
- ⑭ 케이드 오일, 장미꽃잎이 두피를 건강하게 관리해준다. 속 앤 플롯 샴푸 바 55g/1만9000원 러쉬.
- ⑮ 두피 트러블을 완화하고 두피에 수분을 보충한다. 세이시 앤 시더 스칼프 트리트먼트 25mL/4만1000원 이습.
- ⑯ 지친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고 멘톨 성분이 청량감을 준다. 데일리 안티 헤어로스 허브 헤어토닉 140mL/2만5000원 다슈.
- ⑰ 라벤더 꽃과 레몬, 라임 성분이 머릿결에 윤기를 더한다. 점핑 주니어 샴푸 바 55g/1만9000원 러쉬.
- ⑱ 세심한 롤링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풀어준다. 리파 그레이스 헤드 스파 39만8000원 리파.

## TIPS FOR HAIR LOSS



자기 전 가벼운 지압 마사지로 두피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두피 열감을 완화해준다.



수면 부족과 과로, 스트레스는 모발 생성 주기와 두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



지나친 음주는 모발 생성에 악영향을 끼친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이 기본이다.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말고 초기에 병원을 방문해 전문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 RUB ME

소재와 형태, 효과까지 특색 넘치는 페이스 마사저.

editor LEE HAMIN photographer CHUNG WOORYOUNG

- (1) 100% 아크릴 소재를 활용한 5D 날개형 디자인으로 굴곡진 진면을 활용해 원하는 부위에 맞게 마사지가 가능하다. 라인 스톤 2만원 메디필.
- (2) 부드러운 비치우드로 만들어 나뭇결은 살리고 돌고래 모양을 닮은 큼직한 사이즈가 얼굴과 몸의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해 혈액순환을 돕는다. 돌고래 페이스&보디 마사저 1만9000원 아로마티카.
- (3) 100% 천연 백토로 만들어 그립감을 강조한 핸드메이드 괄사기. 각기 다른 5가지 면으로 지압과 리프팅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FM 괄사 7만7000원 아로망.
- (4) 내구성이 강한 방짜유기로 제조한 마사저. 길쭉하고 유려한 곡선 형태로 페이스 라인을 따라 가볍게 긁고 문지르며 사용하기 좋다. 브이라인 괄사마사지기 4만2000원 늦담.
- (5) 장미 꽃봉오리에서 영감을 얻은 마사저. 콤팩트한 사이즈에 움푹 파인 꽃잎 부분으로 틱 라인을 깊게 눌러 부기 있는 얼굴 라인을 매끈하게 잡아준다. 8만5000원 고미가.



**TIP**

마사지를 원하는 부위에 괄사기를 대고 얼굴 라인을 따라 가볍게 쓸어준다. 여기서 좀 더 강한 자극을 느끼고 싶다면 마사지 오일을 바른 뒤 손에 힘을 쥐어 눌러줘야 피부 손상 없이 뭉친 근육을 풀 수 있다.

## Mr. SHARP

깔끔한 눈썹 정리를 위한 필수 도구 5.

editor LEE HAMIN photographer KIM HYUNDONG

				
<p>스윙 헤드와 좌우로 움직이며 세밀한 제모를 돕고 이동식 칼날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 피부 손상을 막는다. ER-GM40 제모기 4만4900원 파나소닉.</p>	<p>눈썹모와 유사한 블랙 파이버가 빈약한 눈썹 부분을 채우고 가벼운 젤 타입의 투명 포뮬러로 여러 번 덧발라도 부담이 없다. 익스텐션 브로우&amp;래쉬 1만원대 하킵.</p>	<p>8배 확대 렌즈를 결합한 트위저. 기울기 조절이 가능해 미세한 솜털도 말끔하게 제거한다. 서지컬 스테인리스스틸 슬렌트 트위저 4만원대 루비스 코리아.</p>	<p>안전한 곡선형 날로 눈썹의 길이 정리는 물론, 날 끝에 있는 예리한 샤프 팁으로 불필요한 눈썹을 뽑을 수 있다. 눈썹 가위 1만9000원 미스터그린 by 아이엔씨 허브.</p>	<p>100% 자연 성분으로 별도의 멜팅 과정 없이 체온만으로 녹여 원하는 부위에 짜주기만 하면 된다. 아이브로 제모제 18g/9000원대 몸 by 엔비네이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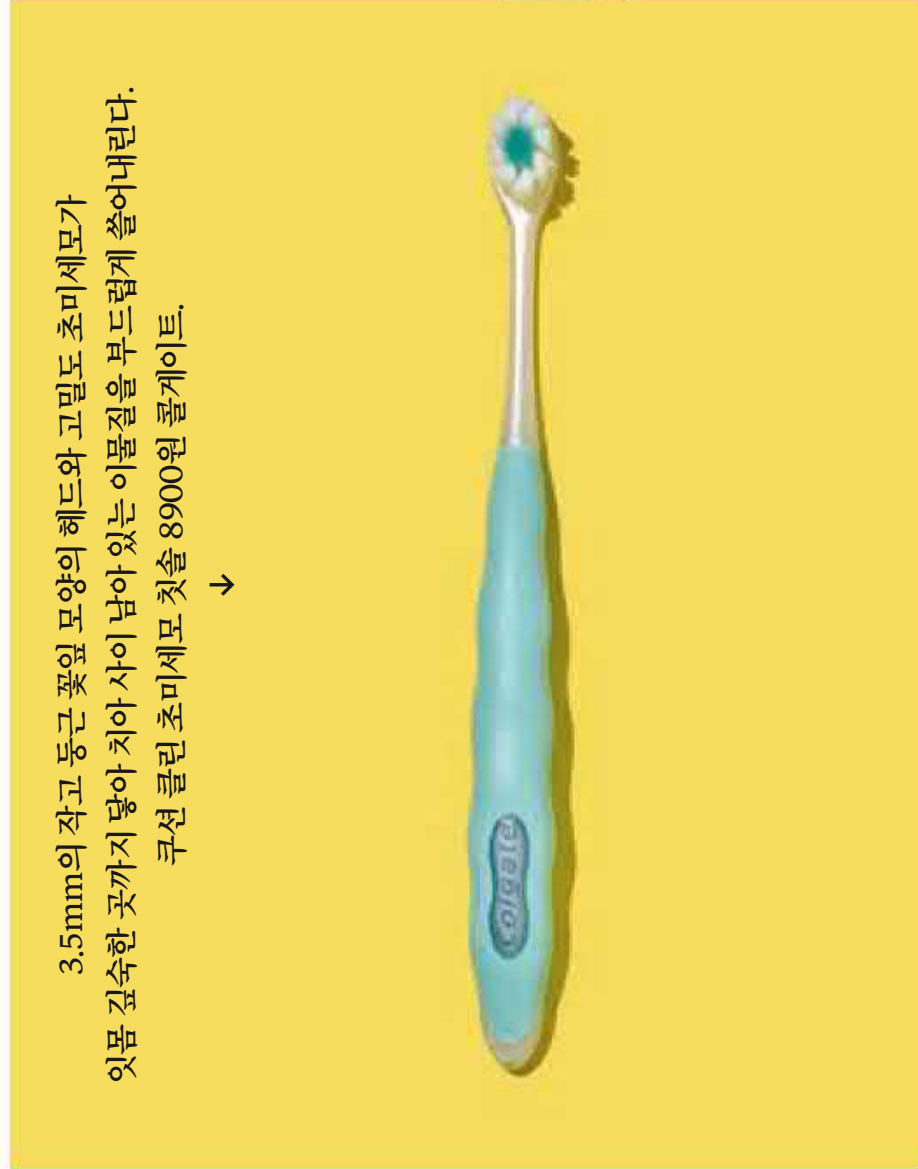


# SMART BRUSH

ART DESIGNER 주정화



길쭉한 나일론 소재의 칫솔모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치아를 한 번에 닦아내리며 사용감에 따라 칫솔모가 짧아져 교체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소프트 칫솔 1만6000원 아카카파 by 고메 494.



3.5mm의 작고 둥근 꽃잎 모양의 헤드와 고밀도 초미세모가 잇몸 깊숙한 곳까지 닿아 치아 사이 남아 있는 이물질을 부드럽게 끌어내린다.  
쿠션 클린 초미세모 칫솔 8900원 플케이트.



항균과 소취 기능이 뛰어난 숯 성분 고탄력 이중식 미세모가 미생물 번식을 막아주고 이물질과 플라크 제거에 효과적이다.  
프로즌퍼루나 칫솔 1만2000원 루치펠로.



교체 가능한 의료용 실리콘 & PBT 폴리머 칫솔모가 분당 1만1000번 움직이며 치아와 잇몸을 자극 없이 섬세하게 닦아준다.  
1시간 충전 최대 365일 사용 가능. 이사 2 콜 블랙 8만5000원 포레오.



작은 헤드 속 800여 개의 칫솔모가 균일하게 모여 잇몸과 치아 틈 사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얇은 손잡이가 입안 깊숙이 들어가 섬세한 칫솔질이 가능하다.  
CS1006 칫솔 7000원 큐라덴 큐라프록스.



0.01mm도 채 안 되는 초극세모가 촘촘하게 묶여 에스페딘을 이루고 치아 표면과 밀착력을 높여 꼼꼼한 세정력을 자랑한다.  
샤인 앤 뷰티용 2개 세트 1만9800원 리엔코.



물 흡수력과 탄력이 뛰어난 천연 오소리모가 치아를 감싸며 이물질을 가장 없이 털어낸다. 천연모 칫솔 허니 3만6000원  
코이누 by 더콘라샵.



식물성 나일론 소재의 넓은 타원형 칫솔모와 45도 기울어진 칫솔 헤드가 효과적이고 편안한 양치 습관을 길러준다. 오른손잡이용과 왼손잡이용이 각각 있는 것이 특징. 스쿠바 1만6000원 레디어스.



굴곡진 잇몸 라인에 맞게 제작된 이중 칫솔모가 치아와 닿는 면을 넓혀 적은 힘으로도 양치질이 수월하다. 클래식한 그린 헤드와 코털 칫솔모가 특징. 레귤러 칫솔 4900원 유시물.

9. 꼼꼼하고 아무진 칫솔 9.  
editor LEE HAMIN photographer CHUNG WOORYOUNG



지금 가장 이목을 끄는 소식을 한 곳에 모았다.

**(FREDERIQUE CONSTANT)** 프레드릭 콘스탄트 하이라이프 월드타이머 메뉴팩처



러그의 양 끝부분을 독특하게 절개한 월드타이머 워치. 다크 블루 다이얼 위에 새겨진 지구 형상과 24개 도시의 표준 시간대를 나타내는 디스크가 특징이다.  
문의 02-310-1970

**(IWC)**

IWC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탐건 우드랜드



해군 전투기 학교 탐건의 유니폼에서 영감을 얻었다. 조종사들이 훈련하는 광활한 숲의 색을 시계 전체에 입히고 케이스백은 독자적인 기술로 얻은 세라타늄 소재를 사용했다.  
문의 02-778-7870

**(TAG HEUER)**

태그호이어 까레라 × 포르쉐 리미티드 에디션



트랙에서 질주하는 포르쉐 레이싱카에서 영감을 받은 시계. 블랙 레더 스트랩은 아스팔트를, 옐로 스티치는 트랙 라인을 오마주했다.

1500피스 한정 출시하며 케이스백에는 에디션 넘버가 적혀 있다. 국내에는 오직 50피스만 사전 예약을 통해 판매될 예정.

문의 02-3479-6021

IT'S HOT



**(ORIS)**

**오리스 프로파일릿 X 캘리버 400**



독특한 형태의 나선형 베젤은 제트엔진 속 터빈 블레이드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케이스는 39mm로 이전 모델에 비해 작아졌으며, 티타늄 소재로 완성했다.

문의 02-790-6672

**(TISSOT)**

**티쏘 PRX 35mm 쿼츠**



1978년 모델을 복각한 2021 티쏘 PRX 모델이 남녀노소 모두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35mm 사이즈로 출시됐다. 컬러는 그린과 블루, 옐로 골드 등이 있다.

문의 02-2142-6118

**(BREITLING)**

**브라이틀링 2022 뉴 내비타이머**



내비타이머 탄생 7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워치. 12시 방향의 날개 로고와 3개의 크로노그래프 카운터는 그대로 유지하고 블루, 그린 등 다채로운 컬러 다이얼로 출시했다.

문의 02-3448-1230

**(GLYCINE)**

**글라이신 시계 한국 론칭**



방수 기술이 뛰어난 스위스 워치 브랜드 글라이신이 한국 시장 론칭을 알렸다. 제품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855-0628



(OMEGA)

오메가 공식 온라인 부티크



오메가가 공식 온라인 부티크를 오픈한다. 그동안 물리적 접근이 어려웠던 고객과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MZ세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할 예정.

문의 0507-1344-3310

(TIFFANY & CO.)

티파니 T 스마일 펜던트



웃는 입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티파니가 특별한 아이템을 추천한다. 활짝 웃는 입 모양을 형상화한 T 스마일 펜던트가 소중한 이에게 마음을 전한다.

문의 02-6250-8620

(FENDI)

펜디 플로우 샌들



다가오는 여름을 위한 펜디의 남성 샌들. 크로스오버 리본 밴드에 아이코닉한 FF 모티브와 펜디니스 스냅 버클 장식을 더해 캐주얼하면서도 유니크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문의 02-3449-5142

(MONCLER)

몽클레르 지니어스 x 젠틀몬스터



디지털 시대 속 현대인의 감정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 컬렉션 속 모든 아이템은 블랙 컬러로만 구성했고 아이웨어뿐 아니라 의류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514-0900



(MCM)

엠씨엠 체인 레더 드로스트링 백



브랜드 레터링이 돋보이는 나과 가죽 버킷백. 지속 가능한 친환경 코튼 안감을  
사용했다. 가죽 스트랩은 탈부착이 가능하며 블랙, 그린, 핑크 세 가지 컬러로 구성했다.

문의 02-540-1404

(DELONGHI)

드롱기 데디카 메탈릭스



이전 모델보다 업그레이드된 반자동 커피 머신으로 쉽게 홈카페를 즐길 수 있다.  
슬림한 디자인이 돋보이며 템퍼, 스팀 피처 등을 포함한 바리스타 팩을 제공한다.

문의 02-3277-0594

(BERLUTI)

벨루티 사보아 페어



벨루티 컬러리스트의 레더 작업 과정을 볼 수 있는 공간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브랜드의 노하우를 보여주는 아틀리에로 벨루티의 독특한 염색 기법인 파티나를 경험할 수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4층 벨루티 매장 옆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7-1895



(AËSOP×RICK OWENS)

이슈 × 릭오웬스 리미티드 컬렉션



두 브랜드의 감성을 아로마틱 캔들, 스토티크 오 드 뚜왈렛, 트래블 키트 등으로 표현했다.  
블랙 페퍼와 코리앤더 시드, 파출리의 조화가 돋보인다.

문의 1800-1987

(CHANEL)

샤넬 × BIFF 아시아영화아카데미

**BAFA** CHANEL X BIFF  
ASIAN FILM ACADEMY

샤넬과 협업해 부산국제영화제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아시아 영화  
인재 발굴 및 양성을 모토로 다양한 교육 기회 및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2-3675-5097

(BRIONI)

브리오니 오 드 퍼퓸 에끌라



아침의 상쾌함과 저녁의 안락한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았다. 자몽, 핑크 페퍼, 장미와 머스크 향의 조화가 인상적이며  
친환경 생산 공정으로 만든 유리 보틀과 패키지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용량은 60mL와 100mL로 구성했다.

문의 02-3479-6250

IT'S HOT





제품 전시 감상 및 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래그십 스토어가 리오픈했다.

아시아 최초로 비스포크 프로그램을 통해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품과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도 운영한다.

문의 02-518-1380



소노호텔앤리조트에서 선보이는 와인 테이스팅 투어 프로그램. 다양한 와인을 즐길 수 있으며 이용객에게

와인 리플릿과 미니 페어링 푸드 컵을 제공한다. 7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는 운영하지 않는다.

문의 1588-4888



<에스콰이어>가 선별한 이달의 소식.

그랜드 세이코 에블루션 9



새로운 스프링 드라이브 스포츠 워치 컬렉션으로 다섯 가지 시계를 선보인다. 핸즈와 인덱스는 루미브라이트 소재로 코팅해 어두운 밤에도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18-2218

쇼파드 L.U.C 풀 스트라이크 사파이어



케이스와 크라운, 다이얼, 케이스백을 모두 사파이어로 완성했다. 무브먼트가 훤히 보이는 투명한 디자인과 다이아몬드에 버금가는 강도가 특징.

문의 02-3479-1808

블랑팡 에어 커맨드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1950년대에 출시한 블랑팡 크로노그래프에서 영감을 받았다. 짙은 블루 컬러의 다이얼과 가독성을 높인 슈퍼 루미노바 핸즈를 조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문의 02-6905-3367

브리스톤 클럽마스터 엘레강스 실버



브리스톤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메탈 컬렉션. 37mm 크기의 스퀘어 케이스로 남녀 모두 착용하기 좋다. 다이얼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2-759-6708

론진 스피릿 줄루 타임



스피릿 컬렉션에 새롭게 추가된 GMT 파일럿 워치. 24시 눈금을 더한 양방향 회전 베젤과 GMT 핸즈로 여러 타임존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479-1940

로저 드뷔 엑스칼리버 원탁의 기사 모노투르비용/X



인덱스 대신 12명의 원탁의 기사 미니어처로 다이얼을 장식했다. 핑크 골드 소재의 미니어처는 6mm 크기로 제작했으며 12개의 모양을 모두 다르게 완성했다.

문의 02-3479-1403

미도 멀티포트 스키텔론 버티고



지름 42mm 스틸 케이스에 앙트라시트 컬러 다이얼로 완성한 워치. 다이얼 내부의 정교한 스키텔론 무브먼트가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3479-6230

예거 르쿨트르 <THE REVERSO STORIES> 전시회



리베르소 모델의 출시 91주년을 기념한 전시회. 전시는 리베르소를 메인으로 특별 제작한 3차원 작품과 함께 오는 5월 25일부터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79-1882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전주국제영화제 영화 <네이처> 상영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을 통해 처음 공개된 아르타바즈드 펠레시안 감독의 영화 <네이처>가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마스터스 부문에 올라 5월 7일까지 상영될 예정이다.

문의 02-518-0748



불가리 카카오톡 선물하기 브랜드 스토어



불가리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오프라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매는 물론이고 수리 상담 A/S 등을 보다 쉽고 빠르게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2-3479-6076

프레드 Live the Joy 캠페인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담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즐거운 순간에도 빛나는 주얼리를 자연스럽게 소개한다.  
문의 02-3479-1784

골든구스 선글라스 컬렉션



브랜드 특유의 빈티지 무드를 살린 선글라스 컬렉션. 아세테이트와 메탈 소재를 적용한 프레임으로 총 다섯 가지 제품을 선보이며 모든 제품에 아이코닉한 스타 로고를 새겼다.  
문의 02-519-2937

로에베 파울라 이비자 컬렉션



이비사섬의 자유로운 바이브와 쾌락의 향연을 주제로 완성한 컬렉션. 스팅글 장식, 옹브레 컬러 기법, 루스한 실루엣을 활용해 경쾌한 에너지를 표현했다.  
문의 02-3479-1785

캘리웨이어패럴 2022 S/S 컬렉션



고급 리넨과 니트 소재를 사용해 여름부터 간절기까지 착용할 수 있다. 핏드와 일상의 구분 없이 스타일링할 수 있는 디자인이 특징.  
문의 02-3218-7400

휠라 2022 테니스웨어 화이트 라인



MZ세대를 겨냥한 기능성과 디자인이 돋보인다. 두 가지 콘셉트로 특히 액티브 오프 라인은 운동 전후와 일상에서 모두 착용 가능하다.  
문의 02-3470-9790

브로이어 폴로셔츠



산뜻한 컬러와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완성한 폴로셔츠. 실용적인 소재와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컬러 스펙트럼으로 울여름 데일리 셔츠 아이템을 선보인다.  
문의 02-3438-6229

휴고 보스 아카데미 시상식 배우 트로이 코치



배우 트로이 코치가 제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청각장애인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시상 순간에는 보스의 커스텀 턱시도를 입고 자리를 빛냈다.  
문의 02-3467-8359

클럽 모나코 리넨 포켓 셔츠



리넨으로 만든 데일리 셔츠를 출시했다. 여유 있는 실루엣과 가슴의 포켓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것이 특징. 컬러는 카키와 라이트 핑크 두 가지.  
문의 02-518-2252



폴로 랄프 로렌 익스클루시브 모어하우스 & 스펠만 칼리지



유서 깊은 두 대학의 전통적인 입학 행사 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 시그니처 테일러링을 가미해 브랜드의 개성을 살렸다.  
문의 02-6004-0220

발렌티노 가라바니 VLTN 호보백



브랜드의 상징을 담은 VLTN 호보백이 가을 시즌 남성 컬렉션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날렵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과 은은한 광택을 살린 디테일로 젠더리스 스타일을 선보인다.  
문의 02-3479-1799

닥터마틴 컬러블록 컬렉션



세 가지 디자인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블랙과 그린, 옐로의 컬러 대비로 기존의 컬렉션과 다른 느낌을 선보인다.  
문의 02-3479-1930

에코 아스터 컬렉션



브랜드가 직접 생산한 프리미엄 가죽의 질감이 돋보이는 데일리 스니커즈. 충격 흡수에 우수한 포렌 소재가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문의 02-3438-6016

코치 필로우 매디슨 솔더백 워드 퀼팅



고급 퀼팅 가죽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솔더백. 외부 슬림 포켓과 시그니처 턴-록 잠금장치가 포함되어 실용적이다. 컬러는 세 가지.  
문의 02-3467-8429

빅토리눅스 스펙트라 3.0



재활용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완성한 새로운 캐리어. 사이즈는 기내용·미디엄·라지·트렁크 네 가지로, 컬러는 블랙과 레드 두 가지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143-7321

알렉산더 맥퀸 스프린트 러너 라인



크롬 프리 스웨이드 소재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더했다. 고무 소재의 경량 언더솔로 활동성을 높이고 시그니처 힐 카운터로 개성을 살렸다.  
문의 02-6905-3472

고야드 클레흐부아 인 인디아



인도의 홀리 축제에서 영감을 받은 스페셜 에디션. 인도의 궁전 장식 및 건축물의 다양한 컬러를 사용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토틸백과 미니 토틸백으로 구성.  
문의 02-3448-4778

둘체앤가바나 라이트 블루 이탈리아인 러브



팜므와 옴므 두 가지로 구성된 향수 에디션. 우디 베이스로 시트러스 향, 프루티 프로페럴 향을 더했다.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푸른빛의 보틀이 특징.  
문의 02-3438-6252



펜탈리곤스 할페티 헤어 퍼품



앰버, 자몽, 커민, 장미 등의 다양한 향 조합으로 만든 헤어 퍼품. 제품에 함유된 아르간 오일과 비타민 E는 손상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준다.  
문의 02-2639-1568

피지오겔 선 케어 3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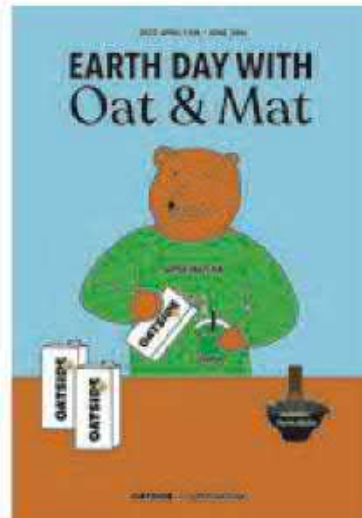
여름철 쉽게 건조해지는 피부에 적합한 선 케어 라인. 세 가지로 구성되어 피부 타입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다.  
문의 080-023-7007

키엘 울트라웨이셜 크림 기프팅 에디션



가정의 달을 맞이해 기존의 용기 디자인에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를 더해 재출시했다. 구매 고객 대상으로 선물 포장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문의 02-3438-6152

오트사이드 x 슈퍼말차 스페셜 협업



지구의 날을 맞아 귀리 음료 오트사이드와 말차 브랜드 슈퍼말차가 비건 식물성 말차 라테와 보리 라테 2종을 선보인다. 판매는 4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진행한다.  
문의 02-6953-3882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마리포사 & M29 테라스



호텔 레스토랑과 루프톱 바에 테라스를 추가해 오픈한다. 도심의 전경과 한강을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5월 1일 오픈 예정.  
문의 02-3395-6000

시몬스 x 케즈 컬래버레이션 컬렉션



화이트, 옐로, 레드 컬러의 스니커즈와 스웨트셔츠로 구성된 케즈와의 협업 컬렉션. 특히 스웨트셔츠 팔꿈치 부분에 부착된 파란색 패치워크가 포인트.  
문의 1899-8182

볼보 C40 리차지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 획득



볼보 C40 리차지가 충돌 테스트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순수전기 SUV로 전용 TMAP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02-515-9090

발베니 메이커스 캠페인



유기와 옷칠을 사용하는 작가 문채훈과 협업한 에디션을 선보인다. 발베니의 개성과 한국의 전통 공예가 만난 작품으로 경매를 통해 판매될 예정.  
문의 02-2152-1600

글렌피딕 26년 그랑코론



26년간 숙성된 위스키 원액을 프랑스산 코냑 캐스크로 옮겨 2년간 추가 숙성했다. 사과 타르트가 연상되는 달콤한 향과 맛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2-3449-4114





essoco

# Sport maca 풍석있는 남자의 선택



신세계백화점 본점 / 강남점 / 영등포점 / 경기점 / 센텀시티점 / 의정부점 / 대구점 / 하남점 / 마산점  
PK Market 스타필드 고양 / 스타필드 하남  
SSG 푸드마켓 청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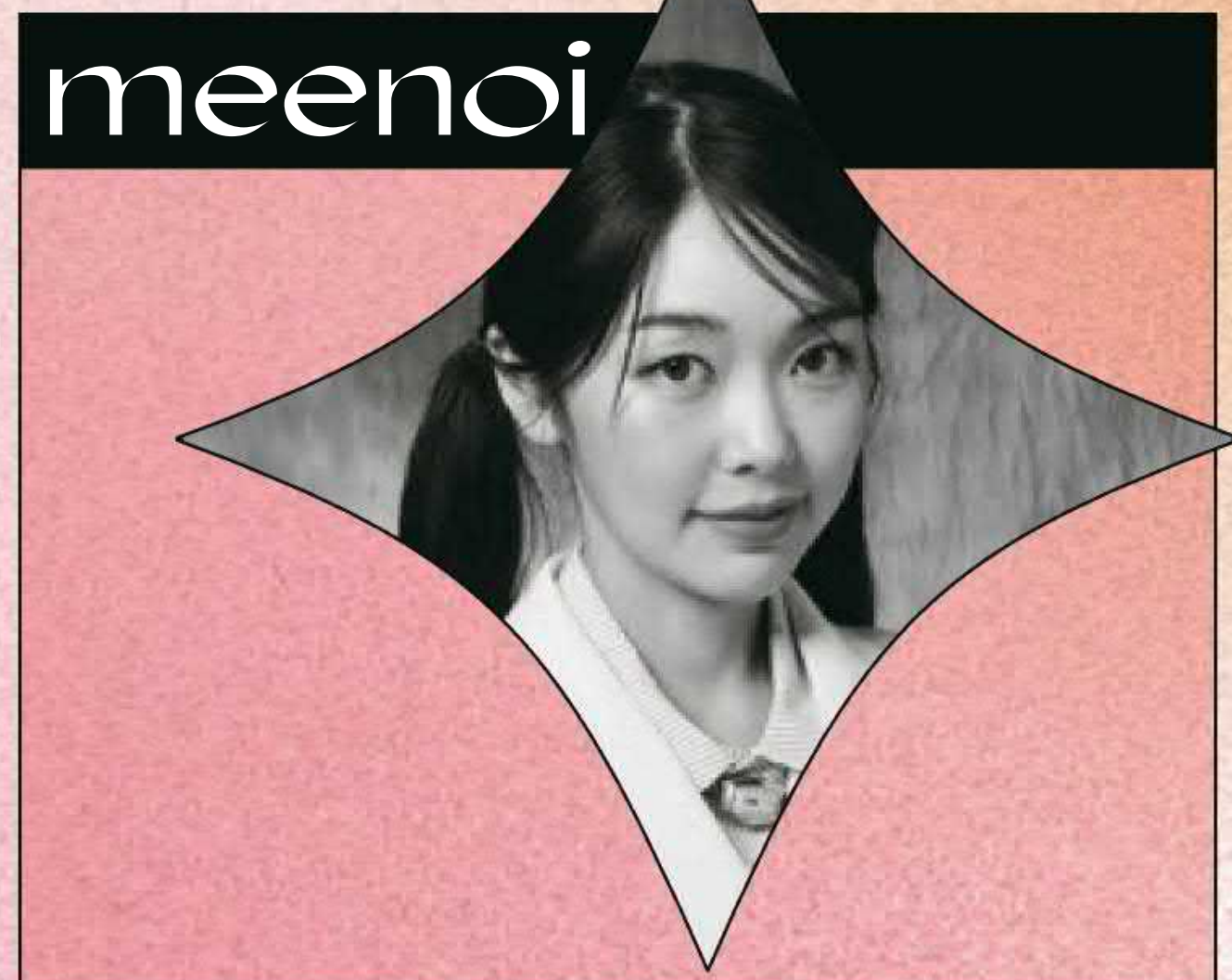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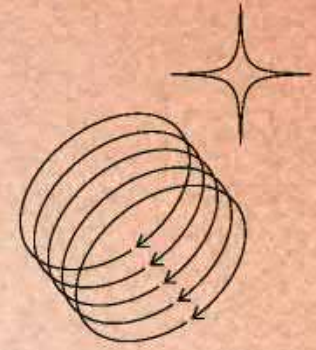
ESSOCO.COM



# ELLE stage × CITY FORESTIVAL

2022 ⊕ BARREL FIT

음악으로 전하는 <엘르>식 안부! 엘르 스테이지가 맑은 봄날 사랑이는 노을 사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강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10CM, 미노이, 조지, 유라의 무대로 채워질 엘르 스테이지를 만나보세요.  
 완벽한 순간을 위한 피크닉 세트도 준비했습니다. 한정판 티켓은 4월 27일 Yeet, 네이버 예약에서 오픈됩니다.  
 @ELLEKOREA #ELLE스테이지 #ELLE뮤직프로젝트







**코스모폴리탄 에디터스 픽을 온라인 최저가로!**



# 최저가?

# 코스모폴리탄

# 가보자고!



코스모폴리탄 에디터스 픽 IN 온누리스토어

매주 바뀌는 제품과 솔직한 에디터 리뷰로 현명한 쇼핑 즐기세요! 코스모폴리탄 에디터가 큐레이션한 제품을 착한 가격으로 만나세요.



## FASHION

10 꼬르소 꼬모 서울 10corsocomo.co.kr  
 JW앤더슨 shop.ihanstyle.com  
 구찌 gucci.com  
 김서룡 kimseoryong.com  
 플로디피에로 idlookmall.com  
 나이키 nike.com  
 네이비 바이 비온드클로젯 beyondcloset.com  
 느와르 라르메스 noirlarmes.co.kr  
 데밀 demilmfg.com  
 돌체앤가바나 dolcegabbana.com  
 디스퀘어드2 dsquared2.com  
 디올 맨 dior.com  
 랄프 로렌 퍼플 라벨 ralphlauren.co.kr/ko/men/purple  
 렉토 recto.co  
 로에베 loewe.com  
 루이 비통 kr.louisvuitton.com  
 룩소티카 luxottica.com  
 리 leekorea.co.kr  
 리바이스 levi.co.kr  
 막시밀리안 maximilian.it  
 말본골프 malbongolfgkorea.com  
 메종키츠네 ssfshop.com  
 몽블랑 montblanc.com  
 몽클레르 moncler.com  
 문선 moon-sun.co.kr  
 미스터포터 mrporter.com  
 미우미우 miumiu.com  
 바버샵 barbershop.co.kr  
 발렌티노 valentino.com  
 베르사체 versace.com  
 베르소 shopverso.kr  
 블레스 bless-service.de  
 블루스맨 bluesman.co.kr  
 비뮈에트 bmuette.com  
 비이커 ssfshop.com  
 사카이 sivillage.com  
 샌프란시스코마켓 sfmen.co.kr  
 생 로랑 ysl.com  
 세르지오로시 sergiorossi.com  
 셀린느 옴므 celine.com  
 슬로우스테인디클럽 slowsteadyclub.com  
 씨피컴퍼니 cpcompany.com  
 아더에러 adererror.com  
 아데쿠베 adekuver.com  
 아모멘토 amomento.co  
 아미 amiparis.com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mcqueen.com  
 알렉산더 왕 alexanderwang.com  
 에르메스 hermes.com  
 에트로 etro.com  
 오클리 oakley.com  
 유니페어 unipair.com

유저 youser.co.kr  
 젠틀몬스터 gentlemonster.com  
 준야 와타나베 꼼데가르송  
 comme-des-garcons.com/junyawatanabe.html  
 지 스트리트 494 옴므 플러스 dept.galleria.co.kr  
 지방시 givenchy.com  
 질 샌더 jilsander.com  
 처치스 church-footwear.com  
 테켓 te-ket.com  
 텔파 shop.telfar.net  
 톰 포드 tomford.com  
 펜디 fendi.com  
 폴로 랄프 로렌 ralphlauren.co.kr/ko/men/polo  
 프라다 prada.com  
 하이츠 스토어 heights-store.com

## GROOMING

SSG닷컴 ssg.com  
 TS trillion.com  
 고메 494 gourmet494.com  
 고미가 gomiga.kr  
 그라펜 grafen.co.kr  
 낫담 brand.naver.com/notdam  
 다슈 hairwax.co.kr  
 닥터포헤어 drforhair.co.kr  
 더콘란샵 conranshop.kr  
 라 뷁게르 la-vigueur.com  
 라로슈포제 larocheposay.co.kr  
 래디어스 smartstore.naver.com/radiustoothbrush  
 러쉬코리아 lush.co.kr  
 레드노즈 smartstore.naver.com/rednosegrooming  
 레이라이트 layrite.com  
 레트로비 retrobee.com  
 루비스 코리아 shop.rubis.co.kr  
 루치펠로 rucipello.com  
 리앤코 linkosoooft.modoo.at  
 리우젤 코리아 reuzelkorea.co.kr  
 리퀴드 퍼퓸바 thehandsome.com  
 리파 koshop.co.kr  
 메디필 medipeel.co.kr  
 바이레도 sivillage.com  
 브로쉬 instagram.com/brosh.kr  
 비셀메드 smartstore.naver.com/beecellmed  
 솅퓨리 soapuri.co.kr  
 아로마티카 aromatica.co.kr  
 아로망 aromang.com  
 아스티에 드 빌라트 bmk ltd.kr/astierdevillatte  
 아이엔씨 허브 smartstore.naver.com/inchub24  
 아쿠아 디 파르마 acquadiparma.kr  
 알페신 smartstore.naver.com/alpecin  
 어퍼컷디럭스코리아 ucdkorea.com  
 엔비네이처 smartstore.naver.com/envynature  
 오르메 ormaie.paris

오피신 유니버셀 불리 brand.naver.com/buly  
 유시몰 millionbeauty.co.kr  
 이솝 aesop.com  
 조 말론 런던 jomalone.co.kr  
 코바샵 smartstore.naver.com/barbershop  
 콜게이트 clubcolgate.com  
 큐라덴 큐라프록스 curaprox.co.kr  
 틱탑 instagram.com/tiptoppomade.kr  
 파나소닉 panasonic.co.kr  
 포레오 brand.naver.com/foreo  
 프로스펙터스 prospectorspomade.modoo.at  
 하킷 hakit.co.kr

## WATCH & JEWELRY

IWC iwc.com  
 그랜드 세이코 grandseiko.co.kr  
 까르띠에 cartier.co.kr  
 로저드뷔 rogerdubuis.com  
 몽블랑 montblanc.com  
 부첼라티 buccellati.com  
 불가리 bulgari.com  
 샤넬 chanel.com/kr/watches  
 센티멍 sentiments.co.kr  
 스와로브스키 swarovski.com  
 아몽즈 amondz.com  
 에르메스 hermes.com/kr/ko/category/watches  
 오메가 omegawatches.co.kr  
 위블로 hublot.com  
 제니스 zenith-watches.com  
 큐밀리너리 qmillinery.com  
 크롬하츠 thechromehearts.com  
 태그호이어 tagheuer.com  
 티파니앤코 tiffany.kr  
 파네라이 panerai.com  
 피아제 piaget.com

## CAR & TECH

LG전자 lge.co.kr  
 소너스파베르 sonusfaber.com  
 페라리 ferrari.com

## PLACE

구찌 오스테리아 gucci.com/kr/ko/st/osteria-main  
 리만머핀 서울 lehmannmaupin.com  
 아뜰리에 에르메스 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토마스 파크 갤러리 thomaspark.site

## ETC

39etc 39etc.com  
 포티 shop-4t.com



없던 윤리가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에스콰이어 코리아>는 지금까지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최첨단 윤리의 쟁점을 철학자와 함께 고민해보려 한다.

**Q**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일하는 병원은 한 명만 빠져도 업무 강도가 높아집니다. 오죽하면 휴가도 서로 상의해서 낼 정도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9명 중 4명이 연달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 걸리지 않은 저 같은 사람만 2~3배 일을 더 한 셈입니다. '무증상이라 아프지도 않고 집에서 폭 쉬고 왔다'는 동료의 말을 들었을 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이럴 때에는 차라리 코로나에 걸려 자가격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요즘은 확진자가 몇십만 명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들어도 예전만큼 놀랍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합법적 유급휴가이자 폭 쉬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죠. 건강한 게 억울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때 '나도 코로나에 걸려 폭 쉬고 싶다'는 마음은 '인지상정(人之常情)'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정서나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제 주변에도 코로나로 격리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고, 욕구하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오랜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불평등 회피(inquity aversion)'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발(Frans B. M. de Waal)의 '카푸친 원숭이 실험'은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드발 박

사는 원숭이 두 마리에게 일을 시킨 후 오이를 주었습니다. 원숭이들은 보상 때문에 열심히 일했죠. 그러다 그중 한 마리에게만 포도를 상으로 주었더니 오이만 받은 원숭이가 처음엔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어리둥절은 분노로 바뀝니다. 오이를 집어 던지더니 아예 과제를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이 실험을 통해 드발 박사는 불평등과 부당한 분배에 대한 분노는 인간뿐 아니라 영장류의 본능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도 남이 더 많은 보상을 받으면 박탈감을 느끼며, 질투와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질투나 분노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자기 자신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를 통해 주변 상황이나 타인의 삶을 속속들이 보며 비교할 수 있는 소비사회에서 이기심이나 분노는 자아에 독이 되기 쉽습니다. 현대사회라는 구조 자체가 심리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의 사회>의 저자인 프랑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소비사회의 성장 동력은 평등해지려는 욕구이지만, 물질적 성장을 통한 불평등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비를 통해 표출되는 욕망은 미디어가 만들고 인정하는 기호화된 욕망이기에 개인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회와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과시적 욕망에 빠지는 것은 '자기기만(mauvaise foi)'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기만이란,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왜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사물화된 존재로 스스로를 변질시키며 소외되는가?'라는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개념입니다. 그가 말하는 자기기만은 자신을 의식적으로 속인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강요하고, 유포하는 잘못된 가치관과 신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믿음을 관성적으로 좇는 행동입니다. 자기기만이 반복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마주할 때 그것을 압박감과 불안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니체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기만의 함정에 빠지는 존재라고 꼬집었습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타자의 욕망, 인간 본질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자기기만의 감정 그리고 현실에 쉽게 타협하려는 무기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봅시다. 코로나에 걸리면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처럼 '슈퍼 항체'가 생기고, 일주일 동안 편하게 지내면서 잠시 여유를 만끽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상황에 자신을 맡기는 전형적 자기기만입니다. 최근 '롱 코비드(Long COVID)' 현상도 심심찮게 많이 보도되는데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회복된 후에 계속 기침, 두통, 수면장애, 무기력 등 다양한 후유증에 계속 시달리는 것입니다.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처럼 인생은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긴 안목으로 삶을 보면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현재에 충실한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좋고 나쁜 상황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

### Who's the writer?

김석은 건국대학교 철학과 교수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을 거쳐 파리8대학 철학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에크리, 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프로이트 & 라캉, 무의식의 초대> <자아, 친숙한 이방인> <프로이트 꿈의 해석> 등을 썼다.







VICTORINOX



## MAVERICK CHRONO

# OPTIMUM CLARITY BENEATH THE WAVES

For those who long for a precision watch: meet the Maverick Chronograph. Boasting Swiss made quartz movement and stainless steel case for optimum performance.

스타필드 하남점 2F 031-8072-8399 롯데 잠실점 3F 02-2143-7321

FROM THE MAKERS OF THE ORIGINAL SWISS ARMY KNIFE  
ESTABLISHED 1884





GUCCI